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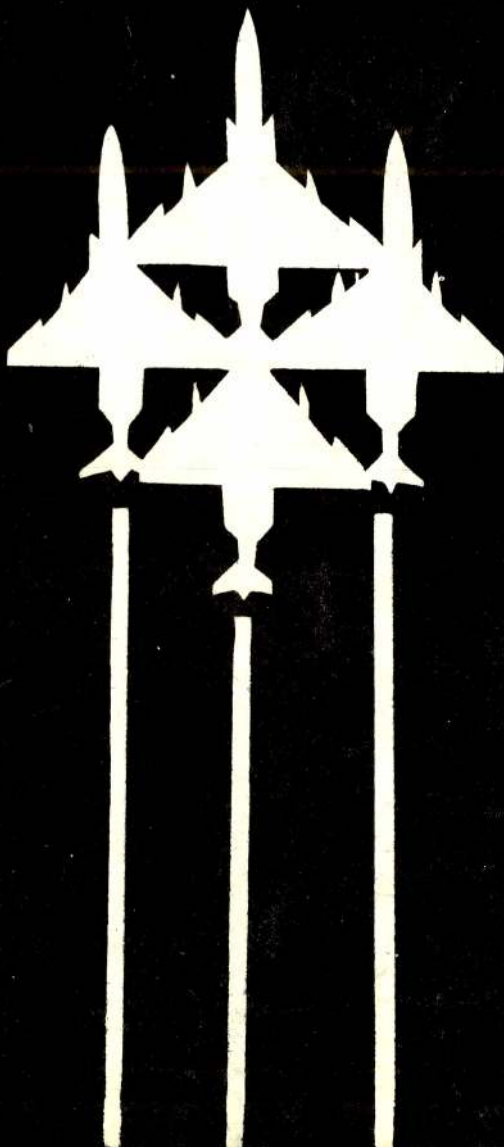
경진

1972



1972년 11월 4일 인쇄
1972년 11월 10일 발행

〈제 131 호〉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공본예방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클레이」대장이 9월 30일,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우루과이 합참총장 공본예방

우루과이 합참총장 Alrarez 대장이 10월 2일,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참모들의 영접을 받았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신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공본예방

신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오렌」소장이 지난 8월 14일, 취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육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참모들의 영접을 받았다.

한 신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예방

합참의장 한 신대장이 8월 4일, 공군본부로 육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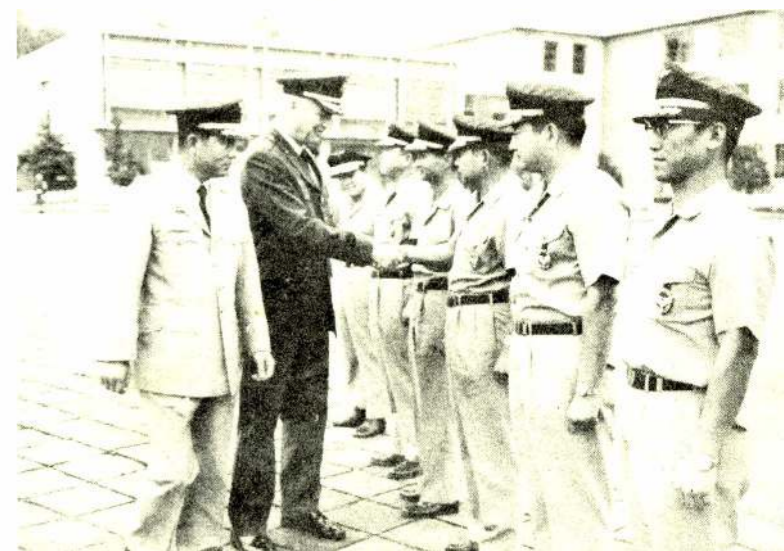


이임 UN군 사령관 공본예방

이임하는 UN군사령관 「마이켈리스」대장이 8월 25일, 이임인사차 공군본부로 육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신임 UN군사령관 공본예방

신임 UN군사령관 「베네트」대장이 지난 9월 7일, 취임 인사차 공군본부로 육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권두언 정훈감 신 찬 (2)
 국군의 날 24주년 공군 참모총장 옥 만 호 (4)
기 념 사 박 목 월 (6)
축시 날면서 성장하는 박 목 월 (6)

국군의 날 기념식 화보

특별정훈교육 자료
 국내외 정세와 군의 자세 임 방 현 (8)
 제 2 전력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김 근 전 (26)

장 덕창 장군을 추모함 편 집 실 (64)
논 지휘관론·부하론 박 경 석 (34)
단 명령위반죄와 대법원 판례 홍 용 표 (157)
 가치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 형 호 (149)

정예 공군으로의 힘찬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 · 원 병의 (60) · 성 경린 (56) · 나 필성 (58) · 강 용구 (61)
집 <수원시장> <국립국악원장> <대한일보 편찬위원> <공군 제 3593부대 정훈관실장>

그 당시를 되돌아 본다 최 인 욱 (98)
창공 구락부 시절 최 정 희 (102)
 일하는 보라매의 진중일기 박 해 중 (69)
보람에 산다 조 은 호 (66)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별들

특 · 이 근석 장군 (79) · 박 범집 장군 (84) 박 건 수 (78)
집 · 김 영환 장군 (87) · 이 기협 대령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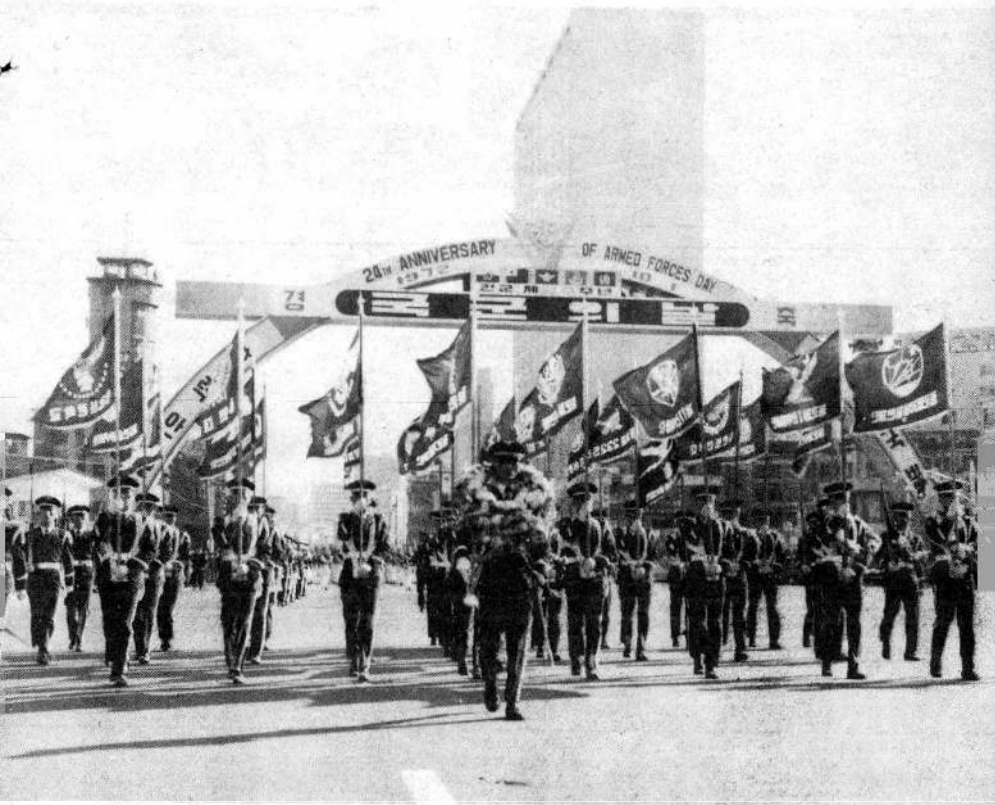
항공군사과학
 비 파괴검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김 철 식 (164)
 B-29의 전략폭격 활동 심 사 수 (170)
연재 이스라엘군의 발전사(중) 허 돈 구 (183)

군종 코너
 · 제 2 전력운동과 종교의 사명 김 현 기 (137)
 · 나를 이해하자 김 두 식 (130)
 · 가톨릭의 국가관 박 순 재 (142)
 · 기독교와 애국심 김 영 호 (135)
 · 불교사상으로 본 호국정신 이 인 수 (144)

취미코너 생활스포츠로서의 등산 임 회 자 (111)

연재 숨겨진 이야기들(3) 전 재 수 (120)
만화 공군만상 박 진 래 (76)
 독 후 감 라·만차의 사나이 문 중 진 (106)
 시 상 황 지 광 현 (75)
헌법개정안 해설 편 집 실 (206)

기념식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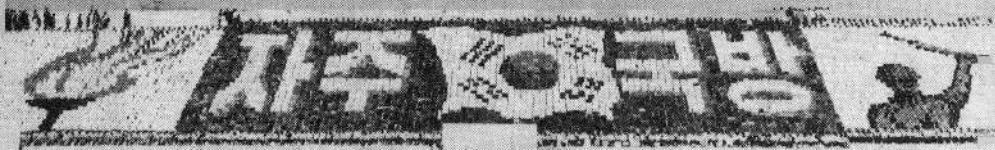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성년을 넘어선 막강한 공군으로 자라났다.
힘찬 전진을 위하여 우리는 정예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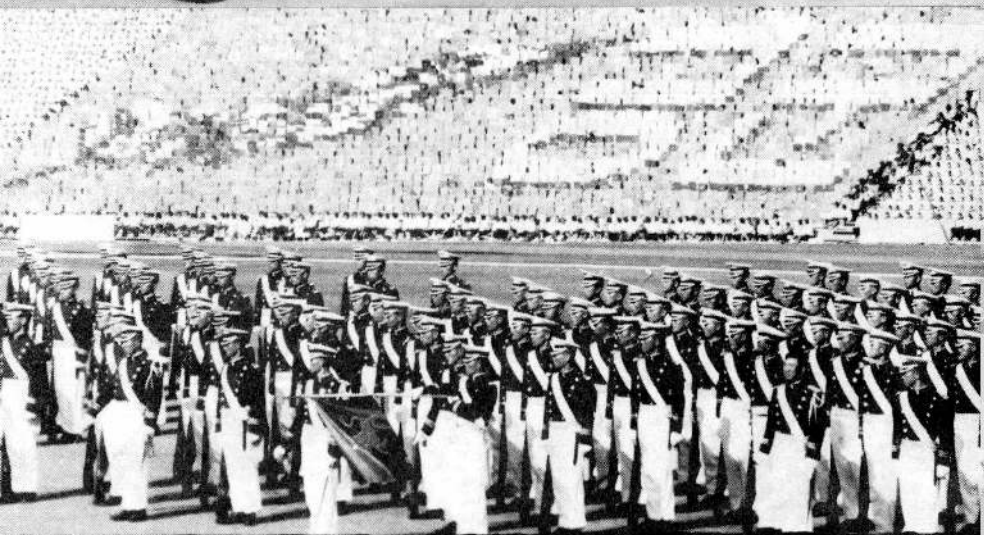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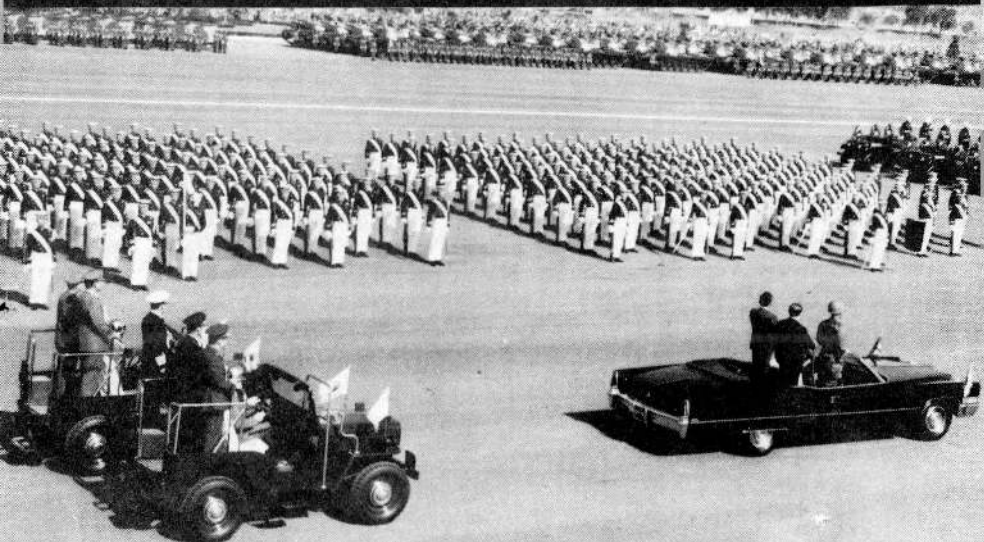
믿음직한 하늘의 용자! 공군은 죽어도, 또 죽어도 겨레와 민족을 위해 싸울 것이다. 총력안보의 기수, 공군의 편대비행

새로운 시대적 사명감 속에서 공군은 자주국방의 전위로서 정예화의 힘찬 전진을 계속, 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국 공군 대령장관이 축하를 올림

현대전의 주역으로서의 공군은 오늘날 막강한 증강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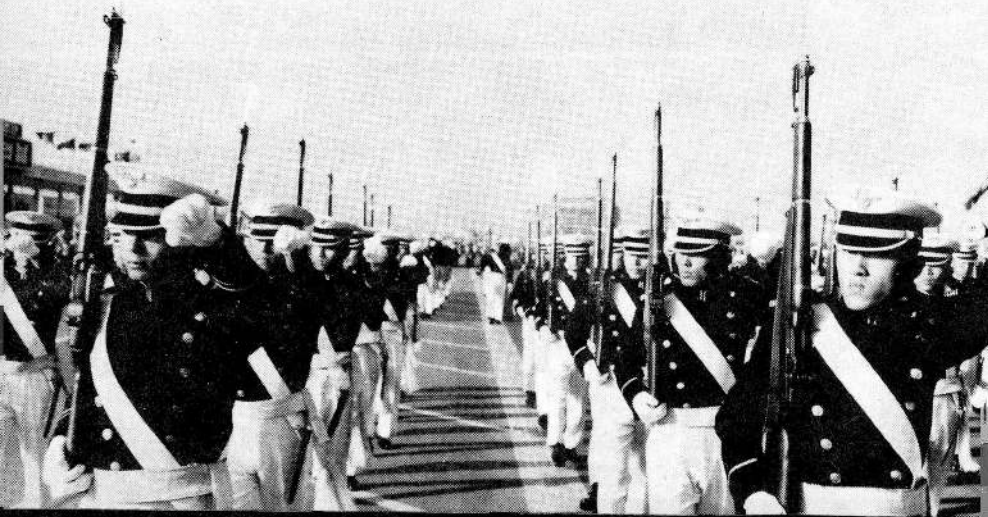


원색으로 펼쳐지는 카아드 색션!

조국의 아들로서 명예로운 일은 조국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공군 군기단의 분열 행진

오늘날 한국 공군은 전장병이 함심단결, 일체감 속에 성임을 다하고 있다.



메추리 사관생도의 분열

공군의 발상지였던 여의도. 내일의 조국에서 공군의 주역이 될 이들의 모습은 늠름하기만 하다.



꽃가루와 색종이가 날리는 가운데 공군 제병지휘부가 석탄공사 앞을 지나 시가행진에 임하고 있다.

보무도 당당히 공군 군기단은 대한일보사 앞을 통과하고 있다.
공군의 전부대는 오늘도 사명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우리 국민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긍지는 크
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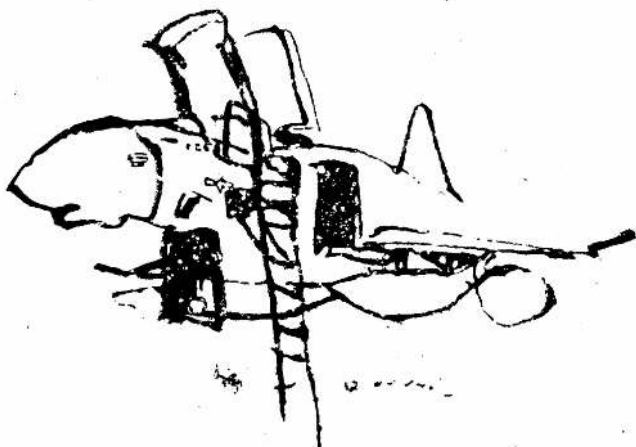


시가행진을 하는 제병지휘관에게 한 아가씨가 꽃다발을 걸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공군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공군

제 131 호

1972년 제 5 호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계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락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권 두 언

공군창설 23주년에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북한에서 적십자대표란 사람들이 왔었다. 그리고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협의를 했다. 해방 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실로 이적(異蹟)에 틀림 없다.

그런데 이들 적십자대표들은 남한의 정당 이름을 불러대며 협의하자고 떠들었다. 또 이들은 남한의 노동자 농민을 부르면서 소위 「김일성 교시」 운운하는 선전도 했다. 그리고 민족통일의 전제없는 인도주의는 모른다고 단청을 부렸다.

그들은 과연 적십자대표란 말인가?

인도주의란 박애정신에 따라 인류의 공존·공생을 실현하려는 이상(理想)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국경이나 민족의 차이에 구애될 것도 없고 또 시대적 배경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적십자 정신은 포연(砲煙)이 자욱한 전쟁터에서 피아(彼我)의 구별없이 인명구조에 실제로 구현되고 있지 않는가? 또 무기를 버리고 수용된 포로들에게도 봉사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 않은가? 멀리 이름도 모르는 지역에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도 언제 나라와 민족을 따지고 구호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인도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민족통일의 정치적 문제를 인도주의에 밀착시키려 하는가?





그들 중에는 우리 시민이 손님예우로 환영의 뜻을 보인 것을 공산주의에의 동경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관용(寬容)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닐까? 또 여기 언론기관을 매수해서 자기들을 비방케 했다고 불평했다면 언론의 자유와 자주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탓일까?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을 관권의 작용으로 쉽사리 해석했다면 민주시민의 자존성을 아예 무시하고 하는 소릴 개다. 홍수같이 밀려가는 자동차 행렬을 복잡하다고 표현했고, 즐비하게 늘어선 고층건물을 보고 “왜 획일성이 없는가?”고 반문했다고 한다. 마음대로 거리를 달리고 또 크고 작고 마음내키는대로 지어는 것이 그들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역시 민주주의는 단숨에 소화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이렇게 곡해하게 된 것이 단순히 사상, 제도, 체제의 차이에서 온 것만은 아닌성 싶다. 적어도 그들의 사회체제를 우리 것의 상위에 놓고 관찰한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북한은 또다시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차 주변 정세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또 만약에 우리의 국력이 그들보다 약해졌다면 다음에 오는 그들의 대남전략은 무엇이겠는가? 모든 것이 자명한 노릇이다.

그래서 대화있는 대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의 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는 내실(內實)로 출발하여 내실로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공군의 경우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내실의 길이며, 이를 위해 전장병은 정예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군 정예화의 의의가 또 하나 느는 것이며, 공군창설 23돌을 맞아 이 새로운 의의를 자각해야 할 것이다.



• 국군의 날 23주년, 공군의 날 24주년 기념

참모총장 기념사



친애하는 공군장병 및 문관 여러분! 오늘 건군 24주년과 공군창설 23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이날을 경축함과 동시에 일찌기 공군창건에 희생적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이신 선배, 동지들의 값진 공헌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산화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지금도 맑은 바 치소에서 대담완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

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공군은 23년전 조국의 영공방위를 위하여 맨주먹으로 출발하여 그 동안 피와 땀으로 점철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드디어는 「마하 2」의 막강한 위용을 갖춘 현대공군을 이룩하고 세계공군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실로 감회가 깊은 것입니다.

이는 오직 건군이념에 부응하는 공군창설의 정신과 이에 집념해 온 선배, 동료들의 샘솟는 정열 및 불굴의 의지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후원의 보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관은 뜻깊은 오늘을 맞아 다시 한번 창군 당시의 벽찬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총력안보 수행을 위한 우리의 기본자세와 결의에 대한 다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앞날을 타개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선포와 총력안보태세 확립으로 내실(內實)을 기하는 한편 7·4

공동선언과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남북대화의 길을 열어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 달성을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종래의 긴장보다는 어려운 대결이 시작되었으며 남북대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역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사명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지난 날의 역사를 회고하기에 앞서 먼저 전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잠시라도 늦추지 않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자세를 더욱 굳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국영공수호의 첨병임을 자처하는 우리 공군은 지난 1년 동안 획기적인 전력증강과 현존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당면과제 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유형적인 전비태세 확립에 다대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앞으로 전개될 북한 공산집단과의 대화를 통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형적인 전력에 못지 않게 무형적인 정신전력이 더욱 강력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정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제 하에 모든 부문에서 막강을 과시하는 단합된 힘을 확보하고 유사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자위정신과 의지로써 새로운 전기의 연마는 물론 실전위주의 교육훈련과 일기당찬의 정신무장으로 양보다는 질을, 그리고 형식보다는 내면의 충실을 추구하고 효율적인 전력발휘를 위해 피눈물나는 노력과 모든 지혜를 집중시킴으로써 앞으로 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이념과 사상의 대결에 있어서도 필승을 다짐할 수 있는 물심양면의 정예화를 이룩하는데 전력해야 하겠습니다.

창군 23돌을 맞은 우리 공군 전장병은 다시 한번 오늘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명심하고 지금까지 전우들이 세워 놓은 빛나는 전통과 위업을 계승하여 자주공군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는 「정예공군」의 지상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고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자주국방의 기수로서 부과된 사명완수를 위해 배전의 노력과 분발로써 전투상비 「유비무환」의 새로운 결의를 다짐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병 여러분의 전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72년 10월 1일

•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옥 만 호

날면서 성장하는

박 목 월

은빛 편대가
무수히 솟아오른다.
지평 위로
솟아오르는
그것은
동에서
남에서
서에서
조국의 모든 지평 위에서
솟아오른다.
그
수직의 정열
그
직선적 투지.
모든 기수는 적의
심장부를 겨냥하여
오늘을 나는
날면서 편대는 늘어나고
날면서 성장하는
위대한 자유의 독수리.
날개의 태극기는
스크린에서보다 선명하고.
우러러보는 4천만의
눈동자에

신뢰를 심어주며
위용을 자랑하며
아낌없이 난다.
조국의 찬심을 나는
그것은
차라리 불꽃.
조국수호의 일념에 불타는
그것은
차라리 번개.
적을 심판하는.
위대한 자유의 독수리.
기수는
적의 심장을 겨냥하여
오늘을 나는
날면서 편대는 늘어나고
날면서 성장하는
그것은
완벽의 방패
그것은
절대의 힘.
그것은
자유의 화신.
그것은
순수의 표상.
조국의 찬심을 나는
은빛 날개마다
태극기가 찬연하게 빛나는
위대한
자유의
독수리.

국내외 정세와 군의 자세



임 방 현

<대통령 특별보좌관>

차 례

1. 국제정세의 변동

- 가. 냉전체제의 종언 및 긴장완화 추세
- 나. 극동지역에서의 4강국 전략
- 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2. 북괴의 전략 및 저의

- 가. 통일전략
- 나. 최근의 평화공세 및 저의

3. 국내정세

- 가. 민족중흥의 실천적 전개와 그 정신적 기반
- 나. 남북공동성명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1. 국제정세의 변동

가) 냉전체제의 종언 및 긴장완화 추세

1962년 '큐바 위기'를 고비로 하여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미·소 평화 공존체제는 60년대 후반에도 확실한 진전을 보여왔으나 금년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및 소련방문과 독·소, 독·파 불가침조약 및 4대국 베를린 협정을 결정적 계기로 굳혀졌다. 그러는 동안 서방세계에서는 일본과 유럽 공동체

의 열강으로서의 등장 및 프랑스의 독자적 핵무장, 한편 공산권에서는 중·소분쟁의 심화 및 동유럽의 동요 등으로 말미암아 전후의 미·소 및 동서양극체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미·소, 일·중공, 유럽공동체의 5대세력이 무력대결보다는 긴장완화로 세력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각기 자기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다원화되고 보다 복잡해진 정세로 변하게 되었다.

나) 극동지역에서의 4강국 전략

미국——이른바 「닉슨·독트린」을 표방하여 극동 및 아시아지역에서 지상군의 개입 등 직접적인 군사지원 부담을 덜고 해·공군 지원과 현지 국가의 자주국방력 강화로 국제분쟁을 국지화하고 한편 대중공관계 정상화모색, 대소 평화공존의 계속, 미·일 안보체제하의 대일 협조로 4개 열강간의 힘의 균형 형성을 통한 긴장완화 및 상호견제를 통한 공존구조의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

소련——미·중공 접근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일협조와 대미협조를 강화하고 장차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퇴를 예상하여 아시아 안보체제 구상을 내걸어 장기적 포석으로 나오고 있다.

중공——소련 견제와 일본 핵무장 억제를 주요목표로 대미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대일관계의 조정으로 대소견제 및 세력균형을 모색하고 대서방 경제협조를 노리고 있다.

일본——미·일 안보체제를 유지하되 경제강국으로부터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향하여 신중한 독자적 노선 모색을 추진중인 바 이를 위하여 대소, 대중공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4대강국간의 세력균형 모색이 계속될 것인 바 소련과 중공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바랄 것이나 북한공산집단이 서로 상대방에 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고착화 함으로써 현상

동결을 노릴 것이며, 한편 미국과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나 강국간의 세력균형과 이를 위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하여 사실상 한반도 분단상태 고착화 및 「두 개의 한국」 현실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분단국가 모순의 자주적 해결은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것인바 이에 있어서는 북한과 에누리 없는 「대화있는 대결」을 추진해 나가는 힘의 근본인 국력배양과 국민총화체제의 강화가 관건이 된다. 또한 주변 4강국의 힘의 균형 모색과 다각적 외교전개는 양국 체제하의 대치 긴장 때보다도 오히려 힘의 공백 또는 취약으로 인한 국지전 가능성을 크게 할 수도 있다.

2. 북괴의 전략 및 저의

가) 통일전략

한반도의 궁극적 적화통일 목표와 이를 위한 이른바 4대 군사노선에 의한 전쟁역량 준비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국제정세의 변화 및 남북간 힘의 대비 여하에 따른 전술변경이 있을 뿐이다.

나) 최근의 평화공세 및 저의

긴장완화를 향하여 움직여 나가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편승하고 특히 비상사태 선포 이후 취약점 보강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한 한국의 대응자세에 비추어 북한 공산집단은 집요하게 주장해 오던 미군철수 선행조건을 일단 완화하는 양 남북평화협정과 상호 감군 등을 내걸고 최근 평화공세를 격화시키고 있는 바 우리가 직시해야 할 그들의 저의는 ① 긴장완화를 표방함으로써 유엔군 및 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을 퇴색시켜 미군철수를 촉진하려는 것과 ② 북한의 철저한 사상적 통제 및 조직화에 비하여 취약점이라고 그들이 보고 있는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체제에 파고들어 평화의 환상, 내부 불신풍조 조성, 국론의 분열 및 가치관의 혼돈을 야기시킴으로써 우리측의 약체화를

노리며, ③ 국제적으로는 뒤떨어진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역고립화를 노림으로써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④ 이 모든 공작을 통하여 통일문제의 민족 내부 문제화를 이용, 적화통일의 민족 내부 문제화를 이용 적화통일의 객관적 정세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3. 국내정세

가) 민족중흥의 실천적 전개와 그 정신적 기반

① 5·16혁명—조국근대화 지표의 현실적 설정

오늘에 와서 11년 전의 5·16혁명을 돌아다 보고 그 전후를 비교해 볼 때 나라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 「달라졌음」이 한갓 시류(時流)의 우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의 악순환이라는 온갖 악조건을 무릅써 뚝고야 이룩될 수 있었던 의지의 소산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실히 5·16혁명이 단순한 정치권력의 변동이 아니라, 한국 민족사의 현대적 전개과정에 있어서 비로소 국가재건의 지표를 「조국 근대화」로서 현실적으로 설정하여 이로써 「민족중흥」을 기어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결단한 역사의 획기적인 전기였음을 새삼스러이 보다 선명히 실감할 수가 있다. 4·19학생의거로서 헤어날 수 없는 말기증상 속에서 저미하던 한국 현대사에서의 구캐제, 구질서가 무너졌으나 국가재건에의 부푼 국민의 기대 속에서 여전히 전근대성과 비능률성을 노정하고 있었던 적도정치기간에 일부 식자층에서는 국가재건의 지표로서 근대화의 문제의식이 학구나 관념의 차원에서 감돌며,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관념의 차원에서 현실정치의 차원으로 내려와 정립된 것은 분명히 5·16혁명에 의해서였다.

다만, 영·불 등 이른바 서구선진사회의 근대화의 경우 농경위주의 전근대적 전통사회가 근대적 산업사회로 전환 이행되는 과정이 2, 3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것이었고, 그것도 근대적 시민계층의 등장 속에서 특히 기업가들이

담당주체가 되어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수행함으로써 내생적 조건성숙에 따라(그러나 그들 역시 근대화초기의 와중에는 갖가지 시련과 고난과 부작용이 있었다.) 전개된 것이었으며, 그 상징으로서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을 들 수 있음에 대비해 본다면 한국 근대화의 절화기폭으로서의 혁명은 오히려 러시아의 피터대제의 근대화개혁, 일본의 명치유신 및 터키의 케말·아타투르크 혁명과 흡사히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는 대체로 근대화에의 충격이 「밖으로부터」 옴으로써 국가적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먼저 부국강병의 요청이 제기, 설정되어 일련의 근대화개혁이 정부주도하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들 사회에서는 그 당시 근대적 시민계층이나 특히 기업가 계층의 성장도 불만한 것이 없었으며, 따라서 민족자본의 축적이나 기술개발의 수준도 낮았고 근대산업사회의 종전간부층이라고 할 근대적 기능지식층의 성장도 미숙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내생적 조건의 미성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로 재촉받는 근대화의 명제 앞에 극적인 정치변동 속에서 등장하는 근대화 지향 정치지도력에 의하여 근대화 작업은 주도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이 5·16혁명의 상황적 특성이며, 5·16혁명 11주 기념식 치사에서 박 대통령이 「5·16혁명으로 점화된 60년대의 근대화작업이 주체적 근대화의식을 국민 모두에게 계발시키는데 역점이 있었다면 70년대의 근대화작업은 지금까지 계발된 근대화의식을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과 생활 속에 내실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비교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을 풀이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5·16정신은 내외의 어려운 제약조건과 도전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력으로 뚫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라는 민족 주체의식의 구체적 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② 근대화의 전략

그러나 이러한 민족 주체의식의 발현은 하나의 의지요 이상으로서 조국이 놓여있는 여건과 상황 그리고 내외정세라는 현실과 매개됨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드높은 이상이라 한들 결국 그 실현장이라 할 현실상황과 유리될 때는 한낱 높기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않는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아무리 현실타개에의 강렬한 의지라 한들 주어진 현실을 뚜렷한 방향실정으로 착실히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갈 과학적이며, 역사적인 안목의 전략 없이는 시행착오와 끝내 현실돈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5·16혁명으로 점화된 조국 근대화작업 초기의 어려움이 있었고 끝내 이를 극복하여 오늘의 근대화 중간고지를 점령하기에 이른 보람의 까닭이 있었다. 이는 곧 드높은 이상을 비속하리만큼 현실적인 작업으로 한 치한치 쌓아 올려온 강인한 의지와 이를 일관하여 뒷받침해온 전략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조국근대화란 무엇보다도 생계위주의 영세영사회(零細營社會)와 이를 반영한 불합리, 비생산, 비능률의 사회기풍을 과감히 타파하여 근대과학 기술의 활발한 흡수 소화에 의한 근대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수행하고 합리, 생산, 능률의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선조대대로 이른바 농본국으로 불려왔건만 막상 전래적 영농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때, 농본국이란 오히려 그 밖에는 달리 국민생활의 수단방법이 없다는, 곧 대안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농본국이었다고 함이 사실이다. 2백 50만 농가호수에 가경면적 2백 20만정보의 숫자대비에서 우리는 이미 과다한 농촌 인구와 파소한 농지면적이라는 점에서 가난의 원천적 요인을 읽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1년의 약 반을 차지하는 농한기라는 기후조건, 천연자원의 결핍, 근대적 영농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리관개, 경지정리, 비료, 농약, 종자개량, 농경기구 개량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의 경제여건은 농업생산성 제고에 의한 공업화자금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만약 낙후된 영농조건을 방치한 채 얼마 되지 않는 국가 재원을 구형적으로 농촌에 살포했다면 이는 마치 밀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되었을 것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할 때 먼저 나라의 부(富)의 덩어리 자체를 키워야 하고 그래야만 건설로 키운 과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텐데, 국부(國富)를 키우는 일차적인 일부터가 이미 농업분야에 의존할 수는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근대화전략은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투하로서 최대성과를 낳기 위하여 먼저 투자효율이 높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짧은 공업분야 개발을 앞세울 수 밖에 없었다. 지난 60년대 근대화전략의 단계설정이 두 차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공업화 우선투자 및 선 건설, 후 분배로 나타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60년대의 10년 동안 동남아 각국의 연평균 4.6%의 농업성장을 이룩하면서 시책의 역점을 「증산·수출·건설」의 구호 밑에 공업발전에 두어왔다.

그간 세계 제1위를 기록한 수출신장률이 상징하는 바 급속한 공업성장에 비해서 농업성장이 같은 속도로 따르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농, 공업의 발전격차는 있었다.

그러나 개발전략상의 과학적 요인을 이해할 때 그것은 오히려 발전도상국 근대화초기의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불안의 악순환 속에서 근대화전략이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공업의 고도성장도 없었던 과거에는 빈곤의 보편화는 있었을지언정 발전 「격차」의 문제조차 없었지 않았던가.

근대화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경우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좋아지기만 하는 안이한 도정이 결코 아니었다.

더구나 난관과 도전 속에서 전개되는 우리나라 근대화의 경우 마치 산이 높으면 골짜기 또한 깊고 빛이 강렬할 때 그늘도 짙은 이치로 또한 잘 닦아져 있지 못한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사력을 다하여 기적적으로 이륙에 성공하는 것과는 같이 폭음과 마찰과 위험이 있었던 것이며, 이를 하나씩 극복하는 도정을 거쳐서 마침내 오늘날 농촌의 집중적 근대화투자를 당면과제로 삼을만한 시점에 당도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60년대의 공업성장의 체험을 통하여 모처럼 「하면 된다」는 민족적 긍지와 자신을 되찾게 되었고, 여기에서 축적된 정신적 및 경제적 저력을 바탕으로 금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3대목표를 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기반의 확립에 두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60년대의 근대화가 기본적 국력배양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발에 역점이 있었다면 70년대의 근대화는 개발의 열매가 국민 각자의 손에 골고루 돌아가고 그것이 생활향상에 직결되는 작업이 되어야 하겠다」고 전망할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발적 발상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한국 근대화전략에 일관된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하는 필연적인 전망이요, 결실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새마을 정신

5·16혁명 후 정부는 농어촌고리체정리 등으로 상징되는 중농시책을 강구해 보기도 했고, 뒤진 농어촌에 사회정책적인 구제조치도 시도해 봤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원천적인 빈곤의 조건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고 넉넉하지 못한 국가재원의 분산적 투하로서 공업생산력이 뒷받침하지 못한 농촌경제를 일으켜 세우기는 어려웠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체념과 운명론 속에 지새우던 농어민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자세를 유발할 만한 현실적 계기도 없이 다다익선으로 정부의 구제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려는 타성에 빠져 있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 농어민이 지난 10년 동안 공업화의 경이적인 충격에 접하지 못했고, 근년의 고미가정책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했던들 금년 이른 봄부터 방방곡곡에서 불붙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시책이 실효를 낳기 위해서는 여건과 시간의 성숙이 필요한 법이다. 새마을운동 현장의 열기와 성과를 보고 혹자는 왜 이처럼 좋은 운동을 5년 전, 10년 전에 시작하지 못했느냐고 안타까와 하기도 하는데 과학적 안목에서 말하자면 농촌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기반조성 및 유인부여와 더

불어 농민 스스로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 시점에 온 것이다.

급년 한 해 동안 농어촌 근대화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투자하는 총액이 약 3천억원임에 비하여 농민이 내는 농지세는 약 40억원이라는 숫자 대비 하나를 볼적에도 우리는 공업화 우선투자의 성과를 저력으로 하여 전개될 수 있게 된 농촌근대화 전력의 맥락(脈絡)을 읽을 수 있다.

서구 선진사회에 비해서 훨씬 늦게 시작하여 부지런히 따라 잡은 경우의 하나인 일본근대화에 있어서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부국강병을 국책의 대본으로 내세워 공업화로 치달렸는데 명치 전기 동안 공업화 및 군비를 위한 막대한 자금은 주로 당시 일본정부 세수입의 75~90%를 차지한 농민의 지세로서 충당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잘 사는 일본농민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특히 근대화 초기에 얼마나 큰 부담과 노력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가를 험사리 짐작할 수 있다.

제3차 5개년계획의 3대목표의 상호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명실상부한 자립경제를 위하여 그리고 농어촌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천연자원 결핍과 외채상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 수출지향적 경제의 요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중화학공업기반 확립의 명제를 외면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더욱 큰 투자수요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만큼 경제성장의 여력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그 동안 상대적으로 뒤졌던 농업경제분야에 풍성풍성하게 자금을 배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최소투자로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농어촌개발전략이 요청된다. 이것이 곧 농민의 근면·자조·협동의 자발적 요인과 정부의 지원을 연결시키는 새마을운동이다.

이제 우리 농민은 옛날의 농민이 아니고 공업화의 충격 속에서 그리고 선행된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실시과정에서 근대화의식에 매개된 새 농민이

된 것이다.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부지런히 머리를 써서 일하고 자립하겠다는 강렬한 의욕으로 협동만 한다면 잘 살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

이미 선구적이며, 개척자적인 실례는 농촌 도처에서 싹트고 있었다. 또한 자발적인 지도자들도 생겼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촌개발의 목표와 방법을 현실적으로 더욱 뚜렷이 제시하고 잘 살기 운동에 불을 당긴 것이 새마을운동이요, 그 추진력이 되는 것이 새마을정신이다.

새마을운동은 자력으로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민족주체성의 발양으로서의 5·16정신이 국민생활저변으로 확산 토착화되는 정신·생활혁명 운동이요, 근검협동하는 전통적 기풍과 생산적인 근대적 가치를 현대적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접착시키는 조국근대화의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농한기에 협동으로 내 마을의 생활환경을 정리하고 이 단결, 협동, 실천에서 확대재생산된 의욕과 자신과 긍지로서 자연으로부터 지배받던 생활자세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생활자세로 전환함으로써 근대인간, 근대농민상을 정립하고 농번기에는 이어서 근면·자조·협동을 생산증대와 소득증대로 직결시켜 이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농촌근대화의 원동력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지난 고도성장과정의 그늘에서 주로 대도시에 싹트던 사치 낭비, 부조리의 여독을 포위 추방하려는 사회적 기풍혁신, 사회기강 확립운동으로까지 번져 나가야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인 것이다. 우리 마을을 우리의 힘으로 알뜰히 가꾸어 나가자는 새마을운동은 또한 70년대에 토착개화를 보아야 할 전통과 근대의 조화로서의 한국 민주주의의 산 실습장이요 기지라 해도 좋을 것이다.

④ 정신혁명의 내외 상황

8·15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중압에서 하루 아침에 풀려났으나 전통적 규범의 급속한 붕괴과정에서 일종의 정신적 무중력 상태를 겪었고, 이 공백에 압도적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 세계에서도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의 문물제도였다. 해방의 감격 속에서 우리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분단된 국토 북반에서는 소련군의 지원으로 출현한 김 일성 공산집단이 동족상잔의 6·25남침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날로 일인 우상화독재체제를 강화하였고, 마침내 오늘날에는 공산권 내부에서조차 유훈을 찾기 어려운 교조주의적 병영으로 경화되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입으로 강조하던 그만큼 우리도 부강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왔던 것이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주의란 근대시민사회, 근대산업사회에 알맞는 정치운영 방식이라고 한 막스·웨버의 지적을 인용할 나위없이 대중적 빈곤, 대중적 실업이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풍토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겨우 60년대 4·19와 5·16이라는 커다란 정치변동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한국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건설이라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했다. 60년대의 전 국민적 노력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서 또 하나의 벽찬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세력균형 재편성을 모색하는 열강간의 다각외교, 그 구체적 표현의 하나인 「닉슨·독트린」은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늘의 주변정세와 특히 북괴의 도발과 전쟁준비양상이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명제를 한층 절박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에게 지난 10년 발전의 저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여유있는 부강국은 아니다. 제약된 국민적 역량을 이 무거운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경제건설과 자주국방의 과제와 도전에 효율적으로 배분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곧 정신혁명이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도전의 총량과 이에 대응해야 할 우리의 역량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것이 곧 정신자세이다. 아니 대응역량의 총화에 결정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곧 정신자세요 사회기강이라고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작년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우리 국가 사회내부의 자유의 양과 기강의 양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알맞는 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조화

함으로써 국민총화로 총력안보체제를 확립하자고 호소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어 금년들어 박 대통령이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과 「국적있는 교육」의 명제를 제기한 정신적 바탕도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처음에 필자는 5·16정신을 민족주체성의 발현이라고 했다.

새마을정신이 또한 이 민족주체성의 저변 토착화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러한 민족주체의식에 바탕한 정신적 자세는 지금에 와서 새삼스러이 운위되는 것이 아니라, 5·16 이후 조국근대화를 통한 민족중흥의 국가목표 설정에서부터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이며, 60년대의 공업화를 추진한 정신적 원동력도 그것이었다. 60년대의 공업화 우선개발이 다름아닌 한국의 여건 속에서 조국근대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족중흥 전략의 일환이었었고 새마을운동 또한 농공간의 발전격차를 농공병진의 궤도 위에서 조속히 아물이기 위한 경제운동일 뿐만 아니라, 근면·자조·협동의 기풍진작으로서 총체적 사회기강, 전 국민적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정신혁명이라 할진대 그 저류에 흐르는 것은 일관하여 민족주체의식에 바탕한 실천적 애국심이요 근대화의식의 생활화 지향이라고 할 것이다.

그 사이에 단절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단계마다 당면과업의 역점에 따라서 표면에 떠오르는 강조점이 공업발전에 치중한 경제건설에서 공업성장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한 농어촌의 혁신적 개발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70년대의 국제적 도전과정에서 계속적인 경제건설, 자주국방체제의 정비 그리고 자유와 자율권리와 의무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화시켜 국가건설을 튼튼히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3대과업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난 10년여의 근대화 작업과정에 면면히 흘러내려 온 정신기강의 요인이 더욱 더 정면으로 부각되어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근대화초기 및 중기의 전략 비교면에서 보더라도 초기전략의 특징이

서구선진사회 유형의 신교도 윤리나 청교도 정신의 강인한 국민정신의 기반이 결여된 속에서 정부주도하에 근대화 의식을 선행적으로 제발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근대산업 사회의 요인을 조성해온데 비하여 그 중기전략의 특징은 그동안 제발된 근대화의식과 조성된 근대적 사회세력이 자발적 추진역량이 되어 근대화작업을 자체추진의 궤도에 올려놓고 가속화 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탕은 근대화초기에서 부득이 우리가 스쳐 지나온 근면·자조·협동의 국민정신의 결정이요, 특히 현 단계에서는 내외의 도전을 능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말겠다는 국민통합 및 국민총화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곧 국가 건설 및 국가 재건기의 기저가 되는 국민정신이요 투철한 민족사관과 애국관의 정립이다.

오늘날 부강을 누리고 있는 이른바 선진국들은 이 열매가 영글기까지 이미 근대화초기에 이 국민정신 응결을 체험했고 국민정신 형성의 뜨거운 영광로를 통과했음을 우리는 관파해서는 안 된다.

⑥ 한국 민주주의의 토착화

이러한 눈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지나간 민족사의 한 시대로서의 오늘을 볼 때 조국근대화를 통한 민족중흥작업의 당위성은 한층 선명히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국토분단이 없고, 우리 안보상황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요인이 없는 비교적 편안한 정황 속에서 추진되는 작업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역량을 상회하는 도전 속에서 이를 해치고 나가야만 할 불가피한 민족적 사명인 것이다.

한국의 현실과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한낱 관객의 눈이 아닌 한국의 현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 속에서 고민하고 이를 꿰뚫어 민족중흥의 이상을 기어이 실현해야겠다는 열정과 창조적 지성으로 시국을 직관할 때 우리는 오늘을 우리 책임하에 사는 세대로서 시국에 대한 예누리 없는 인식을 역사와 민족에 대한 엄숙한 사명감으로까지 응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할 가치요 자산으로서, 경제건

선 안보체제확립과 더불어 자유 민주주의를 든다. 그러나 70년 제백주 분리 독립운동자들의 테러소요사태에 즈음하여 「전시 등에 있어서의 특별조치법」에 의거 강력한 「공공질서 유지규칙」을 제정 공포하면서 트뤼도 캐나다수상이 갈파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란 그 자체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지극히 약한 제도인 것이다.

70년대에 우리가 직면한 과제와 이를 풀어나갈 우리의 힘과 능력을 냉철히 고량해 볼 때 조국의 현실과는 무매개적으로 도입된 제도정형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상념과 우리가 정립해야 할 「한국 자유 민주주의」의 실체 사이의 괴리를 꼼꼼히 재검토, 성찰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솔직히 지적하여 이미 오랜 옛날에 근대 국가건설과정을 지나서 오늘날 그 시련과 희생의 여력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된 선진국의 정치운영 형태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일반론과 바야흐르 어렵고 고된 여건 속에서 조국 근대화를 통한 민족중흥의 창업에 종사중이며, 더구나 「거대한 병영」으로 화한 북한을 불과 서울 북방 24마일에 두고 우리의 전실한 노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족국가의 정통성 위에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로서 다지고 토착화시켜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실체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발전되어 오는 일련의 정치방향은 구체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일반론과 한국 민주주의의 실체 사이의 관념적 괴리를 아물임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하루 속히 제자리에 토착화시키기 위한 주체적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경제건설도 자주국방도 그리고 이를 저력으로 한 민주정치 운영도 우리 정신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경제자립, 국방자립, 정치자립이다.

이에는 지도자의 경륜 및 역사적 통찰력과 더불어 국민 각계각층의 에누리없는 시국관과 이에 바탕한 주체적 정신자세의 확립이 크게 요청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새마을운동에서 덕망과 역량의 지도자와 농민의 협동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나 조국근대화 창업기에서 지도자의 영도력과 국민의 단결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나 기본이치는 마찬가지다. 하물며 북한의 실태를 직시하고 평화적 국토통일을 실현할 민족주체 세력형성의 결실한 요청을 다점함에 있어서라.

결 어

지금 농촌에는 모처럼 푸념과 체념을 추방하고 근면·자조·협동으로 우리 마을을 우리의 힘으로 잘 살게 만들자는 운동이 초당, 거국적으로 불붙고 있다.

이들 농민은 소박하고 근검건실한 생활작풍과 정신자세로서 애항심을 애국심으로, 그리고 이 애국심을 민족중흥의 사명감으로 직결 고양시키는 태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드높아진 농촌의 애국하는 마음이 다시는 퇴조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 정착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은 도시인이, 특히 정부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그리고 한국 근대화작업에 걸잡이가 되어야 할 지식층이 차분한 마음으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우리가 걸어온 60년대를 돌아보고 70년대에 계속 걸어나가야 할 시련찬, 그러나 보람있는 민족의 대행진을 마음깊이 다짐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아직도 조상의 땀의 열매를 따먹을 세대가 아니라 후손에게 풍성한 열매를 물려주기 위하여 피약벌에서 땀흘려 일하는 세대이다. 만약 이를 우리가 기피할 때 우리의 역사 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뿐 아니라 다음 세대는 준열히 우리를 비판할 것이다.

5·16정신과 새마을정신은 이를 실천으로 증언해 주고 있다.

나) 남북공동성명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① 한반도의 긴장요인이 제거되었거나 감소되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정세의 긴장완화 분위기와는 반대로 한반도의 긴장은 일축

즉발의 위험성으로 고조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동족상간의 전쟁 재발만은 막아야겠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다.

② 미·중공, 미·소, 일·중공, 일·소 관계가 각각 자기나라 국가이익 우선 추구를 위하여 세력균형 모색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북한이 최근 도저히 일거에 해결될 수 없는 비현실적 제안으로 위장평화공세(남북한 평화협정, 군대감축, 언커크해체 등)를 격화시켜 왔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이른바 4대군사 노선에 의한 전인민조직 화와 전쟁준비를 완료했다는 객관적 판단과 그들 스스로의 공언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 격화된 그들의 위장평화선전공세의 저의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정세에 편승하여 자기들의 전쟁준비태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평화를 위장하고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촉진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 내부에 평화의 환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총화와 기강확립을 저지시켜 끝내는 이른바 「결정적 시기」를 재촉하고 적화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변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그 증거로서 북한은 우리측의 전쟁 억지를 위한 안보체제확립에 기틀이 된 국가 비상사태선포와 농촌근대화 및 전사회적 정신혁명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을 가장 두려워 했고 이에 대하여 혹독한 반대선전을 강화하여 왔다.

④ 그러므로 우리측의 주도에 의한 남북공동성명은 팽팽한 긴장위험을 일단 둔화시키고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약속의 첫 출발에 불과하다.

이것은 양진영간의 대결이라는 적과 동지가 뚜렷한 대결양상에 비하여 오히려 더 어렵고 에누리 없는 경쟁이요 맞대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박 대통령각하의 일찌기 조국근대화를 통한 민족중흥작업이 다름 아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요 중간 고지 점령이라는 데 구상하에 경제건설과 자주국방태세확립을 지도해 왔고, 70년대 들어 이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족국가의 정통성」,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 「국적있는 교육」 등 애국심과 시대적 사명감에 투철한 국민정신진작과 정신혁명에 더욱 큰 역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문맥에서 보자면 최근의 남북공동성명의 씨는 이미 70년 8·15선언 속에 잉태되고 있었던 필연적 발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⑥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적 수법은 언제나 힘에 눌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적에만 굴복타협했다는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앞으로 북한이 무력불행사 약속을 말아닌 행동으로 지키는 날이 온다 해도 사상, 이념, 체제 및 생활양식의 경쟁적 대결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요, 그야말로 우리가 국력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는 맞대결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사상교육과 승공자세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⑦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휴전선 너머 멀리 있는 적으로 제쳐 놓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여야정쟁,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선진국 모방의 자유의 환상, 수다와 낭비 등을 일삼을 여유가 있었다면 이제 북한과의 에누리 없는 맞대결로 들어서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철의 규율과 조직, 무장으로 우리사회의 허점을 노리는 그들과 경쟁함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거국적으로 일치 결속하여 그 적수를 북한으로 삼고 단 한 가지의 헛점이나 비능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총화의 체제가 절실히 요청된다.

⑧ 결론적으로 이제 막 실마리를 풀기 시작한 조국통일의 문제, 그 첫 단계로서의 「대화있는 대결」을 떠나감에 있어서 그 성공을 보장하는 관건은 우리의 월등한 국력배양, 튼튼한 자주국방체제의 확립 및 박 대통령 각하의 조국통일 대구상과 지도역량을 구심점으로 하는 혼연일체의 국민총화체제 바로 그것이다.

또한 우리의 우방도 남북대화를 진심으로 실효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환상적인 평화의 조급성이나 앞지르는 언동을 극력 자제하고 대화있는 대결의 주체인 대한민국은 더욱 튼튼히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상의 기반을 굳혀 나가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⑨ 특히 군은 「대화있는 대결」 지원역량의 중추이므로 앞으로 더욱 격화

될 것이 예상되는 정치전, 심리전에 추호의 필요도 없어야 할 것은 물론 항재전장의 즉응태세를 갖추어 심신양면의 정예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화라고 하지만 양극체제의 예각대결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게 얽혀져 나갈 국제질서 재편성 과도기간 중에는 바깥의 상호 견제기능이 깨짐으로써 오히려 국지전 발발의 유혹과 위험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을 직시해야 한다. 소위 주변정세의 변화(따지고 보면 열강국의 보다 교묘하고 치열한 국가 이익 추구)라는 남의 장단에 휩쓸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정신으로 우리자세를 똑바로 가누어 나가는 것이 활로인 것이다.

⑩ 한민족의 슬기를 세계에 과시한 민족사의 획기점이요, 조국통일에 대한 박 대통령 각하의 집념의 결정인 이번의 대 영단이 있게 된 바탕이 지난 10여년의 꾸준한 국력축적과 국민의 단결된 노력이 있음을 생각할 때, 북한과의 경쟁적 대결에 임하는 국민의 결의와 자세는 한층 견실 견고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⑪ 이번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 적극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또한 지난 6월 17일 제20차 남북적십자예비회담에서 7. 주소, 생사확인, ㄴ. 자유 상호상봉, ㄷ. 서신교환, ㄹ. 재결합, ㄹ. 기타 인도적 문제 등 본 회담 의제의 확정을 보았으므로 나머지 본 회담 운영절차에 관한 기술적 문제만 타결되면 서울과 평양간에 번갈아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연 내로 본 회담 교대 계획에 따른 대표단 및 수행기자 왕래가 있을 것이며, 그 성과 여하에 따라서는 차차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사회, 경제적 교류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러나 전쟁재발을 막고 궁극적으로 통일문제를 자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원대한 목표에 비추어 이러한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국토방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진 군(軍)과는 무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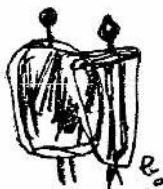
그렇수록 군은 철통같은 방위태세완비로 「대결있는 대화」를 튼튼히 뒷받침해야 할 것은 물론 먼 훗날 국토통일이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는 언제 어디서나 즉각 도발에 대해 응전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공군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존전.....
-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훈 교육 자료

제2전력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김 근 전



현대화를 통한 공군의 증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겠지만 그에 앞서 현재의 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실적(內實的)인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력을 재정비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규합시키는 광범위한 체제의 개선이 없고서는 우리가 현재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군의 현대화 작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현존 전력의 극대화는 내외정세의 변화에 편승하여 격증될 북한의 남침기도를 억제하고 만일의 경우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임진태세의 확립,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군의 현존 전력의 극대화는 우리 공군의 관리와 운용의 개선, 즉 공군의 내실적인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취지에 입각해서 그것을 제2전력의 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총체적 전력의 배가(倍加)에 노력하여 왔다.

오늘날에 있어서 전쟁을 위시한 제반 군사대결은 인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신력까지 총동원하는 총체적 힘의 대결이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가 외부의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서 조직하고 훈련시킨 총체적인 힘이 바로 군사대결에 이용하는 군사력인 것이다.

그러나 전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인력은 능동적인 것이지만 물자와 돈은 피동적인 것이고, 인력은 주체적인 것인데 반해서 물자와 돈은 객체적인 것이다.

즉 전력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인력에 있지 물자와 돈에 있지는 않다. 다만 물자와 돈이 인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때에 한해서 물자와 돈에 의한 전력의 강화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물자와 돈은 어디까지나 도구적 전력(Instrumental power)이고 인력만이 주체적 전력이다.

전력의 주체가 되는 인력은 개개의 인간의 힘(Ability)이 조직되고 규합된 하나의 집단적인 힘으로 형성된 전체를 말한다. 군사대결의 주축을 이루는 전투행위 자체가 하나의 집단적 활동이고 보면 인력 그 자체는 개개의 협력과 상호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힘이다.

개인, 즉 인간의 힘에는 세 가지의 측면이 있다. 인지(認知)적인 힘, 정의(情意)적인 힘, 그리고 기능(技能)적인 힘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총체적인 힘은 이 세 가지 측면의 힘이 결합된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무

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는 것은 정의적인 측면의 힘이다. 특히 군에서 정신적인 요소를 강조할 때 그것은 왜, 무엇술, 어떻게 하겠다는 인간의 의지의 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전력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볼 때 현존전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힘인 것이다.

보편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정의적인 힘을 우리는 군에 있어서의 사기라고 말한다. 민족과 국가는 개인의 공동운명체라는 신념, 국민 스스로가 자기들의 국가를 수호해야 하겠다는 의지, 자기들 희생하면서 동포(同胞)를 구해야 한다는 의협심, 개인이 소속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슬기로운 마음 등은 각 개인의 정의적인 힘에서 우러나온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방의 기본은 그 나라의 총력과 그것을 내면(內面)에서 움직이는 국민의 총의지(總意志)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 제 2 전력은 바로 장병(인력)의 사기(士氣) 그 자체이다.

세계 제2차대전 당시 미국 육군참모총장이였었고 제2차대전 후에는 「트루만」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마샬」(George C. Marshall)장군은

군의 사기(士氣)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기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은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용기이고, 희망이다. 그것은 열성이고 애국심이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이기도 하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강한 의지인 동시에 인간에게 잠재하는 영원한 힘이고, 그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인간은 어떠한 일을 성취한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인간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병의 사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준비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마샬」장군이 주장한 사기,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2전력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와서 제2전력이라는 새로운 말로서 표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간이 군대라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당시부터 전력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원동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느냐 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사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서부터 고차적으로 승화한다.

군인도 인간이다. 보편적인 인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특수한 목적과 특수한 임무,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특수한 정신과 태도와 기량이라는 특수한 속성을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구비해야 할 속성 이외에 추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뿐이다. 결국 하나의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보편적인 일 이외에 특수한 일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테두리를 벗어난 비인간적인 취급을 한다면 그러한 인간에게서는 사기라는 것이 유발되지 못한다.

군인이지만 군인에 앞서 우선 인간으로서 취급한다는 것이 사기를 높이는 첩경이 된다.

세계 제2차대전시에 미국에서는 군의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한 연구에 가담했던 「영」(K. Young)이라는 심리학자는 사기를 고취시켜 주는 요소로써 다음의 7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가. 군인 각자가 열렬한 조국애(祖國愛)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나. 확신을 주는 유능하고도 정당하며 용감한 장교가 있어야 한다.

다. 단체정신이라고 하는 강렬한 「우리」라는 관념과 또는 내집단(內集團) 감정이 형성되어야 한다.

라. 충분한 식사, 좋은 숙사, 정기적인 휴가, 오락, 빈번한 고향 소식, 그리고 우편물의 신속한 배달이 있어야 한다.

마.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의무대원은 부상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부상자에게 정신적인 위안이 된다. 그리고 군대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준다.

바. 직책에 따라 충분한 지식과 기술의 훈련이 필요하다. 전투에 새로이 입하는 군인의 불안감은 충분한 훈련을 통하여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사. 승리의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커다란 사기의 자극이 된다.

이상의 7가지만이 사기를 고취시켜 주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군의 사기가 어떠한 결과에 의해서 고취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는 또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근본요소는 「공포」(恐怖)에 있다고 했다. 그러한 공포를 유발시키는 여러가지의 원인도 지적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당하는

에서 오는 공포가 가장 큰 공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병의 사기라는 문제를 다물적에 명심해야 할 일은 사기를 고취시키는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사기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순서는 저해하는 요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전에 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억제 당하는에서 오는 장병의 공포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저해하는 요인이 존속하는 한 고취하는 요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이다.

◆ 장병의 기본적 욕구충족의 기본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취급을 받는 일이다.

미국공군의 참모총장이었던 「맥코넬」 장군은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공군의 지휘 및 관리의 기본철학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신념을 피력한 바 있다.

『우리 공군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집단이 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서로 아끼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가족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병 각 개인은

그러한 집단의 일원인 동시에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취급을 받아야 한다. 즉 공군의 지휘 및 관리자인 우리들은 우리들이 우리의 상관에게 우리들 어떻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부하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들 지휘자 또는 관리자들은 자기들의 부하들 항상 공정하고 무사하게 출직하고 전신하게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같이 성실하게 보살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맥코벨」장군이 피력한 자신의 신념은 많건 적건 간에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라면 항상 명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에 옮겨야 할 당연한 행동지침의 하나인 것이다. 특히 인류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고 사람의 살아가는 양식이 더욱 더 복잡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간의 정(情)이 서로 이탈되기 쉬움으로 그러한 신념은 사람을 기다리는 지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한층 필요한 것이다.

군인이라는 신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일 것 같으면 자기 이외의 남(他人)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스스로가 고립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 하나의 개인

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 간에 어떠한 집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라는 하나의 개인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포함한 하나의 집단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회성, 또는 집단의식인 것이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확대되어 하나의 민족관이 형성되고 또다시 국가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의식, 민족관, 국가관이 기반이 되어 하나의 단결심, 또는 애국심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병 각 개인에게 무턱대고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령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 장병 각 개인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살피 준다면 그들에게서부터는 공군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고 그것이 성장되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면 그들은 공군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 값있고, 보람있는 슬기로운 일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 「슬기로운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기이다.

◆ 장병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살피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주관적인 측면을 본다면, 인간은 자기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조국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 인간은 결국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 인간의 존재는 계획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한 존재이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나아가서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역사에 의해서 형성되면서 다시 그 역사를 창조한다. 즉 운명의 지배를 받지만 도리어 운명을 지배한다. 이것이 인간의 주관적인 본질이다. 환경이나 역사나 또는 운명 속에서 자신의 갈길을 자신이 결정하는 위대한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주체(主體)이다. 따라서 한 인간의 주체를 그 다른 어떠한 자(者)가 간섭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다.

다음에 객관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인간은 결코 남을 지배하지 않는다. 만일 남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남에게서 자기 자신이 지배 당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하거나 지배 당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주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 인간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개인의 주체와 자유를 보장하는 민

주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군대이다.

우리는 강하고 또 더욱 강할 수 있는 군대일 따름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장병의 사기의 근원이기도 하다.

둘째는 인간으로서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지 결코 신은 아니다. 무형적이고 한계의 정도를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인 차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인간의 심리적인 차원을 기반으로 한 한계 내에서의 그것을 초월할 수는 없다. 인간이라는 하나의 실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측면의 인간이어야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이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생리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 연후에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인간의 욕구(慾求)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강하고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집착 심리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로 발전하여 문화적인 욕구, 도덕적인 욕구, 그리고 종교적인 욕구로 승화되는 것이

제2전력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다.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특수한 임무에 종사하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순수한 인간, 그 자체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즉 장병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고 이해가 있음으로써 인간 상호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협력이 있는 곳에 비로소 강한 단결이 있게 마련이다.

세췌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 같이 보살피 주어야 한다. 즉 누구 하나가 공군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소외(疎外)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성사(成事)한 일이거나 또는 성사하고 있는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거의 없다. 개개인의 협동에 의한 집단의 힘(Team work), 즉 여러 사람의 힘이 규합된 힘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특히 군인의 주임무인 전투행위, 그 자체는 하나의 집단 활동이다. 즉 어떠한 일을 위한 공동운명체로서의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희비와 고통을 같이 해야 한다. 즉 병사 한 사람 자신의 신상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까지도 즐거움이 있으면 전체 대원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만

일 슬픔이 있으면 대원 전체의 슬픔으로서 받아들이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진실과 성의가 충만(充滿)될 때 비로소 그 집단은 서로가 아끼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의 혈연적인 가족 집단과 같은 강하고 굳센 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집단에게는 오직 성공과 성취와 승리의 환호만이 있을 뿐 굴욕과 패배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 사기가 충진된 집단, 또는 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공군이 지금 전력을 기울여 가면서 개발하려는 제2전력이 바로 이러한 공군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으로써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제2전력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원리적인 면에서 짚어 보았다. 이것이 하나의 현실과는 먼 꿈과 같은 이상에 불과한 하나의 공론이라고 여겨질지는 모르나, 필자는 제2전력, 그 자체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내실의 문제를 다루는 과제이므로 인간을 다루는데에는 무엇보다도 기본철학이 선명해야 하겠다는 것을 항상 마음 속에서 느껴왔기 때문이다.

오랜 시일을 통해서 필자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에 종사했고, 그러한

경험에서 얻은 단 한 가지가 바로 인간을 다루는 기본철학의 규명에 있었다. 이제 막상 제2전력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것도 역시 인간을 다루는 기본신념의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은 남을 남으로 다루지 말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서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뿐이다.

공군의 제2전력도 역시 남의 제2전력이 아니라 자신의 제2전력이라고 공군장병 각자가 여길 때 바로 그것이 제2전력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공군의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빌 뿐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애국심은 불길처럼

◇ 내가 선 위치 그것이 정계(政界)이고 군(軍)이고 초야(草野)이고를 막론하고 나는 오로지,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결심한 바에 따라 민족혁명의 마지막 결실을 위하여 전부를 바치려 한다.

◇ 「마치 불난 후 도둑 맞은 폐가(廢家)를 인수하였구나」 이는 내가 구정권을 인수하였을 때의 솔직한 심경이었다.

쓸쓸한 황야 가운데서 초라한 초가집을 터전으로 하여 전연 새로운 살림을 꾸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조금도 놀라와 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혁명 이전에 충분히 살피은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 우선 이 더럽혀진 지역을 삼을 들고 말끔히 치움으로써 다시는 병균이 발생 못하게 하고, 강력한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을 정리할 것과, 한편으로는 실의와 기아에 허덕이는 가족들을 위하여 곡식을 씹는 일이요, 그리고 정지(整地)된 이 땅 위에 물벼락이 쳐도 끄떡하지 않는 집을 짓는 일을 향하여 나는 결의를 다시 가다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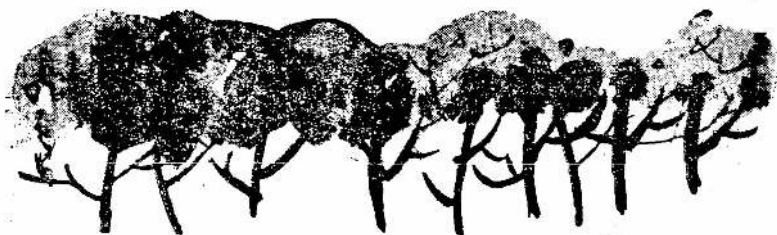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지휘관상은 어떤 것일까? 공군……◇

◇……에 있어서 유능한 하사관의 자질은…? 병의 바……◇

◇……람직한 자세는? 이러한 문제들을 파헤쳐 본다.……◇

지휘관론 부하론



박 경 석

1. 서 론

현사회 체제는 기술공학적인 산업사회이다. 인구가 격증하고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기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은 극도로 다양하게 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은 필연코 인간의 사고 및 행동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마련이며, 사회구조적

인 면에도 크게 작용하여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조직의 체제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인간은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의 재회복이 시급한 것」이며, 조직은 그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별한 연구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급속적인 시간과 공간개념의 변화, 도덕과 윤리 및 가치관의 가변성 등은 개인의 현실 적응의 양상을 현저하게 전환시키고 있

다. 최근 20~30년간의 세계변화는 실로 괄목할만한 것으로 기존 질서는 파괴되고 새로운 풍조가 도입되어 왔으며, 군사회에도 새로운 조류가 전파되어 호응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술공학의 발달과 병행하여 공군은 장비의 현대화가 점차로 추진되어 왔고, 기술도입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여 왔으나, 장비를 관리하고, 기술을 습득, 활용하여야만 되는 인간 자체에 대하여는 약간 소홀한 점도 없지 않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군은 병력활용의 극대화방안 모색, 문제사병의 선도 등 인간관계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도 사실이며, 72년도부터는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정신전력강화물도모하기 위하여 제 2전력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제 2전력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행동에 옮기고 있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증차대환 시점에서 이상집단이 아닌 정상집단에 속해 있는 공군의 장교 및 지휘관의 정신자세와 자질 및 하사관과 병의 기대역할을 연구 분석하여 보는 것은 구성원 개개인이 지니는 사고와 이미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과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공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이며, 어떠한 역

군이 필요한지를 공군의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의 약 10%에 해당되는 인원에게 「내가 바라는 공군의 지휘관상」 「공군에 있어서 유능한 하사관의 자질」 「병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제목의 작문을 신분에 맞추어 작성케 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에 의하여 신분별로 구성원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종합하려고 시도해 본 것이다.

공군에서 기피 분석된 결과가 있었다면 지휘관리하는 장교로서, 실천하는 하사관으로서, 복종하는 병으로서의 자질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나를 비교하여 좋은 참고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분석결과는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신분별 각 개인에게 정신전력강화 및 생활방법 개선의 일각의 도움이라도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여 본다.

2. 본 론

가. 70년대 공군의 지휘관상

군인복무규율에 수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이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전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항상 그 임무를 확실히

과악하고 지휘권의 행사를 엄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휘관은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덕성을 닦고 지식과 자질을 갖추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부하를 지휘하며 부하를 지도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지휘나 지도의 필요성은 진문화되고 분화되어 있는 조직의 체제나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의 목적을 살리고 구성원의 총화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집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목적지향적이어야 하며 미래예측적 식견을 가지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목적지향적이라 함은 신념과 주체성 및 가치관을 포함하는 인간성의 총화를 이룸이요, 미래예측적이라 함은 지난날의 경험 및 현실에 대한 예리한 판단력으로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집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 자원을 관리한다 함은 주어진 인적자원과 물질자원을 합목적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의 지도자의 자질은 절대권력에 의존하는 신격화된 카리스마적 지도자나 상징적인 지도자가 아니며, 전통에 따라 예외없이 추대되는 추장형의 지도자나 미세하게 분화되어 있는 전문가형의 지도자도 아닌 것이다.

치밀한 계획 밑에 조직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력의 낭비와 물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인간을 유도하고, 물자를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행정 및 관리능력을 소지한 경영적 지도자가 현대가 추구하는 지도자인 것이다.

즉 현대의 유능한 지도자란 기본적인 철학적 방향이 있어야 하며 주어진 자원을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선용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의 소지자라야 되는 것이다.

지휘자의 기능과 역할은 정신적인 총화요, 관리의 탁월한 기술자이며, 모범적인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원을 축적하고 저장하며 활용하고 개발함에 있어서는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의식과 능력의 총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이란 내부적인 정신자세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실천 및 행동이 상호 대응할 때 그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공군은 특기가 세분화되어 있는 고도의 기술군으로 지휘관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도 타군에 비하여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군의 현역장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군의 지휘관상을 그려보

장교 피조사자 계급별, 특기별 현황

부표-1

계급별 특기별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미상	계
14	2	3	15	12	19		7	58
16			2	3	2	1		8
17		1	4	19	6			30
24			1	1	2			5
25		2	4	5	3	1		15
30			7	9	4			20
32			2	5	2			9
43		1	11	6	7	1	2	28
55				6	8	1		15
69			2	4	2			8
64			6	17	5			28
67	1		2	5				8
70	2	1	5	11	10	1		30
72		1	2	4				7
75		3	8	22	22			55
80			1	7	5			13
81				3				3
88				1				1
89			1					1
90			2	1	4			7
94		1	2	4				7
미 상	1		7	17	8	1	15	49
계	6	13	82	172	108	6	24	411

장교 분석 결과

부표-2

순 번	내 용	반응인원	비 율 (%)	비 고
1	부하에게 관심을 가지는 지휘관	170	41	
2	인간성이 충만한 지휘관	162	39	
3	솔선수범	96	23	
4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	82	20	
5	책임감	77	19	
6	가치관과 Vision이 있는 지휘관	75	18	
7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지휘관	74	18	
8	관리능력	57	14	
9	결단성	52	13	
10	판단력	50	12	
11	정직성	45	11	
12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실천인	37	9	
13	연구하는 지휘관	36	9	
14	공정성	34	8	
15	자신감	33	8	
16	부하 대화 가능	32	8	
17	권한 위임	30	7	
18	지시나 명령의 정당성	30	7	

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일부 장교(부표-1 참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특기 별로는 고르게 참여했으므로 반응결과 (부표-2 참조)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부표-2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다시 풀이해 봄으로써 70년대 공군의 지휘관상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부하에게 관심을 가지는 지휘관

옛말에 강하기를 원하거든 먼저 약하고,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주라는 말이 있다. 부하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해결점을 찾아 노력함으로써 부하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참으로 미묘한 점이 있다. 인간은 사고작용이 있으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행동하는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지각의 장(Penceptual field)의 함수이다.」(주 1 : 최정훈, 지각심리학; P. 21.)라고 표현한 것은 행동의 근거를 적절하게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현재의 우리 처지는 아무 말이 없는 부하는 무능하고, 말많은 부하는 불평분자로 간주하기 쉽다.

지휘관은 먼저 부하와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부하가 무엇을 생각하며 느끼고, 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환경과 이견은 권위와 강요에 의해서만 집단목표가 신속히 달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끊임없는 정신 및 기술 교육, 상관과 부하간에 상호작용(Interaction)과 더욱 나아가서는 감정이입

(Empathy)의 이루어 질 때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 인간성이 충만한 지휘관

과학기술의 발달과 병행하여 군에도 장비의 현대화가 점차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특기는 세분화되고 개인의 기능은 전문성을 띄우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여건은 시간제약을 가일층 증가시키고, 다분히 인간성을 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조직을 관리하는 지휘관은 분화된 인간성을 통합하고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조직 속에서는 흔히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개인차가 있고 개성이 다르며 계급이 다를 뿐이지 결코 군사회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장교나 하사관 혹은 병을 막론하고 신분은 다른지언정 다 같이 공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물임에는 틀림 없는 것이다. 부하가 없는 지휘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사병이 있기 때문에 장교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부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부하는 부하대로의 가치관과 생활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인간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하의 의사대로 지휘관이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및 고착된 관념을 과감히 배제하고 부하들을 인간으로서 지적이고 정의있게 대해 주는 것이다. 지휘관은 때로는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치명적인 일이 아닌 것이면 알고도 속고, 효율성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피상적인 체면유지를 하기 위하여 무리있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부하들은 지휘관이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해 주고 작업 환경 및 생활조건을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는 지휘관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맡은 바 부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나갈 것이다.

지휘관은 항상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이어야 하며 부하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길을 사랑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덕성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이러한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권한과 책임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3) 술선수법

가장 건설한 교육방법 중의 하나는 술

선수법이다. 술선수법은 「부실역행」과 「주인정신」을 기르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부하들은 지휘관의 행동이 멋이 있고 믿음직할 때 그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럼으로 지휘관은 술선수법하지 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남도 하기 싫다는 것을 인식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언행이 일치되고 사상과 행동이 통일될 때 비로소 집단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생긔게 마련인 것이다. 현재 공군에서 특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지도 방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술선수법이다. 예를들어 병사들이 곧 지휘관이 전장에 임하여 죽기를 두려워 하면 휘하의 병사들도 죽기를 두려워 할 것이며 전쟁은 승리로 이끌 수 없는 것이다.

지휘관의 술선수법이라는 것은 사병이 할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지시한 사항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이 옹당히 할 일을 성가시고 귀찮기 때문에 회피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군에 폐해가 되는 것 중의 한 가지로 「의복을 사치하고 떠나 모자같은 것을 달리 하여 단체적인 규율을 문란」(주 2:제갈량심서 P. 42.)케 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부하의 복장 위반을 책하려고먼저 지휘관 자신이

규격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라는 것이다. 오늘에 있어서의 부하의 대부분은 다분히 비관적임을 지휘관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4)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

지식이란 문제해결의 관건이요, 경험은 예견의 초석이다. 지휘관은 전체부대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특기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특기분야간에 관련성 및 기여도를 이해하여 업무수행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5) 책임감

지휘관은 국가목표와 상반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지휘관이란 일개 단위부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및 상급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부지시를 이행할 책임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대구성원 개개인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합목적적으로 활용할 책임이 있으며, 물자를 선용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휘관은 자기부대와 관련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부대 운영상의 실책이나 행정적 과오도 부하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여된 권한에 선행하여 책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6) 가치관과 Vision이 있는 지휘관

미달(Gunnar myrdal)에 의하면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가)능률(Efficiency), (나)근면(Diligency), (다)질서(Order), (라)시간을 지키는 것(Punctuality), (마)검약(Furgality), (바)정직(Honesty), (사)변화에 대한 준비성(Preparation), (아)합리성(Rationality), (자)변화(Variation), (차)자신(Self-reliance), (카)협동(Cooperation), (타)긴 안목(Long-view)를 들고 있다.

부하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데는 반드시 지휘관의 기본적인 철학이 가미되어야 하겠으며, 귀중하게 여기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휘관은 수없이 많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사회규범 중에 부대의 실정에 부합되는 가치를 부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대의 진로 및 부하들에게 탁쳐올 앞으로의 전망을 미리 선견할 수 있는 원시안적인 안목을 지녀야 한다.

(7)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지휘관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이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전책임을 져야 하므로 국가관 및 사생관 확립이 명확하여야 한다.

대의를 위하여 소의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겠다.

부하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안일을 추구하고 역경에 처하였을 때 부하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면 부하들은 지휘관을 불신임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휘관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정신의 발모는 부하들에게 자발적인 임무수행의욕과 참여의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은 계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8) 관리 능력

현대의 바람직한 지휘관은 인간을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능력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경영가형의 지휘관이다. 관리물 크게 대별하여 보면 인적자원관리와 물적자원관리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 인간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심리학의 이론을 어떻게 실제에 도입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정신전력의 강화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며, 업무능률향상은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지휘관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여하히 하면 부하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으며, 업무지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혹시 부하가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임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여 가고 있지 않은가를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부하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 및 일반적인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란 계획적으로 인간을 형성하고 그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이며, 목적지향적이다. 즉,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켜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인간상이란 자율적이며, 자발적이며, 자주적인 인간이며 민주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의 집단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 및 정신적인 자세 및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의사와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기관을 통한 정상교육, 가정교육

일상생활을 통한 생활지도(Guidance) 및 상담(Counseling)이 포함되는 것이다. 인간은 생리적, 환경적, 심리적인 면에서 항상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환경개선 및 분위기 쇄신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된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포함될 사항은 개인의 욕구불만 해소, 유희병력의 감소, 문제사병 발생예방 및 선도, 정신자세확립, 개인능력의 최대한의 도출 등 실로 많은 관련사항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욕구불만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며 이것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면 인간행동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런 욕구의 불만상태가 계속되면 심리적 긴장(Psychological tension)이 생기고 만일 거듭되는 경우에는 부적응(Maladjustment)이나 신경증(Meurosis)이 된다.」(주: 3 이남표역, 정신위생 P.127.)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욕구불만은 불공평한 인사처리, 편견이나 선입감을 지닌 상관의 태도, 적당치 못한 업무의 할당, 상관의 무관심 등에서 일어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듯 욕구불만은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경험하나 다만 회소, 빈번, 강약의 차이가 있으며, 문제행동이 있다

면 좌절(Frustration)이나 갈등(Conflict)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좌절이나 갈등을 해소해 주고 생활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휘관은 행동개선편, 생활지도법, 상담방법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다. 지휘관은 부하들로부터 원하는 행동을 요구할 때는 포상이나 나쁜 행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보람된 행동을 증대시키고, 원하지 않는 행동은 처벌, 제거, 자극중재 등으로 감소시키는 행동개선의 기술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군문에 갓 들어 온 부하들에는 비록 기본군사훈련 및 특기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무부대의 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하여 근무면에서나 개인생활면에서 숙히 익숙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부하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하들로부터 생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행동과학에 의한 상담방법, 정신분화적인 상담방법 및 지각의 수정에 의한 현상학적 상담방법 등을 연구하여 부하개 개인의 성격에 적합한 상담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문제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병력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또 그 활동 여하에 따라서 활력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직의 목표를 저해 내지는 파괴할 수도 있는 비공식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여 업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공식 조직의 구성현황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물질자원관리란 물자를 저장하고 손실 및 유실을 방지하며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일 것이다. 물자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얼마만큼의 수량이 필요하며, 이를 어느 장소에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를 우선 알아야 되겠다. 다음은 손실 및 유실을 어떻게 방지하여 필요한 시기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도 생각할 문제이다. 물자를 손실 및 유실을 방지하면서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는 역시 인간 양심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창고에 저장되어 군수물자를 창고반원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만으로는 부정 유출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감시기반을 능가하지는 못한다면 우선 창고반원의 책임의식과 사심없는 복종심의 발로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창고반원의 교육과 독려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관된 물자를 어떤 목적으로 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환용할 것인가 하는 점

도 역시 물질자원관리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인 것이다.

종합하여 보건대

지휘관은 세밀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하에 대한 훌륭한 교육자로서 업무에 관한 한 유능한 관리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9) 결단성

군인은 복잡하고 치밀한 사고를 통하여 단순한 행동을 하는데 그 멋이 있는 것이다. 지휘관의 결단성 지연이나 명확치 못한 태도는 막대한 인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은 인명과 재산을 위협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 하겠다.

지휘관의 결단은 부하에게 업무지침을 정해 주게 될 것이며, 업무의 진행을 신속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관, 동료 및 참모, 나아가서는 부하의 조언 및 충고도 감안하여 자신이 결심한 사항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

량을 고려하고 난 후 결정된 단안은 주저함이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명령을 발함에 있어 지시불여러 번 수정한다면 부하들은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잦아지는 경우는 지휘관을 불신임하게까지 될 것이다.

(10) 판단력

군사의사결정의 과정에는 입부, 지휘관방침, 행동방안, 참모판단, 지휘관판단, 작성계획의 6단계를 거친다.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입부수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휘관은 방침결정과 참모들의 판단을 통합한 하나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전장의 지휘관 부하의 회생을 극소화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책임이 있는 것인바, 적의 양동에 의하여 판단을 잘못 내린다면 한 사람의 오판으로 아군의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도 시간적 제약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가 재산의 손실은 물론 부하에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고로 지휘관은 항상 탁월한 판단력으로 방침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능력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업무를 지시하고 명령해야 될 것이다.

(11) 정직성

대소부대를 막론하고 부대지휘관은 부대의 대표이며, 사표가 되므로 시대와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명예와 정의를 생명으로 삼아서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지휘관이 사리사욕에 급급해지면 올바르고 정당한 지시는 기대할 수 없으며, 부하들은 명령의 존엄성, 군수물자의 귀중함을 잃게 될 것이며, 자기자신의 능력도 발휘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부하가 스스로 따라 갈 수 있고 충성심이 우러나올 수 있는 길은 상관이 표리없이 솔직담백하다고 스스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기풍과 교양있는 생활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부하들은 항상 상관의 생활태도에 따라 그들의 생활태도를 결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12)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실천인

흔히 계급사회에서 종적인 관계는 중요시하지만 횡적인 관계는 등한시하기가 쉽다.

계급이 높으면 모든 방면에서 전부 부하보다 우수한 것이 아니다. 사무실에서 근무처에서 행동이 가정에까지 연장되는

□ 정훈교육자료 : 지휘관론 부하론

경우를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상관은 부하의 정상적인 사생활에까지도 간섭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집안 식구간에도 계급의식을 갖고 생활한다면 부하와 상관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며, 간격이 차츰 벌어질 것이다. 운전병을 사용관이 대하듯이 가족들이 대한다면 근무의욕이 차츰 감소될 것이며, 심하면 타인에게 전달하여 위신을 손상케 할 것이며, 비난의 원성을 토로할 것이다. 이와 반대에 가족간에 계급의식을 분식시키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운전병을 하나의 자연인으로 대해 줄 때는 근무처에서 불쾌했던 감정도 잊어버려질 것이며, 억압(Depression)됐던 감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관이 모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부하는 자동적으로 공과 사를 불문에 붙이고 상관을 존경하고 예외를 갖출 것은 정한 이치이다.

(13) 연구하는 지휘관

지휘관은 항상 변화하는 국제정세가 부대에 미칠 경향, 새로운 전기의 개발, 전술, 전략의 검토, 효과적인 부대 운영 방안, 인간관계개선방안, 부하들의 동향, 지휘통솔법 등 새로운 조류를 부단

히 연구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휘관의 자기중심적인 입장을 떠나서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만큼 참모나 부하의 의사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하보다도 항상 최선의 것이고, 새로운 정보를 터득하여 부하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며 부하의 신변에 관한 문제점을 제보해 주이 부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부하들은 사소한 문제에서 지휘관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진정한 복종심으로 표시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부하들은 지휘관이 연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될 때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14) 공정성

불만의 원인은 대부분 매사가 공정성을 상실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근무평정은 부하가 일한만큼 보상을 충분히 주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해치 못할 요소가 개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직은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지, 전속은 마련된 제도 및 기준에 어긋남이 없는지, 진급은 정설에 구애됨이 없이 잘 발달·선발하였는지,

전역은 남득이 갈만하게 추천하였는지, 포상은 엉뚱한 자에게 수여됨이 없이 당연히 받을 자가 받았는지, 범법사실이나 비위에 대한 처벌은 가중하지도 않고 경하지도 않게 적당히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모든 부하들이 수궁이 갈 수 있게 처리함이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부하의 제반 문제가 공정성있게 처리될 때 부하는 모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여 나가면서도 군복에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15) 자신감

지휘관의 패기없고 주저하는 행동은 부하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휘관은 부하보다도 어떤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 부하들은 스스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투철한 군인정신이 있든지, 준법정신이 강하다든지,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라든지, 스스로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이 있든지, 백절불굴의 인내심이라든가 강철같은 의지의 소유자라든가, 치밀한 계획성이라든가, 강인한 체력으로 보통 사람이상이라든가, 열성과 근면은 도저히 당해낼 자가 없다든가, 상상치 못할 용기의 소유자라든가, 아물든 탁월한 능력은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휘관

의 장점과 단점은 순식간에 부대 내에 퍼지게 마련이어서 지휘관은 자신의 장점을 부하에게 전파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16) 부하와 대화 가능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서도 지휘관과 부하간에는 견해의 차가 있는 것이다. 지휘관은 부하와의 견해차를 좁히고 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권위의식이 너무나 지나쳐도 부하는 지휘관의 의도 및 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추종을 할 우려가 있다.

지휘관과 부하사이에는 장벽(Barrier)이 없어야만 업무능률이 고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17) 권한 위임

「권한위임(Deligation of authority)이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방대한 권한을 혼자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자기 부하에게 위임시킴으로써 권한이 상부에서 하부로 차원을 이루면서 나온다는 것이다.」(주 4: 지휘통솔 및 조직관리 제1부 제Ⅱ권; P. 36.)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 위임한다는 것은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부하에게 공동체의식과 참여 의식을 가지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8) 지시나 명령의 정당성

「지시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상관이 부하에게 행하는 직무상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시라고 하면 직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관이 부하에게 제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시를 받는 부하는 이에 따라 직접 행동을 하는데 반해서 명령은 직무수행 방법을 수명자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주 5 : 지휘관리(3부) 인간관리; P. 99〕

지시는 합리성, 완결성, 명백성이 있어야만 훌륭한 지시라고 할 수 있겠다. 지시나 명령이 위법성이 있고 불분명하고 비합리적일 때 부하는 당황하게 된다.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부하들은 소중히 여기며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나. 공군에 있어서 유능한 하사관의 자질

하사관하면 위로는 장교의 충실한 보필자이며, 기술실무에 실천자이며, 밑으로는 출신수범하여 병의 귀감자로서 자

발적인 병의 감독자로서 군대조직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군 내의 상하간에 의사를 소통시켜주고, 영내생활의 분위기 조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병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에 하사관의 책무를 보면 「하사관은 군의 초급간부로서 병과 생활을 같이 하므로 그의 모든 언행은 병사에게 직접 영향을 주게 됨을 자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사관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항상 명령과 법규를 숭선 준수하여 병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그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신도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장교와 병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군에 있어서 하사관의 역할이란 중차대한 것으로 첫째, 병과 동거동락을 오랫동안 같이 한 경험이 있으며, 병의 생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신전력 강화를 도모하는 일이며, 둘째, 오랜 경험을 통한 기술고관으로서 후배양성 및 전기를 연마하는 일이며, 셋째, 실무면에서 기능공(Technician)으로서 필수 불가결한 문제해결과 직무교육감독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원활하고 규모있게 개발하는 일이며, 넷째, 상의하달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하여 지도록 중계하는 일이다. 이와같이 중대

하사관 및 병 피조사자 특기별 통계표

부표-3

특기별	하 사 관				계	병
	상 사	중 사	하 사	미 상		
16××	5	3	11		19	35
17××	5	26	29	1	61	47
24××		1	3		4	
25××	5	15	13		33	41
29××	12	8	18	1	39	58
30××	11	23	34	1	69	61
32××	8	17	47		72	62
36××	9	7	19		35	45
401××	1	1	2		4	4
42××		9	19		28	45
43××	16	55	106		177	149
451××	3	2	4		9	20
461××	4	6	16		26	54
53××		2	8		10	15
55××	1	4	9		14	32
56××	3	3	13		19	60
57××		2	4		6	30
60××	4	8	19		31	135
641 ×	12	22	31		65	165
671 ×		1	6		7	23
70××	2	9	27		38	160
76××	1	4			5	68
80××	3	3	1		7	6
811 ×	1	4	14		19	124
90××	8	9	5		22	23
981 ×	1	1	1	1	4	
미 상	11	39	73	62	185	214
계	126	284	532	66	1,008	1,676

하사관 분석 결과

부표-4

순 번	내 용	반응인원	비 율 (%)	비 고
1	장교와 병의 교량역할	529	53	
2	기술연마	411	41	
3	책임감	401	40	
4	술선수범	368	37	
5	직무교육 및 내무생활 지도능력	235	23	
6	애국심과 충성심	234	23	
7	명예심과 긍지	228	22.6	
8	성실성	213	21	
9	규정 이행	48	4.7	

한 임무를 띄고 있는 하사관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유능한 하사관의 자질은 부표 4와 같다.

(1) 장교와 병의 교량역할

하사관은 사병의 대표로서 상관의 의도 및 명령을 병에게 전달하며 그 이행 상태를 감독하고 확인하며, 또한 병들의 애로 및 요망사항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해결점을 모색함으로써 장교와 병의 매

개적인 역할을 하여 군의 분위기를 친밀하고 온화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사관이란 군의 초급간부로서 상부의 지시나 명령을 적절하게 전달하여 이를 이행케 하고 병들의 혐이나 진정한 친우와 같이 이끌어 주고 밀어줌으로써 병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그들의 인위적인 혹은 자연적인 애로사항을 알고 타개하여 줌으로써 그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2) 기술연마

고도로 발전하여 가고 있는 현 시대 조류와 병행하여 군의 과학적인 제반 지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습득함으로써 수준이 높아가고 차원이 달라져 가는 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고 후배와 병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으며, 생활진로에도 견고한 준비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활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자신을 갖게 되어 주어진 임무를 실수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3) 책임감

공군에 있어서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책임감은 실로 중요한 것이다. 항공기물 정비함에 있어서 순간의 부주의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책임감이 왕성할 때는 국가의 막대한 재산 및 인명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임감이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 및 동기유발력을 말하는 것이다.

(4) 출선수법

출선수법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모범을 보인다는 뜻이다. 출선수법이란 말로

가 아니라 실천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다. 규정을 지키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보다 먼저 하고 힘겨운 일을 서슴치 않고 하고 전우애를 발휘하는 일이 모두 출선수법인 것이다. 하사관의 자세가 이러한 때 병들은 자연히 하사관을 따르게 마련이며, 자발적인 복종심이 발로되는 것이다.

(5) 직무교육 및 내무생활 지도능력

하사관은 항상 높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바 임무분야의 철두철미 업무지식과 경험으로써 병의 개인지도와 소지 특기분야의 교관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사관은 대부분이 내무반장을 거친다.

내무반은 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외출이나 휴가갔던 병이 웃으며 귀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하사관의 통솔능력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다.

통솔은 본질적으로 감화력과 설득력에 의존하는 것이며, 또한 합리성과 도의심이 내포되어야 한다. 부하들을 강제적 방법으로 공포에 의하여 이끌어 간다면 부하들의 마음 속에서 존경심이나 신뢰심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6) 애국심과 충성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물자 중 장비에서 기안지 하나에 이르기까지 낭비하지 않고, 전우의 어려운 처지를 도우며, 상관과 부하간의 분위기를 조정하여 조화있는 생활을 기하게 하여 상관, 동료 및 부하들의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주는 일 등 자신이 처한 입장과 위치에서 용이하게 찾아서 수행할 수 있는 하사관이야말로 애국심과 충성심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작은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일을 더욱 처리하지 못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애국이나 충성은 말로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고자 하는 의욕과 할 수 있는 능력을 결별할 때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두게 됨을 간파하여야 한다.

건전한 정신자세를 함양하고, 소지특기분야의 지식에 정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자기업무의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느라 면, 성에 의욕을 느낄 수가 있으며, 이러한 열의의 의지는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요, 가족과 사회를 돕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길임은 각자가 스스로 느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발전은 개인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어렵고 험난한 여건과 환경

을 극복하고 확고한 신념과 백질불굴의 의지로서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는 길에 서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명예심과 긍지

하사관은 군의 시범자로서, 특기교육 및 내부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으로서, 상의하달을 하는 의사소통의 매개자로서 고도의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군의 최고 기술자임을 인식하고 자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부에 중요함을 알아서 일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포기할 것이 없이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길을 운택하고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하사관 자신들의 일이며 결코 장교나 병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8) 성실성

하사관은 인력, 시간, 자원 등의 전력을 낭비함이 없이 근면한 품성과 열성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병들을 지도하는 데서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병을 정신적인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전원 전투요원화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사관들의 이런 성실성은 장교로부터는 신뢰를 일게 되고 병으로부터는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임이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다.

(9) 규정 이행

규정은 병영생활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개인이 지니게 될 과오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제정된 것이다. 불 수 있겠다. 장교에게 훌륭한 보필을 해야 되고 병에게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하사관들의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기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규정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병의 바람직한 자세

복종을 잘 하지 못하는 자는 지도도 잘 할 수 없다. 부하 없는 지휘자는 무력한

것이며, 지휘자 없는 부하는 무질서한 것이다.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인 복종을 실천에 옮기는 병은 억압에 못이겨 행동하는 장교나 하사관보다는 우수한 점이 있는 것이다.

공군의 병은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었으므로 생활태도나 행동이 자신을 위하여 연 보람되고 값있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군인복무규율은 병이 책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량과 보람을 가지고 항상 군인의 본분을 다해야

병 분석 결과

부표-5

순번	내용	반응인원	비율 (%)	비고
1	애국심과 충성심	942	56.2	
2	책임감(부)	909	54	
3	자발적인 복종심	768	46	
4	성실성(솔직한 성격)	741	44	
5	정신무장 철저	699	42	
6	술선수법	462	28	

한다. 특히 명령에 복종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심신을 단련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줄거리 몸과 마음을 바친을 지상의 명예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규율 밑에 지원입대한 병들이 생각하고 있는 병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떠한 요소들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부표-4 및 부표-5 참조).

라. 병의 바람직한 자세

(1) 애국심과 충성심

청년은 의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실보다는 이상을 소중히 여기며, 실제보다는 관념을 우위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청년기의 심리적 특징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일단 자기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면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나라를 수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는 병들이 자기 가족, 이웃, 친구들을 좋아하는 정신의 발로라 하겠다.

(2) 책임감(뉘)

자기 자신이 할 일을 타 전우나 동료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나의 임무를 남에게 미루면 결국 업무는 지연되고 자신은 심리적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3) 자발적인 복종심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능력을 가진 자는 모범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병은 의무적이고, 규율적인 병영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교훈을 배우고 익혀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질을 터득해야 한다.

(4) 성실성(솔직한 성격)

병의 임무는 대부분이 문서를 수발하는 일, 경비에 임하는 일, 전보를 취급하는 일 등 업무성격에 비추어 그 내용은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 이러한 중대한 업무를 태만히 할 때 부대의 목표는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은 명백한 일이다.

(5) 정신무장 철저

정신은 하고자 하는 의욕을 표시한다. 의욕이 왕성할 때 지시나 명령의 수용성은 증대되는 것이다.

(6) 솔선수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도우며 규율이나 규정을 지켜 명랑하고 온화한 병영생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3. 결 어

「지도에 대해서는 지도의 목표, 리더(Leader), 피지도자, 당면상황 등의 적어도 4가지 요소적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주 6 : 장 병립; 부하통솔과 인격. 공군 124호 P. 38.)

공군이란 특수사회 속에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발전성을 기대하려면 지휘관으로서의 장교는 어떠한 자질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하사관은 어떠한 태도와 능력을 가져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는 병의 바람직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의 특성에 대하여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거듭하여 왔지만 많은 특성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도자의 특성 및 부하의 자질을 역시 집단의 성격, 시대적 차이, 환경적 여건, 피지도자 및 지도자의 요구 및 수준에 따라 가변성을 띄우게 됨을 알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에 의한 지도자의 특성 및 공군에서 지도자로 소요되는 자질 7가지도 물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일엔 의심할 바 없다.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공군의 각 신분별 구성원이 자

신들의 자질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정신면 즉 인간성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배적인 것을 떠나 지도적 입장을 가질 것,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줄 것, 배척하기보다는 수용할 것, 비합리적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할 것, 무시하기보다는 가치를 인정할 것,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것,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일 것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공군의 특성은 이러한 인간성을 요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겠으며, 임무수행면에서도 관리능력 및 기술언마를 소중하게 보고 있음을 볼 때 발전의 전망이 기대된다고 보겠다.

참고문헌

1. 공군 제 124호 공군본부 정훈감실 1971.
2. 지휘통솔 및 조직관리 제 II권
3. 지휘관리(3부) 공군대학 1968.
4. 제갈람심서 서울 신명문화사 1965.
5. 지각심리학 최 정훈 서울 을유문화사 1972.
6. 통솔법에 의한 군 관리 향상책 김기찬

경이공군으로

힘찬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성 경 린 <국립국악원장>



우리나라 최초의 조인(鳥人) 안창남(安昌男) 씨가 지금도 나오는 남같은 생각이 안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까마득한 어릴 때의 일이다. 신문에 떠돌고 거리에 술렁대는 얘기가 안창남이 비행기를 몰고 금의환국을 한다는 큰 소식이었다.

「나하곤 한 반에서 배웠지」.

말형과는 미나릿골 소의(昭義)학교에서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들없는 친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래 그런지 안창남하면 큰형을 생각하게 되고 큰형의 친구이니 형님같은 혈연을 느꼈는지 모른다.

안창남이 1962년 12월, 고국 방문 비행을 감행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장거로 한국 사람의 손으로 조종된 최초의 비행이었다. 비행기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이른바 대동아전쟁 말기 미 공군 B-29의 우람하고 당당한 비행인 것이다. 한 줄기 비행운을 길게 그으면서 유유히 왔다다가 유유히 가버리는 의젓한 모습.

그 비행기 날아간 창공을 부러운듯 취한듯 넋을 빼던 어이없는 기억. 그러나 그런 도취나 동경보다 진정 피가 끓는듯한 감격이라면, 비행기 두 나래에 태극표지도 선명하고 아름다운 우리 공군기의 능연한 초기의 비행을 들어야 할 것이다.

B-29같은 거대한 비행기는 못되는 것이었다. 그것이 비록 초급연습기 따위 작고 가벼운 것이더라도 내 나라, 내 하늘을 지킬 한국 공군의 남상이라면 그저 고맙고 대전하였다. 그간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비행기, 미국으로부터 이양받은 비행기도 적지 않을 것이요, 정부의 예산으로 발주한 전투기 등도 정말 허다할 것으로 이제 우리 공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제반 장비의 확충, 강화 못지 않게 공군 병력의 세력 또한 날로 증강을 보여 최신식 전술공군으로의 체제를 완전히 확립하고 있는 일은 진정 믿어운 일이다. 아들이 공군에 복무했기 때문에 나는 공군에는 더없는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다. 전공이 공학계통의 과목이라서 학업중도에 병역을 치르지 못하고 머뭇머뭇 졸업이 되고 말았다.

그래 지망한 곳이 공군기술교육단 간호후보생이었다. 필담고사도 합격이 되고 어려운 신체검사에도 합격이 되어 4개월인가 고된 훈련 뒤에 공군소위로 임관된 때의 특의와 보람. 아들의 예편으로 공군의 아버라는 자랑은 잃었지만 지금도 공군에 각별한 정을 느끼는 것은 모두 그때의 인연 때문인가 싶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합쳐 한국 국군으로서의 군인의 길이 뚜렷하겠거니와 다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저마다의 특유한 기질과 성격으로 각 군의 개성이 도드라질 것 같다. 육군의 중후, 해군의 침착, 공군의 유연, 해병대의 과감……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주관적인 인상은 이렇다. 공군은 그 푸르른 하늘을 무대로 하고 있다. 꼭 그렇대서만이 아니라 공군의 기우(氣宇)는 한없이 넓고 클 것이라고 짐작된다. 기상이 활달하면 저절로 부드럽고 또 너그러울 수 있다. 공군은

그래서 언제나 대세를 판가름하는 전투와 폭격에 선봉장이어도 항상 태연하고 자약한 것은 그런 깊은 도량에서 말미암은 것이리라. 우리 공군이 한 군으로서 독립한지 어언 스물 세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 공군이 쌓아 올린 험격한 무훈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이번 남북공동성명으로 정부의 조국통일을 위한 획기적 조치에 국민 모두가 신뢰와 찬양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 이것도 강력한 힘의 뒷받침, 즉 힘의 우위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 하늘의 불침번 공군에 기대하고 바라는 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 공군 장병들은 명감해 주기 바란다.

나 필 성 <대한일보 편찬위원>

월남의 땅덩이 위에는 2천 5백만개의 큰 웅덩이가 새로 파졌다고 한다. 월맹공산군과 베트남의 침략을 막기 위해 B-52 등 미국의 폭격기들이 쏟아 놓은 엄청난 자유의 폭탄구덩이들이다. 월남전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진 이후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백여개의 폭탄을 적의 코앞에 투하한 셈이다.

3천만의 불침번, 우리의 보라매가 창설된지 이제 23주년. 지금의 우람찬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동안 숱한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하지만 하늘을 깨뜨는 금속성의 제트음이 컷전을 두드릴 때, 우리 가슴엔 지난날의 고난보다는 지금의 위용과 떨어가는 미래가 더 선명히 떠오르는 웬 일일까?

그만큼 한국공군은 발전해 왔고, 더욱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리라. 들여다보면 슬픔을 금할 수 없는 공군창설 당시의 뒷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해방 뒤 육군의 결방살이로 침략을 감행해 온 6·25 당시 L-5, L-10 등 연습기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쟁초기 비행기문을 열고 유유히 내려오는 북한공산군 탱크에 폭탄

을 손으로 던지던 조종사의 모습, 그 조종사의 심경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한 공군의 눈부신 활약은 비록 미국의 도움이 크긴 했지만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조금도 부끄럼없는 전통을 수립하게 됐고, 오늘의 산 보라매 정신을 창조했던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출발한 공군이 3천만의 불침빈이 되기에 이르기까지는 불과 십수년이 걸렸을 뿐이었다.

2천 5백만의 응당이 속에는 미군의 온갖 용기와 지혜가 서려있다. 슬픔 또한 서려있다. 전우의 피와 혼이 공산군의 침략을 무찌르라고 외치고 있다. 12개 사단의 대규모 월맹군이 월남을 새로 공격한지도 5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월맹은 큰 타격을 입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상군 하나 없이 공군만의 힘으로 월맹의 총공격을 능히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결방살이로 그 첫발을 내디딘지도 이제 스물 세해. 비록 동서진영간에 화해무우드가 깊어지고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성년을 넘어서신 보라매에게 기대하는 바가 어찌 한두 가지이겠는가?

맨손으로 뛰던 한국전 당시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의무의 정신을 첫째로 길이 기대하고 싶다. 지금도 월맹의 상공을 누비고 있는 B-52와 F-4A처럼. 2차대전 때의 일본의 특공대(特攻隊)는 그 자체가 나쁘긴 하지만 그 기질만은 높게 사고 싶다. 그리고 협조정신이 보다 바람직하고 아쉬운 것인가 싶다. 밤하늘을 지키는 한 대의 F-86이 뜨기 위해서는 배이다, 무장, 정보, 기상, 의무, 정비 등 전 공군의 기능이 총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느 한 분야가 협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비행기의 기능은 마비되고 만다.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의 이슬과 여름의 땀구름, 가을의 싸늘한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공군에겐 어느 군보다도 유기적인 협조와 상관작용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협조만 보다 충실히 되고 유지된다면 막강한 현재의 위용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이제 3천만의 불침번은 5천만의 불침번으로 그 자세를 바꾸어야 할 때다. 북녘을 막는데서 지키고 보호하는 자세의 전환으로 가는 길엔 용기와 협조가 있을 뿐이다.

등산가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산에 간다고 한다. 공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밤 하늘의 요란한 천둥 속에서도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원 병 의 <수원시장>

우리 한국공군은 자주국방의 전위로서 조국의 영광을 수호하는 중대하고도 엄숙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방패로서 창설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철한 애국정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바로 그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공군이 창설되기까지 육군항공대에 편입되어 있다가 1949년 10월 1일을 기하여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 양양한 앞길을 온 국민 앞에 약속하면서 공군독립의 힘찬 거보를 내딛고 김 정렬 초대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창업의 터를 닦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어언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운을 겪어야 하였으며, 빈약한 장비로 조국의 방패요 영광의 수호자로 그 사명을 다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조국의 비운을 면하게 하였음은 공군의 힘이 실로 컸다고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제 4위의 막강을 자랑하는 국군을 보유하였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만큼 우리의 국군의 전투력이 배양되고 연마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전은 공중전이 중요한 승패의 관건이 된다 하겠으며, 공군을 운영하는 기술진은 현대과학의 결산으로 통쳐지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과단성 있는 응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는 국력신장을 도모하는 한편 국방력의 증대에 총력을 경주하여 자주국방의 거국적인 목표달성에 총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군력의 증강은 자주국방의 첩경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현하 국제정세는 시시각각으로 격변하고 있으며 예기치 않는 돌연적인 변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북한은 전투태세 완비를 위장하고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평화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국민은 물론 군으로서도 추호의 방심도 금물인 것이며, 성급한 기대나 지나친 낙관론을 배제하여 안으로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에 대처해야 하며, 오직 국민총화로 대동단결의 대 명제를 꼭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염원하는 국토통일을 하루 속히 가져오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며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군도 이제 탄생한지 23년의 성년공군이 되었습니다. 정병강군, 곧 정예공군의 자랑스런 면모를 갖춘 믿음직스러운 공군으로 힘찬 전진을 거듭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굳게 당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공군의 입장에서>

강 용 구

염원의 부더운 복날.

천지를 진동하는 항공기의 폭음은 더위를 더해주는 듯이마의 구슬땀이 방울지어 흐른다. 계절의 변화를 잊은지 오래인 군인의 생활, 7월에 접어들면 사회인들은 피서를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시원한 산과

바다로 가기 위해 분주히 날뛰지만 일요일의 휴무도 없는 전술비행단의 생활이고 보면 아예 피서같은 단어는 우리의 생리에 맞지 않는다.

어느 금요일 오후, 그 이글거리는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찢어지는듯한 급속의 비행기 폭음도 멈추어 고요가 찾아들어 허탈감마저 감돌게 하는 시간, 분주하던 정비사들도 한시름을 놓은듯 일손을 멈추고 기름투성이의 몸을 씻기에 바쁘다.

나는 이들과 시원한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뜨거운 햇볕에 그을린 까만 얼굴에 수염이 턱수룩한 이상사가 말을 시작한다. 아마도 금년 1월에 있는 일이었다. 참모차장님께서 이상사가 정비한 비행기(F-5B)를 손수 조종하여 전진기지를 시찰하시고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비행기의 오른쪽 기관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었다. 즉 R.P.M이 85%에 고정되어 움직이지를 않고 Throttle을 조작해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R.P.M은 85%. 그 결합은 Engine의 연료를 조절해주는 Air Fuel Control과 속도의 증감을 해주는 Throttle의 연결부가 분리된 것이다.

그리하여 참모차장님께서서는 비상조치로서 Engine으로 들어가는 연료를 긴급 차단시키고 한쪽 기관을 이용 무사히 당 기지에 착륙하셨다. 그러나 참모차장님은 기관을 비롯하여 관계정비사들에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웃음을 보내면서 비행기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비행기 잘 탔어! 모처럼 비행기를 타니 말을 잘 듣지 않는군. 정비사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미안해!』하고 일일이 정비사들에게 악수를 나누었다.

정비사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비행기, 거기다 참모차장이고 보니 등골이 오싹 오한을 느끼며 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송구스러웠다고 솔회한다. 특히 인자하고 따뜻한 온정, 진정으로 아버이가 자식을 위하고 그 사랑, 정비사들은 그 고마운 온정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찢릿하도록 고마워 자기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임무인 정비에 전력을 다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심들을 했다고 흥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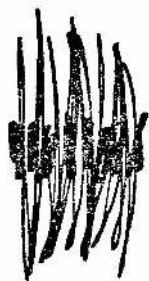
하여 말하는 이상사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이제 수적인 열세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장병 상하가 이렇게 사람과 인정으로 굳게 뭉쳐있으니, 어찌 5백만 인구의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1억을 넘는 아랍제국을 불과 6일만에 쳐부신 전사에 빛나는 교훈을 한 시도 잊을 수가 있을까? 지난 7월 27일 대통령각하의 특별 보좌관인 장동환 박사가 7·4성명과 군의 자세라는 강연을 가진 바 있다. 그는 결론에서 대화를 통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정신 자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투철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정신을 개조하는데 있어서는 군의 정훈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병주의이기 때문에 전장정은 누구나 군의 의무를 필하여야 하므로 군의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면 국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국민정신을 개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공군의 정훈분야가 현 여건에서 국민정신을 개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루 속히 정훈분야를 강화해서 대화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예공군이 되는 또 하나의 길이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천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국들은 제각기 국가 이익을 앞세워 약소국가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칸질을 하려는 그들의 생리와 독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토의 반도성이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약소국가라는 운명 때문에 서러움과 비극을 너무나 많이 받아 온 숨가쁜 역사의 회오리바람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예공군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변천의 다양함에 새삼 놀라기 전에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름잡는 주인공으로서의 새로운 결의와 행동하는 정예공군이 되어야 하겠다. 또 강대국들의 독선적 흥정으로 점철된 지난 날의 오욕을 씻기 위해서도 자조하는 정신, 자주하는 의지, 자주하는 자세로 힘을 길러 「너」「나」 할 것없이 정예군이 되도록 총 매진하여야 하겠다.

장 덕창
장군을
추모함



편 집 실

1972년 7월 11일.

한국 공군을 키워 온 또 하나의 큰 별 장 덕창 장군이 영면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그분의 걸어 오신 발자취를 더듬어보기로 하겠다.

고 장 덕창 장군은 공군 창설초창기부터 7인간부의 한 사람으로 공군 창설을 위하여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 전쟁당시에는 조국을 위하여 불철주야 갖은 노고를 다 겪었으며, 전후에는 제 4대 참모총장에 취임, 공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전역하였다. 전역 후에도 그는 공군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오면서 늘 공군을 잊지 않고 희생의 나날을 보내곤 했다.

고 장 덕창 장군은 1903년 5월 9일 평안북도 의주군 고관면 춘곡동 31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에 따른 숨막히는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고 장

장군은 일본 이또오비행학교에 입학하여 민족적 울분을 달랜 것을 결심하고 청운의 높은 꿈을 푸른 하늘에 띄우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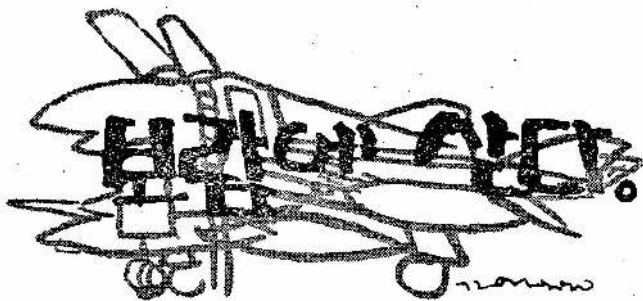
1940년 이또오비행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장군은 일본 수송주식 회사에 발탁이 되어 해방이 되는 날까지 이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였다.

조국 광복과 더불어 꿈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에 돌아 온 장군은 나라의 앞날을 바로 보고 장차 공군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을 역설하면서 공군 7인간부들과 뜻을 같이하여 1948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

1948년 5월 15일, 소위로 임관한 장군은 그해 9월 30일에 육군항공기지 부대장으로 취임, 이듬 해인 1949년 공군이 독립될 때까지 공군 독립의 가반을 굳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1949년 10월 1일, 공군 독립과 더불어 장군은 공군독립기지사령관의 중책을 담당하였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2개월 후인 8월 28일에는 공군 비행단장으로 임명받아 물밑듯이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출진수법, 선두지휘에 전력을 다하였다. 비행단장으로서의 탁월한 영도력과 뛰어난 덕망은 연일연야 출격에 지친 조종사와 정비사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친밀감으로 결속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1953년 5월 1일, 고 장 덕창 장군은 공군 본부 행정참모부장 겸 제 1훈련비행단장을 겸임하시고 1955년 3월 15일에는 참모차장에 취임하였다. 1956년 12월 1일, 중장 진급과 동시에 제 4대 공군 참모총장에 취임한 장군은 공군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여 오늘날의 공군의 터전을 닦기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 공군이 일취월장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면모를 갖게 되기까지는 고 장 덕창 장군의 일생을 통한 자 오와 열정이 크게 뒷받침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장 덕창 장군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1만시간 비행기록을 수립한 조종의 베테랑으로 유명했던 분이었고 수많은 에피소드를 지니신 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일생을 통하여 공군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 오다가 영면하신 고 장 덕창 장군의 명복을 빌 따름이다. 고 장장군의 넓은 영원히 우리 공군과 더불어 같이 살아 남아 있으리라. 고이 잠드소서.

공군의 크신 별이여!



— 일하는 보라매의 진중일기 —

몸에 배인 배기가스



조 은 호

내가 정비에 몸담아 온지도 어언 2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탈라꾼도 여러 번이었다.

그 소용돌이를 겪다 기억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좌코비행기가 오늘의 팬텀으로 화했고, 손깎아 헤아릴 정도의 수효가 지금의 이 엄청난 양상으로 바뀌었다. 물론 나도 이십대의 약관이 지금은 “늙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니, 아뉘튼 이모저모 많이 달라졌으며, 발전도

많이 됐다. 심지어 비행기가 고장이 생겼다고 할 때 청진기를 동체에 대어보았다는 넌센스도 있기도 하지만, 웃지 못할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내가 제트기 정비로 전환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같은 대대에 기술이 남보다 월등하다는 고참님(?) (지금은 사퇴인)이 제쳤는데 이분의 기술적 가치, 즉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만이 아는 것이니까. 그렇기에 고장이 생긴 곳은 혼자서 수정을 잘 시킨다. 어느 날 내가 배우겠다는 호기심에 그분이 작업하는 곳으로 바짝 달려드니까 『어어! 가서 드라이바하고 덮퍼 가지고 와!』하기에 철없고 눈치도 없는 나는 열린 공구를 집어들고 백운다는 욕심에 가슴 실레며 『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공구 필요 없어! 다 됐어!』라는 것이 그분의 대답이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고쳐 주었나

는 물음에는 대답도 없이 총총걸음으로 저편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참 바보로구나」하고 혼자 내 자신을 욕(워로)하기도 했다. 저것이 기술자 습성인가, 아니면 뼈개는 걸까? 영웅심일까? 좌우간 내 습성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 날은 종일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아마 그 때의 울분이 나를 지금의 나로 이처럼 키워준 것일 게다. 한편 그 분께 감사한다.

얼마 후에 내가 담당한 교장요소를 손쉽게 원상복구를 해 놓았다. 그때 그분이 어떻게 힘든 일을 했나? 하고 묻기에 알미움과 복수심에서 『그냥 그냥 우물쭈물 되던데요』라고 말하니 무엇을 느꼈는지 아무 말없이 힘 없는 걸음으로 저편으로 가고 만다. 나는 뒤에서 승리의 쾌감을 맛볼 수 있었다. 아마 나의 기억으로는 마구잡이 정비는 이로써 끝맺음이 된 셈이다. 체제가 잡히고 교육이념이 뚜렷해지고 지식을 서로 전달하며 배우고 일깨워주며 실천에 옮겨 매사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보다 훌륭한 정비진용이 형성되었고, 신뢰도가 높은 일꾼들이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되기까지 음양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돌봐주신 웃어른들에게 제삼 감사드리는 바이다. 내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온지 어언 이십개성상, 그간을 돌이키면 이모저모의 사연도 많겠으나, 뭐! 그렇게 유달리 깊이 간직될만한 것은 없고 그중 떠오르는 것이 조종사와 정비사와의 유대가 두텁다는 것이다. 옛날과 지금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보나 역시 조종사가 우리 정비사의 노고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실 때는 추후도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조종사의 안녕과 무고함을 기원하는 일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교량역할은 역시 비행기라는 놈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를 들어보자. “A”라는 조종사가 임무를 받고 비행에 임하게 될 때 비행 전 점검이 체크리스트에 의해 철저히 이행된다. 그러나 기장(정비사)에게 『비행기 좋지요?』라고 물어본다. 이것은 바로 정비사에게 『안녕하시오』하는 말이다. 그러면 정비사는 곧 응답한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말이 곧 조종사의 안녕을 축원하는 대명사이다. 이러한 대화가 화목단결의 근원이 되며 비행안전의 척도가 된다고 본다.

아참! 내가 얼마 전에 정비분야에서 잠시 떠났었다. 우리 집 스마일(막내아들의 애칭)이 『아빠! 계장이야?』하고 묻

기에 『응! 그래』하고 대답은 했는데 어쩐지 허전한 감이 들고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프러진적이 있다. 비행기와 씨름하던 놈이 행정직을 보임받고 뱃바진 생원모양 명칭하였었다. 얼마 걸지 않은 7개월간의 근무기간이기는 하였으나 나의 개성에 맞지를 않기에 의욕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우물쭈물 지낸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운 것이 있다. 정비물 한담시고 행정에 너무 어두웠던 것이 다소 보고 느끼고 들은 공월에 앞으로 행정이라고 해도 약간의 자신은 있게 되었다. 좌우간 정비나, 행정이나를 저울질 할 때 단연 정비쪽으로 기우는 것은 의 그릴까. 그전 너부도 별하다. 자신이 단조롭고 그래도 종사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면 정비가 역시 우위를 차지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럼 그 보람이란 게 무엇일까? 우선 조종사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해 줄 의무(항공기 완전정비로 안전비행), 또 고가의 비행기와 벗삼고 있다는 자부심, 명실공히 삼천만의 불침번이란 긍지를 지니고 총력안보의 선봉에서 내일을 향해 노력하는 보람, 이런 것이 우리 정비사들만이 맛볼 수 있는 감미일 것이다. 그런데 아쉽다면 매스컴을 위시한 각종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산 역사를 소개할 시간이 꼭 많다고 보는데 정비사의 노고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시내에서 영화관람을 하였는데 정비사가 술에 만취되어 정비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 공군의 정비사들은 아닌 것이다. 물론 유우머스럽게 작본을 썼겠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은 고려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소재를 배격하고 보다 충실한 미담 등을 소재로 하여 보급되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바라건대 참다운 정비사의 상을 부각시켜 이것이 진정한 역군이며, 불굴의 용사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게끔 홍보활동을 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나 나름대로의 전통과 질서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청년들은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허전한 생활을 방황감각의 마비상태로 허황한 마음으로 보내며 무엇인가 지도적 향방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권태로운 나날을 보내다 지친 셈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지표를 찾지 못했다고 본다. 그렇기에 존각도 사색에 잠길 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근무처에서는 비행기정비에 임하는 시간 외에는 술한 계획대로 정말로 다른 분야에서 맛볼 수 없는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짜서 진행

을 하는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면 1일 2건의 기술교육, 기술도서의 영어단어 위우기, 사생활 발표, 고운말 쓰기 토론회, 십분간 증대장님 정신훈화, 십분간 진우지 읽기 및 평론, 운동, 환경정리 및 미화작업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참된 인간으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 잡념을 없애고 나아가서는 군 본연의 자세를 일깨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항상 싸우던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신조와 자신이 용솨음치며 임무수행도 능히 완수할 수 있다는 포부가 생긴다고 본다. 이제 끝으로 내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를 발함으로써 후배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954년 여름 그날도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서 어제 못다 한 고장탐구(T-6훈련기○○○호의 바퀴다리)를 하였다. 오후 3시경이 되어 작업이 완료되고 시험비행을 하게 되었는데 후방석에 타서 바퀴다리 표지등을 잘 주시하라는 분부를 받고 대답은 청산유수같이 잘 하고 근 한 시간 동안 하늘을 나는데 그때 느낀 감회는 이루 형용하기 힘들다.

비행을 끝내고 주기장에 돌아와 캐노피를 열고 즐거움에 연신 싱글벙글거리며 날개 위로 해서 지상에 내려와 낙하산을 몸으로부터 내려 놓으려 하는 참나 이상사님(그 당시 계급)이 『어이 뒷좌석

은 현상이 어때?』하고 묻는데 나의 대답인즉 『무엇 말입니까?』 그와 거의 같은 시간에 내 머리 위에는 계범 아픈 느낌을 주는 차륜지 세례가 떨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늘을 난다라는 기본에 그만 지시를 이행 못한 탓이니과 그와같은 실수가 재시험비행을 하여야 했으며, 영광스럽게도 재차 하늘을 날 수 있는 특혜도 부여받았었다.

후배들은 절대로 나와 같은 이런 바보스러운 행위는 양오리라고 믿는다. 오늘도 선후배 정비사들과 함께 폭음소리 요란한 주기장을, 더구나 비행기 배기가 스를 쪼이며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보람을 찾는다.

공군과 더불어



박 해 종

그 당시의 전황

1949. 10. 1. 우리 공군이 창설되어

십여대의 L-4, L-5와 국민의 헌납으로 들여온 T-6 10대로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유아기의 우리 공군에게 복귀군은 YAK-9, IL-10 등 프로펠러형 전투기를 200여대나 가지고 6.25를 개전하여 여의도를 폭격하고 김포와 수원 등을 기습하였다.

이때 우리의 공군은 경비행기에 수제 폭탄을 안고 적의 탱크와 차량을 공격하였던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불행은 우방군도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6.25 직후 우방군의 전투기들은 적의 탱크와 지상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가지 않아 계곡권은 오히려 우리가 차지하기 시작했다.

1950. 7. 3. 우리 공군은 F-51 〇〇대를 단 2일만에 비행훈련을 마치고 현해탄을 건너와 작전에 임하였다. 연합군과 합동작전으로 남하하는 적의 우리를 저지하고 낙동강 방어작전과 반격작전에 임하게 되면서부터는 우리 공군의 힘도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1951. 10. 11. 강릉 전진기지로 전진하여 동부전선 지상군 지원작전에 임하여 공기 합동작전으로 철의 삼각지, 조격능선, 평양, 순천, 원산, 사리원 등 적의 퇴로를 차단하며 보급기지를 쳐부시고 저 유명한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을

우리 공군만의 힘으로 완수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때에 나는 조국수호의 역군이 되고자 공군의 일원이 되어 6.25를 겪게 되었다.

임대 동기

전쟁이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나는 무장정비사로 임명되어 대구기지에서 미공군과 같이 교육을 받다가 강릉 전진기지로 후보생인 채 배속을 받았다.

강릉 전진기지 전출

푸른 동해바다와 구비구비 험한 대관령고개를 등지고 병산리 「산패지 소굴」에 메추리가 배속되어 갔다. 한국 공군의 아성인 산패지 소굴, 꺾꺾이 심어진 소나무들 사이에 즐비하게 들어선 천막, 내무반, 여기가 바로 전진기지 정비사 숙소였다. 땀떡모자에 양가죽 Mechenic 잠바를 걸치고 우리를 맞아준 고참병들이 왜 그 당시는 그렇게 반가우면서도 무서웠는지 알고도 모를 일이었다.

무장 정비사의 하루

배속 다음 날부터 날도 밝기 전에 활주로에 뛰어나가 500LBS 폭탄을 비행기에 운반, 장착하고 천여발의 실탄을 맨

땀마냥 목에 베고 장진하면 첫 비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때부터는 나의 업무도 바빠진다. 다음 비행준비를 위하여 폭탄, Rocket 실탄운반, 그리고 기관총 세척 등 동분서주하다 보면 벌써 첫 비행 항공기는 많은 성과를 안고 기지로 귀환한다.

내가 띄운 항공기

우리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귀환하는 비행기들을 쫓는다. 한 대, 두 대, 일편대, 이편대 무사히 착륙할 때마다 지상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애인이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러한 것일까? 자상한 어머니가 나들이 나간 자식을 그 같이 애타게 기다릴까?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었다. 기장이 뛰어들어가고 기부가 차분지를 고이고 통신사가 점검을 하고 무장사가 총구를 수습하는 등 분주한 다음, 비행준비는 또 시작된다.

이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노라면 어둠이 깃들고 항공기는 주기장에 출지어늘 어서게 된다. 내일의 전투를 위하여 우리들은 폭탄을 실어 나르고 기총을 세척하며 밤이 자정이 되어야 겨우 숙소로 돌아간다.

정비사의 미신

항공기를 맡아 가지고 점검과 정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장들은 현대과학의 최첨단을 걸고 있으면서도 미신적인 면도 숭상하는듯 싶었다. 적진으로 내보내는 애기와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간밤의 꿈이 불길하다든가 첫 새벽 일조 점호전에 까마귀가 지저귀고 지나갔다거나 하면 어떤 구실을 붙여서든지 합법화시켜 비행을 중지시키려고 교섭하기도 했다.

조종사와 정비사와의 관계

정비특기로 독립되어 분리되기 이전에는 전투조종사와 정비사는 한 대대원이었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은 한 형제와도 같이 서로 아끼며, 도와주며 일치단결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출격에서 돌아온 항공기들 다음 날 첫 Mission에 이상없이 비행시키려 얼어붙은 손으로 고장탐구에 임하였을 때 적진출격에 피로를 풀어야 할 시간에 Line까지 나와 보급된 간식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작업을 도와주는 일은 우리들 정비사와 조종사간에만 있는 호뜻한

일이다. 모처럼의 야간의출에 시내에서
혹 만나기라도 하면 백년지기가 만난듯
석사나 술 한 잔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고마움 또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출
격 후 무사히 작전임무를 완수하고 돌아
와서 환주로에서 만난 정비사와 조종사
는 다정한 애인처럼 미소와 함께 정담을
나눈다.

전투장비의 부족

연속적인 직진출격에 임해야 하는 항공
기에 가동상태 100%유지와 Mission지
원에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
지를 않는다.

폭탄장착 장비가 부족하여 목도를 메어
장착하고, 시동장비가 부족하여 Line에
서는 시동장비 정탈전이 벌어지고, 일조
첫, 점검을 남보다 먼저 하여 놓으려고
정비기부는 선착순 우선이니까 지상장비
란 앞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다반사였
다.

정비 교육의 가지 가지

선배 정비사들이 일본 소년비행학교
출신들이라서 공구 호칭이나 정비용어가
일본어 위주로 사용하게 되어 영어로 배
운 우리들은 명칭에 혼동을 일으켜 잘못
갖다주면 이마에 혹이 하나 생기기 가 다

반사였다. 거기에서 TACK Order를 퍼
놓고 정비를 하러니 부족한 영어실력이
세삼 한스러워 영란사전을 성서마냥 휴
대하고 다니면서 배운 정비기 F-51프로
펠러 비행기에서 아음속의 초음속 항공
기로 비약하여 오늘의 팬텀공군을 이루
하여 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옴뚜꺼비가 된 졸병의 손등

연일의 전투와 항공기 지원을 맡은 정
비사 중에서도 초년병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바쁜 나날이었다. 첫 새벽 일조 점
검에서부터 야간에 폭탄장착까지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온 초년병에게는 발
침번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
루종일을 세척유와 휘발유 속에 손을 담
그고 기종을 세척해야 했고 보기를 닦아
야만 되며, 비행지원을 하다보니 한 겨울
의 우리의 손등은 식모살이 아가씨의 손
등보다 더 험하게 터졌어도 한가로이
손등을 보호할 겨를도 없이 식기당번을
해야 하니 옴뚜꺼비의 등판과 같은 나의
손등은 내 자신이 보기에도 정그러울 정
도였다. 얼어서 터진 손등에 크림을 바
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치는 Oil과
Grease를 발라 문지르니 내 손이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 항공기의 보기가 된 느낌
이었다. 모처럼의 야간 외출에 방 안에
서도 면장갑을 벗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단골로 다니는 주점 아줌마의 강권에 못이겨 벗겨진 내 손등을 보고 주인 아줌마와 식모아가씨가 눈물을 흘려 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덕분에 배 불리 얼어먹은 행운(?)도 있었다.

강릉의 눈바람

대관령과 동해의 지리적인 조건에서 인지는 몰라도 여름철의 비 바람과 더위도 극성스러우나 황사 풍진에 눈을 뜨지 못하는 기후는 좀 나은 편이고 겨울의 폭설은 굉장한 것이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제설작업의 일이 하나 더 늘어난다. 현대화 된 제설차도 없었던 그 때 너가래와 빗자루로 한 길 가까이 온 눈을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치우려니 여간 교역이 아니다. 다행히도 군민 일체감에서 일까? 강릉 시내 각 학교 학생, 단체, 민간인까지 총 동원되어 합심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여 작전에 임하였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옛 이야기다.

잊혀지지 않는 일들

가지가지 많은 일화가 많지만 그중 기억에 새로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쌀소동 김치작전

하루의 격무와 고된 일과에 시달리다

돌아온 나에게 불침번 차례가 기다린다고 먼저 얘기했지만 그 당시 취사장이 독립취사를 하던 때이므로 내부반 옆에 천막 식당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의 밥쌀을 전날 밤에 다 씻어놓고 취사반장(그 당시 선임 내부반장이 겸직)이 쌀 위에다 자기 사인을 하여 놓고 나간 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불침번이 사인을 훔내내어 몇 휴 실례하게 되고 말뿐이까지 이런 밥을 썼으니, 아침에는 쌀은 축이나 있고, 사인은 엉망으로 그려 놓게 되어 불침번 근무자가 온전할리가 없었다. 또 쌀을 구하니까 반찬 생각이 나서 김치독을 뒤지다가 전투군장을 한채로 커다란 김치독에 거꾸로 빠진 실례도 있었다.

야간의출과 굶감

둘이라도 먹어서 소화시킬 왕성한 식욕을 가진 연령에 하루의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배고픈 것은 커다란 고민이었다. 당시의 외출은 야간에만 한하여 17:00~22:00까지의 외출이 한달에 1, 2회 특전이 있었는데, 이나마도 보행으로 시내까지의 외출에다 귀영시간 30분에는 반드시 귀영하게끔 내부반장의 특별지시가 있어 실질적인 외출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이 짧은 시간은 신변정리물 하기에든 바른 시간이었다. 이같은 귀

중한 외출을 얻고 나간 어느 날 강원도 명산물인 꽃감 한접을 전우와 같이 배꽃은 창자를 채우려고 돌이서 다 해치웠더니 이게 웬일인가, 3일간이나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 고통을 겪게 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은 과정과 경험으로 적진출격 8천여회, 백회출격 조종사 39명을 배출하고 수많은 전과를 가지고 휴전을 맞아 언제 또다시 재침의 야욕을 나타낼지 모를 그들을 대비하여 우리는 전력강화와 신예기 도입훈련을 실천 못지 않게 분투 노력하였다:

F-51무스탕에서 F-86 Jet로 기종전환하고 전천후 요격기인 F-86D를 도입하여 영공수호에 이바지하다가 자유의 투

사 F-5A/B 도입으로 초음속 항공시대에 돌입, 피와 땀의 결정체로서 '팬텀'공군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

무형적인 과거의 공군이 오늘의 유형적이고 물량장비의 증강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신자세가 확립된 군인애다가 전문화된 기술을 지닌 공군을 조국은 바라고 있다. 정예공군의 일원이 되어 정비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철두철미한 정비와 완전무결한 작업으로 고귀한 생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맡은 바 임무를 100% 완수, 1:5로 필승할 수 있도록 전기를 연마하고 여러가지 부과된 임무를 하나 하나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다같이 전진의 대열에 앞장서야 되리라 믿는다.

믿거나 · 말거나

◇ 세계 제 1의 대가족

독일 아아르베르크의 루우가스 · 자펜 (1612~1679)은 1091명의 자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5명, 손자 87명, 증손 446명, 현손 553명이라고.

◇ 고양이와 쥐

영국의 프란시스 · 비트라는 사람에게는 고양이의 짓으로 기르는 쥐가 있었다. 1916년의 일이었다.

상 황

지 광 현

노을 빛긴 산마루의 숫노루.
흔리는 피로 서서,
살아있다는 걸 기적으로 여긴다.
작의 순간에 겨워지던 아찔한
그 일순을
끔찍하게 되새기며,
어슬 어슬 찾아드는 산채
오늘이 꿈으로 내린다.
차운 별빛 교이는 두 눈 사이
아른대어 지울 수 없는
무거운 하루를 설베설베 저으며,
내키지 않는 후미.
그만한 원경에 감기는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어둠에 갇혀 어쩔 줄 모르는
싹퍼런 그 눈빛을.

<시인소개 : 기술교육단 행정관실에 현역 공군상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간 시 전문지 「현대시
학」에서 박 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급년 9월
에 추천을 완료, 문단에 데뷔하였음>

공·군·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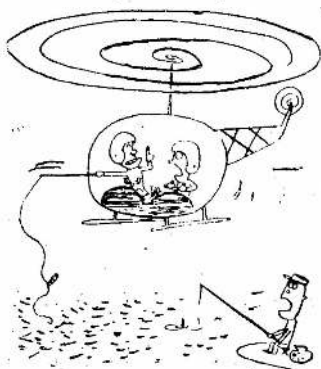
박진래

◇ 모진 상관 ◇



『아빠! 걸레했으니 경례연습 10번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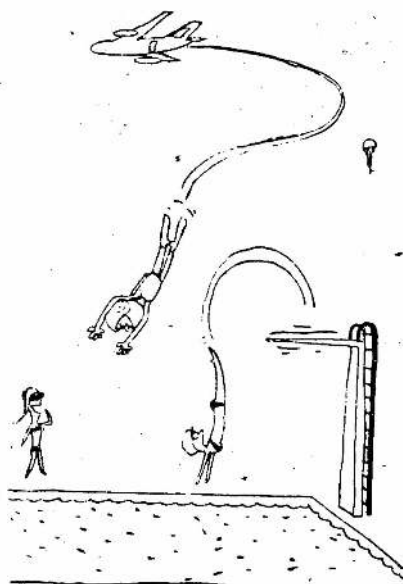
—이녀석 말을 안 들으면 온종일 운단 말이야—



◇ 낚시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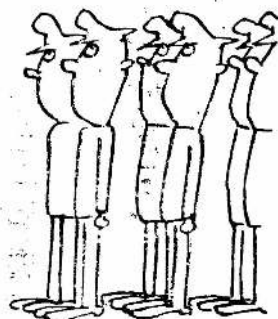
『잠깐만 세워주게
월척짜리 한 놈만
낚을테니까!』

공·군·만·상



◇ 스카이 다이버 ◇

실례지만 하는 수
있나? 워낙 무더
운걸



○ 음주 여부 검사의 권위자

세퍼드보다도 예민한 코를 가진 마누라의 협조를 얻기로
했다. 귀영시 음주 말도록!



박 전 수

<시인·월간 어깨동무 편집부장>

영광의 영웅을 수호하다
산화한 별들

— 조국의 영웅을 수호하다가 산화한 별들 —

-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
- ◇...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
- ◇...긴다』는 말이 있다. 조국을 지...◇
- ◇...키기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 죽...◇
- ◇...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다...◇
- ◇...가 의롭게 죽은 사람들. ...◇
- ◇... 전란의 와중에서 오직 사명...◇
- ◇...감에 불탔던 그들은 결코 죽은...◇
- ◇...것이 아니다. ...◇
- ◇... 조국과 함께 그들은 영원히...◇
- ◇...살아 남으리라. 조국의 수호신...◇
- ◇...으로, 영원히 이 땅과 함께 그...◇
- ◇...들의 이름은 남으리라. 국군의...◇
- ◇...날을 맞이하여, 여기 조국을...◇
- ◇...지키다가 산화한 녀들을 위로...◇
- ◇...하며, 그들의 활약상을 다시...◇
- ◇...한 빈 회고해 본다. 지면관계로...◇
- ◇...일일이 다 신지 못한 점을 유...◇
- ◇...감으로 생각한다. <편집실> ...◇

이 근 석 장군



1. 적 탱크에 애기로

육탄 돌격하다.

38°선을 넘어선 북한 공산군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에 침입한 후 한강을 넘어 시흥가도로 밀어닥쳐 수원을 향하여 육박해 오던 한국전쟁 초기였다. 적은 육중한 소계 탱크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쳐 내려왔으나 당시 우리 국군은 구식소총으로 이들과 대항하여야만 했다.

적의 탱크는 200여대나 되었다.

『탱크를 부셔다오!』

『탱크의 남하를 저지해 다오.』 우리

지상군의 피땀 어린 전규에 공군장병들의 마음은 실로 애끓는듯 하였다.

L-4, L-5 등 잘자리같은 경비행기에 다 급조한 국산폭탄을 싣고 적 탱크 상공으로 날아가서 기창을 열고 손으로 폭탄을 던지는 세계항공사상 유례가 없는 폭격으로 말미암아 적의 남침을 24시간이나마 지연을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황 속에 비 공군에서 10대의 F-51 무스탕 전투기를 인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곧 일본으로 기체를 인수하러 10명의 조종사가 가게 되었다.

이때 이 근석장군은 대령으로 비행단장의 중임을 맡아 보고 있었다.

이 근석장군을 비롯한 10명의 한국공군 조종사가 기종전환훈련도 없이 현태탄을 건너 대망의 F-51 무스탕전투기를 가져 온 것은 7월 3일의 일이었다.

7월 4일, 일본까지의 장도에서 단 하루의 피로도 풀 겨를이 없이 이른 아침부터 비행단장인 이 근석장군 자신이 편대장이 되어 전선으로 날게 되었다. 그토록 사무친 적개심, 그토록 갈망하던 적 탱크 파괴라는 집념이 오늘에야말로 실컷 늑들에게 불벼락을 퍼 부으리라는 기쁜 기대 속에 이 근석장군은 뒤따르는 편대기를 돌아보며 만족한 웃음을 얼굴 가득히 띄웠다.

이윽고 이 근석장군의 F-51 무스탕편대가 평택 상공에 다다르자 국도를 따라 개미떼처럼 남하하는 적의 일대 집단을 발견하였다.

우리 공군의 전투기 편대를 만난 적은 비행기만 쳐다보아도 혼비백산하는 것 같았다.

이 근석장군의 안광이 불을 쬐는 것 같았다. 굳게 다물었던 이장군의 입에서 공격명령이 내렸다.

『공격개시』

이장군은 급반전 강하로 쓴살같이 적에게 기총소사를 퍼부었다.

『다다닷닷 다다 닷……………』

총성은 산하를 흔드는 것 같이 2번기, 3번기 차례로 계속되었고 적은 지리멸렬, 췌멸되고 말았다.

편대는 다시 단숨에 수원을 지나 안양—시흥가도에 이르렀다.

초저공비행으로 최선두에서 적을 찾고 있던 이장군의 시야에 남하하고 있는 4~5천명의 적을 엄호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20여대의 탱크가 어른거렸다.

『전방 적 탱크발진, 전기 로켓탄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다아자』 편대기들의 회신이 래시비를 울리기가 무섭게 이장군은 조종간을 잡은 팔에 힘을 주어 기수를 올렸다.

애기는 날카로운 금속성 폭음을 울리

며 급상승했다. 전 편대기들도 공격태세를 완료하였다.

당황한 적의 자동화기는 미친듯이 불을 토했다. 갑자기 전진을 멈춘 적의 탱크들이 포신을 연방 빙빙 돌리고 있었을 뿐, 제자리에 못박혀 움직이지 못하였다.

고도 750피트. 이장군의, 조종경에 적의 탱크가 들어 왔다. 순간 이장군은 로켓탄을 발사하였다. 로켓탄은 한 줄기의 연기를 뿜으면서 순식간에 탱크로 향하여 내려갔다.

번쩍하는 섬광에 이어 검붉은 연기에 휩싸인채 탱크는 폭발하고 말았다.

이장군은 즉각 고도를 회복하고 아래를 살피보았다.

2번기, 3번기, 계속하여 내리달는 요기들의 공격은 신기에 가까울만큼 능란하고 과감하였다.

전편대기의 1차공격이 끝나는 것을 보자 이장군은 다시 기수를 숙여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된 적진 속의 탱크를 향하여 급강하, 지면에 닿을듯이 내려가 로켓탄을 발사하여 또 한 대의 탱크를 폭발하고 기수를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미친듯이 쏘아대던 적의 대공화기에 이장군의 애기가 피탄되고 말았다. 붉은 화염이 순식간에 가체를 휩싸버렸다. 화

염은 바람을 받아 더욱 기세를 올렸다. 이장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였다. 이장군은 사력을 다하여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였다.

눈에 짙 차오르는 푸른 하늘, 처음이 없고 끝이 없는 푸른 하늘을 눈을 부릅뜨고 응시했다. 어려서부터 동경하던 푸른 하늘에서 일생을 살려 소원, 이제 하늘에서 조국을 위하여 장한 일을 하고 죽으니 무슨 미련이 있을소냐?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뒤따라오는 부하요기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분능적으로 지상의 적징을 또 살폈다.

『3번기, 도로 좌측 탄약차량을 공격하라』

그는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자, 이제 자네들의 전투를 빈다.』라는 말을 남기고 급강하해 내려갔다. 목표는 적의 탱크였다. 지상에서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듯한 폭음이 들려왔다. 검붉은 연기가 증천하여 잠시 시야를 가렸다.

이리하여 불사신(不死神)의 조인(鳥人)이 근석장군을 육단으로 적 5번 탱크를 형체도 없이 부서버렸다.

『조국을 위하여 무명의 초석이 되라』고 그가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되뇌었는데 이장군 자신이 몸소 이를 실천하게 된 것이다.

하늘에서 살다가 하늘에서 산화한 이 근석장군! 그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나고 그의 조국에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2. 소년비행학교 시절 전후

이 근석장군은 1927년 1월 17일, 평남 평원군 청산면 구원리에서 태어났다. 산 높고 물 맑은 이 고장은 어린 이 근석장군의 꿈을 키워준 곳이었다.

13세가 되자 이장군은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 꿈 많은 소년으로 문학을 동경하는 한편 공부에 열중하였다.

그렇지름 이 근석장군은 유럽의 전문과 만주사변, 그리고 국내의 일본압제처하 생활 등등으로 학업을 더 계속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일본구마다니 소년비행학교를 택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1933년 소년비행학교 2기생으로 입교한 이 근석장군은 쾌활한 호남아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과단성과 적극성이 있는 학생으로 통했다.

『일본인에게 질까 보냐?』라는 민족적인 적개심이 펴 강해서 천부적인 기질도 기질이거니와 조종술은 절대 일본인에게 뒤지지 않으려 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장군의 조종술씨는 학교 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를 가르치던 교관이

『너는 비행기에는 천재다』라고 할만큼 장군은 뛰어난 재질을 보여 왔다고 한다.

1934년에 비행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일군으로서 요시오카전무비행부대로 배속되었다. 나라없는 설음이 짙은 이 근석 청년의 가슴에 못박혀 있었음은 말할 나위없다. 그가 배속되어 있던 부대는 일본에서도 소문이 난 정예부대였다.

새로 부임하여 첫출격에 나간 장군이 적기 한 대를 격추하고 돌아오자 장군의 명성은 더해만 갔다.

「이 근석」이라면 곧 「기지 내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고 불리울만큼 유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과감하고 치밀한 성격에 반하여 꺾이나 다정다감했던 그는 어머니에게는 극진하리만큼 효성이 강했다.

매월 봉급을 거의 고스란히 고국의 어머니께 송금해 드리면서 아울러 형의 전안을 늘 기원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장군이 배속해 있던 부대가 남양군도의 모기지에 주둔해 있을 당시의 이야기이다.

열대 특유의 맹렬한 더위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때 아닌 폭음이 울려 오더니 연합군의 스피드파이어 3대가 기지를 내습해 왔다. 휴식 중이던 조종사, 정비사들은 이

렇다 할 대응태세를 취하기도 전에 우선 대피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근석장군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옷통을 벗어던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이 일을 당하였는데 영국기들은 일본의 전투기들을 사정없이 갈겨댔다.

영국의 3번기가 마약 기총을 갈기려 할 때였다.

이 근석장군은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비행기로 달려 갔다. 겁을 집어먹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비사(일본인)들은 아예 프로펠러를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근석장군은 날렵하게 프로펠러를 돌리고는 조종간을 잡았다.

시동이 걸린 것이다. 『부르릉』이륙을 시작한 것이다.

『적기를 바로 머리 위에 두고 뜨다니 ! 누구야? 내려라. 내려!』

엔진 소리에 놀란 부대장이 방공호 속에서 반신을 들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나 비행기는 벌써 활주로를 박차고 날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스피드 파이어기는 막 이륙한 이 근석장군기에 사정없이 대 들었다. 순간 이 근석장군은 기총의 버튼을 눌렀다.

『따따따따』

기총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 스피드 파이어기는 불덩이가 되어 기지 한 쪽

에 추락하고 말았다.

이러는 사이에 나머지 비행기들이 차례로 이륙하게 되자 스미드 파이어기는 전세가 불리함을 알고 도망하고 말았다.

웃통을 벗어젖힌 채로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이 근석장군을 끌어안은 부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역시 자비였구먼.』

장군의 대답무쌍한 기백과 신기에 가까운 조종술은 천부적이라 할 수 있으리라.

3. 해방과 공군창설에서

전쟁발발까지

8·15해방이 되자 이 근석장군은 영국군 포로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으로 돌아왔다.

장군은 공군 창설을 위한 7인간부의 한 사람이 되어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자 5월에는 창설 요원들과 더불어 육군사관학교를 택하여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이 되자 공군사관학교 초대교장에 취임하여 후배양성에 전력을 다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당시 장군은 여의도에서 비행단장의 중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1950년 5월 14일에 비행단장에 취임한

지 단 40일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 셈이다.

6월 25일, 여의도기지에 몇 차례 적기의 내습이 있었다. 적의 YAK기는 우리 공군의 L-4, L-5, T-6 등의 경비행기를 비웃는듯이 유유자작하게 내습해 오는 것이었다.

이 근석장군은 안타까와 발을 굴렀다.

『전투기만 있었으면, 전투기는 없나?』

그렇다고 그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날 저녁 6시경 이 근석장군은 부하들과 정찰을 나갔고 이날 밤에는 경비행기나마 폭격장치를 달아놓고 폭탄을 실어놓았다.

26일, 폭탄을 안은 사람을 뒤에 태우고 의정부, 동두천 방향으로 출격한 이 근석장군은 700여대의 적, 탱크와 차량들을 향하여 폭탄을 던지고 또 던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의 서울침입을 24시간이나 연장하게 된 것은 말할 나위없다.

F-51 무스탕을 인수받게 되자 장군은 9명의 조종사들과 함께 미 수송기 편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단 한 번의 연습도 그치지 않은 채 기상 때문에 발을 구르며 5일간을 보내고, 7월 3일, 드디어 현해탄을 건너 전지인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물론 제일선투에서 전속으로 비행해 온 사람은 이장군이였다. 이때부터 사생결단을 하리라는 각오는 끝

게되어 있었을는지 물었다.

7월 4일, 밀어닥치는 적의 악착스러운 공격은 총참모장의 『하루만 휴식하고 전투에 임하라』는 만류도 뿌리치고 결전장으로 이장군을 날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이장군은 출격 첫날에 육탄으로 적의 탱크에 돌입, 영원한 군신으로 조국의 하늘에서 불사신의 조인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되었다.

박 범 집 장군



1. 뜻을 세우기까지

박범집장군은 1917년 9월 7일, 함경남

도 신흥군 원평면 장하리에서 부유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두 누님의 뒤를 이어 장군이 태어났으니 집안의 사상은 대단했다고 한다.

장군이 7세가 되던 해 외삼촌댁이 있는 함흥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보통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던 장군은 함흥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서도 성적은 늘 수재급에 속하였다고 한다.

수리학과 기계에 대한 그의 취미는 특출할 정도였는데 이러한 어려서부터의 취향이 항공기를 다루게 된 동기가 되었으리라.

수영, 축구, 스케이트 등 스포츠에는 거의 만능이었고 중학교 4년시에는 축구 주장이었는데 가 하면 한편으로 그림, 솜씨도 대단하여 한때 상급학교는 미술과를 택하기로 작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군은 『좀더 시급한 일이 젊은 청년들에게 없느냐?』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장군은 확고부동한 신념을 얻게 되었다.

—지금은 조국이 일본의 압제하에 있지만 기필코 군사지식은 우리 조국의 앞날에 유명한 것이 될 것이다. 젊은이의 나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라고 생각한 장군은 1935년, 19세 나던 해 봄에 어려운 일본 육사시험에 합격, 입교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당시 일본 육사는 한국인으로서는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도 입교하기 어려운 실로 어려운 관문이었다. 일본 육사를 마친 장군은 일본항공사관학교에 다시 입교, 1941년에 졸업하였다.

이차대전 때에는 일본군 대위로 한때 남방으로 출정하기도 하였는데 26세 때 결혼하게 되었다.

중학시절의 미술에의 동경을 끝내 버리지 못했음인지 화가 이 찬복씨의 따님과 결혼하게 된 장군은 3년 후에 해방을 맞게 되었다.

해방이 되던 해 11월 10일, 장군은 혼연히 귀국하여 일시 지체하고 있던 함흥을 떠나 서울로 남하하여 뜻있는 동지들과 규합, 이제야말로 조국을 위하여 일할 때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심혈을 경주하였다.

공군창설 7인간부의 한 사람으로 장군은 1948년 4월 1일,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하였다.

2. 공군발전과 한국전쟁발발

1948년 5월 14일, 육군 소위로 임관한 박 법집 장군은 육군항공부대에 배속되었다가 이듬해 6월 28일 육군본부 항공국의 초대국장으로 임명되었고, 동년 7월 15일에는 육군대령으로 승진되었다. 공군독립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

으로 노력하였고, 또한 이 문제를 두고 연구하기에 편안한 날이 없었다.

공군의 발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철지한 신념은 공군창설에 관여했던 다른 관부들과는 다름 바 없었고 더욱 항공국장이라는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 장군에게 있어서는 꼭 실현하여야 할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1949년 10월 1일, 그렇게 염원하던 공군독립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장군은 공군의 제2인자인 참모부장으로 보직되었다.

그러나 새로 창설되는 공군에 있어서의 애로점과 극복할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명색이 공군이라면 항공기가 없어야 되겠는가? 조국의 백년대계는 국방력 없이는 될 말인가?

장군의 심중은 무겁기만 하였다. 그럴수록 의무와 책임은 더욱 장군을 중압하는 것만 같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건국기 헌납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건국기 F-6 10대가 헌납되었다.

장군의 심회는 어떠하였을까? 당장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싶은 흥동감을 여누르고 장군은 우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일순간에 불과

했다. 어찌 뜻하였으랴? 이제 발전을 향하여 깃을 펼치려는 순간 공산주의자들의 불법남침으로 크나큰 시련이 닥아 오게 된 것이다.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는 우리 공군은 이를 갈고 원통해 하였고, 또 그렇게 원통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세계 항공전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전투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폭탄을 손으로 투하하면서 비상수단을 다하여 적의 남침을 저지하였는데 전쟁초기 연습기였다 무장을 하게 된 것은 장군을 비롯한 몇몇 조종사의 아이디어에서였다고 한다. 장군은 스스로 고안한 무장연습기로 몹소 출격하였다.

전쟁초기에 있어서 전쟁과 동시에 공군을 재정비 강화한다는 것은 꺾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이를 실천하기에 잠을 잊을 정도였다.

7월이 들자, 장군은 육·해·공군 합동 지휘소장이 되어 중임을 수행하였고 그 해 10월 20일 그는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3. 에필로오그

군인으로서의 장군은 매우 엄격한 분이었다. 사소한 일이라도 군기를 위반하면 추상잡았다. 단추 하나, 구두끈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하여 군인으로서

의 단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였다.

결재서류를 들고가는 장병들은 반드시 장군의 방문 앞에서 복장을 점검해 보고 들어가곤 하였으니 장군의 몸가짐이 대강 어땠으리라고는 짐작이 가는 것이다.

장군은 그렇게 엄격하기만 한 분은 아니었다.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줄 모르는 장군은 부하에게는 남다른 인간미를 보여주곤 하였다.

때로는 당번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청소를 다 배 놓고 샴치미를 때고 『청소 다 했네』하고 곱잘 웃곤 하던 장군이였다.

1950년 11월에 이르러 아군은 멀리 창진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다.

장군은 함흥방면으로 전선시찰을 나가게 되었다. 전쟁은 치열하였으나 바야흐로 조국통일을 눈 앞에 둔 것과 같은 시기인 그때 함흥으로의 전선시찰은 장군에게 있어서는 금의환향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전선시찰을 만류하였다. 장군은 『내가 보낸 사람들을 내가 가서 돌려해야 하지 않겠소?』라면서 작진참모인 서 한호중령과 함께 출발하였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고 누군들 짐작하였으랴.

11월 12일, 함흥상공에서 작전지휘 중

불의의 기체고장으로 산화하게 된 장군의 향년은 34세, 한창 조국애가 꽃피고 있을 그러한 나이였다.

장군은 공군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고 오늘의 공군을 있게 한 산파역을 거뜬히 치른 공군의 지보적인 존재이다.

장군의 넓은 오늘도 조국의 하늘에 살아있으리라. 그리고 기쁜 웃음을 띄우면서 우리 공군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김 영 환 장군



1. 장군의 인간상

1954년 3월 5일은 공군창설 7인간부의

한 사람이면서 한국전쟁을 통하여 하늘을 누비면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 오던 조국의 영원한 수호신 김 영환장군이 애석하게도 산화한 날이다.

장군은 19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로에서 태어나 경기중학을 졸업한 후 연희전문학교와 일본 관서대학 법과를 졸업한 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아, 도저히 일제의 강압 아래에서 탈피할 곳을 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일본 육군예비사관학교에 입교, 소위로 임관하여 잠시 일군에 복무하였다.

조국이 해방되자 김장군은 「국방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오늘날 육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간부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토방위와 치안유지에 온갖 정열을 기울였던 것이다.

1948년 4월 1일에 이르러 「국방을 위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공군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확신하고 통위부 정보 및 작전국장이라는 요직을 자진 사임하고 다른 동지들과 함께 규합, 공군창설 7인간부의 한 사람으로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는 언제나 결단성이 강했고, 소신에 따라 과감하게 실컷해 나가는 투지만만한 성격이었으며 퍼 쾌활한 호남아였다.

이지적으로 빛나는 그의 눈동자와 단정 한 몸가짐은 상대방을 늘 압도하면서도

자상스런 일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어서 호감을 갖게 하였다.

장군은 휘하장병들을 지휘함에 있어서 특별한 통솔방침이 없이 모든 일에 출신 수범함으로써 부하들이 이를 따르게 하였다.

장군은 엄격하고 철저한 군인정신의 소유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학을 동경하였던 정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포근한 인정미로 다분히 지니고 있는 풍부한 인간성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장군의 인간성의 편모를 보여 주는 에피소드는 여러가지가 있다.

장군이 전투비행단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경기총학 동기동창생이 대학강사 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 대위 계급장을 달고 당시 대령이던 김장군에게 신고를 하게 되었다.

『신고합니다.』

무심코 신고를 받던 김장군은 부동자 세물 취하고 신고를 하던 동창생을 보더니 신고도 받지 않은채 대동했던 인사 참모를 단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야, 입마, 동창생끼리 신고합니다가 뭐야? 이리와 앉아. 너 인간 털 되었구나.』

하면서 외락 동창생의 어깨를 껴 안았다.

또한 장군은 계급의 고하를 가리지 않

고 출격하고 돌아오면 등을 두드리며 그 노고를 위로하고 출격담을 듣는 등 친형제처럼 정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단장이라는 위엄만 갖추려 하지 않고 장병들과 더불어 술자리도 곧잘 갖곤 하였다.

그는 상관의 계급 뒤에 붙이는 「님」자를 전혀 못쓰게 했다. 서로간에 거리감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장군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보고절차와 표의 침부를 일체 엄금해 온만큼 실질을 중요시하는 생활관을 택하였다.

장군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담배를 뭉어지지 않도록 해 놓고 아무리 하급자라도 담배를 태우고 싶을 땐 서슴치 않고 들어와서 태우도록 신경을 쓴 자상한 인정을 베풀었다.

다분히 문학적인 장군이 미 공군대학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유난히도 빛나는 십자성을 남쪽에 바라보면서…………』

공군의 빨간 머플러 창시자도 또한 그였고 「산돼지」라는 별명의 장본인도 또한 그였는데, 김 정렬 초대 참모총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2. 공군발전의 초석인

김영환 장군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기습

적인 불법남침을 감행하였을 때, 적의 YAK기를 포함한 200여대의 전투기에 대하여 우리 공군은 전투기는 물론 대공 화기 하나 번번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L-4, L-5, T-6 등 경비행기 20여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장군을 비롯한 우리 조종사들은 비록 경비행기나 급조한 폭탄의 에나멜칠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적적으로 날아 손으로 투하하는 등 목숨을 건 혈투를 계속하였다.

김장군은 다른 9명의 조종사들과 함께 대망의 F-51 전투기 부스탕을 인수하기 위해 헌해탄을 건넜고, 인수한 이튿날부터 출격을 감행하였다.

전쟁 초기, 김장군은 비행단의 참모장으로 항상 탁월한 지휘통솔력으로 교육훈련에 총력을 집중하는 한편 적진에도 과감히 작전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였다.

1951년 8월 1일부터는 제1전투비행단 부단장 겸 제10전투비행전대장으로서 우리 공군의 단독출격작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는 한편 몸소 출격을 감행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고무하는 동시에 적에게 치명적 손실을 가하였으며, 그간 우리공군의 크나큰 전과는 김장군의 힘이 컸다고 아니 할 수 없다.

1951년 말 제1차 미 공군대학 유학장

교단의 일원으로 도미하였고, 귀국 후에는 다시 제1전투비행단 부단장으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술공군의 전투지휘와 기지건설에 헌신하여 마침내 10전투비행단이 창설되게 되었다.

1953년 2월 15일, 장군은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취임하여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였고 이로써 적은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가 공군에 남긴 일은 많다. 한 마디로 그는 공군 발전의 초석으로서 오늘날 공군을 가져오게 한 뼈놓을 수 없는 수훈을 세운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 국보 고려대장경을 사수하다.

자야산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고려대장경」판이 한국전쟁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사하였던 것은 기적이다.

이 기적의 뒤에는 김영환장군을 필두로 한 우리 공군장병들의 문화적인 안목이 없이는 한낱 젓더미로 화했을 것이다.

원래 이 대장경판은 고려 고종 24년(1237년)에 군신들이 목목재제하고 온 겨리의 정성을 모아 제작하였으며 몽고병의 침입을 물리치는 기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15년의 세월을 걸쳐 8만 1천2백5십8자를 한자 한자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고 사간본(寺刊本)도 4,845

□ 특집 :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별들

매나 있어 불교계의 법보사찰(法寶寺刹)이요,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주춧돌(柱礎)가 되어 왔는데 전란을 통하여 아슬아슬하게 세 번이나 폭격을 피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 영환장군이 이 내장경판을 사수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1951년 12월 18일이었다.

06시 30분, 작전참모 장 지랑중령이 적정을 정찰하고 돌아 와 경찰부대의 요청을 받고 긴급출동의 비상 벨을 누르게 되었다.

출격명령의 요지는 『낙동강 줄기를 따라 북상하다가 비행지휘관 김 영환대령이 인솔하는대로 함안상공에서 기수를 산악지대로 돌려 함천상공 800피트에서 모스키토(미 제 5공군정찰기)를 만나 그 요청에 응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즉각 출동한 4기편대는 1번기 김 영환대령, 2번기 강 호문소령, 3번기 박 회동소령, 4번기 서 상순대위 등의 강팀이었다.

잠시 후 모스키토를 지시대로 단났는데 모스키토에서의 훈련은 「가야산 산줄기와 계곡 사이의 사찰과 인근의 적 은폐 소굴을 공격하여 지상군을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편대장 김 영환대령은 기수를 낮추어 계곡으로 급강하하였는데 사찰주변에서 적이 당황하여 황황하게 도주하는 모습

이 보였고, 계곡 동쪽 신작토의 건너편 언덕에는 아군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때 편대는 자기 500파운드 폭탄 2개, 5인치 로켓탄 6개, 기관총탄 1,800발을 무장하고 있었으며 김대령은 배이팜탄을 장착하고 있었다.

드디어 정찰기의 목표제시용 연막탄이 바로 해인사 대웅전 마당에 떨어졌다. 이윽고 편대장기는 급상승 선회하며 요기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

『각기는 편대장의 뒤를 따르되 편대장의 지시없이 무장을 사용하지 말라. 단 기관총으로 사찰 주변의 능선만 공격하라.』

이에 따라 건기는 사찰을 공격하지 않고 사찰 주변만을 공격하고 있었다.

정찰기에서는 독촉훈련을 내렸다.

『해인사를 공격하라. 배이팜과 폭탄으로 큰 절을 공격하라.』

그러나 김 영환장군은 여전히 편대기들에게 『사찰공격은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해인사 뒷편 능선만 로켓과 배이팜으로 공격하였다.

그날 저녁 미 공군 고문단의 모 장교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왜 사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김대령(당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해인사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

주가 되는 국보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전신을 형성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공비를 살상하기 위해 국가적 보물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까?

세계 어느 문화재든 보십시오. 나는 국민적 양심에서 국보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고문단에서 온 장교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김대령님 같은 훌륭한 상관을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군장병이 부럽습니다.』

해인사를 중심으로 3단계까지의 작전이 있었으나 김장군은 낙동강변에 불시착을 하면서도 끝내 대장경관이 소장되어 있는 해인사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는 김장군의 국보적인 문화재에 대한 높은 안목과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4. 호국의 별로 영원히

하늘에 살아.

수많은 일화와 화제 속에서 용맹을 떨치던 하늘의 사나이, 영원불멸할 불사신의 조인 김 영환장군은 그의 소원대로 영원히 조국의 푸른 하늘에서 살고 있다.

젊은이의 낭만이요, 젊은이의 일터라고 생각하던 푸른 하늘. 그토록 동경

하던 하늘에서 장군은 그의 일생을 아낌없이 바쳐 왔다.

휴전이 성립되자 장군은 전투조종사 육성의 중책을 맡아 제 1훈련비행단장으로 서 그야말로 동분서주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954년 3월 5일, 장군은 제 1전투비행단 창립 1주년 기념식전에 참석하기 위하여 애기를 몰았다.

어찌 뜻하였으랴?

극히 불량한 악기상은 이날따라 격변하면서 장군의 애기를 조국의 하늘에서 잠재우고 말았으니 동해안 목호근방의 해상에서였다.

조난된 장군의 모습은 끝내 찾을 길이 없었다.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과 공군장병들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 장군은 영원히 조국의 푸른 하늘에 안긴 것이다.

그의 몸은 갔어도, 그는 그토록 즐겨하던 조국의 하늘을 날면서 호국의 별로 영원히 살아 남으리라.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전승되면서 그의 얼은 남아있으리라.

× × ×

이 기 협 대령



1. 사상초유의 항공기 착륙

강릉 비행장은 이날따라 낮게 건 구름으로 매우 우중충하게 날씨가 흐려 있었다.

우리 공군의 무스탕기들은 연일연야 적진출격에 잠시라도 쉴 겨를이 없었다.

이날도 편대장 이 기협소령이 이끄는 F-51 편대는 동해안 ○○지구 지상군 전면에서 악착같이 공격해 오는 적을 발견, 적의 포진지에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적을 섬멸한 뒤 유쾌한 기분으로 전진 거지로 돌아오고 있었다.

편대장 이 기협대령은 강릉기지 상공에 다달아 편대기를 착륙시키고 이를 확인한 다음 애기의 기수를 낮추어 자기의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 때였다. 관제탑에서 급한 관제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편대장님! 착륙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 쪽 바퀴가 나오질 않았읍니다.』

완주로를 향해 하강해 오던 이대령은 순간적으로 조종간을 나뒀다.

『제기랄, 적을 때려부신 기분이 싹 가서지고 마는데——』

비행기는 다시 일정한 고도를 취하였고 이대령은 응급조작을 시작했다.

보통 착륙바퀴는 한 번 나오질 않으면 걸어 넣었다가 다시 빼냈다가 그런 동작을 되풀이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대령의 비행기는 아무리 응급조작을 서둘렀어도 전혀 바퀴의 작동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던 바퀴도 들어갈 생각을 았았고 빠지지 않은 바퀴는 움직일 생각도 았고 있었다.

한쪽 바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동체 착륙도 불가능해져 버린 최악의 일이 생기고 말았다.

지상에서는 당시 비행단장 김 영환장군과 부단장 장 지량장군을 비롯하여 기

지 전장병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대령의 무스탕기를 쳐다보며 초를 닦는 긴장 속에 숨길마져 죽이고 있었고 비행단의 미 고문관도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여기는 관제탑, 여기는 관제탑.

나 단장이다. 한 번 더 응급조작을 실시하라. 그래도 안 되거든 비행기를 버리고 비상탈출하라. 오비』

이대령의 수신기에서 단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 왔다. 다시 한 번 응급조작을 서둘러 보았지만 바퀴는 막무가내였다.

『여기는 편대장. 응급조작이 안 됩니다. 비상탈출은 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이 싸워준 이 비행기를 버리다니요? 얘기를 구하겠습니까.』

비상탈출을 하게 되면 이대령 자신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얘기는 회생을 해야 한다. 이대령은 한 손으로 조종실 벽을 쓰다듬었다.

『음, 정말 버릴 수 없다. 오늘 수훈의 공을 세운 이 얘기를 어떻게 부서버린단 말인가? 지금 한 대의 비행기가 얼마나 중요한 필인가? 이 비행기를 구하여 빨갱이 놈들을 모두 부서버려야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대령은 또 한 바퀴 기지 상공을 날았다. 연료계기의

바늘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단장이다. 탄 방법은 없다. 비상탈출하라.』

『구해 보겠습니다. 제게 맡겨 두십시오.』

이대령의 결심은 대단했다. 얘기와 같이 죽든 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때 마침 공군본부 행정참모부장 장덕창소장이 강릉기지에 와 있었다.

장 덕창장군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관제탑으로 올라갔다.

『나 장 덕창 소장이다. 모든 것을 편대장이 알아서 하라. 단 목숨만은 건져야 한다. 임무가 많으니까……』

『에! 알았습니다. 라자.』

장 덕창장군은 비행시간이 1만시간을 넘는 세계적 파일럿이었다. 장군은 후에 그대의 일을 묻는 이에게 당시는 그렇게 지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각이 조조한 시간, 근 30분 동안이나 한쪽 바퀴만 내 밀고 기지상공을 선회하고 있던 이대령의 무스탕기가 서서히 관주로에 내려 앉기 시작했다.

『아니 저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을 위한 하강의 자세였다. 이대령은 「한쪽 바퀴로 착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순간 연료계기가 0을 가리키고 있었

다. 사고를 대비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달려기 시작했다.

이대령은 속도를 줄이고 10피트, 9 피트 활주로를 향해 하강했다.

비행기의 무게 중심을 바퀴가 나와 있는 좌측으로 쏠리게 하여 기웃한 자세로 드디어 활주로에 한쪽 바퀴를 내리고 말했다.

지켜보던 장병들은 손에 땀을 쥐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뒤로 뒤집히거나, 옆으로 쳐 박힐 것만 같던 비행기가 한쪽 바퀴로 계속 굴러가고 있지 않은가?

이대령은 조용히 눈을 감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오른쪽 날개들 높게 치켜든 채 활주를 중단한 비행기가 빙그르 원을 그리면서 그 자리에 멎고 말았다.

『성공이다.』 『윈더풀!』

누구의 입에선가 모르게 동시에 터져 나온 이 안도의 함성과 더불어 세계 항공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한쪽 바퀴 착륙 시도는 무사히 성공한 것이다.

이미 100회 출격을 돌파한 이대령은 구급차와 장병이 둘러 싸여 있는 활주로에서 캐노피를 열고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 출격을 마치고 올 때마다 되던 특유의 미소가 구슬같은 땀과 함께 얼굴에 흠뻑 젖어 흐르고 있었다.

2. 6.25의 빨간 마후라

하늘에서 살다가 하늘에서 사라져간 빨간 마후라의 사나이, 이 기림대령은 1926년 2월 4일, 함남 함주군 삼평군에서 태어나 함남 상업학교에 다니던 중 교사들의 권유와 앞으로 언젠가는 강제로 끌려가야만 될 것을 예견하고 일본 다찌아라이 소년비행학교를 졸업, 무모한 전쟁의 틈바구니에 끼여 남양군도에 까지 비행기로 출격을 한 바 있었다.

그의 조인으로서의 꿈은 조국의 하늘을 날고 싶어 하던 그 때부터 커 나갔는지 모른다.

해방이 되자마자 그는 당시 공군이 창설되지 않아 육군항공사령부에 입대, 1950년에 육군소위로 임관했다.

동란 중 그는 F-51 무스탕기보써 각 전선에서 남하하는 적의 기동부대에 폭격을 가하여 작전을 유리하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지리산 지구와 절라도 산악지대 공비 토벌작전에도 참전, 적을 섬멸한 공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1951년 10월 11일 한국공군 단독작전에 나서 각 지구 전선

에서 더욱 과감한 대지공격을 가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작열하는 적의 포화 속에서도 적의 군사시설과 군수물자를 파괴하는 한편 정확한 대지사격으로 적진의 중심부를 맹타하여 150회 출격이라는 영웅적인 전투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3개의 중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윤지무공훈장, 대통령 수장 등 많은 훈·기장을 수여 받은 조종사이다.

동란 중 출격하여 수차에 걸쳐 애기에 적의 포탄을 맞고서도 그의 강인한 부지와 탁월한 조종기술로서 무사히 모기지로 귀환하기도 했다. 그는 F-51 무스탕기로 100회 출격을 기록했을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회포를 털어놓기도 했다.

『적의 대공포화가 많은 곳에 가면 정말 장관입니다.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보는 것 같아요. 포가 많은 곳에 가면 여러 수십의 대공포가 우릴 향하고 있죠. 그 중 한 곳을 넓다 같겨 짓뭇개 놓으면 사방에서 쏘아 올리는 대공포화에 둘러싸여 마치 불덩이 속에서 날아다니는 기분입니다. 난 이것을 즐깁니다.』

그는 선전적인 전투조종사였는지도 모른다.

3. 이역의 하늘에서 장렬히 산화하다.

동란이 끝나자 F-51 무스탕기로 출격을 하던 우리 공군도 전력증강을 위한 제트화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기협대령은 동란 중 제트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제트기만 있으면 좀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적을 때려부실 수 있는데...』
속력이 느린 프로펠러기로 적의 포화속을 누비던 그는 거의 광적으로 제트기를 그리워했었다고 한다.

『야, 마누라보다 제트기가 더 아쉽다.』

출격에서 돌아 온 그는 남자들만의 장교소속에서 동료들에게 아쉬운 표정을 짓곤 했다.

그러던 이대령의 꿈이 실현된 것은 동란이 끝나고나서였다.

1954년 10월 5일, 이대령은 우리 공군이 보유하게 될 F-86 제트기의 조종훈련 요원으로 선발되어 교육을 받기 위하여 도미하게 된 것이다.

미국 「렉크랜드」기지에서의 그는 아쉬웠던 제트기의 조종을 익히는 감회로 남달리 교육에 열중하였으며 완전히 F-86에 도취하여 교육과 훈련 이수에 침식을 잊을 정도였다.

기초과정과 중등과정의 훈련을 마친 이대령에게는 단지 전투훈련만 남기고 있을 때였다.

『내 청춘을 하늘에서 다 보냈어. 죽어도 하늘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멋있겠어?』

얼마 후에 있을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그는 이렇게, 간이 훈련을 받던 동료에게 무심히 이야기한 적이 있다.

수요일을 일개월을 채 못남긴 1955년 4월 7일 아침이었다.

대망의 요격기 편대 공중전투훈련을 종결하는 날이기도 했다.

이대령은 산뜻한 기분으로 지평선 끝에서 아문거리는 아지랑이를 쳐다보면서 『제트기로 조국의 강산을 날아다닐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하는 감회에 가슴이 뻐었다.

훈련 브리이핑을 끝내고 F-86기로 단련 이대령 일행은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중전투 훈련을 계속하였다.

멀리 벨리스기지 상공에서 전개된 이 훈련을 끝마치고 모기지로 귀환할 때였다.

갑자기 이대령의 F-86기가 요란한 폭음을 내며 기체가 화염에 싸이기 시작하였다.

『기관고장입니다. 기관고장입니다.』

민가가 준비해 있는 벨리스기지 상공

에서 이대령의 비행기는 화염에 싸여 선회를 시도했다.

위낙 갑작스런 사고였기 때문에 미처 손을 쓸 여가가 없었다.

지상관제탑에서는 비상탈출을 지시해 왔으나 이대령의 조종복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대로 비상탈출한다면……』

전방에 준비해 있는 민가에 비행기는 추락하게 마련이다.

『죽어도 비행기와 같이 죽자. 민가를 벗어나자.』

이대령의 결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가까스로 민가를 벗어나자 비행기는 요란한 폭음을 내면서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조국의 하늘을 제트기로 날고 싶었던 이대령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어도 그는 제트 공군의 기쁨을 마련해 놓고는 이국의 상공에서 산화한 것이다.

하늘을 날며 조국을 지키던 이대령은 충엄한 뜻을 지닌채 불의의 기관고장으로 하늘에 그 얼을 삼은 것이다.

4. 하늘의 영웅, 이대령의 인간미

이 기협대령을 가리켜 하늘의 영웅이라고 부른다.

그의 일생의 활동무대와 그의 마지막

죽음이 역시 하늘에서였다고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는 6·25의 맹장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도 비행기가 아니면 그 생활을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비행기와 직결되어 있었다. 비행기를 타도 그는 꼭 전투기여야만 만족했다고 한다.

그가 잠시 C-47 수송기를 조종한 때가 있었다. 그때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진진기지에서 적진출격을 할 때는 살이 쪼였었는데 C-47기를 다니까 비행기를 타는 기분이 나질 않고, 생활에 자극이 없어 심심해 못 견디겠다.』

이 기협대령의 이런 성격과는 달리 그의 외양은 자못 귀족적이고 여성적이었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씨와 겸손한 태도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수려한 용모는 여인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부하를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라고 전한다.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사고로 구속이 되자 안전부절하면서 비행기 타는 것도 거절하고 부하의 석방을 위해 일주일을 꼬박 쫓아다녀 결국 사전담당자들이 이대령의 열성에 감복하여 이대령 자신이 선도교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석방해준 일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명석한 판단과 인격으로 리더십을 발휘, 부하들에게 지극히 인기가 높았다.

그는 F-51 무스탕기로 적 상공을 깊숙이 날아가 폭격을 할 때에도 카메라를 꼭 갖고 다녔다고 한다.

대공포화가 작열하면 우선 폭격을 하고는 애기의 날개 근처까지 날아오는 적의 포탄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구름이 아름다우면 잠시 카메라로 그 풍경을 담아 와 숙소에서 현상하여 즐기기도 했을만큼 기인이 가지는 폭넓은 마음가짐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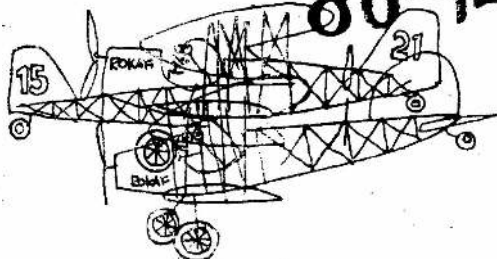
그는 공군의 기인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늘의 영웅으로서 후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

×

×

항공구락부 시절



항공구락부란 한국전쟁당시 공군에서 처음으로
 두게 된 종군문인단체였다. 이어 육군에서
 도 종군작가단을 두게 되었지만 어쨌든
 종군문인단체의 효시는 공군의 착상
 으로 나왔던 것이다. 전쟁의 와
 중에서도 이러한 착상을 하고
 실천하게 된 것은 당시 지휘관
 의 이해와 아량을 짐작할 수 있는 일
 이다. 여기 당시를 회고하는 문인들의
 원고를 전재함으로써 옛 일을 돌이켜 보는 것
 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자못 의의있는 일이라 생
 각해 본다. <편집실>

공군 종군문인단

최 인 욱

1. 이 단체가 결성되기까지

공군에 전속으로 <<종군문인단>>이

결성된 것은 1951년 1·4후퇴 직후 대구
에서였다.

육외에서는 바람이 쌩쌩 불어 유리창
을 흔들고 손발이 얼어붙던 날 난로도
없는 2층 1실에서 낮익은 얼굴들이 서
로 자리를 같이 하였다.

모두 서울에서 피난을 나온 문인들이

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행동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나갔다가 한 지점에서 서로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이었다. 이 《공군문인단》의 산파역은 당시 공군 군종감이었던 문학애호가이며 문인기질인 김기완씨였다.

피난을 온 문인들은 모두가 무직이었다. 그별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피난지에 직장이 있을 리 없었다. 이렇게 문인들이 타향에 나와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일선장병들은 공산침략군을 무찌르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처자등의 곁을 떠나 전투를 하고 있었다.

귀중한 생명을 바쳐 복귀퇴군과 증공군에 대항하여 피나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문인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었다. 비록 총칼을 들지 못했으나 조국방위를 위해 젊은 가슴을 불태우고 싶었다. 모두가 맨주먹 맨손이었지만 그래도 의욕만은 강하였다. 이욕구를 어떤 명분 아래 충족코자 마련된 것이 《공군중문문인단》이었다.

2. 단원 명단

처음 발족 당시의 멤버는 다음과 같았다.

마해송(단장)
조지훈(부단장)

최인옥(사무국장)

최정희, 곽하진, 박두진, 박목원, 김윤성, 유주현, 이한철, 이상노, 방기환
결성 1년 후인 다음 해에 추가단원이 늘었다.

황순원, 김동리, 전숙희, 박훈산
이중 황순원, 김동리는 부산에 거주하여 상시로 행동을 같이 할 수는 없었으며 전숙희는 대구, 부산을 내왕하면서 일을 보았으나 정신적인 유대만은 잘 뚫어놓았다.

3. 명칭은 통용 「창공」

이 단체는 그 명칭이 간판대로 하면 「공군중문문인단」이며 육군이 작가단인데 비해 문인단으로 하여 명칭의 혼동을 피하고 구별을 명확히 하였는데 별칭을 「창공구락부」라고 하였다.

공군은 하늘이 싸움터다. 그 하늘을 상징한 《창공구락부》였다.

4. 활동 개황

이 단체의 사무국은 대구 덕산동. 난로도 없는 2층 1실, 첫날 모였던 바로 그 방이었다. 사무실로 정한 후에도 겨우네 난로는 없었다. 난로를 비치할만한 경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원들은 불기운도 없는 이 방에 모여

서 전쟁시를 쓰고 전선을 소재로 한 전쟁소설을 썼으며 종군기를 초하였다.

경비가 없으니 급식도 못하였다.

점심 때가 되면 단원끼리 주머니를 털어 구겨진 십원짜리를 모아서 막걸리 한 잔으로 점심을 대신하였고 술을 못하는 사람은 십원짜리 가락국수가 고작이었다. 원고를 쓰다가 지친 단원들은 펜을 멈추고 햇볕이 드는 쪽을 찾아 옮겨 앉아서 손톱을 깎고 양말을 꿰매었다. 또는 면도기를 가지고 서로 수업을 밀어주기도 하였다.

돈벌어진 유랑극단 같은 참으로 서럽고도 눈물겨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중에서도 위트가 쏟아지고 유모어가 꽃을 피웠다.

7. 1951년의 개황

우위에 웅크렸던 겨울 3동을 지내자 단원들은 봄삼월부터 종군활동이 빈번하여졌다. 4월에 조지훈, 최인옥 등이 수송기편으로 서울 여의도 기지로 출발하였다. 여기서 7,8일 동안을 체류하며 전투조종사들과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각종 폭격기들의 출격상황을 취재하고 조종사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사자들의 전공기를 초하고 종군기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공군에 종군하는 자로서 큰 불만인 것은 일선지구의 전투를 실

제로 목격할 수가 없는 점이었다. 이것은 육군에 종군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쟁을 실제로 관찰하자면 폭격기를 타고서 나가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여 군 당국에서 허락하지를 않았으며 또 사실은 좌석의 여유도 비전투요원에게는 돌아올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전에 분투하는 조종사들의 활동을 종군기로 남겨 후방에 알리고 또 그것을 소재로 한 작품을 쓰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 대해 당시의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정렬씨는 우리 단원들에게 인상깊은 말을 들려 준 것이 있었다.

『공군으로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군을 선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생·텍쥐페리」 처럼 비행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매우 감명깊은 말이었다.

종군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5월에 대구 국립극장을 빌어 종군보고강연회를 열었고 그 종군기를 「공군순보」와 몇군데 신문, 잡지에 발표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다음은 공군정훈감실 후원을 얻어 대구 국립극장에서 필자 각석의 「날개 찬 향전」을 일주일 동안 공연하였다.

이 연극은 「날개」가 상징하듯 공군을 소개 선전함과 동시에 시기양양을 위한 행사였다.

이때의 배역에는 최 은희, 황 정순 등이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다.

Ⅰ. 1952년의 개황

피난지에서 두번째의 겨울을 맞은 1952년초에 우리 문인단은 ≪육군중군작가단≫과 합동으로 군의 후원을 얻어서 전의를 앙양하는 내용의 문인극을 공연하였다. 김 영수작 연출의 「고향사람들」이란 것이었다.

배역에는 김 팔봉(육군작가단), 정비석(〃), 박 영준(〃), 김 용환(〃), 장덕조(〃), 양 평문(〃), 이 덕진(〃), 최 정희(공군문인단), 유 주현(〃), 박 하신(〃), 하 상노(〃), 최 인옥(〃), 박 훈산(〃) 등이었다.

대구에서 연 이틀 동안을 공연하였는데 예상 이상의 인기와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막간의 전쟁시 낭독 또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멀리 부산에까지 화제가 날았다.

그후 부산에 주재한 문총에서 3·1절 기념행사로 이 문인극을 부산에서 공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시 부산으로 원정, 그곳서도 매우 호평을 받았다.

그 얼마 후에 정훈감이 바뀌어 유 흥렬

씨가 취임하였다. 이에 단원들은 공군 사병을 위로하는 작품낭독회를 두차례 열어서 시와 소설을 낭독하고 중군소감을 발표하였으며 3, 4인씩 대오를 편성하여 전투기지 중군이 계속 실행되었다.

이 무렵에 박 두진, 유 주현, 이 상노 등이 또 전투기지로 중군을 나갔다. 단원들중 처음으로 경찰기를 타고 전선을 돌아보았는적 비행도중 조종사가 비행기술을 보이기 위해 기체를 몇 바퀴 뒤집는 동시에 아주 혼이 나고 착륙 후에도 한참 동안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 단원들의 한 즐거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중군을 떠날 때마다 본부에 있는 현역장병 몇몇 본들이 우리를 위해 뒷수고를 보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그 모두가 문학을 애호하는 분들로 이 제환, 최 재익, 주 정호, 김 영철, 이 영일 등 제씨였다.

Ⅱ. 1953년의 개황

이 무렵에 서 임수씨가 정훈감이 되고 김 경수씨가 정훈차감이 되었다. 이 두분은 다 문학에 이해가 깊은 분들이어서 우리 단원들을 위해 무엇이든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미련해 주려고 무척 심려를 하였다.

덕택에 문인단의 기관지 「창공」을 2호

까지 발간하였고 사병문고로 몇 가지 단행본을 발간하게 되었다. 단원들은 그동안 종군에서 소개를 얻은 것으로 시를 짓고 소설을 쓰고 증군기를 작성하여 기관지에 발표하였으며 사병문고 또한 그 내용은 작품을 주로 한 것들이었다.

이때 정훈감실에서 공군기관지「코메트」를 월간으로 발행하였는데 단원중이 상노, 방기환은 이 월간지에 편집을 전담하여 오랫동안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덕분에 어디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한 내용과 체제를 갖춘 잡지가 되었다.

조지훈, 박두진, 박복월 등은 공군의 노래가사를 여러 편 지어서 사병과 일반 민간에 보급하는데 공로가 컸으며 시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이 세련된 가사는 공군의 사기양양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영양소가 되어 주었다. 단장 마해송은 단원 통솔에 항상 무게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인화, 단결, 협조가 거의 유감없이 지속되는 단체를 이루었다.

마해송은 전문이 아동문학인만큼 진린층에도 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컸으며 당시 공군참모총장 장덕창씨의 협조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로써 전단수만매를 제작하여 비행기로 각처에다

부렸다. 해를 거듭해서 어린이날이 돌아올 때마다 이 행사는 계속되었다.

마해송은 이 전단을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고 사이즈를 정하면서 정성을 들였는데 이런 일을 한 《공군본부》 및 《공군 중군문인단》이 주제해 있던 대구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어린이 헌장비」가 서게 되었다는 것도 마해송의 각고한 노력과 함께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다.

5. 해산과 그 이후

이 문인단은 1954년 7월, 환도와 더불어 해산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서울에 돌아와서도 꽤 오랫동안 매주 수요일이면 명동 문화회관 대방에 모여 지난날을 얘기하면서 든든한 우의를 지속하였다.

이 단체는 우리 문단사의 한 모서리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것이 되었다.

피난 대구문단

최 정 희

창공구락부와 육군중군작가단이 갈라

진 것은 피난가서 얼마 뒤의 일이다.

창공구락부원이던 구 상씨가 김 팔봉, 박 영준, 장 덕조 제씨와 육군중군작가단을 따로 만들었다.

창공구락부는 《공군중군작가단》으로 공군본부 정훈감실에 소속되어 있었고 《육군중군작가단》은 육군본부 정훈감실에 소속되어 있다.

처음엔 우리와 잘라진 구 상씨가 야속하고 섭섭해서 내가 뭐라고 말했더니 구 상씨는 팔쓰는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보자고 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신이 되기보다는 사람은 사람 그대로 존재하는게 더 값이 있지 않을까」 구 상씨 말에 나는 또 이렇게 항의했다. 잘라졌다고 해서 결코 두갈래가 된 것은 아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한 함께 물려 막걸리 집으로 다니고 취하던 노래도 불렀다. 나는 그들이 위해서 하는 응답이 늘 못마땅했다. 그들이 모이는때를 가지 않은 일도 있었다.

그러자 사흘만에가 조 지훈, 최 인옥 양씨가 전권대사의 임무를 띄고 왔노라면서 찾아왔다.

양씨는 다시 노여움을 살만한 그런 종류의 언사는 입 밖에도 내지 않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그들은 수행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 분위기에 차차 동화되어 가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번 전쟁에서 얻은 것은 피터사가 사람이 되잔 것야」 구 상은 음담패설에도 끄떡하지 않게 되어 가는 나를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창공구락부에선 유니폼이나 구두 뿐이 아니고 쌀, 광목도 배급을 받았다. 한 가마니씩 나오던 내 경우에 남아 돌아가서 어려운 피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비행기를 타는 특전도 창공구락부원들에게는 종종 있었다.

비행기 공포증에 걸린 나만 붓타곤 아마 다들 타볼 것이다. 나는 비행기를 타기 싫어하던 헤밍웨이가 첫 비행에서 추락되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있었다.

유 주현씨는 재주를 넘는 비행기를 타다가 죽을 고비를 치른 일도 있었다.

「사람 살리슈」

하늘을 본다고 보면 땅이고 땅을 본다고 보면 하늘이었다고 한다. 그는 필사의 절규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창자 속에 있는 건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출구란 출구를 온통 다 뚫어서 나오는 것이었다 한다.

육군중군작가단에선 종종 중군을 했다.

박 영준, 구 상씨 등은 나중에 표창을 받은 일이 있을만큼 부지런 했으니까, 장

덕 조여사도 군복에 군모를 쓰고 다녔다. 자그마한 키의 군복 뱀시가 대구 거리에 이체가 아닐 수 없었다. 나도 입은 일이 있다. 공군복이 아니고 육군복이었다. 서울에 왔다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군복을 입지 않고선 기차를 탈 수도 없었으며 도강은 더우기 어려웠던 때다.

그 군복은 현재 여군소장으로 있는 윤희열 대령이 자기에게 작은 것으로 입혀 주었다. 서울행은 유 주현씨와 함께였다. 유 주현씨도 육군복을 입었던 것 같다.

육군복이 무난했는지 모르겠다.

군복 덕에 도강은 무사히 하게 되었다. 피난지 대구나 부산에서든 그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영등포까지 왔다가 한강을 넘지 못해서 영등포에 하차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곤 군복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공군본부 정훈감은 김 기완 중령이었다. 그의 뒤를 서 임수 중령이 맡았다.

육군에선 박 영준 대령이었다. 가끔 우리는 정훈감들의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

육군, 공군 구별할 것 없이 한데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셨다. 어느 때에 「은희네」라는 아담 고급에 속하는 요정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일이 있다. 우리가 한창 즐거울 때 일선에서 왔다는 한 병사가 후방이 이 꼴인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권총을 빼어 들었다.

그는 끝내 권총을 쏘기까지 했다. 여자 종업원들이 찢어지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고 우리들 중에서도 도망간 사람이 더러 있었다. 병사의 눈엔 우리들이 항상 그렇게 잘 먹고 흥청거리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우리들은 문인극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공군 육군중군단》이 합세할 해시 했다. 김 영수작 「고향사람들」을 상영하는데 장 덕조여사가 어머니, 최인숙씨가 아버지, 내가 정옥이역을 맡고 내 상대역이 박 영준씨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온 정옥이 신랑감을 고르다가 삼이군인 만수 박 영준에게 시집가게 되는 이야기에 신랑감이 되어 보자고 덤비는 인물이 한둘이 아니다. 양조장집 막내아들 유 주현, 이 사람은 코주부의 안내로양 명문, 광하신, 박 기준, 이 덕진 제씨는 누구의 안내도 없이 제각기 제 실력을 보이려고 정옥이 앞에서 우스꽝스런 물골을 드러내고 있다. 정 비석은 순경으로 등장했다.

순경의 역할이 어떻든지 기억되지 않으나 정 비석씨에게 이 상노씨가 「왜 눈깔을 똑바로 뜨고 이때？」 하며 달려들던 대화 한 마디는 머리에 떠오른다. 전

숙희, 김 팔봉, 박 훈산씨 등도 나왔다.

박 훈산씨가 「막무가내」라는 말을 옮기
지 못하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 이 일뿐 아니라 연극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던지 모른다.

얼마 동안의 옥고로 해서 바깥 더 다른
초라한 천명(天命)을 피난방송국 초라한
지하실 방에서 만나던 일은 더욱 잊혀지
지 않는다. 옥숙의 거처엔 그때 갔던지 다
음번에 갔던지 기억은 잘 안 되나 파도가
머리맡에까지 와서 칠석거리고 있었다.

파도야 날
어찌란 말이나
님은 물같이
윽찍도 얹는데
파도야 날
어찌란 말이나
어찌란 말이나

청마의 시를 피차에 외우면서, 그건
청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피차
에 지껄어 대며 슬피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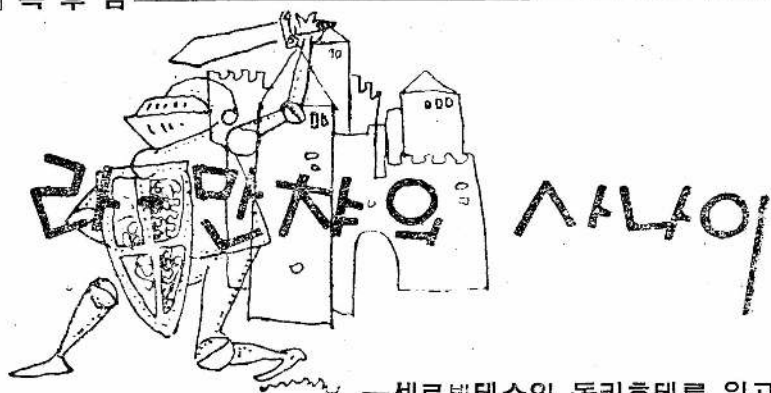
피난문인들과 헤어 놓 수 없는 문인이
한 사람 있다. 김 가환 대위다. 연세에
비해서 계급은 낮은 편이었는데 술은 몹
시 좋아했다. 술이 좋단니까 문인들과
친해진 것 같다.

피난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쓰이던 창
공구락부 사무실 걸속소를 얻지 못한 구
락부원의 거처이기도 하던 이 처소에 김

계환 대위도 밤을 여기서 지냈다.

마 해송, 김 윤성, 박 하신 제씨와 함께.
술이 곧드레가 되면 이분은 『노래 한 마
디 하겠읍니다』하고 「이 풍진 세상」이든
가 「내 고향을 이별하고」를 처량하게 부
른다고 해서 「노래 한 마디 신생」이란 별
명으로 우리들 사이에 통했다. 또 양말
할컬레로 신는 신세라 밤이면 늦어도 양
말은 꼭꼭 빨아 낸다고 해서 마 해송씨는
그를 「양말신생」이라고도 이름지었다.

대구 피난문인을 위한 공모표창이 있
다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다. 우리
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었던 분이니
까. 최 인옥씨도 어디선가 밝힌 일이 있
을 것 같은데 《석류 나무집》아주머니도
한 몫 들어야 하고 발대가리란 미안한
별명을 붙여준 마양도 한 몫 들어야 하
고 우리 식구가 들어 있던 우리 주인집
식구도 한몫 들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
하고 싶다. 《석류나무집》아주머니는 외
상술값을 주축하는 일이라곤 한 번도 없
었으며 늘 좋은 낫으로 한결같이 해주었
다. 마양도 마찬가지였다. 마양은 우리
가 연극을 하던 때 땅콩이랑 오징어랑
잔뜩 싸들고 왔었다. 우리 주인집은 그
이상의 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집
에 드나드는 내 친구에게 안주를 거의
대다시피 했으니까.



—세르반테스의 동키호테를 읽고—

문 종 진

작자소개

세르반테스는 1547년 9월 29일 스페인의 알카라·데·해나레스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그는 돌팔이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방랑의 생활을 익혀 사회적인 경험을 굳건히 했다. 그는 1568년 21세 때 로마 법왕의 사절로서 스페인 국왕 필립 2세 밑에서 군목 주리오 아리비바로 불리웠으나, 1570년 여름에 그 사실의 귀국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자원하여 돈·미구엘·텍·몬카다의 연대에 사병으로 입대했다. 페마칠 스페인과 로마 법왕과 베니스와의 사이에 맺어진 친성연합은 오스트리아 돈·휴앙이 총사령관이 되어 기독교 신도의 공동 적이었던 터키군과 싸우

게 되었다. 세르반테스는 역시 이 연합군에 가담하여 1571년 9월 메시나 항을 출항한 일도 있었다.

1575년에 주전이 성립되자, 그해 9월 휴가를 얻어 <베에폴스>에서 본국을 향하여 떠난 도중 불행히도 함대 중역적 함대와 마주쳐 전투 끝에 일행은 포로로 끌려갔다. 5년간의 포로생활을 끝낸 그는 혼예 돈·키호테를 집필할 때 포로의 이야기는 이제 그의 경험이라고 한다.

1580년 9월 19일에 포로생활을 마친 세르반테스의 나이 40세가 되었고 원손이 다쳐 부자유스런 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끈질긴 대방은 장차 훌륭한 문필가로 뜻을 세우보는 것이었다.

소설 <가라페아>는 1585년 고향인 알카라에서 출판되었으나 실패하고 말

았다.

이 당시 다소의 자본금을 가진 명문의 부인과 정식으로 결혼했다. 한때는 3년 동안 30여편의 희극, 비극의 희곡을 써서 자신이 유랑극단에 참가하여 배우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극단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1615년 2월에 동·키호테 속편을 탈고하여 그 해가 다 될 무렵 출판되었다. 그 때부터 그의 건강은 악화되어, 1616년 4월 23일 수종병으로 영면했다. 이닐은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똑같이 영면한 날이었다.

작품소개

다음은 그의 명작 동·키호테를 요약해서 감상해 보자. 스페인의 라·만차라는 한 마을에 오래 전부터 장창과 낚은 방패와 뼈만 앙상한 말과 사냥을 위해 기른 사냥개 딱위물 가진 신사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양고기보다 쇠고기를 사랑하여 많이 섞어 식사 때마다 즐기었고, 토요일에는 완두콩, 일요일에는 비둘기 요리로써 수입의 4분의 3을 낭비하고, 그 나머지는 안식일에 안맞는 조끼와 비로드 바지와 구두로서 호강을 했다. 그런데 이 신사양반은 언제나 림만 있으면 기사도의 이야기책을 읽는데 열중하여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즐거움과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란 기사도에 관한 책을 사들인다고 많은 토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실바의 페리시아노가 꾸민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크게 움직였다. 그 분장의 명석함과 복잡미묘한 사고력과 사랑의 달콤한 이야기는 마치 진주와도 같이 황홀한 것으로 느껴졌다.

「이성운 괴롭힌 이외(理外)의 이(理)」는 크게 나의 이성을 약화시키므로 이 몸은 그때의 아름다움을 차지함도 하나의 의외였노라!라고 하는 귀결을 발견한 그는 가엾게도 정신을 잃고 말았다. 결국 정신이 뒤집혀진 그는 이 세상에서 미친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이상스런 생각으로 가슴이 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부터 무인수업(武人修業)의 길에 나서기 위해 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모험을 찾는, 온 천하를 편력하여 책에서 얻은 지식을 자기 몸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와 국가에 봉사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우선 길을 떠나기 위해 그는 조상의 유물로써 지금까지 창고 속에서 녹슬어 있는 갑옷을 빛나도록 닦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투구가 아 니고 보잘 것 없는 쇠로된 대야였다. 흠이 깊이 파져 있으므로 두터운 종이로 겹겹과 비슷한 것을 고안하여 대

약에 붙었다.

그리고 보니 대야는 마치 부구와 같은 모양으로 빛났다.

다음에는 당나귀를 끌어내어 이모저모로 검사한 다음, 당나귀의 이름을 <로시난테>라고 지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고상하고 부르기 좋고 또한 아직한 세계에서 첫째로 손꼽히지 않는 흔해빠진 당나귀라는 것이다.

대단히 좋은 취미라서 자기도 이에 못지 않은 이름을 붙이고만 싶었다. 한 일을 곰곰히 생각한 끝에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부를 것을 결심하였다. 이제 우리의 모험가는 홀로 길을 떠났다. 「벌지 않아서 이 몸의 명성이 세상을 뒤흔들어 후세에까지 역사가 전해질 터인데 역사가는 현명한 판단으로 사람이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났음을 기술하고자 할진대, 이와같이 쓸지어다—빛나는 금발머리의 실을 풀어놓을 틈도 없이 아름다운 새들은 질투에 타는 숫놈의 부드러운 몸을 떠나서 <만차>의 지평선의 문과 노대근방에서 바야흐로 인간에게 나타날 장미꽃빛 새벽의 여신이 나타남을 달콤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맞는다. 노래의 꼭조를 다듬을 여유도 없이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친 기사라「라·만차」의 돈·키호테는 숨털자리를 버리고 굳아 로시난테를 타고 옛부터 이름

난 <몰드르엘> 들을 지나가노라. 사실 그는 지금 그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략—

돈·키호테는 소자인 한 사람을 자기 수하에 집어 넣었다.

자기집 근처에 사는 아주 정직한 사람 <산초·판자>였다.

그는 산초에게 나는 멀지 않은 장래에 커다란 섬을 점령할 것이며, 그렇게 되는 날에 그를 섬의 주인으로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런 시골에서 밤낮 고생만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라면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말에 정직한 산초는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돈·키호테를 따르리라 선포 나섰다.

그들은 다시 정들인 고향을 작별하기로 했다. 둘이는 어느새 <몬트엘> 벌판을 지나게 되었다. 다만 산초는 하루 속히 주인이 섬을 점령하여 자기와 약속한 섬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기대가 부풀었을 따름이다.

그들은 넓고 넓은 들판에 이르렀다. 푸른 들에는 삼사십개의 풍차가 보였다. 돈·키호테는 그 풍차를 보자 자기 부하인 산초에게 『우리들이 스스로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느니보다 행운의 신이 더욱 우리를 알아 주실 것이다. 산초 저쪽을 보라. 저기 삼십세 이상의 기괴

한 거인이 보이지 않는가? 본인은 저들과 일대 결전을 하여 항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들에서 빼앗은 물품으로서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자본으로 하잔 말야. 이와같은 일은 정의의 싸움이니까 저토록 악독한 놈들을 지구의 표면에서 빗자루로 쓸다시피 몰아내야 하는 거야 알겠어.」「주인님 어떠한 거인입니까?」하고 산효는 어리둥절해 주인에게 물었다. 「저쪽에서 보이는 거 것이다」하고 대답했다. 「저쪽에 보이는 것은 거인이 아니라 풍차가 아니요?」「그리고 팔처럼 보이는 것은 돛이고 그것이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면 항아를 쥘는 것이라고요.」「응, 알았다. 알았다. 잠자코 있거라. 네놈은 이 세상에서 이와같은 모험을 익숙지 못했다, 저것은 거인이야.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 저쪽에 가 있거라. 본인이 저놈들과 일대 결전을 하리라. 너는 그동안 승리의 기도나 올려라.」이와같이 말한 그는 그 군마를 「로시난테, 몰아쳤다. 그 뒤에서는 여전히 산효의 공격목표는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은채도 하지 않고 더욱 고함을 치고 달려 나갔다. 「도망가지 마라 비겁한 놈들! 그 때들을 향하여 달려잡은 오직 라·만차의 기사 한 사람이니오라」 이때 바람이 약간씩 불기 시작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돌진했다. 그러나 그의 창끝은 돛을 찢었기 때문에 바람은 세차게 불어 그것을 돌리었다. 그 힘 때문에 창은 여러 동강이로 끊어졌고, 그와 동시에 말과 말을 탄 우리의 돈·키호테는 바람에 힘싸여 처참한 광경으로 벌판 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다. —하략—

워낙 방대한 양의 소설이어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만 제1부 제1장에 나오는 돈·키호테의 성격과 생활방식, 그리고 제1부 8장의 풍차와의 모험을 아주 간략하게 쭈뼛 놓았다.

T. S Eliot는 말하기를 「유럽 사람으로서 돈·키호테를 읽어 소화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돈·키호테는 유럽인의 정신생활에, 그리고 각시대 각계 각층에 환영을 받아왔다. 작자 자신도 이 작품 속에서 아이들은 뒤적이며, 소년들은 칭찬하니 이 책은 만인의 손뼉이 묻고 연구가 되고 알려진 바 되어 여윈 말이 지나가는 것을 보아도 저기 로시난테가 간다고 하여 스스로 자기 작품의 보편성을 내놓았던 것이다.

대체로 이상주의 시대였던 17세기에는 돈·키호테를 환상적인 소극적으로 보았다 하기에 작품 자체가 그러한 경향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양식을 귀중히 여기던 계몽주의

가 지배하던 시기라 돈·키호테를 양식에 벗어난 것을 하는 자들에게 풍자로서 각광을 받았다. 풍자는 단순히 웃어 버리자는 소극(笑劇)과는 다르다. 18세기에는 돈·키호테를 보다 신중히 취급하여 그 교훈을 발견한 셈이다.

19세기의 낭만주의는 기사 돈·키호테를 일종의 낭만적 영웅으로 생각게 되었다. 즉 그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인간들에게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는 이상주의 자라는 것이다. 양식에 어리석은 18세기의 돈·키호테는 이상과 현실의 기르에서 비극적인 투쟁을 벌이는 숭고한 영웅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하간 재미있는 소설이다. 돈·키호테는 햄릿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약 4세기 동안을 지내 오면서 햄릿적 인간과 돈·키호테적 인간의 구분과 비유는 자주 듣는 바이다. 햄릿은 현실을 직시하는 이상주의자 또는 행동이 없는 사색가인 반면 돈·키호테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 또는 사고가 없는 제멋대로의 행동주의자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영원히 빛날 우리의 기사 라·만차의 사나이 돈·키호테는 이 지구상에서 길이 남을 것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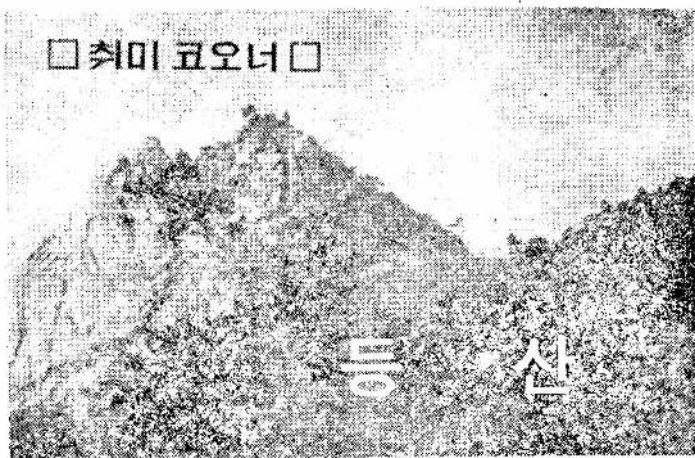
◇ 육된 과거를 청산하고

◇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점(始點)에 서 있다. 수난과 빈곤의 역사는 끝나고, 번영과 영광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우리 앞에 전개되었다. 조국의 근대화와 세계사에 공헌하는 약진하는 한국,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벅찬 희망인가!

◇ 조국의 근대화, 그것은 국토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기필코 이룩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며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이다.

— 1967. 신년사에서 —

□ 취미 코너 □



— 임 희 자 —

1. 등산의 의의

◇ 휴가 이용으로서의 등산 ◇

산은 찬란한 자연의 풍경에서 받는 매력에 이끌려 가슴 깊이 파고드는 맛을 느끼게 한다.

사실 산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의 등산은 절대로 안전하고 건전한 취미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심신의 단련을 위해 바른 등산정신과 지식 및 행동을 갖추어 건전한 스포츠로서의 등산을 즐기는 것이 좋다.

◇ 등산은 무엇인가 ◇

등산에는 중요한 요소로써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연적 요소이다. 다른 스포츠와 다른 일정한 경기장이 있고 또 규칙이 있다. 그러나 등산의 운동장은 경기장이 아닌 산이다. 산은 아주 다양성이 있어서 정상·능선·계곡·바위·숲·폭포, 벼랑과 같은 여러 지형이 복잡하게 많은 양상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우기 여기에 계절 따라 다르고 밤과 낮의 등산이 다르며 또한 어려운 기상조건이 따른다.

바람, 눈, 비, 벼락, 더위, 추위 같은 것이다. 이와같이 변화 많은 산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수반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위험을 잘 판단해서 극복하고 안전한 등산으로 즐겁게 끝내야 할 것이다.

물체는 물질적 요소이다.

이것은 내상하는 산에 따라 다르고 계절따라 다르며 높이에 따라 다르며 또한 등산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장비, 식량 등이 불가결하게 되고 아울러 하나 하나의 장비의 성능을 알고 적당한 사용법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

만일 겨울 산같은 데서 구두에 다는 아이젠이 없거나 모퉁 등산에서도 필요한 구두나 배낭이 없다면 아주 고통스럽고 잘못하면 조난하기 쉽다.

그래서 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장비는 꼭 필요한만큼 있어야 하고 자기에게 알맞는 것이라야 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세째로 인위적 요소이다. 기술적 요소라고도 하는데 산이 결정되고 장비가 마련되었으나 사람의 기술이 없이는 안 된다. 안전을 요하는 기술과 판단력, 일정, 인원편성 같은 것이겠다.

보통 등산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바위를 타거나 눈산을 올라갈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관하여 일정한 안전 한계를 만들고 등산하는 사람은 이 한계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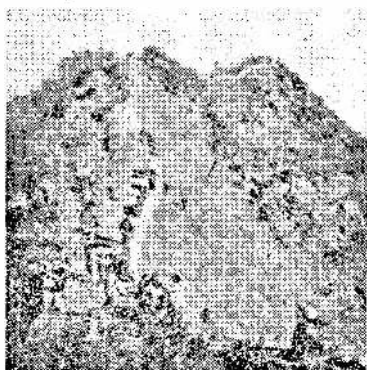
여기서는 너무 전문적인 등산론을 피하고 누구나 곧 적용할 수 있는 등산 즉, 하이킹도 이와같은 세 가지 요소에 포함시켜 설명코자 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능력한계를 알면 결

코 등산은 무섭고 위험한 것은 아니다.

등산을 시작한 동기와 방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고 있는 등산이란 명승고적을 살피고 경치좋은 곳에 아주 편하게 차를 이용하거나 하면서 그리 높지 않은 곳까지만 가는 관광등산이 있고, 숲이나 개울가에 나가 하루를 즐기는 피크닉 등산이 있는데 이것은 맛있는 음식물 많이 준비하는 것이 그 특색이다. 또 하나는 하이킹이다. 하이킹은 본래의 뜻이 등산과는 대단히 다르다. 앞서 말한 관광등산, 피크닉등산 등을 합친 것에 비교적 높이 보행하고 불필요한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며 결코 기왕의 코스스를 벗어나거나 아주 합리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모험조차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저산등산(低山登山)이라고도 한다. 본래의 본격적인 등산은 알피니즘이라고 부르며 높은 산정을 찾고 어려움에서 그 뜻을 찾는 것이니 보다 어려운 산길을 찾는 법이다.

그래서 탐험일 수도 있고, 스포츠이기도 하며 훌륭한 문화활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우기 등산은 문학을 만드는 행동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쓰는 등산은 우선 아주 간편한 「생활 스포츠」로서의 등산이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등산을 말한다. 방법에 따라 산이 갖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없는 즐거움으로 느끼며



<산을 오르는 즐거움, 산을 오르는 사람의 특권이다.>

비할 바 없는 자랑이 슬기 속에서 건건하게 이룩되어야 한다.

2. 등산장비

등산은 물론 개인의 건강이나 건전한 정신을 기르는 훌륭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종 부주의와 빈약한 장비로 긴급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영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며 또 실제 목격하고도 있다. 그런 면에서 산을 오른다는 것은 여러가지 특별한 지도와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또한 사용법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아무리 초심자라 하여도 최소한의 개인장비는 마련하고 경험있는 리더를 따라 산행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장비를 배낭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자기의 힘만 과시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등산하는 사람은 배낭 안에 짐을 잘 간추려서 행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석유나 휘발유가 새지 않도록 잘 싸서 넣어야 한다. 특히 등산복 같은 것은 간편하고 튼튼한 것을 택하여야 한다. 요즘에는 국산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직접 생산도 하기 때문에 값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복장 또는 취사도구 등도 많이 시중 상점에 나와 있으니, 초심자도 장비 구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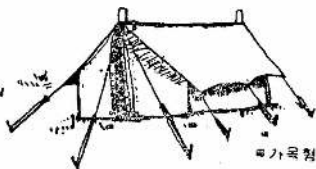
요즘 와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늘어 좋은 현상이나, 여름철에 윈드 자켓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보기에 거북스럽다. 위에서 말했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쓸 줄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겠으며, 복장도 때와 장소에 맞추어 보기 좋게 갖추어서 남보기에도 어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등산하는 사람 중 자일을 어깨에 맸고 혼자만이 등산가란듯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행위는 과히 좋은 일은 아닌 것이다. 자일이란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이 중요한 등산장비인데 마구 굴리며 깔고 앉고 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되는데 장비를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버릇을 길러야겠다.

◇ 개인장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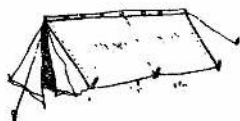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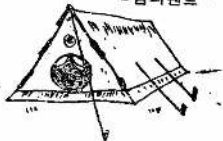
·내복 : 땀을 많이 흘린 후에 갈아 입을 여분을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 콘서트형 텐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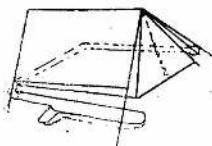
■ 가락형 텐트

■ 원피텐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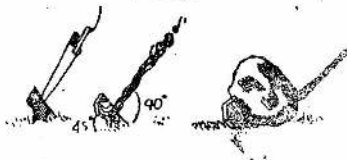


■ A형 텐트

■ 배수구 파는 법



■ 땅의 기울



텐 텐

• 모자 : 봄, 가을에는 베레모·칠월모 등이, 하절에는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시원한 모자와 겨울에는 털실로 잔목까지 폭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좋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걸 수 있게 해 놓으면 좋으며 모자의 색깔에도 신경을 써서 등산시에는 반드시 모자를 쓰도록 해야 한다.

• 우의 : 편리한 것으로는 군용판초가 있고 접는 우산 등산용으로 요즈음 시판되고 있는 등산용 우비가 있다. 판초는 천막 대용으로도 될 수 있고 시이트로 대용해서 식탁도 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많다.

• 윈드자켓 : 합성 섬유로 된 나일론, 세닐론 또는 면과 교직으로 잔 것이 있는

메 나일론류는 가볍고 얼지 않는 이로 운 점이 있는 반면 불에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화기에 조심하여야 하며 방수가 잘 되는 면과 교직으로 잔 것이 제일 좋다. 계절을 막론하고 입지 않아도 배낭 안에 넣고 다니자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대비하면 좋다.

• 장갑 : 면장갑은 손을 보호하며 취사 시 뜨거운 코펠르 등을 들어 내릴 때 편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지고 다녀야 하며 겨울에는 털장갑이 준비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방수장갑이면 더욱 좋다.

• 양말 : 먼저 얇은 목양말을 신고 다음에 순모 털양말을, 그리고 그 위에 얇은 양말을 신고 있으면 땀의 흡수에 좋고 발의 피로도 덜어주며 두터운 양말이 쉬

더러워지지 않는다. 여분의 양말은 반드시 필요하니 준비가 있어야 한다.

• **신발**: 좀 비싸기는 하지만 면포제 등산화 또는 가죽등산화 등이 좋다.

만일 등산화를 맞추려면 털양말, 얇은 양말을 준비해 가지고 계화점에서 발을 절 때 모두 신고 약간 여유있는 듯 맞추는 것이 앞으로의 산행을 보다 즐겁게 해 줄 것이다.

• **오우버슈즈**: 겨울철 등산에 특히 적설량이 많은 곳에서 보온과 방습을 막기 위해서는 등산화 위에 신는 덧신이 있다. 일년에 한 두번 쓸까 말까 하나 적설기의 등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의 하나이니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배낭**: 당일용으로는 사브작크, 알페인작크 등이 좋고 2,3일 이상 산행할 때는 키스링형이란 배낭이 있어 짐을 많이 질 수 있는 것도 있다. 아마추어인 경우에는 사브작크면 충분하여 요즈음 와서는 시중에도 여러 종류의 배낭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니 잘 선택하여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면 된다. 배낭 안에 짐을 싸고 넣을 때 가벼운 것을 밑으로 넣고 차례차례로 무거운 것을 위로 넣는 것이 배낭을 메고 걸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쉽게 꺼내야 할 물품은 양쪽 배낭주머니에 넣도록 하고 속에 넣은 잠금 등은 비닐에 싸서 넣어 분실되거나 젖지 않고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루의 산행이라 할지라도 가솔장비

는 반드시 배낭 안에 넣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다.

• **수통**: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군용수통이 있으나 무거운 것이 흠이다. 요즘 비닐수통이 시판되고 있어 휴대에 가벼운 점이 있으나 물맛이 달라지는 것이 결점이며 겨울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도 불편한 점이다. 겨울 산행은 마호병에 뜨거운 차를 넣어 가지고 다니다 마시면 보온도 되고 추운 곳에서 물을 끓여 먹는 시간도 절약된다.

• **조명구**: 랜턴, 회중 전지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캠핑이나 야간 산행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당일 산행에도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전지는 사용 전까지는 따로 싸서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만 쓰도록 하며 예비전지, 예비전구 등을 항상 잘 보관하여 가지고 다녀야 한다.

• **색안경**: 직사광선이나 자외선에서 눈을 호보하며 폭풍설에서, 혹은 적설기 등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보안용이므로 잊어서는 안 된다.

◇ 공동장비 ◇

• **천막**: 여러가지 형이 있는데 널리 알려지고 있는 A형(군용), 워퍼형, 지붕형 등이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천으로는 나일론, 면포제품 등이 있으나 방수, 방풍, 방한을 겸할 수 있는 거주성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겠다.

• 취사도구: 코펠, 버너 등이 있다.

• 등반용구: 등반용구로서 자일, 하켄, 카라비너르, 해머 등이 있으며 자일에는 보통 9mm~11mm의 나일론, 또 12mm의 다자일 외에 4mm, 5mm, 6mm의 보즈자일 등이 있다. 흔히 암벽등반에서 사용하는 자일의 길이는 30m~40m가 많이 많이 쓰여지며 하켄은 바위틈에 해머를 때려서 완전히 박힌 다음 하켄에 카라비너르를 걸고 카라비너르의 자일을 통하여 자기 몸을 확보하고 동료의 안전 등반을 위하여 쓰여지며 베틀은 카라비너르에 줄사다리를 걸고 인공적으로 등반을 하는 수도 있다.

3. 등산식량

등산은 높은 체력 소모가 장시간 계속되는 운동이다. 특히 장기 산행에는 식량의 준비 여하도 전 대원의 컨디션을 좌우한다.

◇ 등산식량의 기본조건 ◇

1. 중량이 가볍고 부피가 작아야 한다.
2. 기온의 변화에도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안정성).
3. 칼로리가 높아야 한다.
4. 조리시간이 짧아야 한다(연료절약).
5. 조리가 간편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호에 맞아야 한다.

등산시에는 밥은 많이 훌리게 피프로 열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열분이 부족하면 무기력 해지고 판단력이 둔해지며 머리가 아플 때도 있다. 산에 들어가던 평상시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잡자가 고기와 기름기불 많이 먹으면 소화가 될 때까지는 도리어 피로가 오고 전신이 나른 해진다. 또 장기등산시에 처음 2~4일간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입산 3~4일 전부터 식사와 체력을 조절하여 두면 그런 일이 없다.

◇ 인스턴트 식품 ◇

국내의 실정은 아직 인스턴트 식품이 별로 개발되지 않고 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종류는 대략 다음과 같다.

• 각종 라면 • 각종 통조림 • 가루된장 • 고추장 • 스프 베이스 • 각종 분말주스 • 커피 • 홍차 • 코코아 • 오트밀(미) • 계란 가루(미) • 건조야채(미) • 제리파우더(미) • 알파 미(일) 건조과일(미)

◇ 비상식량 ◇

비상식량이란 조리할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칼로리가 높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비상용 식량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빵 • 치즈 • 건조 소세이지 • 육포 • 어란 • 어포 • 말린 새우 • 김 • 멸치 • 약

과·전고도·비스켓·전파인애플·제리
·포도당정·사탕·소금·비타민정

근교 산행에서는 비상식량을 1식분이
상 휴대하여야 하고 장거리 산행에는 3
식분 이상 휴대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비상용 주머니를 마련하여 끈, 성냥, 양
초, 종이, 비상식량 등을 준비하면 급할
때 큰 도움이 된다.

4. 등산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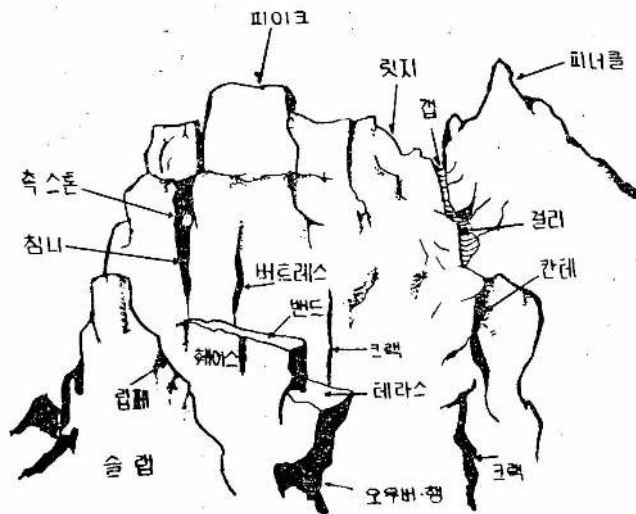
걸는다는 것은 특별한 연습 없이도 누
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길
은 평탄하지가 않다. 계곡길, 숲길 또는
능선길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바위를 넘
기도 하고 위험한 장소를 지날 때도 있
다. 또 여러 사람이 발걸음을 멈춰 걸을
때에는 걸음걸이의 요령이 필요하게 된

다. 대개 초보자들이 산길을 걸을 때 평
지에서와 같이 경쾌한 걸음걸이를 하는
데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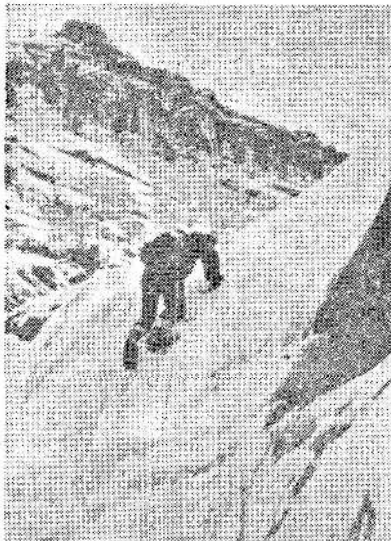
평지는 보행폭을 약간 넓게 걸음걸이
와 호흡의 조화를 이뤄야 하고 발바닥
전체를 지면을 느끼는듯 허리를 단정시
켜 몸의 중심이 약간 앞으로 향하는 기
분으로 천천히 걷는다.

오르막길은 보행폭을 약간 좁혀 평지
에서와 같은 자세와 속도로 걷는다.

내리막길은 몸의 중력을 충분히 응용
하여 정확한 발걸음으로 걷는다. 걷는
중의 휴식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취하는
것이 좋다. 보통 3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는 것이 좋는데 쉴 때에도 구무끈
을 다시 맨다든가 배낭의 불완전한 부



암벽의 명칭



<산은 정복하는 사람의 것이다.>

본을 고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대개 초보자들은 걷는때만 급급하여 주위의 풍경을 살필 겨를이 없지만 차츰 산에 다니게 되면 산이 주는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즐거운 산행을 가질 수 있다.

5. 위생관리

모든 운동이 다 그러하듯 등산도 마찬가지로 첫째 몸이 건강해야 한다. 출발 전부터 자기 스스로가 산행에 적격인지 신체적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한다. 수면부족, 과로, 과음 등은 산에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심장병, 고혈압 및 폐질환의 환자는 등산을 할 수 없다.

• **맥박과 호흡**: 맥박과 호흡이 일정치는 않다. 운동 후라든가 몸에 열이 있을 때는 다소 빨라진다.

• **식수**: 산에 오르면 숨이 가쁘고 목이 마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마구 먹어서는 안 된다. 첫째, 물의 색깔을 보고 다음은 냄새를 맡아서 이상이 없으면 맛 또는 지세를 보아 먹어도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 마시도록 한다. 되도록 지정된 음료수와 절이나 암자의 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계곡물은 물질이 멀어서 중간에 더러워질 우려가 있으면 꼭 끓여서 마셔야 한다.

• **물집**: 처음 걷는다가 신발이 맞지 않으면 물집이 생긴다. 이럴 때는 신발을 벗고 원인을 판단해서 아픈 곳에 소독 반창고를 붙이든가 신발이 크면 비상양말을 신고 양말이 얇으면 당는 부분에 비누를 좀 칠해서 미끄럽게 해 두면 된다.

만약 물집이 생겼거든 바늘을 불로 소독해서 물집을 따고 멸균소독 머즈를 대고 반창고로 붙여서 굳이 안 들어가도록 조치한다.

• **일사병과 열사병**: 이 병의 증상은 기력 탈진과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 그리고 정신이 흐려지며 구토를 시작하는 수도 있다. 열은 40도나 41도를 상승하며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도 있다.

이럴 때면 곧 그늘 밑으로 옮기고 옷을 벗겨서 시원하게 식힌다. 머리와

어깨를 증고여서 편안한 자세로 눕힌다. 그리고 찬 물수건으로 가슴과 머리를 "십부"하고 마사지를 해서 심장쪽으로 리자 많이 보이도록 한다. 의식이 회복되던 응모수를 주되 알코홀 성분은 금해야 하며 환자가 땀을 많이 흘렸으므로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게 하던 회복이 빠르다.

• 독상조처 : 뱀에 물렸을 때는 우선 물린 환자를 누이 있게 한다. 이것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하여 사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아무 끈이나 가지고 물린 자리의 윗부분을 단단히 배서 혈액의 순환이 정지되게 한다. 그렇다고 너무 꼭 감으면 팔이나 다리가 상하니까 적당히 맨다.

독사가 물은 상처는 즉각적으로 딱갑고 아프며 부어오르고 변색이 되며, 다음엔 맥박이 빠르고 약해지며 얼굴색이 창백해 진다. 만약 독사라고 단정되면 곧 응급치료를 한다. 칼을 불에다 소독한 후에 물린 이빨자국마다 깊이 1cm, 길이 2cm X의 자형으로 썬다. 그리고 입을 대고 피를 빨아낸다. 사독은 위로 들어가도 부방하다. 입 속을 물로 자주 씻는 것이 좋다. 이렇게 빠는 것을 약 1시간 계속

속해야 한다. 지혈대를 계속 매놓으면 나쁘니 15분 간격으로 2분간씩 풀었다 다시 매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빨리 벌의 침을 소독한 바늘이나 칼로 파낸다. 그리고 얼음이나 찬 수건을 대서 통증을 덜어주고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징크유나 카라민유로 가려움증을 덜어준다. 벌체에 쏘였으면 진신을 식소다수로 씻는다.

• 구급약품 : 알코홀, 옥시플, 옥도정기, 마퓨롬, 봉산연고, 향생제연고, 암모니아수가워, 핀세트, 멸균미르, 붕대, 탈지민, 유저, 반창고, 해열제, 진통제, 소화위장약, 지사제 정도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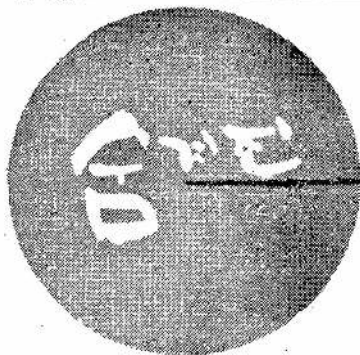
청정한 공기, 숲 속에서 속삭이는 새들, 눈부신 신록의 어린 가지들 곱게 달래주는 바람, 고개길 너머 산허리에 하얗없이 흐르는 흰구름, 그리고 거기서 보다 보람을 느끼는 등산자의 행복이란 그리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등산은 일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간편하게 정도에 맞는 등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등산인이 되어야겠다.

×

×

×



신미도 등



전 재 수

◇ 정보국의 활동과

신미도 작전

공군의 정보업무는, 1948년 7월 27일 육군항공기지부대 사령부 내에 정보과가 설치되어 김 영환중위가 조대 과장으로 임명되고부터 시작되었다.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되자 정보국으로 개편이 되어 정보업무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창설 초기 정보국은 군내에 잠재하고 있던 좌익계 관여장병의 적발과 숙군으로 많은 공헌을 남기었고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첩보공작을 전개하는 등 많은 작전을 벌여 혁혁한 공로를 남기게 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각 전선에서 물밀듯이 남하하는 적진 속에 뛰어 들어 적정을

살피고 첩보를 수집하였는데 이들의 활약은 대단한 것이었다.

낙하산으로 적진에 투하된 정보국원들은 사력을 다하여 첩보를 수집하는가 하면 인민군의 작전서류와 병기 및 피복 등을 노획하였으며 한편 아군의 낙오병을 구조하는가 하면 추락된 항공기의 조종사 구출작전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진에 추락한 적기의 기체를 노획하여 정보를 얻으려는 일대 모험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신미도작전은 전사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우리 정보국원들의 활동을 면담자로서 발췌한 것이다.

1951년 3월 16일 140명의 지원자 중에

서 선발된 60명의 정보국 신병요원이 임대하게 되어 이들은 기본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정보학, 항공기 식별법 및 항공기 구조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들이 임대한지 25일만인 4월 10일 정보국장 김 길성 중위와 미 고문관 니콜라스가 직접 선발한 김 성갑을 비롯한 19명의 요원들은 신미도 작전을 위하여 출동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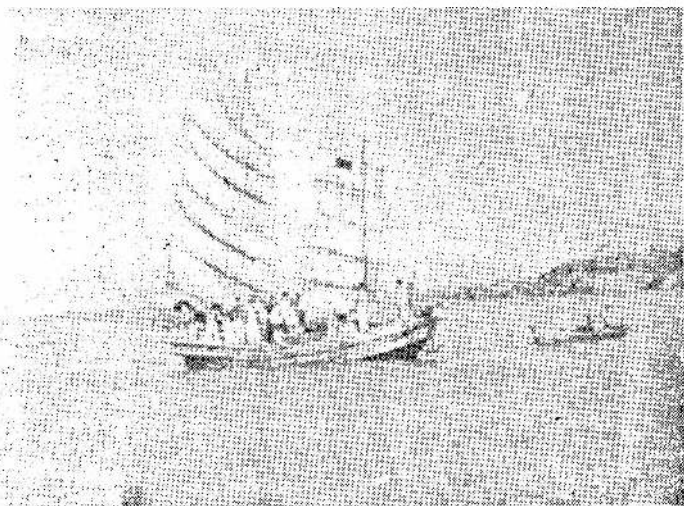
신미도 작전이란 적기에 대한 정보와 적 공군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당시 정보국 고위층에 의하여 계획된 것으로써 출동 전날인 4월 9일, 신미도에 추락한 적 MIG-15의 기체 획득과 조종사 체포를 위하여 대담하게 전개하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

4월 10일 아침 10시, 쌀 1말과 실탄 200말, 그리고 칼민, 기관단총 등을 싣고 대구 동명비행장을 떠난 일행 19명은 12시에 여의도에 도착, 레이션으로 점심 식사를 끝냈다.

1시 정각 한국공군 F-51 두스탕편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여의도를 출발하여 3시에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고도 350~500피트에서 낙하산으로 뛰어 내렸다.

신미도는 서해 북방에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비행기의 속도, 섬의 크기, 착륙 지점의 협소 등의 이유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내릴 수 없어 2차에 걸쳐 낙하를 실시하였는데 낙하 중에는 F-51기가 위협



<민간선박으로 첩보활동을 벌이는 정보국원>

◇ 숨겨진 이야기들

사격을 가하여 동리사람들은 대피하고 소만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낙하한 정보국원들은 해변가의 학교를 집결지로 정하고 중간중간을 수색하면서 나아갔다.

민가는 수십호에 달했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부녀자들만 있었을 뿐 젊은이는 없었다.

김성갑 상사의 일행 중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쳐 침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김상사는 어떤 의판집에서 낙하된 일행 2명을 다시 만나 다시 집결지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의 멤버는 김성갑, 김춘규, 이석규, 윤봉희 등이었다.

얼마 아니 가서 이들은 앞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걸음을 정지, 교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인민군이 아닌 민부서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윽고 적은 도주하였고 집결시간이 되어 김춘규와 윤봉희 등 2명은 학교로 내려가고 김성갑은 부상당한 이춘규 때문에 집결지점으로 내려오다가 인가에서 일박, 다음날 합류하게 되었다.

이튿날 더 수색하였으나 적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아군의 항공기는 「MIG 조종사를 잡으면 배를 징발하여 인천까지 오라」는 통신통을 투하하고 가 버렸다.

12일, 정보국원 일행은 배를 징발하여

신미도에서 약 2km 떨어진 가장드라는 들섬으로 건너갔는데 수송기와 수상기가 닥아왔다.

수송기에서는 쌀과 연탄 등의 보급품을 투하하였으며 수상기에서는 니콜라스와 강전우 상사 등이 고무보트로 섬까지 닥아와서 다시 신미도에 상륙하라는 것이었다.

신미도에 MIG가 떨어졌다는 것은 크게 신빙할 정보가 못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신미도에 상륙할 것을 계획하고 있던 중 13일, 밤 11시에 총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정보국원들은 3단계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제일 아래 초소에서 민간인 5명을 체포하였다.

이들 민간인들은 「투문」이라는 글자를 넣은 형질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이들을 심문했더니 「인민군 1개 중대와 치안대를 합한 300명의 병력이 새벽 2~4시 사이에 공격해 올 것」이라고 실토하였다. 아울러 적의 장비는 증기관총 2문, 경기관총 2문, 그리고 다발총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된 정보국원들은 어마어마한 병력과 장비에 우선 압도되어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자폭하리라는 각오를 굳게 하였다.

이리하여 각자 800~1,200발의 실탄을 분배받고 4발씩 수류탄을 지니게 되었다.

시간은 점점 닳아왔다. 혹시나 잠이 들까 보아 정보국원끼리 서로 새끼줄로 묶고 잡아당기면서 비장하게 최후의 일순을 기다리고 있었다.

4시가 좀 넘었을 때였다. 해안에 적의 큰배 3척이 나타났다. 배에서 내린 적들은 조수가 없는 해안을 1렬로 나란히 걸어오면서 총을 마구 쏘아대는 것이었다.

정보국원들은 바위에 은신한 채 일발 필종의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거의 백발백중이었다. 제일 아래 초소에서는 적이 초소 30m 전방까지 와서 수류탄을 투척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였다. 전행이었을까. 빠져있던 조수가 밀어 닳쳤다. 적은 물 속에 수장되기 시작하였고 수류탄을 투척하던 놈들은 오합지졸이 되어 정신없이 날뛰기 시작하였다. 배로 도망간 적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황이 오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던 중에 아군의 항공기가 왔다. 윤 봉희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다가 적의 단말마적인 총탄에 전사하였다.

오후 1시가 되어 잔전은 완전히 소탕되었다. 적은 일대 참패를 면치 못하고 빈 배만 물러갔다.

잠시 후 순양함이 나타났다. 정보국원들은 상의를 벗어 흔들고 태극기뿔 흔들었다. 함정에서는 이들을 발견하고 확인한 후 이들을 함정에 실었다.

영국의 순양함이었다. 신미도 근방에서 이들은 다시 한국 해군의 62함에 인계되었다. 이때가 4월 14일 오후 6시였다.

정보국원들이 탄 62함은 3일에 걸친 항해 끝에 목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16일에는 YAK기 3대의 습격을 받았으나 그 중에 1대를 격추하자 나머지 저기들은 도주해 버렸다.

목포에 내린 이들은 GMC로 수영으로 가서 쉬게 되었는데 이 신미도작전 뿐만이 아니라 정보국원들의 숨은 노력은 전쟁을 통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신미도작전에서든 MIG 조종사는 잡아오지는 못하였지만 지상작전에 대비한 치밀한 작전계획과 자폭을 결심하기까지 한 정신적인 무장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아닐까?

정보국원들의 활동은 이뿐만 아니다. 1950년 11월 12일에는 김 동기 일병이 단신으로 적지인 징주에 낙하산으로 물입하여 수많은 적과 교전하며 안면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임무를 완수하여 미 제5공군사령관 콰아트릿지 중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 숨겨진 이야기들

1951년 4월 17일에는 이 봉진의 5명의 대원이 정보국 고분관 니콜라스의 지휘로 적지 깊숙이 평안남도 신안주에 출동하여 그곳에 추락한 적 신예기 MIG-15기를 천진만고 끝에 해체, 반입에 성공함으로써 자유세계 최초의 MIG-15기 반입이 되었다. MIG-15기는 당시 적이 자부하는 신형 정예기로서 이를 반입하여 적정 수집에 크게 공헌하였고 적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보써 *미 5공군에서는 4월 23일에 한국 공군 정보국원 3명에게 미 동성훈장, 26명에게는 항공훈장을 수여하였다.

(김 성감상사 면담, 1950년도, 1951년도 주요사건일지 참조)

◇ 어린이와 농부는 폭격할 수 없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전쟁 중 무차별 학살의 단행에 뇌물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치 피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마구 죽이고 불지르곤 하였다.

그러나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 공군장병은 전쟁 중에도 휴머니즘의 따뜻한 인간애는 잊지 않았다.

대지공격에서는 지상군의 공격보다 더 많은 인명의 살상을 가져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공군장병은 무자비한 살상

은 절대 금했다.

여기 이 강하장군(예편)의 면담에서 그 일면을 엿보기로 한다. —면담을 그대로 옮긴다.—

『우리(F-51 편대)가 북한의 어느 마을 상공에 다다랐을 때였다. 가다가 보니 마을 앞에 징자나무가 있었는데 징자나무 아래 포탄을 쏘아 놓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옆에는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근방에는 논을 메는 농부와 소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도 너무나 평화스러운 모습이였다. 우리는 그대로 공격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

「어린이와 농부는 폭격할 수 없어!」
우리 편대원들의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전쟁이 누구의 죄냐? 천진난만한 어린이, 평화스럽게 보이는 농부의 죄냐?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죄요, 어른들의 죄다.
이윽고 공격명령이 내렸다.

「이번은 어린이와 농부를 대피하도록 목표지점에서 4~500m 지점을 기총소사한다.」

우리는 그들이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4~500m 떨어진 곳을 기총으로 갈기고 선회하여 올라갔다. 어린이와 농부들이 그곳을 피하여 멀리 사라지는 것

을 확인한 우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정자나무 아래를 걷었다. 실탄을 적재해둔 그곳은 굉음을 내면서 폭파되었다. 우리는 가슴이 부들하였다. 어민이와 농부들이 우리가 일부러 피하라고 그런 줄 알까? 몰라도 좋다.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얼마나 동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심정인가?

오직 전쟁만이 있는 살벌한 싸움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다는 것은 한국 공군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우리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어때했는가? 도처에서 살육만을 일삼은 천인공포한 죄과는 도저히 씻을 수 없으리라.

이와 비슷한 일화는 Hess의 저술 Battle Hymn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적의 무자비한 만행을 우방국의 조종사들도 꽤 씩하게 생각한 일화의 하나이다. 그대로 옮겨 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1951년 3월을 매일같이 출격하였는데 때로는 무기를 신고 300마일 북쪽까지 정찰하기도 했다.

우리들의 평상비행은 혹시나 하고 목표물을 찾아서 계곡으로 하강하거나 다시 산봉우리 주위를 선회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많은 목표물을 발견했다. 특히 탄약고를 명중시키면 한국군

은 기껏서 어쩔줄을 몰라 했다. 한국군의 증오를 불러일으켜 주는 일이 많이 있었다.

한번은 평양 북쪽을 비행하다가 농가를 떠나 끝짜기의 은신처로 찾아가는 일개본대규모의 적 병력을 발견하였다. 그 주위를 선회하다가 농가주위에서 사살되어 있는 일가족 5명의 농민시체를 보았다. 이들은 틀림없이 적에게 학살된 것이다. 우리들은 증오심에 불타 적을 폭살해 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고도를 낮추어 한국군 위로 날아갔을 때 그들은 철모를 흔들면서 좋아하였다. 만약 조종사가 그들의 적전에서 추락한다면 그들은 죽음을 마다 않고 조종사를 구출하려 할 것이다.』

우방국의 조종사가 보기에도 적은 너무나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고 있었다. 우방국의 조종사들까지 분개하게 된 그들의 만행, 그 죄과를 어찌 다 씻을 수 있으랴?

(이 강화장군 면담자료, Hess: Battle Hymn 참조)

◇ 현 참모총장 최초로

미 은성훈장 받다.

현 참모총장 육 만호대장은 한국공군 장병중 최초로 미국의 은성훈장을 받은



<육 만호대장의 전투조종사 시절>

본이다.

1951년 1월 5일, 육 만호 중위(당시 계급)는 육·해·공군종사령관 정 일권 소장을 탑승시키고 전방의 전선을 정찰하고 오던 중 악천후와 연료부족으로 원주비행장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당시의 전황은 몹시도 다급하던 때이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남하하고 있을 때여서 원주비행장도 포탄이 비례하고 있을 때였다.

불시착한 육중위는 정 일권소장을 안심시키고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주기해 있는 다른 항공기로 쫓아가서 연료를 빼내어 불

시착한 항공기에 재빨리 보급을 끝마쳤다. 포탄은 계속 날아왔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안 육중위는 사력을 다하여 이륙하였다. 후방석에 앉은 정 일권 소장은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육중위의 침착한 행동에 감탄하였다.

이리하여 육 만호 중위는 미 제8군사령관 릿지웨이 장군으로부터 한국공군장병중 최초로 미 은성훈장을 수여받았다.

육 만호 대장의 전공일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치열한 대공포화를 견뎌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언제나 선두에서 부하 요기들을 선도하여 과감한 공격을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대공포화 속을 자유자재로 날면서 계속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1952년 1월 15일이었다.

육 만호대위(당시 계급)는 편대장으로 서 박 재호 대위, 유 치관 중위 등의 요기와 더불어 평양으로 날았다.

평양동남쪽에 있던 승호리철교는 적의 보급품과 병력 수송의 주요한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폭파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육대위는 기철코 오늘은 이 철교를 꼭 파하리라는 각오 아래 연이어 폭탄 4발을 투하함으로써 완전히 이 철교를 폭

파하고 요기들과 함께 기지로 돌아왔다.

일단 얘기에 오르면 무서움이라고는 조금도 갖지 않던 그의 명성은 너무나도 알려진 일화의 한 토막으로 남아 있다(이강화장군 면담, 공적심사철 참조).

◇ 날개와 동체가

힘겨운 L-4, L-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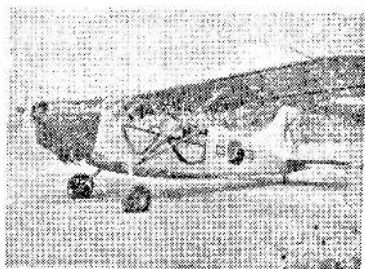
한국동란이 발발할 당시 적은 YAKI, MIG, IL-10 등 항공기 20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국공군은 겨우 20여대의 경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국민의 헌금으로 구입한 건국기 T-6 10대와 L-4, L-5 등의 경비행기들로 전쟁이 발발하자 그나마도 적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되었는데 급조한 국산폭탄을 싣고 이를 안은 사람이 후방석에 앉아 북측으로 이를 투하하여 적의 남침을 24시간이나 지연시킨 혈투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건국기 T-6는 캐나다제 비행기로 하아바드로 불리워지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안전한 축에 들었으나 L-4나 L-5 등은 우선 불품부터 형편없는, 지금 생각하면 퍼 조잡한 비행기였다.

L-4, L-5 모두 다 발로 프로펠러를 내 차야만 시동이 걸렸다.

L-4는 제일 가벼운 비행기로 안정성



<L-5형 정찰기>

은 그런대로 좋으나 바람이 강하면 영향을 많이 받아 들까불기를 잘 했고, L-5는 L-4와 대동소이하지만 L-4보다 속도도 빠르고 조금은 진보된 항공기였다.

L-4, L-5 모두 날개와 동체가 힘겨웠다. 여기에다 태극기를 그리고 육군의 작군단에 파견하여 정찰임무를 띠고 전선을 누빈 것은 우리 공군장병의 용명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막강한 정예공군을 자랑하는 지금의 위용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장비들이었지만 이런 장비로도 생사를 초월하여 적선을 증횡으로 누빈 선배들의 무용담은 영원히 공군과 함께 같이 하리라(장성한지음 「나의 항공생활」 참조).

◇ 제주기지와 인연을

맺은 동기

1950년 10월말 중공군의 불법남침으로 해산진까지 공격해 들어갔던 야군

◇ 숨겨진 이야기들

은 국경을 지적에 두고 원한의 눈물을 뿌리며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두만강의 강물은 이 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졌고 백두산영봉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순간만을 기다리던 때에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참전이라 한국공군도 미릴기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일단 어의도로 철수한 공군은 다시 대천으로 철수했다가 군산경유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주기지를 택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았다.

공군 총참모장 김 정렬 장군은 기자회견 문제를 놓고 부심하던 끝에 제주기지를 선정하였는데 중공군의 불법침략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 좀더

안전한 기지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통하여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종사를 확보하여야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때 이미 제일선이 무너지고 남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은 대구와 김포, 김해, 사천 등이었는데 김포는 너무 전선의 직후방이었고, 대구에는 미 제 5공군이 전개되어 있었으며 김해와 사천은 기지정비가 불량하여 제주기지가 최적하다는 결론을 얻은 김 정렬 장군은 최행단을 우선 제주기지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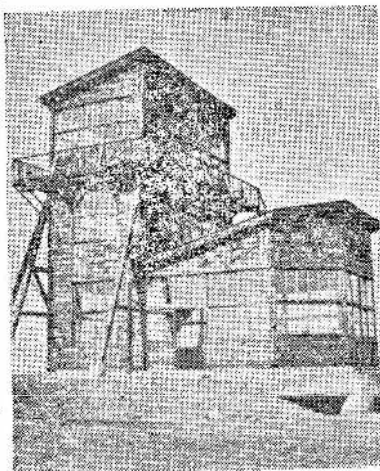
이 당시의 제주기지는 민간항공기가 이착륙할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순 잔디로 깔린 활주로의 길이가 2,500피트 정도가 되어 F-51 무스탕기는 겨우 이착륙할 수 있었다.

활주로가 해안과 평행이 되어 있어 풍향이 려 불리하여 사고도 없지 않았으나 제주기지에서 많은 조종사들이 양성되었는데 이때 양성된 조종사들은 다음과 같다(F-51 무스탕).

1차 : 장 성태, 김 금성, 구 선진, 박 제호, 이 강화, 최 중봉, 이 세 영.

2차 : 박 원규, 이 기립, 서 상순, 신 철수, 나 창준, 유 치곤, 손 재 권, 이 일영, 정 주량, 손 흥준.

(김 정렬 장군 면담, 1950, 1951주요 사전일지 및 공군발전 역사 참조)



<제주기지 비행장에 있던 지휘탑>



<제주기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조종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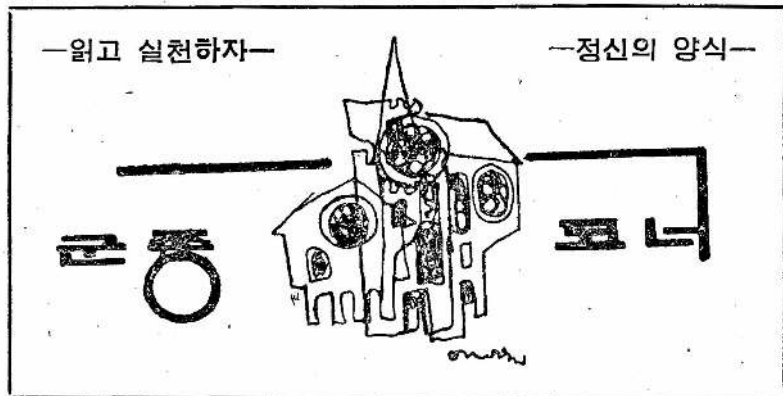
믿거나 · 말거나

◇ 행운의 편지

궤투가 다니·론돈은 본래 병어리였는데, 어느날 시합중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아 돌연 귀가 들리고 말도 하게 되었다. 1929년 뉴욕의 부록 크린에서 일어난 이야기.

◇ 이상한 메아리

이태라 루세라성의 성벽은 어떤 소리라도 메아리되지만 이상하게도 대낮에는 열 한 번, 저녁 때는 열 두 번 울린다고 한다.



나를 이해하자



—균목 김 두 식—

알베르·까뮈가 쓴 「출구 없는 방」(No Exit)이란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즉 동일한 환경과 조건으로 구성된 세 개의 방이 있다. 그 방에는 모두 다 밀폐되어 있는, 출구가 없는 방이다. 그 출구없는 방에 세 사람이 갇혀 있다. 이 세 사람이 그 방 안에서 지내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 해보는 것이 작품의 내용이다.

첫째 방을 살펴본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은 험기왕성하고 의욕과 정열에 차 넘치는 폐기의 사나이

같이 보인다. 그의 생김생김이 투쟁적이고 반항적이며, 모험적으로 보인다. 그는 자기가 왜 이런 골방에 갇혀서 썩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불만이 매우 많은 사람이다. 그는 어서 이 방을 뛰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이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에게는 생의 마이너스요 인생의 퇴보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해 뚫고 나가보려고 발악을 한다.

어깨로 들이받아보기도 하고 발로 차고 머리로 부딪쳐 가면서 고통을 지르

고 함성을 거듭하면서 악을 쓰는 것이다. 『나를 왜 이곳에 가두어 두었느냐?』고 반항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의 몸은 상처 투성이요, 얼굴은 이그러져 있고 손 발에는 피가 엉키어 있다.

두번째 방을 살펴본다.

그 방도 역시 첫번째 사람이 갇혀 있는 방 구조와 똑같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방은 너무 조용하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 그는 낙심천만하여 근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로 낙인찍힌 동기는 무엇이며, 이대로 있다가 장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인생을 잘 안다고 믿는다. 또 세상 역시도 잘 안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온갖 공상과 추리와 번민 등으로 낙심천만하여 우울하고 깊은 근심 속에 사는 사나이다. 그가 매일 매 시간 걱정과 근심과 공상으로 뜬 구름으로 살다 보니 까 그의 행위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이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한다.

그 결과 그의 몸은 수척 해졌고, 그의 몸 끈은 형편이 없다. 그는 항상 한숨과 후회가 계속되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못하고 있다.

세번째 방을 살펴본다.

그 곳에도 역시 전에 사람들처럼 똑같은 구조와 동일한 양식으로 한 사람이 갇혀 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앞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곳에 갇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얼마 간의 세월이 흐르면 이곳을 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의 생각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오는 미래를 향한 앞날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그래서 오늘의 현재를 앞으로 닥쳐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삶을 뛰어가려고 한다. 그러기에 그의 생활이 외롭고 고독하며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과거는 어디까지나 지나가 버린 것, 다시 찾을 수 없는 잃어버린 기회로 체념을 하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자기가 살아야만 하는 불가항력적인 세대이므로 장래에 대한 관심만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가 장래의 많은 가능성들이 닥쳐왔을 때 어떠한 환경에도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의 삶의 태도로는 편협할 것을 알고 여러가지 형편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 자세를 터득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갇혀진 생활이 지루하고 복잡하고 괴로운 생활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며 항상 공부해야 되는 학구

적인 생활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 결과 그는 항상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다.

그는 항상 분주하다 보니 짜증이 나권대 속에 침체해서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다. 그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있는 포괄자의 도량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의 얼굴은 윤기가 흐르고 그의 입에는 자주 자주 노래가 흘러나오게 된다.

나는 이 작품을 오래 전에 보았을 때 무한히 감명을 받았다. 다 똑같은 상황,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왜 이 세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도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두 말할 것이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바탕, 즉 그것을 정신적인 지주라 해도 좋고 신념이라 해도 좋고 의지라 해도 좋고 가치관이라고 해도 좋다. 아뵤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해의 바탕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비단 작품 속의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 바로 내 얘기도.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냐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우리들 상황을 검토해 보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흔히 「역사 속의 나」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추정해 볼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우리의 역사 그것은 너무도 벽차고 다난한 역사였다. 8·15해방 전후와 대한민국 수립까지의 우리 관심권을 지배해 온 민족독립의 문제, 그 다음 대한민국 수립 이후 4·19까지를 민주주의와 자유의 문제, 그리고 5·16 이후 최근 10여년까지를 산업발전의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을 지배해 왔다고 대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민족의 독립이나, 민주적 자유나, 산업적 발전이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 비 해결로 남아있는채 또 하나 국가 안보라는 보다 큰 또 하나의 문제가 첨가된 채로 오늘의 이 시대는 비상한 시국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복합이 될 실로 복잡하고 긴박하고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상황인 것 같다.

싸우면서 건설해야 하는 부거운 짐들이 오늘의 상황 안에 사는 국민이면 누구도 예외없이 걸머진 십자가가 틀이다.

오늘의 힘든 과업은 어떤 특징인 몇 사람들과만이 부과된 것이 아니고, 적

어도 한반도 내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수난의 집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태도는 어떠한가 하겠는가? 나는 한마디로 「이 시대를 알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자」고 말하고 싶다.

언뜻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데 나를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라」는 말은 「오늘의 나」를 총체적인 각도에서 이해하라는 뜻이다. 즉 오늘 현재의 나는 나 혼자로서 「나」가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준 혈연적인 관계, 내가 자라며, 성장하면서 느끼고 배운 지역적인 관계, 나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스승들에게서 배우고 닦은 교육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나를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준 사상적인 것들, 또 오늘의 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들의 모든 문제들이 한데 엉키어서 오늘의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때 내가 자라온 과정은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향은 어떤 것들인가? 각 개성에 따라 영향받은 각도가 차이가 있

겠으나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조국, 해방, 독립, 자유, 경제건설, 발전, 부정부패, 물질 지상주의, 가치관의 전복, 윤리의 퇴폐 등등의 모든 단어들 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투쟁적이고 반항적인 인간을 영웅시하는 것이라든가, 경제 건설이 곧 인간 완성의 궁극 목표로 착각하고 사멸되는 본연의 자세인 윤리나 도덕을 쫓아내고 질서없는 불안사회를 조성한 것이라든가 약간의 산업발전이 곧 낙관적인 미래상으로 비약하여 사치나 허영에 편승한 나머지 정의나 진리를 외면하는 무절제한 유행 풍조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면에서 어렵게 영향을 끼친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때가 왔다. 전국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국민 누구나 농촌이나 도시나 차별없이 다 잘 사는 것은 정부의 명예를 걸고 추진시키고 있다. 국민은 「새마을운동」으로 잘 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어떠한가 하겠는가? 우리는 과거와 같이 안일하고 무사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사학자 토인비는 변역하는 국민의 자세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① 왕성한 활동력 ② 굳건한 단결력 ③ 진실한 국민성을 말했다.

그는 말하기를 한 사회의 쇠퇴나 한 문명의 몰락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하지 않고 항상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자기 결정 능력의 상실은 곧 쇠퇴의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하였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자기 운명은 자기만이 결정하고 또 자기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지 만일 이런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 그것이 곧 쇠퇴의 요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의 상황은 과거 봉건제도 시절이나 또는 전제주의 말발굽 아래 억눌려 살던 것을 기억하고 후회와 반민으로 살아 갈 때도 아니다. 그렇다고 또 내 힘만 가지고 하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식의 만용이 통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다. 우리는 과거를 거울삼아서 닦쳐오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묵묵히 일하므로 왕성한 힘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 갈 뿐이다.

이렇게 전체 국민이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살아갈 때에 이 국가는 살아 움직이는 창조적 에베르기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민족의

창조적 에베르기가 고갈되게 되면 외적이거나 내적인 도전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런 뜻에서 「나」 하나 개인에 대한 운바론 이해와 자성은 곧 전체 국가와 이 민족의 장벽에까지도 결부가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말을 요약한다면 「비상한 시국에서 군인이 된 나의 이해」라는 말도 집약이 될 것이다. 「군인은 나라에 생명을 바친 판문이다」라는 말이 오늘에 와서는 사회의 온갖 도덕적 부패로 영향을 받아 이 말이 허울 좋은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어두운 사회, 도덕적 건강을 잃은 사회에 군인만은 진정한 애국자로 청신한 빛을 던져주어야 하겠다. 우리는 애국의 운리를 배워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애국인지를 알아야 한다. 옮겨 애국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민주 시민 사회의 애국이 내용과 방식은 거창하고 화려한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제 자리에서 각자의 직책을 다 하는 것이 애국의 근본이다. 애국 애족에 불타는 민족에 대한 사명감, 명령지하에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군의 질서와 계통, 민주 사회에서 인격을 고상히 알고 중히 여길 줄 아는 지휘관리, 전투태세 완비로 1당 100의 정예화, 하나의

휴지나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군수품으로 알고 선용하려 드는 생활 습성 속의 애국심, 자기 맡은 일을 100% 완수하므로 미련이 남지 않는 매일의 일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어질 때에 곧 「군인으로서의 나」를 정당하게 이해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와 애국심



— 군목 김 영 호 —

성서본문 : 료 9 : 1~13

일제시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투하고, 조선일보사장, YMCA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 상재(李商在) 선생이 3·1 운동 당시 일본경찰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였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고 하자, 그는 『하나님이 시켰소!』하고 응수하고, 또 『3·1 운동본부가 어디 있는가?』고 하는 심문에 『하늘에 있다』고 응수하여 애국운동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임을 확신있게 증거하였다 한다. 이에 비하여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애국관은 어떠한가? 해방을 얻고 자유를 획득하여 나라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시기에 사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어떠한가? 특

히 희생과 봉사를 앞세우는 기독교의 진리와 애국심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성서를 통해 배워보고 진정한 애국심의 원동력을 찾아보자.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고 말씀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구원의 길은 확실하고 명백한 줄이나 자기 동포는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즉 자기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원 문제까지도 희생할 것을 사양 않겠다는 애국심의 강한 표현을 한 것이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이런 심정을 알아주는 커녕 그는 반역자요,

이스라엘과 그 영광인 율법을 관자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남들의 오해를 욱하거나 이로 인해 애국심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나는 나의 조국을 생각하고 내 백성을 생각한다. 그들이 구원되기 위하여는 나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관계없다. 나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참 신앙가요 참 애국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말만 아니라 실제 행했다. 그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어디를 가나 유대사람에게 먼저 전도를 했고 벌시를 받아도 골육지친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이 큰 기근을 당할 때 이방교회에서 연보를 거두어서 그들을 구호했다. 우리에게 이기적이 아닌 참신앙이 있는가? 또 참 신앙의 견지에서 이 민족을 보는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나 개인적 희생이라도 하겠다는 정신과 결의가 있는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기

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 주소서 (출32:31~32)」라고 기도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칼빈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 한다. 이 이상의 애국심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도 위대한 애국자이다. 재자들을 전도하려 내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였고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그래도 이들이 회개치 않을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슬픈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기독교 신앙은 이 애국심을 순화하고 정화하여 또 뿌리를 깊이 박게 한다. 애국심이 잘못되면 배타주의로 변하기 쉽고 민족지상주의나 국가지상주의, 팃소주의, 독재주의로 변하여 순수한 애국심에서 탈선될 수도 있다. 이 탈선을 막으려면 인간적 지식이나 판단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진리 아래서 민족을 위해

일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기독교 애국자들이 어떠한 사회에 있든지 어떠한 정권이나 조직사회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나라를 바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재주, 내 물질을 희생하고 부득이하면 생명까지라도 희생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참 신앙이요, 참 애국자의 신앙인 것이다.

제2전력운동과 종교의 사명



— 목사 김 현 기 —

9년전 미국의 한 여자시민인 코오마(Mrs Comer)란 부인이 대구의 어느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 안에는 위어커힐 유흥지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하였다. <우리 아메리카 청년군인들이 외국에 출정하여 십자군의 사명을 다하고 골 건강히 개선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어커힐의 유흥지에서 타락하여 돌아오기를 꺼려합니다. 목사님은 미국 부강의 원인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미국이 강대국이 될 근원은 민주주의이고, 그 민주주의 밑바닥에는 기독교신앙이 흐르고 있고, 또한 인간이 본래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참다운 인간

성(Humanity)입니다.>

우리는 이 부인의 마음 속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심, 자유민주적 애국심, 그리고 출정장병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편지는 작년 6월 30일, 공군 준중장교로서 만 11년 복무하고 제대하여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며, 공군의 유니폼은 벗었으나, 아침마다 국군장병, 특히 공군장병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퇴역장교이다.

머칠 진 <제2전력운동과 종교의 사명>이란 원고청탁을 기꺼이 받고 평사

공군 장병의 전투를 빌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끼고 있었던 소신을 밝혀 볼까 한다. 우리 군중장교들이 참된 종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참된 군인의 사생관을 확립하며 군을 정병화하고 나아가 공군이 바라는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제2전력운동에 크게 이바지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먼저 제2전력운동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제2전력운동과 종교의 사명이 중대함을 피력해 볼까 한다.

1. 제 2전력운동의 필요성

비상사태 하에 전국민이 총력안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화있는 대결보다 <대화있는 대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민이 단합하여 총력안보에 힘을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식견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안심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새로운 각성 밑에 총력안보에 주력하고 각자 맡은 책임에 성실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가 열원하는 자주적이며, 참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은 피땀 흘리는 헌신적 노력이 불가결하다. 『천국은 힘

쓰는 자가 얻는다』고 했다. 오천만을 위한 진정한 통일을 위해 주체적이고도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서 <대화 있는 대결>을 모색, 실천하기란 상당한 시일과 피나는 분투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원한 배달민족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전 국민의 총력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전 국군의 참된 전력화가 시강과제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공군은 비상시에는 결정적 승리로 주도하기 위해서 평소 제2전력운동이 확립되어야 함은 제언할 필요가 없다.

2. 제 2전력이란 무엇인가?

전 장병의 정신적인 요소로서 철저한 사병의식의 확립과 기술적인 요소로서의 생산적인 고도화를 현실화하며 체제적인 요소로서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인 체제의 구체화가 요청된다. 다시 말해서 공군전력 구성에 있어서 정신, 기술, 체제 등의 총체를 제2전력이라 하겠다. 공군전력의 유형적 물량측 장비, 시설, 물질에 비교하면 제2전력은 무형적 기능측 정신, 기술, 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군이 일대 정신자성운동을 일으켜 무형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때가 왔다고 본다. 제일의 유형적 물량은 제한이 있지만 제2전력 발휘는 정신성각

여하에 따라서 무형적 기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3. 제 2전력구성의 개개단위의 정예화

전력구성의 병원(兵員) 개개단위의 정예화는 개개인의 임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요청되는 것은 재언할 필요 없다.

지난봄 어느 공군중장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특공대」 백명만 있으면 저 북한에 들어가 여하한 임무를 맡겨도 수행할 자신이 있다. 나는 『그게 진실인가?』하니 『물론! 단, 종교의식으로 정신 무장된 자로서 정예 특공대 백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남침을 호시탐탐 노리는 북괴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진인민 무장화를 완료했으니 우리도 정신무장하여 실제적으로 건군을 정병화, 또는 특공대화 하여 언제 어디서 여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건군을 정예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4. 제 2전력을 완수하기 위한 종교의 필요성

얼마전 육군 모부대에서는 3천수백명

이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2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오늘날 본인이 알기로는 군에 있는 군종장교들과 민간종교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군신자화운동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군인으로 하여금 무슨 종교이든 한 가지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과 <대화있는 대결>을 신중히 진행함에 있어서 전군신자화운동은 바람직하고도 아주 뜻있는 일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지상명령이라고 보고 싶다. 사학가 토인비는 참된 종교의식만이 영구한 문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고, 맥아더 장군은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것이며, 인간정신의 부흥과 인간성의 개량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진실으로 호소하고자 한다. 참된 국민, 참된 군인, 참된 공군, 참된 세계인되기를 바란다면 참된 종교의식을 가진 신앙인이 돼야 한다고 말이다.

5. 제 2전력운동과 종교의 사명의 중대성

필자는 만 11년의 군복생활을 통해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말단에 있는 군종장교입니다

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저희의 말은 사명을 다하게 합소서. 그리하여 장병의 사생관을 확립케 하시고, 인간성을 함양케 하시며,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게 하여 전 장병으로 하여금 말은 임무를 완수케 하옵소서! > 하고 기도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다. 필자가 백분 사명을 완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목표를 향하여 최선의 힘을 다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제대할 때 유감없이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제대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역하였다.

지나친 독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단언하고 싶다. 제 2전력운동의 효율적인 성과는 책임맡은 각 분야에서 한결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원만하게 노력하여야 겠으나 무엇보다도 군중장교들과 모든 믿는 장병들이 종교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정예화 공군으로서의 일대 정신각성운동을 일으켜 제 2전력운동을 원전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 사생관 확립

참된 신앙심을 가진 자는 사생관을 확립하여 자기의 삶을 가장 보람되게 영위할 수 있고 그 목숨을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하여 바칠 수 있다.

미국독립전쟁 때의 일이다. 워싱턴(W-

ashington)진중에 하엘이란 소년이 찾아와서 존중하기를 갈망하였다. 『너는 체적이 작으니 별로 쓰일 곳이 없으니 탐정이라도 해 보겠는가?』 하엘은 『네—아무 것이나 하겠읍니다. 늘 어머니 말씀대로 이 목숨이 쓰일 곳이 있다면 아끼지 않겠읍니다.』 『네 어머니가 말씀하시다니?』 『네,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니 소중한 일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음…』 하엘, 소년은 탐정이 되어 뺑장수로 영국 진중에 들어갔다 그만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사형장으로 이끌려 나갔다. 막 총을 반사하려는 순간 이렇게 외쳤다. 『조금 기다려라 할 말이……』 총을 밀추는 것을 본 다음 『오, 원통하구나, 나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이란 말이냐?』 탄식의 비장한 소리가 끊어진 다음 총소리와 함께 그 하엘소년은 쓰러졌다고 한다.

지금도 그의 출신지인 하아바드대학 앞에는 그의 흉상이 서 있고, 그 비문에는 『오, 원통하구나! 나는 나라에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이란 말이냐?』고 새겨져 있어서 그 앞을 지나는 젊은이들 마음 속에 한없는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종교의 제일의 사명은 올바른 대의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희생 봉사자의 정신을 생산하는 것이다.

(2) 정병화 운동

이스라엘 역사들 보면 기드온(BC. 11세기 초기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 3백명 용사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대진하여 일대 격전을 앞두고 초긴장상태에 있었다.

이스라엘 기드온 사령관 앞에 3만 2천명이 따라 나섰다. 기드온은 그 중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2만 3천명(3분의 2 이상)을 귀가케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만명을 풀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였더니 개갈이 없으려져서 칼창을 내 동맹이치고 물을 할아 마시는 자 부지 기수없다. 그 중 몇 백명만이 무릎을 꿇고 인간답게 손으로 물을 떠서 적절하게 마시며 사방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정병담게 물을 마시는 자를 마로 세우니 꼭 3백명이었다. 기드온은 개갈은 자 9천 7백명을 다시 집으로 보내고 정병 3백명만 거느리고 심리작전으로 적을 포위하여 횃불을 쳐들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특별작전으로 적을 절망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일대 승리를 거두었다. 종교의식은 사생관을 확립할 뿐 아니라 군 정병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3) 인간성 함양

종교적 신앙훈련은 인간성 함양에 결정적 결과를 낳게 한다.

20세기초엽 미국의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타프트씨가 워싱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워싱턴은 자기자신을 눈부신, 단정한, 유익한, 그리고 학문있는 여러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아메리카 독립전쟁 때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았던 것이다. 그의 순결하고 사심없는 애국심, 그의 공명정대한 마음, 그의 놀랄만한 상식, 그의 불요불굴하는 인내력, 그의 어리한 경우에도 잃지 않았던 평정과 침착— 이러한 것은 그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그와같은 승리는 눈부신 천재, 또는 직업적 수련에 의하여 거두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추구하여야 할 또는 존경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고결한 성품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상의 인물 중에도 이 순신장군같은 분은 그의 인간성은 고결하였고, 백외종군하기까지 조국의 국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고전분투 승리한 성웅이라 하겠다. 참된 종교의식은 고결한 인간성과 품격을 생산하여 참된 국민, 참된 군인을 만든다.

(4) 공동의식의 발휘

참된 종교의식은 사생관을 확립하고 정병화에 활력을 부여하며, 인간성 함양

에 결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전우애를 낳게 하여 같이 고난 당하고, 같이 영광을 성취하는 일체감을 두렵게 한다.

1945년 2차대전 말 연합국 미국 수송함이 대서양을 횡단하여 북극의 모기지를 향하여 항로를 진행하던 중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하게 되었다. 장병들은 제각기 구명대를 걸치고 해중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수송함에 타고 있던 교파가 다른 네 군중장교들도 구명대를 메고 마지막으로 바다에 투신하려고 할 때 저 수송함 밑에서 기름투성이가 된 수병 네 사람이 나타나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구명대가 없었다. 군목들은 약속이나 한듯 제각기 구명대를 벗어서 그 수병들에게 메어주었다. 그들 수병들의 감격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군중장교들은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조용하고도 침착하게 수송함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였다. 네 친구의 생명을 살리고 태연자약하게 죽어

간 네 사람의 전우애야말로 바람직한 군 사회에 있어서의 참된 공동체 의식의 발휘라 하겠다.

제 2전력운동에 있어서의 종교적 사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곧 진 공군 신자화운동으로 정병화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 장병은 자기가 원하는 자유로운 종교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의식으로 사생관을 확립한 정병장군이 되어 공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얘기한 종교적 사명완수는 곧 무형적 기능의 총체인 정신과 기술과 체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 2전력의 무형적 기능의 총체 중에서의 기술과 체제보다도 먼저 정신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정신적 각성없이 기술과 체제의 극대화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종교적 사명완수는 곧 제 2전력운동 성공의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활력소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가톨릭의 국가관



— 군중신부 박 순 재 —

주권의 기원에 관하여 사회계약의 원 리나 진화주의의 입장이 국가의 권위를

인간 가운데에서 구하려고 한 데에 반하여, 가톨릭의 국가관은 국가의 기원을 신적(神的) 권위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것은 도덕적 강제로서 국민의 양심을 구속하는 인간 외부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한 사람에게서 인류를 창조하시어 온 세상에 살도록 하셨다』는 성경말씀은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짓는다. 교황 비오 12세는 『존재들의 절대적 질서 및 인간과 목적은 인간이 자율적 인격자임을 제시하는 것이니, 이는 침범할 수 없는 의무와 권리를 갖춘 주체로서 인간사회의 기원과 목적임을 뜻하고, 또한 국가는 통치권을 갖춘 필연적 사회로서 인정하는 것이니 실제 이러한 권력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만물의 질서는 창조주로서의 신으로부터 기원하였음을 알 수 있고, 국가 통치권의 존엄성은 신 자신의 통치권을 분유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하였다.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는 시민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가운데, 개인의 인격향상과 사회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이상적 집단체제이다. 국가는 가족에 계속되고 가족의 총화로서의 영속적 결합이며 인위적 집단의 성격을 넘어선 자연법적 사회로서 해석된다.

『모든 권위는 신으로부터 온다』(로

마 13. 1-6)는 데에서 공권(公權)의 신적(神的) 기원을 찾음으로써, 국가와 국민과는 협력과 복종이란 관계가 형성된다. 국가의 헌법과 사회의 규범에 대한 복종은 신적 의무이며, 이것은 신이 법의 제정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의 준수자가 신의 창조로서의 인간본성의 성향임을 가리키고 있다. 성 토마스는 『인간의 법은 옳은 지성에 합치하는 한 법의 의의를 가지므로 영원법에서 전래됨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옳은 지성에서 탈선하는 한 악법이고 이것은 법의 의의가 없음은 물론 폭력의 한 종류이다』고 말한다.

국가주권의 필연성은 왕권신수설과 같이 주권은 물론 주권자 자신도 신에서 발한다는 견해와는 다르며 또 사회계약 이론의 주권의 제한이나 양도를 불명 불가분의 권리로 보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 가톨릭적 입장은 자연법상 주권의 소유자를 국민이라고 단정한다. 국민적 주권이란 국민이 주권의 원천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주권은 신에게서 유래되는 신적 권리의 분여로서 「일체의 주권은 신에게서 국민을 통하여」 주권자에게 위임된다고 규정한다. 주권의 소유자는 국민이고 용익권(用益權)을 주권자가 갖게 된다.

주권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유래하는

신의 주권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질서유지와 사회의 복지라는 양도적(兩刀的) 면을 존재이유로 갖는다. 따라서 주권이 신법을 거스리거나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이 배타될 때, 그 명령은 양심을 구속하지 않으며 여기에 반항권(反抗權)에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권유 자체에 대해서이며 주권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본연의 권리침해에 대한 항의로 보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윤리적 차원에서 또 공공(公共)의 복지를 위해 국민들을 강요하지만, 정치형태나 정치체제를 강제하지는 못한다. 주권에 대한 복종은 인간 대 인간의 복종이 아니며, 오로지

신적 질서에 대한 존경행위의 성격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조국을 위한 국민의 희생이 정당화되며 국가의 위기에 사회적 동원이 가능하며 생명을 바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국민의 일치감은 물론 신적 일치까지도 가능하게 만든다.

가톨릭의 국가관은 신적 기원이나 국민적 주권이라는 성격과 더불어, 정치공동체와 공권은 국민 각자로부터 자유와 책임의식에 뿌리 박은 도덕적 힘으로써 전 국민의 힘을 공동선으로 향하게 하는 영속적 결합체이며, 그것은 신적 질서에 속해 있음을 시사한다.

불교사상으로 본 호국정신



— 군중법사 이 인 수 —

순수한 마음에 비치는 우주는 참으로 신비롭다. 그 배후에는 인간의 경험법위를 초월한 어떤 힘이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우주의 배후에서 그 생명변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원리나 힘을 진리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 진리가 인간에 의해

투영되고 인간의 마음에 투영되어야만 뜻이 있는 점에서는 진리는 인간의 「알음」의 일종이다. 이 알음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우주 인생의 모든 현상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설명불능의 「나머지」가 생긴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

다. 진리탐구를 위해 왕위까지 버려야 했던 싯달타자의 사색은 참으로 철저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진리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또한 깨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일 것이라는 확신과 강인한 의지의 시련이었다. 진리를 깨치기 전에는 결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다는 맹서운 서원이었다. 그러한 여섯 해는 그가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자기 혼자 향수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진리를 남과 함께 나눈 것이다. 여기에 부처의 중생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있었다. 이 사랑이 있으므로 덕서 한 사람의 깨달음은 만인의 깨달음이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비취주는 빛은 사바세계의 진 어둠을 트는 샛별이 될 수 있었다.

부처가 설산에서 행한 그렇게 지독한 진리탐구를 감당해 낼만한 사람이 인간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 그들의 애욕은 너무나 치열하고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께박하다. 진리탐구에 들어선다 해도 진리의 일부분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곧 명리에 탐착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단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성향에 맞춰 법을 설해 가야 한다. 여기에 정각의 사람은 불교라는 종교적 형태로 건개된다. 진리의 일부분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중생의 성향

에 따라 우선 진리의 일면만을 설해준 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十二연기(緣起)설이다. 十二연기는 「생사」라는 현상을 인간의 무지에서 연기한 것으로 보는 불교의 우주인생관이다. 이런 사상에 깃든 우리의 호국정신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누구나 한국사를 읽어보면 화랑도의 제도와 불교를 엿볼 수 있다. 화랑도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통일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젊은이들의 모임으로 무사도의 모체였음을 느낄 수 있다.

삼국통일에 대하여 거국적으로 공훈이 큰 이로 김 유신 장군도 화랑도의 영도자였다. 김 유신공은 진평왕 때 그 부친을 따라서 고구려와 『남비성(溟州)』에서 적군과 싸울 적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진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웠다. 그 후 김 유신공은 상장군(上將軍)으로 백제와 같이 싸워사-전승을 하고 귀국하는 도중에 백제군사가 「매리성」에 침입한다는 것을 듣고 진승의 결과를 나라에 복명한 세도 없이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자기집의 대문 앞으로 지나가면서도 들리지 않고 출전하였다. 그러나 덕시 증과부적으로 상당한 고전에 들어갔으므로 김 유신은 같은 화랑도 출신인 「비명자」를 권하여 결투, 전사케 하니 비명자의 아들인 거진이가 본격하

여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 전사하였으니, 화랑도의 정신이 얼마나 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뒤에 화랑도 출신인 「죽죽」이라는 무인이 백제군과 같이 싸우는데 중박부적으로 승리할 가망이 없었다. 이 때에 그의 부하인 용석이가 죽죽에게 도주 후퇴하기를 권하거나 죽죽이 듣지 않고 차라리 도망을 쳐서 구구하게 생을 꾀하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남아의 결심사가 아니냐? 하고 부하의 제언을 일축하고 분전하여 백제군을 물러치게 하였으니, 화랑도의 기적이라 하겠다. 이렇게 조직된 화랑도들은 어느날에 의논하되 『우리들이 어찌 화랑도에 몸을 바치고 무술을 연마할진대 정신수양도 되고 평생에 지킬 신조가 될만한 계책을 받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고 제언하였으니, 귀산(貴山)의 말이었다. 그 뒤 귀산은 불교의 원공법사를 찾아가서 우리 화랑도의 청년으로서 종신(終身)의 계책이 될만한 계명을 받아간 것이 삼귀오제(三歸五戒)이다. 이것을 가짐으로써 고구려, 백제 등의 3국을 통일하려는 벼락 꿈을 가지고 대업을 완수하려는 데 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케 되었다. 비단 이러한 화랑도의 진호국사상은 삼국을 통일한 실라뿐만 아니라

이조에 와서는 그 사상은 이어지고 있었다. 수도인에게도 조국이 있을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수도인은 진리를 사링하고 종교전도에 일념하는만큼 조국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호국상정의 지성이 가득한 지성인이다.

이와같이 우국하는 마음이 없으면 수도는 개인위주의 안일을 위한 자아도취의 몽상만 할 것이다.

대승적 견지에서 보면 자기의 조국은 진리보다 더 짙은 피값이다. 이 피값을 보람있게 하는 자는 수도의 본분을 여지없이 승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기란 존재에 집착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살아야 한다는 유소독심이 있다면 무애원용의 대아를 실현할 자유를 향유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속의 자유가 아니다. 국가 속의 자유요, 사회적인 자유가 되어야 참다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 부산물인 자유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무수한 혁명이나 위정자, 또는 수도인이 투쟁하면서 쟁취하는 역사적 획득물이며, 창조한 혁신적 존재이다.

이 현존적인 상태에 오래도록 영위하려면 역사를 지켜보면서 역사를 창조해 버리는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도저히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창조는 그 당시에 처해있는 최고 지성의 몸부림이며, 역사전환을 위한 절규의 연속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어떤 의미를 지니거나 또는 어떤 부류에 속하거나를 막론하고 지성적인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선조 25년(1592년) 임진난이 일어났을 때 사명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다. 그는 왜란을 당하여 그에게는 수도의 정진보다 구국의 활점을 드는 것이 더욱 간절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금강산 내소산암에 탁친 왜군을 단신 적진에 들어가 필담으로 문답하여 왜적들의 심금을 울려 퇴진케 하였다. 사명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왜적들의 군세가 강하고 몹시 포악하므로 백성들을 많이 허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 왜적들을 타일러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의 행인 업을 바르는 것이다』 하였다. 사명이 전쟁에 임한 후 그의 활동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평양성 탈환 서울근교 수락산 전투, 서생포 4차회담 뿐 아니라 산성수축과 군량부기비축에 힘쓴 것을 어느 위정자나 전략가도 비견할 수 없는 식견을 소유한 것이다. 이처럼 사명의 현

신적인 봉사는 모두 신라 화랑사상에 입각한 진호국사상의 염원에서 나온 자비심의 구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진난 당시의 의병장이었던 김 덕련은 「팔도의 의승병 대장에게 드리는 글」이라 하여 『슬프다 온 산천이 깨어지고 것밧히는데 전강한 장수와 날랜 군사들은 날아가듯 귀솟듯 달아났습니다. 진국 방방곡곡에 나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평일에는 충(忠)과 효(孝)와 인(仁)과 의(義)를 다 한다고 떠들던 우리들이 지금은 나라를 위한 의로운 죽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거늘 대장께서는 하루 아침에 산사(山寺)를 떠나 홀로 대의를 외치고 앞장서서 이것이 어찌 나라의 명에 의하고 또 티끌만한 공명심이 있어서겠습니까? 사명의 호국심은 이조 어느 대신이나 재상이나 장병이나 대장들도 쓸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영의정 한음도 『분분한 개구리 구멍이 많지만 뉘가 구만리에 바람을 치는 위대함을 알리요? 가시는 길이 대마침 좋으니 마음 조심하십시오, 말씀하는 것이 속세를 놀라게 하시니 교화의 기운이 생긴듯 하오이다』라 하며 사명의 일본에 건너가심을 충심으로 흠모한 것이다. 일본에서 8개월의 화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포로로 인질

한 동포 3천 여명과 중요 문화재를 반환하여 온 일은 대재단이 행할 수 있는 호국심과 애국심이며 또한 문화사 애호의 지극한 보살핌을 발로한 것이다.

사명의 마음은 한결같이 걸림이 없고 두려움 없는 보살핌의 마음자리이다. 여기 어찌 이(利)가 있을 수 있을까? 동그런 미소가 꽃필 뿐이다. 오로지 여래일심(女來一心)에 혼승되어 일체중생을 광도하고 세상을 구제하려는 인간성과 더 나아가서 국가의 안녕을 갖도록 심혈을 기울인 이조의 명승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지역감정이 날카롭게 대두한

이때에 귀감이 될 지성의 햇불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명은 참전에서 용감한 장군이요, 회담의 명수로 산성수축과 전량 무기비축의 경략가이며, 문화재 반환과 파손된 문화재 복구에 힘을 기울인 살아있는 보살이요, 지성의 총화라 하여도 과분한 찬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조의 사명은 불교인의 사명이 아니라 신라 화랑도의 화신이다. 사명대사의 호국관은, 한결같은 자비심이며 보살의 꽃을 금수강산에 만발케 한 구도자의 은근한 미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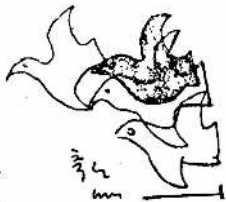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나는 이미 수차례 걸쳐 통일 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적 역량의 충실과 국제적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화 물결에 의해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토 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민족의 지상명령이라 하더라도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만은 피해야 하며,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양식을 발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김일성 일파의 전범집단(戰犯集團)이 끝내 무력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폭력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격퇴할 수 있는 「힘의 배양」도 또한 제우리 해서는 안 된다.

—1970.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치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 형 효

〈철학박사〉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일수록, 실제로 그 뜻을 명석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삶과 죽음이란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정의란 낱말도 한달에 한 두번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정의라든가 인생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또는 삶의 의의라든가 이런 종류의 말을 밥먹듯이 좇아대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들은 사실상 매우 멍청한 상태에서 얼버무리고 말 것이리라.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자신의 구변을 치장하기 위하여 토해 내는 추상명사들은 쉽게 남에게 전달은 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게 된다. 내가 부탁받은 원고의 제목도 가치관이란 이름인데, 따지고 보면 가치란 낱말도 그것을 무슨 목적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쉽게 귀결이, 코결이가 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가치문제를 역설할 때 대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개인적 사정, 또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가치란 것의 색깔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생각하여 보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치가 솟아났다가 사라졌다. 거기에만 그치면 좋은데, 옛날 가치가 새로운 가치에 의하여 부정되거나 아니면 옛날 가치가 오늘날에 생각하여 보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반 인간적이거나 또는 물가치적(沒價值的)으로 평가될 때, 참으

로 가치를 생각하고자 하는 양식(良識)은 전율을 아니 느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 하여야 할 것이 있다. 무릇 옛부터 가치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입에 의하여 밖으로 표출될 때, 그 말이 헛소리건 아니건, 반드시 어떤 형태의 의무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 침공으로부터 누란의 위기에 봉착한 나의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조국에의 사랑에 가치를 둘 때에, 그 사람의 언변은 듣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의 조국을 지키라는 의무감을 요구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란 그것의 사용목적이나 내용 자체가 우스꽝스럽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스타일로 인간의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정당성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기꺼히 바치라는 요구를 정당히 주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는 너무도 다양하게 또 다원적으로 사람들에 의하여 이용될 수도 있는 성질을 띠고 있다. 가치란 이처럼 훌륭한 것이면서도 또 동시에 그보다 더 사람을 위협하게 만드는 것은 또 없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가치의 문제는 결코 추상적으로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니고 언제나 구체적인 현실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모조리 아무런 속고도 없이 자기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무조건 가치가 있다고 자연스럽지 생각하는 타입이라고 해석함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가치란 쉽게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을 꼼꼼히 생각하여 보면 별로 큰 뜻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한편으로 그 개념은 최후적으로 죽음까지도 요구하는 의미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귀질이 코질이 식으로—어디서든지 운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한에서 가치란 매우 위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하여 보기로 하자. 서양사에서 십자군 전쟁이란 것이 있었다. 그때 수천만의 기독교의 가치관 때문에 「모스토크」교도가 차지하고 있는 성지를 빼앗기 위하여 싸웠다. 그 결과 우리는 몇 가지의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데, 십자군전쟁을 결과적으로 볼 때, 정기능적으론 동서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져서 서양 중세기의 찬란한 문화를 가져오게 되었

다. 그러나 그러한 정기능의 영역 이외에 역기능적 요소는 무수한 인명이 처절히 죽었고, 또 그에 따른 병마가 서구대륙을 휩쓸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여 죽어버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가치로써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수하여 다른 종교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신앙에 충실한 정의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 수백년이 경과한 지금 아무도 십자군의 싸움이 절대 불변의 가치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국대륙의 수나라는 그의 임금 양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고구려에 쳐들어 왔다. 그래서 그때 수나라의 무수한 병사들이 울지문덕 장군의 전략 전술에 의하여 배죽음을 당하였다. 그들의 죽음을 가치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그들 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가치를 명목으로 그들의 죽음을 비화시켰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측으로 볼 때 그들은 가련한 배죽음을 당한 불쌍한 영혼들이다.

그와 반대로 임진왜란의 경우, 가공할 왜군이 우리의 영토를 침략하였을 때 수많은 우리의 동포 형제들은 죽음을 사양 않고 그들 왜군의 잔인한 침략에 저항하였다. 그리고 그들도 죽어갔다. 그러나 임란의 전역을 통하여 싸우다 죽어간 우리의 선조들은 결코 그들의 죽음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수나라 양제(楊帝)의 군사들의 죽음이 무의미하고 임진란 때 우리 군사의 투쟁과 죽음이 의미있다고 주장함은 단순히 국수주의적인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내가 단순한 국수주의적 가치로써 우리민족의 것은 모두 옳고 타민족의 것은 모두 그릇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가치란 말을 토로할 때, 그 말이 사실상 아무런 깊이와 뜻도 없는 편의주의에서 이루어진 조작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다시 반복하자면 가치란 위대한 영혼의 힘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위협스럽고 음험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치란 말을 자기 멋대로 남용할 때, 그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얼마나 근거있고 순수한가를 음미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편의주의에 따라서 가치를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함은 바

로 가치의 흉악한 마음을 은연중에 숨기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서 이미 간접적으로 암시된 바로써 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주장하는 가치는 가치로써 불변의 의미를 갖는데 그와 반면에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하여 수나라 백성들을 죽이면서 주장했을 터인 가치는 물가치적이고 또 동시에 비인간적인가? 이러한 질문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만 오로지 이익되게 하려는 편의주의적 태도에서 발단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국과 관계되는 다른 나라들과의 복잡 미묘한 콤플렉스 속에서 어느 나라의 태도가 가치가 있고 어느 다른 나라의 태도가 물가치적인가를 선명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 나는 한국인으로서 마땅히 한국에 편을 드는 편의주의를 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술되는 점에서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을 점은 감안하지 않기로 하자. 그리하여 가치가 뚜렷이 상황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경우만 따지기로 하자.

인류 역사의 현실에서 가치에 대한 철학상의 절대적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역사란 것은 사실상 그렇게 고상한 것도 아니며 더러운데도 많고 또 역사는 자신의 흐름 가운데서 자신의 추악한 점을 쉽사리 고백하려 하지 않는다. 또 역사에서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법은 없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인간의 희망이고 바람이고 소망이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사의 참 진짜 현실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슬프게도 우리는 역사의 와중에서 정의스러운 절대적 가치를 띤 현상을 발견하기가 힘든 것이다.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A가 B보다 좀 더 나은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C가 D보다 더 인간적인 데가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현실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A가 B보다, C가 D보다 영원히 고정 불변하게 낫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A가 B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 그러한 상대적 비교의 주장은 은연 중에 관념적으로나마 어떤 절대적 가치근거를 두고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상대성의 가치기준이 자신의 비교척도의 표준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현실적일 수는 없지만 관념적인 가치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일까? 앞에서 내가 물가치적이라ں 낱말을 사용할 때 두세번 반인간적이라ں 개념도 아울러 사용하였

다. 그것은 한갓되게 우연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닌데, 그 까닭은 반인간적이란 용어는 모든 반가치적인 것의 근거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히틀러의 「나치즘」은 가장 악랄한 반인간적 가치체단이다. 이 「나치즘」의 주목은 자신과 또 자신이 길러 놓은 많은 꼭두각시의 입을 통하여 독일 국민들이 침략전쟁에 나서서 자기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라고 자국의 국민들을 감언이설로 꼬였던 것이다. 독일 국민들을 교활하게 꼬이기 위하여 「히틀러」와 그의 꼭두각시들은 애국심이란 가치관을 내세워 유혹의 손길을 뻗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또는 맹목적인 애국심을 「히틀러」 무리들이 아무리 외쳐본들 사실상에는 애국심이란 듣는 이의 가슴 속에는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죽어가는 자기 동포에 대한 동류의식, 파괴되어가는 자기들의 고향에 대한 방어의식 또는 승리하는 자기 군대에 대한 민족적 자만감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가치란 그것이 악마의 탈을 썼든 또는 정직한 영혼을 가졌든 다 모두 가치로써 몽둥고려지는 한에서, 인제나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현상에 「어필」하여야만 가치로써 들리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인 것과 관계가 먼 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가치로써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등장되고 또 존귀한(?) 한 어른님들에 의하여 애기되어지고 있는 가치의 강조들 가운데 인간적인 것을 사랑하는 가치가 있고, 또 인간적인 것을 짓누르고 심지어 질식시키는 가치도 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엄밀한 뜻에서 후자의 가치는 가치가 아니고 사이비 영터리 가치임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애 총무공 이 순신장군의 가치는 진짜고 고구려를 침공한 수양제의 가치는 가짜인가? 그것을 따지기 위하여 진짜 가치가 가지는 성질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일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진짜 가치란 빛처럼 스스로 방사하는 이상한 매력과 힘을 가진 에너지다. 그러한 현상은 매우 상징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이 구체적으로 빛처럼 방사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 너그럽고 어질고 인자하고 사랑이 충만한 총무공의 경우를 보자. 우리가 총무공의 난중 일기를 보면 그 분이 얼마나 어짐과 사랑에서 펼쳐진 인간인가를 보게 된다.

보통 우리는 장군이라 하면 거칠고 딱딱하고 사랑과는 먼 인간으로 그냥 아주 높은 분으로 여기게 된다. 그 누가 주위에 「쇼」같은 기질에서가 아니라 참다운 사랑과 인자함을 보내는 사람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기에 극한 상황시 그가 명령을 내리면 진실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사랑에 가득차고 어질고 인자한 가치의 모습을 마치 때없는 인간처럼 툭툭 찰레 거리는 문약하고 나약한 인관과는 확실히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한 인간들은 지극히 사랑이다, 인자다라고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사랑과 인(仁)의 근처에도 실제적으로 가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실행할 수도 없는 수다쟁이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와 사랑의 가치는 결코 나약과 문약한 병신들의 모습과는 다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진짜로 가치스러운 것이라면 가치스러운 것일수록 그것은 강제성의 성격을 띄고 있다기보다 자발성의 성격을 띄고 있다. 자발성의 성격을 띤 농도가 짙으면 그만큼 가치도 크다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보아서 돈보다 더 가치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돈이란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유식한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다 같이 촌분의 구별도 없이 한결같이 그 앞에서 사죽을 못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심적으로 자발성의 족속들은 비웃고 조소할 것이다. 그러나 한 철학자의 눈에는 돈밖에 모르는 자는 추악한 속물로 보인다.

좀더 이야기하여 보자. 돈이 끌어들이는 자발성은 언제나 남을 배척하는 배타심을 비수로써 가슴 속에 지니고 있다. 자발성을 가진 자가 많을수록 그들은 각각 타인들에 대하여 사람이 아니고 「놈」들로서 나타난다. 그것이 배척심이다. 오늘날 우리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쉽사리 돈과 권력을 가지는 것 이외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들게 되었다. 그래서 요사이 술집 기생들도 돈과 지위가 각각 많고 높은 분이 아니면 사람취급을 하지 않고 「놈」 취급을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론 일제 때 항일투쟁하는 시대의 기생들은 지금같이 돈과 권력에 속 창자까지 내주는 년들이 아니었고 또 황진이같은 이조의 명기는 그녀 나름대로 풍류가 있어 자기 몸을 바칠 때는 반드시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떤 가치를 상대방 남자에게 느꼈을 때만 하였다.

그러면 어떤 가치들이 그토록 자발적으로 사람을 모으는가? 이 점은 좀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쉽게 우리가 말하자면 자유가 있는 사회가 자유가 없는 사회보다도 인간들이 자발적인 감정으로 뭉쳐진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토록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것이 아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북한보다 자유로운 세계이기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철저한 북한적 폐쇄사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째로 가치는 그것이 진짜이거나 또는 진짜에 가까울수록 그 개념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서 각각 벽같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기둥같다고 하기도 한다. 멋진 속담이다. 코끼리가 조무라기같이 보잘 것 없는 동물이라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터인데 워낙 큰 짐승이라 쉽게 평가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가치는 쉽게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정의되어질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은 무엇을 한정하는 것이고 한정함은 곧 제한시키는 것이며 제한은 유한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그 가치를 사용하는 자가 자기의 개인적 사정이나 임의로 제한시켜질 수가 없는 지상(巨像)의 길을 밟고 있다. 어느 지사(志士) 한 분이 백범 김 구 선생을 찾아가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이가 백범선생을 마주 보며 대하자 마치 거대한 산을 마주 바라보는 것 같다고 술회하였다. 지위가 높아서 그 앞에서 관료기분에 왜소 당하는 것도 아니요, 돈이 많아서 자신의 끝이 초라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요, 단지 백범(白凡) 그 분이 그만큼 위대한 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제멋대로 느끼는 존경의 염에서 이리다.

백범 그 분은 진실로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조무라기 같은 인간들의 생각에 의하여 결코 정의되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치란 마치 공기같이 결코 공백이나 진공을 허용하지 않고 다 채워놓으려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빛을 높은 곳에 두지 낮은 곳에 두지 않는다. 그 까닭은 밝히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가치란 인위적 조작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퍼져 나간다. 그래서 총무공이 못난놈의 감소로 한양에 강제송환될 때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거리에 나와 슬퍼 통

꼭하였다.

이상으로 가치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펴므로써 주어진 일을 거의 마칠 때가 되었다. 가치란 추상적이 아님에서 빛남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란 말을 남용하는 사깃꾼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치의 구체적 발견은 결국 자기 의식 속에 도대체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또 무엇을 증오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발견이기도 하다. 그런데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를 발견한다는 문제는 상품선진같이 그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가치의 현대적 발견은 고도의 지식수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이가 다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새로운 싸움이 또 생긴다.

믿거나 · 말거나

◇교수판사

베네딕트·가르프초는 1620년에서 1666년까지 독일의 라이프치히시의 고등민사재판소의 소장이었다.

그는 이 40년이란 긴 재직기간 중에, 주로 절도나 요술장이라는 죄로 3만명 넘어나 되는 사람들에게 사형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 중에 약 2만 명이 요술을 행한 요녀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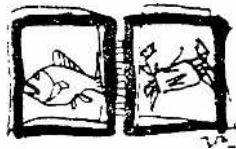
다섯 개의 사형판결을 <하루의 일>로 삼아온 이 야만스런 재판관은 매주일마다 교회당에 나타났고, 한평생 동안 50번이나 성경을 되풀이 읽는 일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귀여워하던 게가 숨을 거둔지 2.3분도 지나지 않아서 심적 충격으로 급사하였다.

◇여왕이 만든 국기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생각하여 만든 근대적인 국기가 있으니, 그것은 불란서 국기이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청색과 브루본의 백색과 스위스의 적색으로 되어 있다.

명령위반죄와

대법원 관례



홍 용 표

1. 서 언

군형법 제 47 조 명령위반죄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의 신판례가 나왔는데 이 신판례에 의하여서 군형법 제 47 조의 명령개념에 관하여 통일적인 해석기준이 시계 되었으며, 한편 종래 명령위반죄의 해석상 파생된 바 있던 제반 문제점들이 일응 해결되었다고 보겠다.

금번 대법원판례가 명시한 명령위반죄의 해석기준과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법원판례를 고찰하기에 앞서 (1) 명령위반죄의 연혁, (2) 항명죄와의 관계, (3) 명령위반죄의 문제점들, (4) 종래 명령위반으로 취급된 사례 등을 살펴보고 나서 대법원판례를 고찰, 비판하고자 한다.

2. 명령위반죄의 연혁

군형법 제 47 조 명령위반죄는 구 국방

경비법 제 47 조(해안경비법 제 14 조) 즉 「일체의 근거유해행위에 대하여 불법조항의 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여도 군법회의에서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이라고 규정하였던 개괄범(概括犯)과 유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거 일본 육군형법에서는 항명죄는 규정하고 있으나(동법제 57 조) 명령위반죄는 규정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군형법 제 47 조 명령위반죄는 영·미군사법상의 명령(규칙) 위반조항(예컨대 미국통일군사법전 제 92 조)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군형법에 삽입된 규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3. 항명죄와의 관계

군형법 제 47 조의 명령위반죄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Violate) 또는 준수하지 않는 것(Fails to obey)을 의미하고,

군형법 제 44 조의 항명죄는 “상관의 정

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명령위반죄와 항명죄는 엄정한 군통수권의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다 같이 순정군사범(純正軍事犯)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령위반죄나 항명죄는 그 성립요건이 상이한 것이다. 명령위반죄와 항명죄의 구별은 양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명령개념의 내용이 무엇이나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인데 동설에 의하면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어원이 “Breach of prescription” 규정집해로써 이 명령은 일반적 추상적 명령(법규명령)을 의미하고

항명죄의 명령은 어원이 “Disobey of command” 명령불복종으로써 이 명령은 직속상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구체적 개별적 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고로 그 개념의ニュ앙스가 상이한 것이었다.

한편 양자의 관계를 살피건대 양자는 소위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곧 군형법상의 특별범죄(예컨대 항명죄, 초령위반죄, 수소이탈죄 등)와 명령위반죄가 어떤 범위에서 경합될 경우에는 이는 법조경합관계(특별관계)에 서는 것이다.

무릇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대별하여 (1) 군사작전분야에 관한 명령(Military duty), (2) 비군사작전분야에 관

한 명령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군사작전분야에 관한 명령의 위반행위는 대개 군형법상 특별범죄(예컨대 항명죄, 초령위반죄, 수소이탈죄 등)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범죄가 성립되므로 명령위반죄는 적용되지 아니 하고 이들과 결합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명령위반죄가 성립될 이치이다. 그러나 비작전분야에 관한 명령 특히 군인의 일상생활의 준칙(Routine duty)에 관한 명령의 위반행위가 이와같은 특별범죄와 결합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4. 명령위반죄의 문제점

가. 명령위반행위가 실질적 형벌사함에 해당하는가?

(즉 명령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의 타당성 여부)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에 있어서 “명령위반행위”는 대부분 징계사건에 해당되는데 불과한 경미사행이다. 고로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기에는 가혹한 바가 없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종래 군법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명령위반사건은 기소유예한 후 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사건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위반사건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인권옹호의 이념에 관련하여 많이

논쟁되어 왔던 것이다.

법체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 군사법에 의하면 입법적으로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혼합규정하고 군법회의가 판결에 의하여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각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이와같은 법체제하에서는 명령위반죄를 군법회의에서 취급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군법회의가 곧 징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체제를 보면 군형법에 형사상의 범죄와 형벌단을 규정하였고 따라서 군법회의는 형사처분을 판결에 의하여 선고할 수 있을 뿐이고 징계처분은 별개의 기관, 즉 군인사법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동법제59조)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법체도하에서는 명령위반을 군법회의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관계상 징계벌에 해당되는데 불과한 경미사안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다.

나.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우리 헌법은 형사법의 대전제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헌법제11조). 고로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의하여 규정 공포되어야 하고 명령에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Only by law crimes and punishments can be

established)

그런데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조항은 “명령(규칙)위반행위”를 범죄로써 규정함에 있어 그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이러한 명령의 종류와 범위는 무한정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조화 여부가 자연 문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개의 대립된 견해 곧 명령위반조항은 합헌조항이라는 견해(이 주장은 위임입법본에 근거한다)와 동 조항은 헌법위반이라는 견해(이 견해는 인권옹호의 입장이다)가 있다.

명령위반죄는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과 함께 백지형법(白地刑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여도 양자간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중립명령위반」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범위가 전시 중립에 관한 명령으로 특정되어 있지만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에 있어서는 그 명령(규칙)의 범위가 특정됨이 없이 무한정한 명령(규칙)의 위반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여부가 일단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군법무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명령위반”은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은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조항으로서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음(후술)은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5. 과거 명령위반으로 취급된 사례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있기까지 이전에 군법회의에서 명령위반으로 다룬 사례를 살펴보면,

가. 사관생도 음주행위

나. 자살미수행위

군인복무규율을 확대 유추해석한 결과 자살미수행위는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군인은 항상 신체를 건강히 유지하여 전투태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旨)의 건강관리규정(동규정제138조)에 위반함으로써 명령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다. 무단운전행위

라. 당직근무태만, 주유명령 위반

마. 품위손상행위, 유언비어의 유포

바. 금품수수행위

사. 복귀명령위반

군부이탈자에 대하여(형사시효가 소멸한 군부이탈자) 인근부대에 자진 복귀

하라는 지(旨)의 참모총장이 발하는 정당한 명령에 위반하여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령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이상 본 바와 같이 종래 군법회의에서 명령위반으로 다룬 사안이 많았지만 이와같은 명령위반사건 등은 경미사안이므로 실제 군법회의의 운영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단 복귀명령위반은 제외) 인권침해가 없도록 힘써 왔던 것이다.

6. 대법원의 판례

가. 복귀명령위반사건에 관한

판결(1969. 3. 18일자부 대법원 판결)

육군참모총장이 발한 복귀명령위반사건에 관하여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부득이한 조항으로써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어떤 명령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된다면 동 제47조가 유효한 법률규정인 이상 운운” 복귀명령은 군형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시하였고 1969년 10월 28일자 제 3부판결에서도 복귀명령을 내릴 당시 피고인과 같은 군부이탈 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서 이는 군형법 제 47조에 해당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대법원 1968. 7. 16. 선고)이므로 역시 복귀명령은 군형법

제47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으며,

나. 금전수수금지령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1971. 3. 9일자 전체합의부 판결)

제2훈련소장이 발한 금전수수금지령(제2훈련소 인사명령 제250호)에 위반하여 특별한 명령없이 금전을 수수한 사건에 관하여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 기관인 국회가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성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발하는 것이므로 판시와 같은 제2훈련소장이 전 부대장에게 금전거래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금전거래를 금하는 것과 같은 명령은 군형법 제47조 소정 정당한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다. 군인복무규율 제27조(군인의 일상 행동)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1971. 2. 11일자 전체합의부 판결)

히위사실(제87함이 출동 나가 복귀의 육상포에 의해 함수에 한 방 맞았다는 말)을 유포시킴으로써 동규율 제27조 10항(유언비어 금지)을 위반한 사건에 관하여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

령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 기관인 국회가 동조로써 위임한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성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이므로 군인복무규율 제27조 자 호의 사항은 군인의 일상생활의 준칙을 규정한 것 뿐이므로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운운” 판시하였으며,

라. 중대장의 실탄발사 금지 명령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1971. 2. 25일자 제2부판결)

소속 중대장이 발한 “일정한 경우 외에는 실탄발사를 엄금한다는 취지의 경분에 위반하여 대간첩작전에 소대장으로 파견 근무하게 된 피고인이 그 작전중 까치를 잡기 위해 칼빈소총을 무단발사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한 사건에 관하여 앞에 설시한 논거로 중대장의 실탄발사금지에 관한 명령은 그 금지사항의 성질상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한데 이어 육군참모총장의 “음주금지에 관한 명령” “육군안전관리규정” 등이 모두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될 수 없다고 각 판시하고 있다(1971. 3. 23일자 제1부 판결, 1971. 6. 22일자 제2부 판결)

이상과 같은 일관된 대법원판례를 분

석 검토하면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1) 군형법 제47조의 위헌논쟁에 관하여 위임 이론에 입각하여 동 조항은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항으로써 합헌 조항이라고 밝힘으로써 합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 아울러 동명령(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인권옹호의 이념에서 그 내용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법원판례는 “명령”을 그 내용에 의하여 가. 군사작전분야에 관한 것, 나. 비군사적 분야에 관한 것, 특히 일상생활상의 준칙에 관한 것으로 구별하고 “가”의 군사작전분야에 관한 명령 가운데서

가.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성 있는

나. 특정의 사항에 관한

다.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명령만이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7. 대법원판례의 비판

대법원의 신판례가 판시하는 바와 같이 만일 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이 합헌적 조항이라고 한다면 군지휘관이 발하는 각종 형식의 명령(규칙 또는 작서 등)이 형식상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군사에 관

한 것이든 비군사에 관한 것이든 간에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에 일응 해당되는 바라고 해석하여야 논리가 일관되는 것이라 하겠다(총래의 통설).

물론 이와같은 견해하에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예상됨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는 군형법 제47조 정당한 명령의 해당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어떤 명령이

가. 군통수상 필요한

나.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 실질적 형벌사항에 해당되는 것에 관하여 발한 명령인 경우에만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제한해석을 하고 있다.

고로 형식상으로는 적법 정당한 명령이더라도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제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명령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47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총래의 통설과 다른 점인 것이다. 왜냐하면 총래의 통설은 바로 이와같은 제한요건 불비의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근거가 되는 조항이 군형법 제47조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1970. 11. 24. 제3부 대법원판결은 군인복무규율 위반, 참모총장의 음주통제명령위반행위로 군형법 제47조의 명

명령위반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었다). 그렇다면 원래 광범위한 일관적 명령으로써 예정된 군형법 제47조의 명령 규칙 가운데 위와 같은 제한요건을 갖춘 명령규칙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러한 제한요건을 갖춘 명령은 과소하며 또 이와같은 제한요건을 갖춘 명령의 위반행위는 대부분 군형법상의 특별범죄(항명, 초명위반 등)와 경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형법 제47조의 “구체적 사건에의 적용”은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번 대법원판례는 군형법 제47조의 적용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더라도 군법회의에서 명령위반죄로 취급한 바 있던 사진들에 대해서 “복귀명령위반”을 제외하고는 시종 명령위반죄의 성립을 거부하고 있다(예컨대 금전수수금지명령위반사건, 군인복무규율 제27조 위반사건에 관하여 명령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작전지역 내에서의 발사금지명령위반사건에 관하여

서도 명령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관해서 이와같은 제한해석을 하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요컨대 동 조항이 합헌조항이라고 판시한 이상 동 조항소정의 명령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 해석하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큰 까닭에 환언하면 징계사건에 해당되는데 불과한 사소한 명령(예컨대 군인의 일상생활상의 준칙에 관한 명령 등)의 위반행위까지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으로 처벌한다면 가혹한 결과물 초치한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과제로서 명령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같은 대법원의 입장과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러나 금번 대법원의 신판례는 위헌논쟁을 비롯하여 종래 군형법 제47조에 관해서 문제된 바 있던 제반사항에 관해서 명확한 해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모르게 일시적이고 우회적인 해결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금할 수 없다.



비 파괴검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김 철 식

—…… 이제 우리 공군에도 또 하나의 새로운 특……—
—……기가 병설되었고, 미 개발된 방사선 검사과정……—
—……의 신장비가 도입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개발……—
—……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 공군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주지할 줄 믿으면서 비……—
—……파괴검사반의 직능과 그리고 비 파괴검사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비 파괴검사(Non Destructive Inspection)란 무엇인가?

어떤 물체를 그 물체의 고유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형태를 변화 시킴이 없이 내부 또는 외부에 나타나는 결함(균열, 다공성, 입자구조의 파손 등 불연속성)을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판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비 파괴검사의 종류를 열거해 보자.

1. 방사선 검사(Radiographic Inspection)

X-선 또는 동위원소 등에 의하여 물

체 내부를 투과시켜 나타내는 결함을 Film상에 나타내어 검사판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의: 전자라고 불리우는 부하 미립자의 운동과 충돌될 때에 밀도가 큰 물질에서 원인이 된 파동을 X-Ray라고 하는데, 바리움, 백금, 청하물질로써 형광을 발생케 하는 특징을 가진 물질에 사진판 간광작업을 일으킨다. 이와같은 성질을 응용하여 금속의 결함검사에 이용된다.

사용처: 1. Forging(볼로 녹여 두드

리는 물질)

2. Casting(주물)

3. Tubbing(방수판)

4. 각종 Parts

5. 부식 피로상태

6. 용접물의 이질

사용시기:

1. 물체 내부 및 외부의 균열
2. Porosity(들어가는 폭은 적어도 안에는 기포가 있는 곳)
3. Gas Hole(가스가 들어차 있는 구멍)
4. 용접상태

장 점:

1. 영구보존 기록(Film)
2. 정확도

단 점:

1. Initial Cost가 높고
2. 전원이 필요하고
3. 방사선 사용으로 인체에 해롭다.
4. 숙련도가 높고 인원이 필요하다. X-Ray의 연혁

1895. 11. 8. 독일에 물리학 학자 렌트게인(Wilhelm Roentgen)이 6년간 그라프를 연구하면서 방사선을 발견했다. 그 실례로써 그는 자기 부인의 손을 찍은 후 여기에서 얻은 실험으로 X-Ray를 성공시켜 의학계에서 사용되었다. 1901년에 X-Ray를 발명, 성공함으로써 물리학 부분의 노벨상을 획득했고, 1952년에는 보다 간편한 휴대용 X-Ray 장비 발명 사용했다. 미 공군에서는 민간 항공사에서 1958년에 도입하여 개발 사용했으며 한국 공군에서는 1970년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현재 사용중인

것이다. 이 X-Ray 검사는 특히 세계 제 2차 대전이 돌발하면서부터 군에서는 항공기 부분 용접계통 Causing(주물) 등에 사용되었으며 특징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효력을 인정받아 공업분야, 건물, 식료품, 조각, 치료 등에도 널리 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형광 침투검사(Fluorescent Penetrant Inspection)

정의: 자성재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제반 금속의 균열부에 침투할 수 있는 형광물질을 함유한 용액중에 검사물품을 침투한 후 파잉액을 표면으로 제거하고 건조 후 자외선으로 검사하여 균열부분 형광으로 인하여 광휘있는 빛이 나타난다.

방법: 피 검사물질을 형광 물질을 함유한 용액 중에 침투시켜 건조시킨 후 자외선을 이용하여 결함을 판정하는 방법

- 사용처: 1. 모든 금속
2. 유리
3. 기계 가공된 부속
4. Casting
5. Casting & Forging

사용시기: 1. 물체 표면의 균열
2. Proximity
3. Lack of Welding

장점 : 1. 작동법이 간단하다.

2. 관독이 쉽고 경제적이다.

단점 : 1. 외부접점으로 제한

2. 세척이 필요하다.

자외선 라이트(Ultraviolet Light)의 성능

암광에 노출될 때 형광을 발하거나 발광하게 타오르는 듯한 빛을 낸다.

1) 적당한 한 가지 빛을 암광에서 파장이 3200~4000Å° 앙스트롬(A°) 1억분의 1cm 10⁻⁸cm, 길이 A. Å° 또는 Aua 단위, 빛의 파장을 측정하는데 쓰는 단위. 스펙트럼에서 가시성 방사력으로 사용술어.

2) 암광은 더 긴 파장의 불필요한 빛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절한 필터로 되어 밀폐된 반사기의 100W 증기수운구를 사용한다. 100V 60[∞] 교류작동

3) 특별한 Transformer가 있어 400W까지 상승하는 Sodium Vapor Lamp가 상승될 수 있다.

Ultraviolet Lamp Filter(자외선등여과광)

1. 특수유리로 된 필터는 불필요한 빛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증기수운구의 앞에 붙어 있다.

2. 형광성 침투액을 활성화시키는 적절한 빛만을 통과시킨다.

3. Filter의 유리는 거의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는 볼 수 있게끔 된다(코닝 5874나 코프 41과 동등).

4. 균열이 가거나 부서진 필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공의 배광

1. 암광의 면에서 15" 떨어진 곳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참고 : 1) 충격을 주지 말 것.

2) Lamp와 Socket와의 간격을 잘 조절할 것.

2. Light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SW를 Off하지 말 것.

초음파 검사(Ultrasonic Inspection)

정의 : 고주파 전자의 파동을 어떤 물체 내부에 침투시켜 불연속성과 부딪쳐 반사되는 반응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Socpe상에 나타내어 검사판정하는 방법.

목적 : 1. 음파의 성질

a. 기계적인 진동(Maclenical Vibration)에 의해서 생긴다.

b. 공기분자에 의해서 전달된다.

c. 18,000 CPS에서부터 시작

2. 자연계의 소리(Natural Sound)

a. 압축(응기)기~강 Compression

b. 희박기~약 Venofaction

3. 음파의 특성

장점 : 1. Fast(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

2. 검사 즉시 판독용의

3. Portable(휴대용)

4. 정확도가 높다.

단점 : 장비 작동 및 판독을 위한 장치

적인 Trainig이 필요하다.

3. 와류검사(Eddy Current Insp)

전자장의 영향이 미치는 전도체 내에서 형성된 와류가 물체에 부딪혔을 때 오는 반응을 Meter 상에 나타내어 균열, 이질금속과 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

주: 와류란 직선 방향으로 흐르는 자력선에 영향을 받아 원형으로 흐르는 자유전자의 운동.

목적: 와류검사로 탐구해 낼 수 있는

결함의 종류

1. 균열검사
2. 두께 측정
3. 부식의 깊이
4. 재질의 강도
5. 재질의 변화상태
6. 진도도 측정
7. 열처리 상태

와류의 흐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재질의 특성

1. 진도성(Conductivity)
2. 영구성(Permeability)
3. 입자구조(Mass)
4. 재질의 종류(Homogeneity)

정의: Eddy Current(와류의 흐름)를 이용하여 물체표면의 균열과 동질 및 이질의 구분, 열처리상태, 두께 등을 나타내는 검사

사용처: 1. Tube Bar

2. Wire Test

3. Sheet

4. 화재입은 부분품

사용시기: 1. 균열검사

2. 동질 및 이질금속 구분

3. 두께 측정

4. 진도도 측정

장점: High Speed Test

단점: 각종 제한 수치에 대한 혼돈을 갖기 쉽다.

4. 시각검사(Optical Insp)

정의: 육안으로 또는 확대경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법

목적: 현미경, 확대경으로 재확인할 때 사용 불도코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위치 때 사용하는 장비

사용처: 1. Internal Surface 또는 EX-Ternal

2. Surface

3. Tub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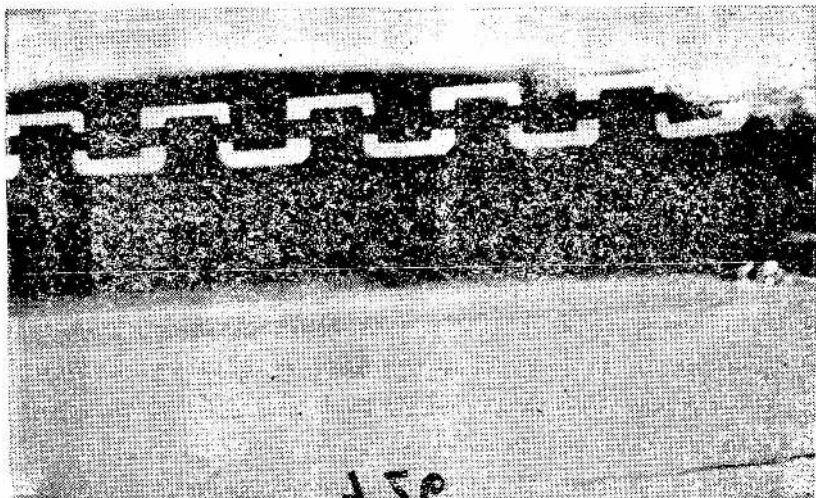
4. Wing Spar

5. Engine Blade

사용시기: 표면의 균열 및 부식 잘보기 어려운 것을 가려냄

장점: 간단한 장비로써 물체 외부 또는 검사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물체 내부의 Pitting Corrosion Crack 상태를 점검한다.

단점: 외부 결함만으로도 한정



〈캐노피 개폐장치 연결부분의 엑스레이 검사〉

- 시력의 피로
- 시간의 소모

5. 자력검사(Magnetic Particle Insp)

정의 : 철재 재품을 자력화하여 미세 철분을 포함한 석유(Solvent)중에 침적하면 균열이 자력선상에 가로놓여 미세 철분이 집중한다. 자력검사 방법에는 철 분집중으로 내부 또는 외부의 결함을 알 수 있다.

- 사용처 : 1. 모든 철금속 Parts
2. Tube Pipe
 3. 열처리 후 상태검사
 4. Weld Defect

- 사용시기 : 1. 물체 표면 균열
2. Porosity
 3. 결함

- 장점 : 1. 작업방법이 간편하다.
2. 이동식
 3. 경제적이다.
 4. 작업이 빠르다.

- 단점 : 1. Magnetic and Demagnetizing이 요구됨
2. 외부전원이 필요하다.
 3. 철저한 세척이 필요하다.

이상으로써 비 파괴검사에 종류와 사용되는 각 검사별로 약술해 보았다.

다음은 비 파괴검사반의 직능에 관하여 간략하게 적어본다.

비 파괴검사의 특기 부호는 53×××N로 표시한다. 이와같은 특기의 소지자로서 정식으로 인가된 특기 교육을 마쳐야 한다. 교육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으나 우리 공군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애로와 장비, 부족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비 파괴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앞으로 NDI에 의욕만 있다면 고차원적인 자기 기술습득은 물론 공군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 비행단에도 추천된 요원들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점진적으로 부여받은 특기 부문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며 힘써 일하고 있다.

특히나 비 파괴검사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체나 작 항공기별 부분품의 내부구조의 균열이나 파피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X-Ray의 고도화된 촬영기술로 골격, Canopy Hinge, 흡입부분 등을 정밀히 분석 검토한다. 촬영으로 반영된 항공기의 위험부분 등을 거짓이 없이 그대로 노출시켜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비행안전 문제, 작 항공기별 부분품의 결함구분을 난관이 파헤쳐 국가경제의 예산절감, 인명보호 기타 비행안전에 미치는 사고를 예방함은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바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명목적이고 장비부족으로 많은 예산의 소모와 비행 안전에 장애물을 제거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비 파괴검사반의 환약과 정확한 검사방법은, 우리 정비사는 긴 안목으로 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4월에도 당 비행단 비 파괴검사반에서는 Turbine Wheel, Bearing Surppot 등을 정밀하고 거짓이 없는 형광 침투검사로 그 균열을 조기에 발견해서 위기촉발의 위험성을 제거시켰던 것이다.

언제나 비 파괴검사는 우리의 정비사처럼 정직하고 순진한 것이다. 기계도 마찬가지다. 시일이 흐름 속에 장비도 노쇄화되어 간다. 정직한 기계는 언제 어디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이 아닌 인간은 장담할 수 없다. 꾸준히 익히고 노력하고 권장하여 NDI의 활용을 우리 정비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것이다.



하늘의 왕자



B-29의 전략폭격 활동

심 사 수

B-29는 2차대전의 종결이 멀지 않았던 1944년에 등장하여,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대한 전략폭격의 주역은 담당하였고, 1950년 다시 한국전쟁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실전에서 퇴역하였다. 비록 지금 B-29는 고병이 되어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 공적은 전사상에 길이 빛날 것이다. 1차대전 후에 여러 항공 전략가들이 기대하고 예언했던 전략폭격기의 출현은 B-29의 등장으로써 실현되었으며, 지금까지 실전에 사용된 장거리 전략폭격기로서는 B-29에 비길만한 업적을 가진 것이 아직 없다. B-29는 일본에 폐쇄를 안겨다 줌으로써 우리에게

계 광복을 열어준 상징이며, 한국전쟁에서는 북한의 기도를 좌절시킴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는 이 고병이 가진 훈장의 경력을 살펴 보고 오늘날 내일을 잇는 더듬들로 삼아보기도 하자.

1. B-29의 출현

B-29가 실전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4년 6월이었으나 그 개발이 시작되기는 1939년부터였다. 1938년 히틀러는 유럽에서 노골적인 침략을 시작하여,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하였다. 히틀러의 목적이 유럽에서 달성된다면, 그의 차기 공격목표가 미국

으로 향한 것이라고 예상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는, 항공세력의 내 확장을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육군항공군단(USAAC)은 항공기 보유현도가 1,800대였던 것을 1939년 4월에 5,500대로 증가시켰다. 항공군단은 장거리폭격기의 개발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당시 미국항공군단은 B-17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별명이 「하늘의 요새」(Skyfortress)로서, 장거리 전략폭격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폭탄 적세량이 1톤이며, 작전반경이 1천마일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는 나치독일의 침략에 대비하여, 남미까지 무작목으로 왕복할 수 있고, B-17을 능가하는 속도와 화력운반능력을 가진 전략폭격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이 신형폭격기를 미본토의 방어작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독일에 대한 장거리 폭격에도 사용기로 계획하였다.

1939년 9월, 유럽에서는 2차대전이 발발했으며, 독일공군은 패속적인 승리의 주역을 담당했고, 1941년 12월에는 일본에 의한 진주만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막을 올렸는데, 여기에서도 일본의 항공세력은 승리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이에 자극되어 신형폭격기의 개발은 박차를 가했고, 미국의회는 신형항공기의 개발을 위해 470만불을 지출하였다. 육군항공군(AAF)은 행동반경 2,000마일의 폭

격기를 발주하였으며, 1941년 9월 6일 보잉회사는 시험기(Test plane) 제1호를 완성하였다. 육군항공군은 30억불로써 B-29 1,664대를 주문하였다. 시험비행과 수정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대량생산은 요구한 항공군사령관 아놀드 대장의 결단은 「30억불의 도박」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1944년 1월, 합동항공위원회는 이 신형폭격기를, B-17을 더 확대한 것이란 뜻에서 「초공의 요새」(Super-Skyfortrees—약하여 “Superfortress” 또는 “Superfort”)라고 명명하였다.

이 거인 항공기의 제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폭 : 43.1m
- 동체장 : 30.2m
- 높 이 : 8.3m
- 자 중 : 33,500kg
- 익면적 : 160m²
- 엔 진 : 2200HP×4
- 최고속도 : 557km/H(순항속도 : 400km/H)
- 항속거리 : 5,600km(3,500마일)
- 행동반경 : 1,700마일
- 폭탄탑재량 : 6~10ton
- 상승한도 : 10,668m
- 실용상승한도 : 9,700m
- 부 장 : {12.7밀리 기관총×10
 {20밀리 기관포×1
- 승무원 : 11명(조종사, 부조종사, 폭격수, 기총수(5), 항법사,

통신사, 정비사)

연료탑제량 : 7, 200GAL

순항시간 : 14시간

생산가격 : 1대당 140만불

B-29 「초공의 요새」의 특징은 항속거리와 화력운반능력과 상승고도의 셋으로 대별할 수 있다. B-29는 3만피이트 이상의 고공에서 침투하였으므로 일본의 요격전투기와 고사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작전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고공을 날기 위해서 이 폭격기에는 특수한 여압(과급)장치가 되어 있어, 고고도로 상승하더라도 자동과급조정기에 의하여 정상기압을 기체 내에 유지할 수 있다. 조종사, 부조종사, 폭격수가 탑승하는 전실과, 통신사, 기총수, 정비사 등이 탑승하는 후실은 폭탄창(Bomb bay)이 중간에 있어 분리되므로, 이것을 연결하고 전·후실이 공히 같은 실내기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폭탄창 상부에는 직경 85센치, 길이 20피이트의 원통이 설치되어 전·후실이 연결되어 있고, 이 원통의 터널은 탑승원 1명이 또 복자제로 왕래하도록 되어 있다. 항속력의 원천인 연료탱크는 양쪽 날개에 각각 세 개의 탱크가 있어 5,400갈론을 싣고, 또한 폭탄창에 1,800갈론의 보조탱크를 장치하여 도합 7,200갈론을 저장하며, 이 연료탱크는 기총탄이나 고사포의 파편에 맞더라도 새지 않게끔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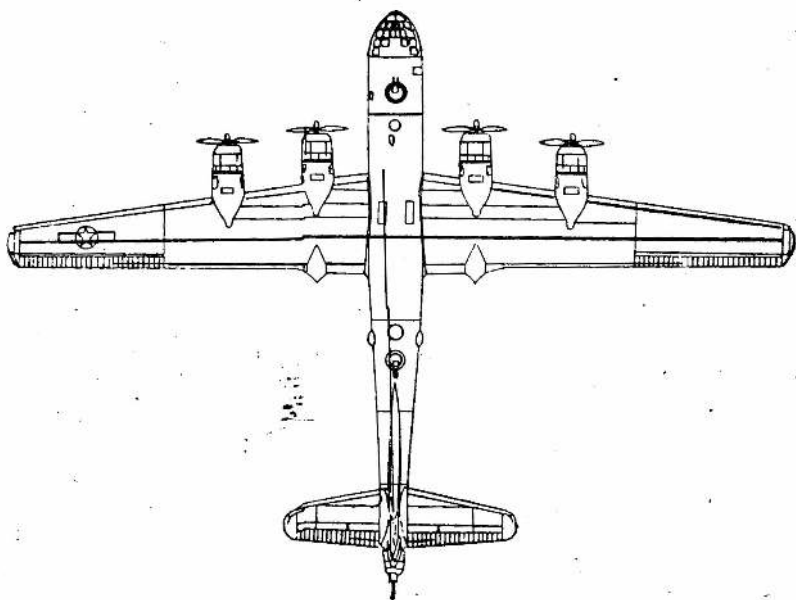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여러 특징에도 불구하고 B-29에 있어 문제는 엔진에 있었다. 항공기의 자체중량만 하더라도 33톤이며, 여기에 완전히 무장을 갖추면 47.5톤의 무게를 가지므로 R-3350-23형의 2,200마력 엔진 4기로시도 그 중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여러가지 보완책이 강구되어졌으나, 실용단계에 들어가서도 B-29는 엔진고장으로 인해 이륙 직전 또는 출격 직후에 출격을 중지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다시 말하면, 2차대전 의 요구에 의하여 급속히 만들어진 이 거대한 항공기의 승무원들은 위험한 여전 속에서 임무수행에 헌신했던 것이다.

2. 태평양전쟁에서의 B-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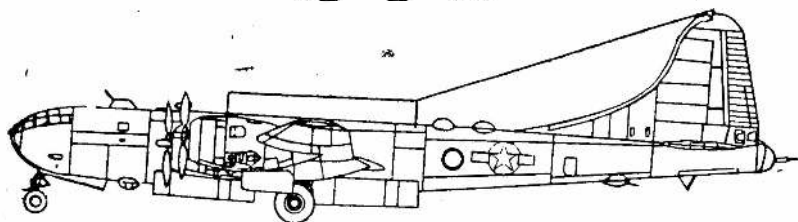
원래 B-29는 미본토의 방어작전 및 독일에 대한 전략폭격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이것이 실제로 사용가능하도록 대량생산이 완성된 시기가 1944년이었으므로, 이 때는 B-25 및 B-26에 의하여 독일에 대한 전략폭격이 종결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단계에 있었으므로 B-29는 독일에 대한 전략폭격작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일본에 대한 폭격작전에서만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전용의 B-29 제1호기가 생산된 것은 1943년 7월이었고, 대일본전략폭격의 구체적인 계획이 제기되는 것은 1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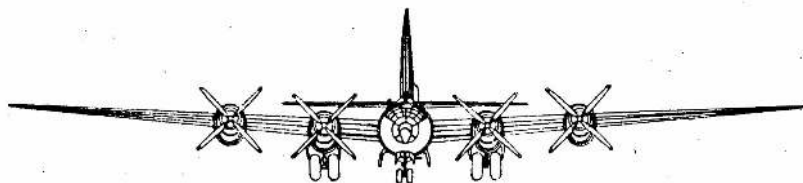
B-29의 모형도



<평면도>



<측면도>



<전면도>

년 8월의 퀘베크(Quebeck)회담 이후였다. 1944년 1월 중순까지 제작된 B-29는 97대였고, 4월부터는 폭격사령부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폭격을 담당할 제20 폭격사령부가 1943년 11월에 창설되고, 그 산하에는 2개의 폭격비행단(제58, 제73)이 편성되었다.

1944년 초에 있어서 태평양전선은, 마리아나제도와 동부 뉴기니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B-29로써 일본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나제도의 점령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나제도를 점령해서 여기에 B-29의 기지를 마련하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이 「초공의 요새」를 하루라도 빨리 사용하기 위해서 「매터호른」(Matterhorn) 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인도의 칼카타 부근 카라푸르(Kharagpur)를 영구기지로 하고 중국의 성도(Chengtu 成都)에 중간정비기지를 두어, 만주와 큐슈의 산업을 강타한다는 것이었다. 1944년 5월 8일 인도의 제20폭격사령부에 B-29 150대가 배치되었다. 6월 14일, B-29 92대는 최초의 일본폭격을 위해 인도의 카라푸르 비행장을 출발하였다. 각각 2톤의 폭탄을 싣고 출발하였다. 히말라야를 넘기 전에 13대가 낙오하였고, 성도에서 급유하여 75대가 출발했으나 18대가 다시 낙오하였으므로, 실제 폭격에 참가한 것은 57대였다. 이 최초의 공격목표는 큐

슈 북부에 있는 야하타 제철공장이었다. 이 공격에서 114톤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나, 야하타공장에는 경미한 파괴를 가할 정도였고, 7대의 손실(키로에 추락 및 불시착)과 승무원 55명을 상실하였다.

1944년 7월 4일, 울프(Kenneth B. Wolfe)준장의 후임으로 러메이(Curtis E. Lemay)소장이 제20폭격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이에 앞서 1944년 3월에 제21 폭격사령부가 창설되고, 4월에는 이 두 폭격단을 통합하기 위해 제20공군이 창설되고, 아놀드장군이 그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성도기지의 제20폭격사령부는 러메이장군 지휘하에 1944년 7월부터 1945년 1월까지, 30대 내지 110대의 규모로써 큐슈의 야하타, 사세보, 나가사키, 오오부라, 만주의 안산제철소, 봉천(Mukden)항공기공장 및 대만에 있는 항구시설과 항공기공장 등에 대하여 20여회에 걸쳐 연출격회수 1,169회(실지 공격참가 연회수는 900회)를 기록하였다. 성도기지에서 투하한 폭탄량은 800톤이었고(일본본토에 투하한 것만) 파괴효과도 크지 못하였다. 제20폭격단의 진과가 크지 못한 이유는, 동부중국, 월남, 타이, 버마 및 불령 동인도까지 일본의 세력권하에 있던 당시에 있어서, 성도기지는 모든 병참문제를 오직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연결되는 공중수송로에만 의

준해야 했으므로 제 20폭격단은 B 29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만한 폭탄과 연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44년 6월 11일에 사이판도에 대한 상륙으로 막을 올린 마리아나 전역은 미군의 사상 15,000명을 내고 7월 23일에는 소탕작전이 끝났다. 이에 제 21폭격단을 위한 기지건설이 시작되고, 1944년 10월에는 기지건설이 완료되어, 사이판섬을 기지로 한 제 21 폭격단의 최초출격이 1944년 11월 24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병참문제가 곤란하여, 일본 본토 중에서도 큐슈 이외는 행동권 내에 포괄할 수 없는 성도기지는 이상 더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1945년 1월, 제 20폭격사령부는 사이판으로 이동하였다.

1944년 10월에 마리아나제도(사이판, 구암, 티니언)로의 진군을 완료한 제21폭격사령부는, 10월 말, 일본군의 대평양 전진보급기지인 트리섬에 대하여 연습출격을 시행한 다음 11월 24일, 오도넬(Emmett O'Donnell) 준장 지휘하에 111대로써 동경에 대한 초도폭격을 시행하였다. 목표는 니까지마 항공기공장이었다. 9,000미터의 고공에서 48반의 폭탄이 투하되었으나, 구름으로 인해 정밀폭격이 불가능했으며, 폭격효과는 경미하였다. 그러나 일본국민의 사기저하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1945년 1월 20일, 리메이장군은 제 21 폭격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945년 2월 말까지 제21 폭격사령부는 약 20회에 걸쳐 주간 고고도정밀폭격을 시행하였으나, 3월 9일을 기해, 야간 저고도 소이탄 공격으로 전술을 전환하였다. 이 야간 소이탄 공격으로 전술전환을 한 것은 리메이장군의 창안에 의한 대담한 시도로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술전환의 이유는, 고고도 정밀폭격은 기후조건(바람과 구름)에서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파괴효과가 적으며, 또한 고고도 공격은 폭탄탐재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항공기 생산 능력과 일선조종사가 감소되었고, 연료의 제약은 받고 있는 일본은 요격능력이 제한되어 강력한 반격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연소하기 용이한 목재로써 건축된 시설과 건물은, 폭발탄에 대하여서보다 소이탄에 오히려 취약하므로, 화계에 의하여 공업시설을 소개 분산토록 강요함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리메이장군은 판단하였다.

1945년 3월 9일 밤, 동경시에 대한 최초의 저고도 야간 소이탄공격이 시행되었다. 334대의 B-29가 2,000톤이 소이탄을 투하하였다. 투하고도는 1,700미터 내지 2,300미터였고, 자정부터 시작하여 약 3시간에 걸쳐 투하가 계속되었다. 이 작전에서 리메이는 B-29 14대를 상실하였다. 그러나 그 폭격효과는 대단하였다. 이번 공격의 효과는 원자폭탄 투하에 의한 파괴를 오히려 상회하는 것

이었다. 동경시의 중심 지역 42평방킬로미터가 파괴되었고, 동경시의 건물 20%에 해당하는 27만호가 소실되었다. 8만 4천명의 사망자와 4만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었고, 가혹상실한 사람이 100만명에 달했다.

1945년 4월이 되자 제 21포격사령부는 더욱 증강되어 1회에 500대의 B-29를 출격시킬만큼 성장하였으며, 선정된 66개도시(대도시 6개 포함)에 대한 소이탄공격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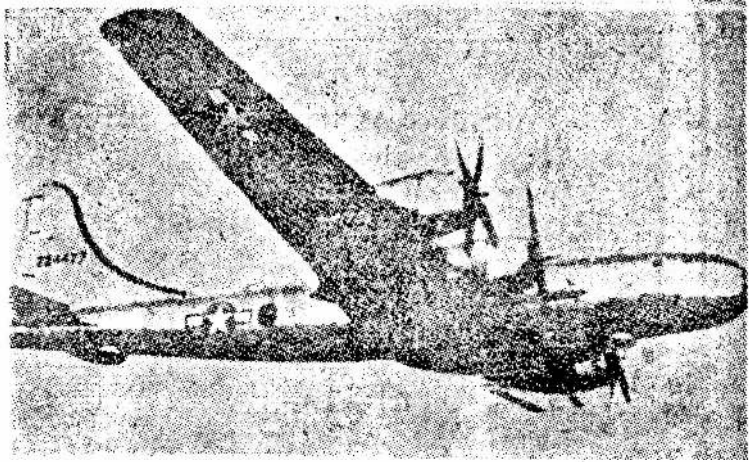
한편 3월 15일에는 유헩도 점령이 완료되었다. 1개월간에 걸친 치열한 작전에서 미군은 25,000명의 사상자(사망 4,200명)를 내고 이 섬을 점령하였다. 유헩도는 사이판과 동경의 중간위치를 점하여, 유헩도기지의 일본군 전투기는 B-29의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것과, 사이판에서 일본본토까지 왕복 3,000마일의 항로 상에 B-29를 위한 불시착기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유헩도 점령의 목적이었다. 1945년 3월부터 P-51(무스탕) 엄호전투기가 유헩도에 진출하였으며, 3월부터 8월까지 B-29는 유헩도에 5천 4백회의 불시착을 하였다.

정밀폭격과 소이탄공격 이외에 B-29는 두 가지의 특수작전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1945년 3월 말에 시작한 공뢰(Aerial mine) 투하작전인데, 종전시까지의 5개월간에 13,000개의 기뢰를 시도노세끼해협 및 주요 항구에 투하하여,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상실한 함선의 9%에 해당하는 80만톤을 침몰시켰으며, 주요 군항을 봉쇄하였다. 이 기뢰투하를 위해 B-29는 총 1,500회의 출격을 실시하였다. 또 하나의 특수작전은, 제 315비행단이 담당한 정유공장 파괴이다. 1945년 6월 26일에 시작한 이 작전에서, AN/APQ-7 레이다를 장비한 B-29는 10개의 주요 정유시설에 대하여 야간정밀폭격을 시행함으로써 일본의 연료를 완전히 고갈시켰다.

태평양전쟁에서의 B-29의 역할은 원자폭탄 투하에서 절정을 이룬다. 아인슈타인 박사 지도하에 개발된 원자폭탄은 1945년 7월 16일, 텍사스주 뉴멕시코주막 알라모고르도(Alamogordo)에서 폭발실험을 하였다. 이 결과는 7월 24일 포츠담회담 중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과 육군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고, 트루만은 처칠과 협의하여 원폭투하를 승락하였다. 7월 25일, 원폭투하를 위해 티니안섬 노오스 필드에 전개해 있는 제509혼성진대(Composite group)에게는 8월 3일 이후, 히로시마, 고쿠라, 니이가타, 나가사키 4개 도시 중 어느 한 곳에 투하하도록 지시되었다. 7월 26일에는 포츠담선언이 발표되어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촉구하였다. 일본은 항복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원폭은 투하되었다.

티베츠(Paul W. Tibbets)대령이 조



<비행하고 있는 B-29의 용자>

종하는 에놀라 게이(Enola Gay)호는 4톤의 원폭을 싣고 1945년 8월 6일 새벽 3시 티니안기지를 출발하여, 오전 9시 15분 히로시마 상공 8,000미터 고도에서 이 신형폭탄을 투하하였다. 폭심에서 5,000미터 이내 지역이 파괴되고 강렬한 섬광과 더불어 순식간에 8만명의 사망자와 5만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8월 9일 11시 나가사키에 두번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원래의 투하목표지는 고쿠라였으나 나가사키 상공의 구름으로 인해 목표가 변경된 것이다. 나가사키에는 방공대피호와 지하도시설이 많이 있었으나, 일본의 군부는 검열과 보도관제로서 히로시마의 뉴스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대피시설을 이용한 시민이 적어, 손실은 막대하였다.

나가사키의 손실은, 사망 4만명, 부상 6만명이었다. 히로시마보다는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나가사키시의 지세가 산과 계곡에 의하여 양분되어 있으므로 파괴 효과가 방해되었기 때문이었다.

태평양전쟁에서 제 20 공군은 B-29로써 일본본토 및 주변기지에 대하여 총 230회의 작전을 실시하였고, 연출격회수는 34,700회에 달하며, 17만톤의 폭탄이 투하되었다. 1년 2개월간의 작전에서 입은 B-29의 손실은 414대였고, 이중 65%는 기계적인 고장 때문이었다. B-29의 목적으로 입은 일본의 피해는, 중요공업도시 105평방마일의 지역을 파괴하였고 사망 26만명, 부상 42만명, 가옥파괴 1,121만호였고, 사상자를 제외한 폭격이재민이 920만명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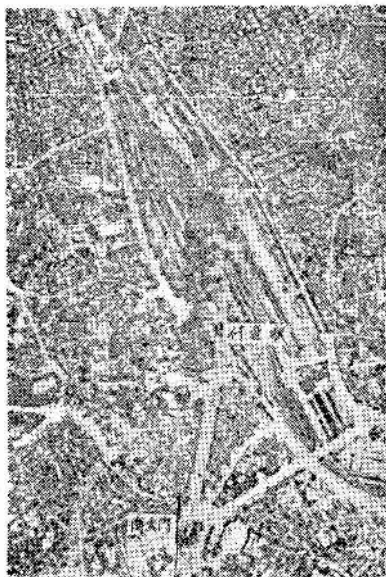
1945년 6월, 제 21 폭격 사령부는 1,000대의 B-29를 보유하여 1회에 625대를 출격시킬 능력으로까지 성장하였으며, 1945년 8월, 태평양전쟁 종결시에 있어 미국이 보유한 B-29는 3,556대였고, 2차대전 중 미국이 생산한 B-29는 3,970대였다.

3. 한국전쟁에서의 B-29

태평양전쟁은 B-29의 독무대였으나 한국전쟁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태평양이라는 광대한 전장의 특성과 미·일 양군의 전선이 일본본토에서부터 수천마일 떨어져 있어 해군과 지상군이 적의 본거지에 접근을 시도하기에는 요원한 때에 초장거리의 항속을 가진 B-29가 아니고서는 일본본토에 접근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제한전쟁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전략폭격기의 활동무대가 전투기의 행동반경 범위 이내로 제약되었으므로, 결국 B-29폭격기도 전투기와 전투폭격기의 임무 중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며, 태평양전쟁에서와 같은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있어, 이미 공군에는 B-29의 개량형인 B-36, B 50 등 중폭격기가 등장했으므로, 태평양전쟁에서는 최중폭격기(VHB)였던 B-29는 그 왕관을 내어 놓고 중형폭격기(MB)로 전환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폭격기는 B-29와 B-26이며, B-26은 야간폭격기로서, B 29는 주간 고고도 폭격기로서 각각 활약하였다. 한국전쟁에서 폭격임무를 가장 먼저 수행한 것은 B 26이었으나, B 29 폭격전대가 도착한 이후부터는 폭격작전의 주역은 B-29가 담당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3년 1개월간의 전란이 열렸다. 6월 27일 유엔안보이사회는 가맹국에게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권고하였으며, 이날 트루만대통령은 미국 해·공군에게 한국출동을 지령하였다. 익일 오후 밤도에서 오키나와로 이동한 제 19 폭격전대의 B 29 4대가, 개성과 의정부에서 서



<B-29에 의하여 울산지구의 적이 폭격을 받고 있다.>



〈우리 공군의 기술진이 B-29기를 원형대로 재생시키고 있다.〉

을로 향해 남하하는 적에게 강타를 가 하였다. 6월 29일 저녁, 제 3폭격전대의 B-26 2개 대대는 평양비행장을 강타하였으며, 이것은 북한지역에 대한 최초의 폭격이었다. 7월 초 미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Vandenberg)장군은 전략공군(SAC)의 B-29 2개전대(제22, 제92)를 극동에 파견하였고, 극동공군(FEAF)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Stratemyer)장군은 7월 8일 이 중핵폭격대를 관장하도록 극동공군폭격사령부(FEAF BC)를 창설하고 오도넬(Emmett O' Donnell)소장을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8월 중순 반덴버그총장은 다시 B 29 2개전대(제98, 제307)를 극동에 증파함으로써 극동공군 산하에는 B-29 4개전대가 있게 되었다.

폭격기의 본질적 임무는 적군사력의 근원을 마비시키는 것이지만, 한국전쟁의 초기에 있어 B-29는 그 거대한 운반능력과 항속거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근접지원 임무에 전력을 투입하였다. 7월 12일부터 약 1주간에 걸쳐 던 소장은 대전울 고수하면서 5개사단의 적과 대치하였을 때, B-29는 대전수비군에 대한 항공지원을 제공하였으며, 8월 말, 부산방위선의 서남부를 담당한 미군 제2사단과 제25사단 정면에 6개사단의 북한군이 투입되었을 때, B-29는 함재기와 협동하여 총력을 근접항공지원에 투입하였다. 8월 중순, 북한군은 대구를 공격할 목적으로 낙동강 우안 왜관 정면에 병력을 집결하였다. 8월 16일 오도넬장군은 B 29 98대를 지휘하여 적의

집결지역에 용단폭격을 가하였다. 이날 투하된 폭탄은 960톤에 달했으며, 북한군의 전선물파기도는 좌절되었다. 이 왜관 전투에서의 B-29의 항공지원작전은 군사적 파괴효과 이외에 심리적 효과도 크게 거두었다. 인천상륙 3일 후인 9월 18일, B-29 42대는 왜관 서북쪽에 대하여 용단폭격을 가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패속적인 진격을 가능케 하였다.

전쟁초기에 극동공군은 북한지역에 18개의 전략폭격목표를 설정하였다. 북한군은 그들의 보급지원을 유엔공군의 전략폭격이 미치지 못하는 「금지구역」으로부터 받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은 2차대전 중에 일본의 전쟁수행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남포 화학공장, 진남포 제철소, 해주의 질소화학공장, 원산정유공장, 평양, 홍남, 청진, 나진 등을 전략폭격 목표로 선정하였다. 극동공군 폭격사령부는 3일마다 2개전대의 B-29로써 공격을 가하여, 1950년 9월 15일 이내에 북한에 있는 주요 군수산업목표는 나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파괴가 끝났으므로,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은 10월 25일, B-29 2개전대(제22, 제92)를 미국으로 돌려 보내도록 조치하였다. 북한군은 그들의 보급지와 집결지와 비행장을, 유엔군이 작전한계선으로 설정한 압록강 너머의 만주 「성역」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B-29는 2차대전에서와 같이 적의 산업중

심지, 병참근원지에 대한 전략폭격을 가할 수가 없었다. 1950년 12월 이내에 북한비행장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이 때부터 북한공군은 그들의 항공기지를 만주로 이동하였고, B-29는 북한지역의 비행장 복구작업이 끝나는 1951년 4월 13일까지 기다렸다가, 4월 13일 이후에 비행장폭격작전을 재개하였다.

적의 근원지에 대한 전략폭격이 불가능하므로 폭격사령부의 강타목표는 후방차단에 집중하였다. 주요한 후방차단 목표는 철도중심지와 철교였고, 그 중에서도 압록강철교가 최우선을 점하였다. B-29는 1950년 11월 말까지 압록강 철교 4개소를 파괴하였으나, 12월 초부터 압록강이 동결되므로 철교 후방차단은 중지하였으며, 1951년 3월 말, 압록강이 녹기 시작하자 철교파괴를 재개하였다. B-29는 3월 30일, 4월 7일, 4월 12일 3차에 걸쳐 압록강 철교파괴를 위해 출격하였으며, 이 3차의 공격에서 미그의 요격을 받아 B-29 4대가 격추되었다. F-80(Sabre)과 F-84(Thunder)의 엄호가 만약 없었다면, B-29는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며, 이 출격에서 B-29는 제트요격기 앞에 무력하며, B-29가 제트항공기시대에는 낙후한 폭격기임을 체험하였다. 공산측은 유엔공군의 철도 파괴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능력을 개발하였으나, 1951년 9월~10월에 있어 B-29의 철도 파괴는 공산측의

복구능력을 증가하여, 적의 수송수단 중 제일 우선을 점하는 철도물 차단함으로써 적의 저항을 약화시켰다.

한국전쟁에서 시행한 B-29의 전략폭격작전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눈부신 작전은 항공압박 전략에서였다. 항공압박 전략(Air Pressure strategy)란, 공산측으로 하여금 유엔측의 노선에 따라 휴전협정에 응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항공세력으로써 압박을 가하는 작전이었다.

1952년 6월 23일 해군함재기 72대가 90톤의 폭탄을 투하하고, 제 5 공군의 전폭기 120대가 폭탄과 로켓포로 수송발전소에 공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파괴된 발전소 시설은 20일 후에 복구가 완료되었다. 수송에 대한 제2차공격은 B-29가 담당하였다. 1952년 9월 12일 밤, 극동공군의 B-29 31대는 수송발전소에 대하여 2시간 40분간에 걸쳐 강타를 가하였다. 이 공격으로 인하여 수송발전소는 약 3개월간 기능이 마비되었다. 북한측의 복구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극동공군의 폭격기 및 해군함재기는 4대 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1953년 3월까지 계속하였다.

1952년 10월, 휴전회담은 다시 결렬되었다. 항공압박 전략을 위한 새로운 목표로는, 덕산, 자산, 구원가, 구성, 덕상 등 20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선정되었다. 1953년 5월 13일, 제 5공군의 전폭기 20대에 의한 덕산저수지 공격으로 제

2단계 압박작전의 막을 올렸다. 5월 22일 밤, B-29 7대는 구원가 저수지에 2,000파운드 폭탄 56발을 투하하였고, 5월 29일 B-29 14대는 구원가 저수지에 2,000파운드 폭탄 112발을 투하하였으며, 6월 14일 밤 B-29 10대는 덕상저수지에 1,000파운드 폭탄 120발을 투하하였다.

6월 4일, 공산측은 휴전회담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며, 6월 8일, 포로조항에 찬동하였다. 이리하여 23개월간 끌어오던 휴전교섭의 주요문제가 해결되었다.

1950년 11월 1일, 6대의 미그 15가 압록강 남방에서 우리의 F-80과 조우하여 전사상 최초의 순수 제트기의 전투(All jet battle)가 전개됨으로써 제트시대가 시작되었다. B-29는 제트전투기의 엄호하에 작전함으로써 미그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항공기의 사활적 특성인 속도가 열세할 경우엔 적에게 상대적으로 고정된 목표를 제공하는 불리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리를 극복했다는 것은 오직 조종사의 숙련도에 기인한 것이다.

B-29는 3년간의 한국전쟁 기간 중에 연 출격회수 22,983회를 기록하였고, 공산군에게 16만 7천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폭탄투하량은 태평양전쟁의 34,800회 출격에서 투하한 17만톤에 비견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상실한 B-29의 손실은 전투임무수행 중에 34대를 상실하였고, 비전투임무로 상실한 수

는 아직 명확지 않다. 전투임무중 상실된 34대 중 적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것이 16대로서 으뜸을 점하고 있다. 반면에 B-29의 기총수들은 제트요격기와 의 공중전에서 미그 15 16대와 야크기 17대를 격추시켰다.

한국전쟁이 끝날 때 한국에서 작전 중이던 유엔공군은 총 17개 비행단이었고, 그 중 3개 비행단이 B-29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년이 지난 1954년에는 새로운 제트폭격기 B-47, B-52가 등장하자, 2차대전기의 왕자는 폭격기로서의 임무를 끝내고 현역에서 은퇴하였다. 지금 여의도 5·16광장에는 술한 훈장의 기록을 지닌 「초공의 요새」한 대가 묵묵히 날개를 펴고 있다.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넘은 이야기, 성도에서 큐슈와 안산까지 빈곤한 여행을 하던 이야

기, 마리아나에서 1,500마일의 적적한 태평양을 13시간 비행하던 적막과 흥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전율의 순간, 긴 다리와 그 큰 강타력을 「제한」 때문에 힘껏 구사해 보지 못한 좌절감, 이제 노령이 되어 현역에서 물러난 고병의 혼재…… 이러한 이야기를 달없이 전해주고 있다.

5·16광장에 전시된 B-29는 사단법인 「유엔한국참전국협회」에서 미국공군 당국에 교섭하여, 교육적 전시용으로 기증받은 것이다. 1972년 6월 3일, 5·16광장에 도착하여 한국공군의 정비기술진에 의하여 원형이 복구되어 전시되고 있다. B-29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한국 뿐이다. 1972년 8월 14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B-29를 「통일호」라고 명명하셨다.



<김종필 국무총리 일행이 통일호라 명명된 여의도 광장의 B-29기를 시찰하다.>

이탈리아의 반공화

— 중 —

— 히 돈 구 —

다. 군의 재건

독립전쟁 중에 군은 편의적 또는 즉흥적으로 대중에게 긴급사태가 지니고 있는 의의와 그것의 역사적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싸우는 일로서 나날을 보내는 특수한 존재였다.

그러나 1949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다수의 장병이 동원으로부터 해제되어 예비역으로서의 일반시민으로 복귀하였다. 그러한 결과 군에서는 유능한 인재론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었지만 국가방위물 위한 상비적 태세를 위한 군의 재건에 착수하게 되었다. 징병제도가 발령되었지만 「해부루」(語)를 모르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부적격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혼란도 야기(惹起)되었지만 그러한 사태는 서서히 개선되어 갔었다.

장교에 대한 지휘능력의 향상도 중요

한 것이었지만 군에 대한 특전, 주택에 대한 특혜 및 수송수단 확보면에 있어서의 특권 등의 부여가 군이라는 존재를 더욱 매력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군은 「하가나」의 정신을 거의 상실한 것 같이 보였으나 실은 그렇지 않고 규모는 적지만 하나의 근대적인 군으로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내적인 충실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6년까지에는 방어와 공격에 대한 자신만만한 리더십(Leadership)을 확립시킬 수 있었다. 그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전문적인 전투기능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었다. 군에 팔목 할만한 발전이 있었듯이 다른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생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이 또한 주목 할만한 것이었다. 4년간에 인구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새로운 지역의 국토가 개발되었다. 그러한 발전의 보조는 신생국가로서의 역동적인 의욕과 유대인 조국의 존망에 대한 위기의식의 두 가지 원동력에 의해

서 촉진되고 가속되었던 것이다.

(1) 적의 포위 속에서의 불리한 조건

아랍세계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적을 한시라도 잊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아랍이라는 하나의 지역적인 세계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건설과 발전이 아랍의 패배에서 온 결과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1,3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교착 2류의 시민이라고 밖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특히 아랍의 국가주의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그들의 사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애였기에 팔레스티나의 문제는 그들의 불만의 초점이 된 것이다.

아랍측의 그러한 불만에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즉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의 비극은 한쪽이 다른쪽에게 양보를 함으로써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의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인 와이즈만도 「팔레스티나의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공평이라는 방침하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국제연합의 조사위원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랍측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유를 부정했지만 아랍의 비타협적 태도의 배경과 동기를 이스라엘은 부인하지는 않았다. 특히 해부루대학의 달몬 교수는 『아랍의 태도에 의해서 유대인이 당한 혼란, 고통 및 비극이 어떠한 것이었던 간에 적을 배반하는 일은 승리자로서의 적당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전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환기시켰고 각국은 아랍측을 지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공감하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은 단 순히 서방측이 초래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한 국제적 여론 하에서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다. 이스라엘의 입장이 궁지에 몰리고 있을 때 이집트 점령하에 있는 가자지방과 요르단 점령령의 서쪽 해안에서는 살인적인 공격이 개시되었고, 그의 회수와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져만 갔었다. 이집트는 그 이외에도 아카바 만(灣)의 입구에 해당하는 홍해 근처의 티란과 사나힐의 무인도를 점령하고 그 두 섬에서 가까운 시나이반도의

침단에 있는 셰이크에다 주둔지를 설치하였는데 그 목적은 새로 건설된 에일라드항(港)에 출입하기 위하여 그 협곡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선박을 저지하는데 있었다.

(2) 아랍 테러에 대한 대응조치

이스라엘 국경 주변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아랍세력의 지도자들은 폭력행동을 공공연하게 지원하고 나섰다. 그러한 아랍인 폭력단은 개별적으로 이스라엘에 침입한 다음 잘 조직되고 훈련되어 국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혼란과 불안을 조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에서도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그러한 계속적인 공격에 대한 최선의 저지 방법으로서 과거의 경험에 입각한 침입지의 탐색과 파괴만이 단 하나의 길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1955년의 한해 동안 이스라엘군은 10회에 걸쳐서 보복 공격을 취했는데 그러한 임무는 주로 공정부대가 담당했다. 그들은 야간에 국경을 넘어 5 내지 10마일 정도 적의 영토 내에 침입해서 군사목표물 파괴하고 돌아왔는데, 그때에는 언제나 1대 10 이상의 비에 해당하는 큰 해를 주곤 했다. 보복공격에 의

해서 이스라엘군은 새로운 차원의 전투교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들 공격대원은 적기지에 대한 철저한 공격과 대담한 행동을 감행하는데 있어서의 신속성에 대한 새로운 전술을 창안했다. 그러한 공격에 가담한 지원자는 태반이 기부스의 청년지휘관들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투기능의 새로운 수준의 개발과 향상을 가져왔다. 아랍과 이스라엘 쌍방이 수백명씩의 정예군을 투입하는 치열한 보복공격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군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 공산주의 국가의 개입

1955년 가을 이집트와 체코간에는 무기구입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위기가 가까와졌다는 결정적인 징후가 엿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집트는 그 협정이 실현됨으로써 전차 230대, 인원수송용 장갑차 200대와 자주포(自走砲) 100문(門)으로 된 장갑차 530대, 약 500문의 각종 포, 약 200대의 전투기·폭격기 및 수송기, 그리고 다수의 잠수함과 구축함이 새로이 이집트의 군사력으로 증강되게 된 것이다. 당시의 중동 각국의 군 장비수준으로 보아 이러한 증강은 대규모적인 전쟁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여실하게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었

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다같이 200대 정도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이집트의 대폭적인 신장비의 구입은 교묘한 힘의 균형상태를 4:1의 비로 이집트군이 우위(優位)를 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군은 약 100대의 전차, 300대의 트럭, 50대의 전차수송용 차량, 300대의 대형 추력, 1천문의 바주카포, 그리고 1개 중대의 수송기 등이 부족한 군사적인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탄약과 부속품 및 연료는 20일 내지 30일간의 전쟁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갑부대는 대부분이 마크 38로 된 구식전차로 편성되어 있는 한편 기계화부대의 거의가 사막의 전투에는 적합하지 못했다. 거기다가 각 부대의 개인장비도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몇 백명의 병사가 시나이반도의 겨울밤에 자신들의 사제(私制) 외투를 입고서 근무를 할 정도였었다고 한다.

그러한 긴장과 위기에 덩구름이 감돌고 있을 때 국제연합에서는 소련과 영국이 「쌍방의 대화가 가능한 기반을 토대로 평화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기초하고 있던 중이었으나 사실상

의 사태의 진전은 계속 악화되고만 있었다. 1956년 6월 11일 이집트의 국방상(國防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다. 『이스라엘이 조성하는 위기는 이미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군은 지상에서 이스라엘을 일소하는데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아랍의 지도자가 팔레스티나 인민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충분한 힘을 보유했다고 보고 있는 이상 시오니스트 국가에 대한 진행을 억제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1956년 10월 요르단 선거에서는 친 낫셀파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공동행동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시리아, 이집트 및 요르단간에는 그들 3개국간에 군사동맹이 체결되었는데 그 동맹의 목적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 3국동맹조약은 요르단군을 이집트군의 지휘하에 편입시켜서 8마일 이내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대한 개습공격을 가하여 이스라엘을 분단시켜려는 군사전략이었던 것이다.

(4) 이스라엘의 작전계획

1956년 10월 27일 이스라엘 수상 벤 그리온은 시나이작전의 제안과 계획을 허가하게 되었고, 의회의 외교국방위원회의 동의를 얻게 되자 즉시 예비역 동

원령이 선포되었다. 그 작전계획의 내용은 시나이반도에 있어서의 게릴라작전과 이집트군사기지의 일소와 홍해에서부터 에일란드항까지의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카바만 연안의 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이었다. 군사행동은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인접된 아랍제국이 공동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그들 제국(諸國)에 대한 공격은 계획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지휘관들 중의 압도적 다수는 30대의 청년이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보복공격과 1948년의 독립전쟁에 있어서의 지휘경험을 갖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대규모의 작전부대를 운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랍제국의 지휘관들보다 뛰어났다. 그러한 뜻에서 그들은 정치적인 면에서의 작전지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이집트군에게 부대를 재편성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도록 단단없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그들의 군사목표이기도 했었다. 『우리들의 임무는 될 수 있는대까지 조속한 시간 내에 적의 부대를 붕괴시키고 시나이반도의 완전 점령을 달성하는 일이다. 우리들은 적의 무기와 장비를 포획(捕獲)하는데 노력해야 하지

만 적병력을 대량으로 살해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당시의 총참모장은 공격개시 전야에 그의 일기에도 썼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제1선의 지휘관이나 참모로서는 전투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지휘관과 참모를 배치시켰었다.

(5) 시나이 작전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전쟁은 사실 단시일 내에 끝났다. 이스라엘군이 대결한 적은 이집트의 수개사단 즉 가자지구의 1개사단 및 시나이반도 동북쪽 아라슈지역의 1개사단과 소부대로서 만도내에 분단 배치되었던 사단규모의 병력뿐이었다. 이집트군의 총 병력은 약 3만 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은 9개의 여단이 투입되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단은 미 육군의 여단병력과 같은 것이 아니고 미 육군의 평시의 연대병력과 비슷한 규모의 병력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기습공격에 의해서 이집트군의 전지휘계통은 분단되어 개전 후 일주일도 못가서 군은 해체되고 연료, 식량, 의복 등의 대량의 비축물자와 많은 체코와 소련제 전차, 대포, 차량 및 전자장비를 이스라엘군에게 포획당했다. 이스라엘의 손해는 전사자 200명 이하와 전상자가 수백 정도였었다. 이 작전은 고전적(古典的)인

사막전투로서 전문가의 주목을 끌었다. 그후 이스라엘은 1년간에 걸친 아카바만의 자유항해를 확보하고 아랍인의 폭력행동을 정지시켜 국가로서의 위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는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 공약이라는 구실하에 점령지구로부터 철수를 강요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군의 철수 및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에 대한 국제연합 긴급군의 파견이 분쟁지역의 평온과 평화를 되찾는 실마리가 되지 않는 한 중동에 있어서의 호전성은 결코 지하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두 민족간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시나이작전은 이스라엘군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가 되었다. 작전 임무수행에서는 충분한 성공이 있었지만 시나이작전의 목적이 군사적인 목적에 앞서 정치적인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간혹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배려가 무시되는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조치의 기선(機先)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준비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총참모장도 인정하고 있었던 점이다. 즉, 약간의 예비역을 동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정치적인 배려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 모든 부대

에 충분한 장비가 골고루 배치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차량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공중정찰과 지상순찰이 충분하지 못했었다는 것, 그리고 부대 지휘관의 임명을 서두르다 보니 그들에게는 새로운 임무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 등이었다.

(6) 시나이 작전의 교훈

시나이작전은 이스라엘지도자들의 새로운 이념 중에서 모집한 병사는 근대적 전투상의 제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염려를 깨끗이 해소시켰고 이집트군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우월성을 또 한 번 과시했다. 이집트군의 경우는 그들의 조직상의 약점이 폭로됐고 그 반면에 기동력과 간접적인 접근전략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다. 군편성에 있어서 장갑부대는 보조부대의 역할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구식의 사만형 전차보다는 더 성능이 좋은 전차를 사용해서 독립적인 타격부대가 되게끔 해야만 하고 또 공정부대는 대규모의 독립적(獨立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력기동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중요한 교훈을 받았다.

전략적인 면에서는 영국군의 전통에서 유도자(誘導者) 시스템을 계승해 왔

지만 그것은 복잡한 조희(照會) 수속을 밟았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전위부대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병력을 증강해야 하고 주력군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교훈을 받았었다.

라. 시나이작전 후의 재정비

(1) 편 성

1960년대의 초기까지에는 「간단없는 행동」이라는 원칙에 대처하기 위한 군의 재편성이 있었다. 전 지상군부대를 장거리의 독립행동과 중심(縱深)있는 공격 및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편성과 한정된 전투 및 기습 공격을 위한 전술부대로 재편성했다. 인내, 여단 및 사단급에 기동력있는 임무부대가 편성되는 한편 그 편성상에 부여될 작전임무에 의해서 변하게 될 다른 전략적 침공부대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략가들은 지역적인 진출적 기습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다음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별다른 효과는 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예로써 주둔지의 기습 또는 파괴는 당해지구 지휘관에게는 필요한 것이 될지도 모르나 그러한 전술적인 행동이 즉시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

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는 한 그 효과는 극히 지역적인 것에 한정될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고려할 때, 전략적 기습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이 대응공격을 초래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된다면 그의 중요성은 한정되기 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습의 본질이 혼란을 유발시켜 적 지휘관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 기습행동은 그것을 구상할 당초부터 절정적 성과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것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계획했다 해도 만일 정세가 악화되거나 또는 공격이 약화되었을 경우 공격부대가 지체(遲滯), 또는 혼란이 없이 다른 방법의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계획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상의 신속성은 하급지휘관으로 하여금, 현저한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물 마련해 주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 및 전략적 경향이 사령부 기구에 영향을 주이 전장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마비시킬 수 없는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사령부에 대신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직접 작용하는 그러한 사령부가 임무부대(작전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구와 조직이 개발되었다.

(2) 기술개발과 훈련

1960년대 초기는 신무기를 선진국으로부터 구입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여건과 수요에 맞도록 개조하는, 즉 자기네의 것으로 만드는 시기였다. 1964년에 와서는 시나이작전 이후의 수년간에 걸쳐서 발전시킨 그들 자신의 교리에 입각해서 전면적인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하였고 전군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야전연습이 거듭 실시되었다. 특히 중장갑부대와 항공기를 대규모로 동원하는 입체적인 야전연습도 감행했다. 그리고 예비역에 대한 소집제도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점점을 거듭해 개혁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보복행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각 부대가 아직까지도 기술과 전투정신 면에서 불균형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문제는 정규의 직업군인과 민간인간의 숙련의 차이를 어떻게 해서 균형화시키느냐 하는 데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복행동에 항공기를 어떻게 하면 좀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었고 직접 항공기를 이용한 보복행동도 몇 차례 감행해 보았다.

이스라엘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혁명도상에 있었다. 당시의 이민의 감소는 사회적 안정을 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받은 30대의 참전경험이 있는 예비역들 전부가 조국방위대의 일원이었으므로 대폭적으로 개선 보장된 훈련과 장비의 조적하에서 자신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특히 그 중에는 많은 인원이 기술계 대학에서 전문기술을 연마시키고 있었지만 조국방위에 대한 책임감은 왕성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계 대학생은 그들이 수련한 기술을 졸업 후에 조국방위를 위한 군사전문기술로서 활용하겠다는 사명감이 강한 청년들이었다.

마. 중동전쟁

(1) 새로운 위기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대결을 하기 위한 아랍측의 대대적인 보복준비가 계속되었는데 1960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전쟁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인민 전쟁」이라는 시리아의 구상은 모든 시설과 통신망을 파괴하고 시민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다 철저히, 훈련된 살인단을 투

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랍측의 신문 몇 라디오 등의 매스컴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최선의 수단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의 폭력단의 활동이라고 칭찬하면서 공공연하게 테러행동을 지원하고 나섰다. 특히 신문들은 「지뢰매설과 폭동같은 것은 지난날의 치욕을 설욕하고 점령된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의 일환」이라고 한결같이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시리아의 포병중대에 의한 국경지역의 정착지에 대한 포격은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소규모의 전투가 국제연합군급군에 의해서 경계되고 있는 가자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 국경에 이르는 도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이스라엘인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 행동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수자원을 절단하기 위한 요르단강의 환류(換流)계획도 수립됐다. 1964년 1월 아랍연합대통령 나셀은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요구하는 시리아의 제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아랍수뇌회의를 소집했다. 요르단은 환류계획에 의거한 요르단강의 물을 내륙지방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라이푸라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투쟁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셀은 아랍제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투행위를 개시할 만한 준비가 돼있지 않고, 통일아랍사령부 및 팔레스티나인의 전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아랍제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르단강의 환류공사를 착수했음으로 이스라엘은 1967년 4월에 대대적인 보복행위를 가하여 시리아의 MIG항공기 6대를 격추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중동지역의 긴장은 고조되어 새로운 대립이 절박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의 침공행동이 신속하게 수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67년 5월 시나이반도에 대한 이집트군의 대량집결, 국제연합군급군의 철수요구, 이집트군의 전투준비 완료선언, 티란해협의 폐쇄, 요르단과 이집트간의 군사조약 체결 및 나셀대통령의 복수전쟁주장 등 일련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1956년의 시나이 작전에 있어서 이집트군은 대전차포, 야포 및 대공포를 이용한 잠호 속에서의 정지전(靜止戰)에서는 잘 싸웠으나 호속에서 나와 싸워야 하는 기동전에서는 쓰라린 고배를 마신 바가 있었으나 그러

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江)도, 소택(沼澤)도, 산림도, 그리고 산도 없는 시나이반도에서 그 어떠한 대부대가 그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 해도 그것을 능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가졌다. 결국 그들 아랍측은, 중장갑(重裝甲)된 기계화된 보병부대와 공정대로서 구성되는 고속기동력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는 기동부대에 의해서만이 저지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군사행동의 원칙을 무시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집트군은 거점주변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력 여하가 전투의 결과를 결정하는 기동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스라엘과의 대결에서 전력이 우세한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집트, 시리아 및 요르단이 아랍 3국은 예상했던 것이다. 1967년 5월 공격태세에 있었던 아랍 3국은 1천5백대의 전차 및 1천 3백문의 중포(重砲)와 1천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 장차 맞이하게 될 전쟁은 틀림없이 전사(戰史)상의 최대의 기갑전투로서 시작될 것이라고 짐작되었던 것이다.

(2) 전쟁계획

이스라엘과 대결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에서 기동전 위주의 공격대형의 전열

을 가나דם은 이집트는 그의 군사전략면에서 완전히 방위개념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1965년까지에 시나이반도로 향하는 모든 통로는 엄중한 요새(要塞)로 폐쇄되어 지뢰가 매설되고 3내지 5마일의 종심(縱深)잠호가 구축되었고 그 지역에는 대전차포가 강화되고 장갑차가 배치되는 한편, 전 침입로(侵入路)에 대한 완전한 탄막(彈幕)이 구성될 수 있도록 야포가 설치되었다. 그러한 급격한 사태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 포획한 아랍측의 기밀문서는 아랍 3국은 상세한 작전계획을 이미 작성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이집트의 주력은 예일라트의 남부 네게부들 이스라엘에서 분단함으로써 티란 해협의 폐쇄를 완성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측을 포위하여 점령한다는 것과 그 외의 다른 부대들은 지중해와 서해안 지역간의 가장 협소한 지점에서 이스라엘을 분할한다는 것이었다. 시리아는 두 방향의 돌입 공격 즉 하이화로 향하는 두 개의 루트를 따라 1948년과 49년에 행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고, 요르단에 도착되어 있는 이락의 부대는 이스라엘을 직접 멸망시키는 위험한 작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한 작전 계획에는 역시 1948년의 전쟁 때와 마찬

가지로 누가 더 많은 위협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이 계획에서도 또다시 시리아군이 이스라엘과 대전하는 실질적인 임무를 다른 2개국에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형제국들을 위협한 곳에 이끌어들이려고 노력한 것 같았다. 아랍연합은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의한 위협은 모스크바에 의해서 그들에게 알려진 사실이며, 최대의 모험으로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민족의 입장에서의 비난은 낫셀지휘 하의 계속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몇몇 아랍세국을 전 아랍의 전쟁으로 이끌어 가는 촉진제(促進劑)로서 이용되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것보다 기습에 의한 아랍세계의 통합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낫셀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동남부 국경지대에다 사단을 파견해서 국제연합 긴급군을 축출(逐出)하고 이스라엘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조치로서 티란해협을 폐쇄했다. 그러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러 해 동안 세계의 여론을 등에 업고서 전쟁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선언한 그러한 내용의 행동이었다. 따라

서 이스라엘은 즉시 국가총동원령을 선포해서 맞서는 한편, 외교관을 통한 정치적인 해결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전 전선에 이동하기 시작해서 1967년 6월 5일 이집트에 대한 작전이 개시될 때까지 3개사단의 배치와 완료됐다.

(3) 전쟁개시

전쟁은 이집트 항공기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기습공격에 의해서 시작됐다. 아랍제국의 항공기 약 400대를 개전 90분 이내에 지상에서 파괴시키는 전격적인 전과를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적 항공기에 대한 기습공격이 완료된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지상군에 대한 공격행동으로 들어갔다. 전쟁 개시 4일 이내에 이스라엘 지상군은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에스 운하와 스에스만 연안에 도착함으로써 대부분의 이집트군은 포위를 당했다. 즉 4일 간의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을 파괴하고 제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병력배치와 공격은 만일 어떠한 전선을 일시적이거나 위협하게 노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 화

력 및 기동력을 결정적인 거점이다. 집중시키는 경향의 전법을 이용했었다. 그러한 「면도칼날」같은 예리한 전략은 결정적인 일개소를 절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중공격의 전법이었다. 적이 붕괴될 때까지 최전선을 유지하고 거점의 수비를 후속부대에 위임하고 요새가 기갑력에 의해서 돌파되면 적의 후방을 우회(迂廻)하면서 측면에다 화력을 집중하는 기동전술이었다.

이스라엘의 각계단(梯團)은 72시간분의 연료 및 탄약과 부속품을 수송하는 충분한 고유의 수송력을 갖고 있었다. 만일 부대가 72시간 이상의 전투를 계속하게 된다면 추가보급이 수송기 또는 헬리콥터에 의해서 공수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계단(梯隊)은 많은 예비역으로서 편성되고 있었으며 기동수리부대를 동반하고 있었다.

(4) 전쟁결과와 평가와 교훈

전 주한 미 제8군 사령관과 육군의 기술기능위원회 의장이었던 휴스장군도 직접 중동전쟁이 있었던 전장을 시찰하고 난 다음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보병사단에다 두기 전차부대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이집트군은 전략상의 실책(失策)을 초래했는데 비해서 이스라엘군은 전

차부대를 대부분의 기갑여단에 집결시킴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다. 보병사단에 배치된 전차부대는 보병과 같은 보조로서 보병을 지원하는데 불과하지만 기갑부대로서 단독 편성된 전차부대는 고속과 집중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차는 기동부대의 주력(主力)이 될 수 있었지만 이집트의 전차는 보병을 지원하는 지원화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기갑전과 기동전에서 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여단은 전술부대인 동시에 관리부대였다.

사단은 순수한 몇개 여단의 집합체(集合體)일 뿐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여단은 미 육군의 사단과 필적(匹敵)되고 사단은 군단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구와 현재상의 특징은 『필요에 응한 병력의 분산이 가능한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장군은 평가하고 있다.

중동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최초의 계기는 전격적인 공중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지상군의 대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항공기는 이미 아랍측 항공기의 태반(殆半)을

그들의 기지에서 파괴해 버렸고 지상군의 접촉이 개시될 무렵에는 적에 대한 제공권은 이미 이스라엘 공군의 수중에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중무장된 지상군이라 하더라도 항공기의 대지공격에 무제한으로 노출된 사막전에서는 그 나름의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채 괴멸되고 탄났던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의 우수성은 전격적인 기동에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아랍군의 공격의 기미와 찰나를 포착하고 감행된 선제공격에도 있었다. 군사대결 직전에 적의 항공세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결과는 후속되는 지상군 대결에서 이스라엘군의 결정적인 우세를 과시하도록 기회를 터놓는데 성공했다. 선제공격은 숫적인 열세의 이스라엘 공군이 취해야 할 불가피한 작전이었던지만 그러한 작전을 준비하는데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지휘관 및 조종사를 위시한 전 장병 자자가 맡은 임무를 최대한의 성과를 기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인 사기와 전문적인 기술이 원동력이 되었다.

기갑부대가 후방에서 기동함으로써 적을 파괴할 수 있다고 가정 한 이집트군의 전술 및 전략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대담한 공격과 장거리 사격의 우수성에 의해서 승리했

다. 보통 이스라엘의 사수는 두발 또는 그 이하의 사격으로서 이집트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갑부대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온 이집트의 전차는 거의가 파괴를 당했다. 그와 반대로 이집트의 보병은 기갑부대의 배후에 집결해 있었지만 사정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전차에 대한 사격은 부정확(不正確)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포병중대도 때때로는 예집트의 장갑차량을 파괴했다. 우회(迂廻)할 기회가 있으면 기갑부대는 전차와 포병의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깊숙이 침공했다. 그때 보병은 '잠호공격으로 돌아갔고 만일 쌍방의 협조가 여의(如意)치 못하면 보병이 우회해서 지뢰원(地雷源)을 파괴하여 전차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작전에 대해서 군사평론가들은 『이스라엘 기갑부대의 장군들은 처음부터 기갑출신의 장군이 아니었으니 그러한 유연성으로 보아 그들은 전장의 움직임에 적응하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장군들』이라고 칭찬했다.

어떠한 작전이고 사전에 계획이 수립됐고 모든 작전은 대개 그 계획대로 실시되었다. 특히 고랴고지작전의 성공은 계획의 우수성에 있었다. 가리레아 평원은 내려다보는 요새화된 구릉(丘陵)

지대에 시리아는 약 40마일이나 되는 긴 잠호를 구축해 놓고 바로 밑에 내려다보이는 평원에 대해서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방위선에는 독자적인 지뢰원과 유자철선(有刺鐵線)이 깔려 있었고 콩크리트로 된 포좌(砲座)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6만 5천의 병력과 350대의 전차, 300문 가까운 대포, 박격포, 로켓포 및 자주포(自走砲)를 그곳에 배치하였다. 이와 대결하게 되는 이스라엘군은 그렇게까지 견고하게 증무장된 요새를 공격하는 부대로서는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러한 이스라엘군은 전차와 장갑차로서 이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1회의 집중공격에서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의 방위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리아군의 증원부대를 부찌르고 시리아 방위군의 배후에서 선형(扁型)으로 산개(散開)해서 측면으로부터 그들을 포위했다. 이스라엘군의 전차는 지뢰원을 파괴하고 잠호에 접근해서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이때 지휘관은 수신호(手信號)로서 전차를 지휘할 정도로 용감했었다. 이스라엘군은 115명의 전사자와 322명의 부상자를 내는 27시간의 공격 끝에 이 고란의 고지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군사계획의 우수성만으로서 승리한 것이 아

니라 인간정신의 우월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군사평론가는 말하고 있다.

중앙부의 전선에서도 270대의 전차와 포병에게 지원을 받고 있던 약 5만명의 아랍방위군의 주력은 개전 3일 이내에 붕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시나이반도에 있어서의 전투와는 달리 아랍군은 도시의 전투에서 우세했지만 그곳의 주민들이 시리아의 하시미예 정권을 옹호하는데에 킁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따라서 이 전투의 결과는 「주민의 행동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생존을 건 전쟁에 있어서 그 나라의 국민과 군은 일체여야 한다. 그러나 아랍서해안 지역의 전투에 있어서 아랍군은 그들 자신들의 국민 속에서 붕괴를 당하고 말았다.

그들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아무도 동족의 패자에게 구원의 손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목적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의 그들 지도자의 말대로 이스라엘군이 아랍군에게 분쇄(粉碎) 당하고 있을 거라고만 믿고 있었던 것이다.

바. 중동전쟁이 제기한 제 문제점

(1) 군의 편성상의 문제점

6일간의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스라엘측으로 보아 새로운 전선(군사대치선)인 정전선(停戰線)의 출현은 이스라엘군의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1967년의 6일전쟁에서는 최대의 전술집단은 사단이였다. 사단은 상황에 의해서 몇 개의 여단으로서 편성되었다. 그것은 일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임무부대였지만, 그 후에는 해편(解編)되었는데 그 이유는 몇 개의 사단은 예비역으로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6일전쟁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스라엘군에서는 여단이 고유의 지원부대를 갖는 관리 및 전술부대로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과거에 있어서의 전쟁의 양상과 시나이 반도에 있어서의 당시의 적 병력의 규모 및 편성 그리고 독립전쟁 중 대규모의 병력을 움직인 지휘관의 경험 등에 의해서 그러한 여단의 편성이 정당화되어 몇 해 후에 종전의 여단본부에는 지원부대와 병참부대가 각각 예속되었었다. 그리고 민일 기갑부대와 같은 다른 작전부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여단이 증편 내지 증원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군의 기갑부대가 편성되기 시작했는데 기동력과 동원속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여단 이상의 그 어떠한 편성도 고려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집트군에서는 기갑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했었다. 그것은 결정적인 거점에 다 병력, 화력 및 기갑력의 집중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의 원칙적(인력, 화력, 기갑력)인 전초적 축선(軸線)은 역시 여단이었다. 그러나 6일전쟁시의 이스라엘의 경우 그러한 전초적 축선인 여단을 사단이 감당했었다. 따라서 그러한 이집트군과 대치하기 위해서 시나이반도에 있는 이스라엘군을 항구적인 사단 기구로서, 그리고 전 기갑부대의 집중적 지휘를 위해서, 단일사령부 기구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단과 사단의 임무부대와 시나이반도에 있는 전 기갑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시나이 최고사령부를 편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1967년 전쟁의 결과에 의한 다른 중요한 개편은 공정과 보병의 통합부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한 개편에 의해서 경험하고 있었던 전술운동상의 상이

점이 사실상 해소된 셈이 되었다. 6일전쟁에 있어서 공정과 보병은 기계화부대의 일부로서 작전을 했고, 특히 요새지대에 투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한 작전을 수행할 때마다 공정부대와 보병부대의 기능상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공정부대는 공수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 개별적인 본부를 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한 실제적인 작전상의 경험에 입각해서 공정부대 사령관에게 보병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부여했다. 그렇게 됨으로써 보병도 공정대원이 되어 공정부대 전체가 공격 가능한 타격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전쟁은 군 운용의 면에서 혁명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지만 군사전술면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었다. 당시의 이스라엘 참모장 라빈장군은 『전쟁에 의해서 도출된 교훈은 교육과 훈련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군사면에 있어서는 다만 「강력한 기갑부대의 집중의 원칙」만을 확인했고, 고란 고지와 주다 및 사마리아의 산악지대의 점령은 기갑부대의 힘과 운용에 있어서 「인간과 기계와의 밀접한 협력」은 예상되는 것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몇 가지의 기본원칙의 실효를 재인식

했을 뿐이다.

(2) 군의 정예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군은 전문화되고 군이 전문화 될수록 「장교의 기능개발과 지휘 및 관리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는, 즉 정예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쟁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군의 전문기술자의 소요증가와 그것의 절대적인 요구는 군과 민간인의 직종간의 구별을 희미하게 했다는 사실이었다. 기계수리공, 공병, 기계조작병, 병참관리자 등 많은 전문가 및 기술자가 군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그들의 전문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민간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었다. 결국 기능적인 사회조직의 성격이 군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사회의 조직적 능력에다 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와 군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들 군의 편성과 운용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진실을 터득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한 인원과 물자의 대량배치에는 고도의 조직적인 능력이 요구됨으로 기능적인 조직의 면에서 정도가 낮은 사회는 인원과 물자를 집적(集積)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체험할 수 있었다.

(3) 전쟁기술과 인간의 정신

6일전쟁은 군사 과학분야에 흥미있는 과제를 던져준 셈이 되었다. 그것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투입할 경우의 한계효용 이론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군사행동은 「인간」의 사상(死傷)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문제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투입을 하는 것」이었다. 만일 과소의 투입으로서의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면 그와 반대로 과다한 투입도 그 투입 자체가 너무나 고가(高價)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직한 성과는 못된다는 것이다. 즉 군사행동에 있어서의 투입의 가치와 달성되는 성과의 가치를 어떻게 해서 일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추가적 노력의 효용을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적인 문제로서 양적인 열세를 질적인 우세로서 보완한다는 이스라엘 공군의 작전준비가 하나의 좋은 실례였다. 아랍에 있어서는 전쟁에서의 패배가 당시의 순간적인 우열만의 결과가 아니라 과오의 급격한 누적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초 단계에 있어서의 대량의 병력투입은 다음 단계에 있어서 많은 생명의 희

생을 구하는 결과가 되든가 또는 비교적 적은 사상자로서 전쟁을 종결시킬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거의 살아남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무를 수행한다든가 또는 용기가 바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인간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을 수행하려고 인간을 투입하는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화력과 파괴력을 대폭 증가시키게 됨으로 그것을 주로 사용하는 인간의 용기는 점점 가치와 중요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문 6일전쟁은 부인하기도 했다. 그것은 때때로 근접전투에 있어서 좋은 동기와 정신을 갖는 인간을 필요로 했고 강력한 파괴력을 갖는 기계화전부는 먼 사정거리에서 인간을 사살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갑전투는 보병의 공격 이상의 기능과 정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용기가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진차부대의 한 중군기자는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왕성한 부하의 전투에 정통한 용감한 지휘관의 우수성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개인적인 대열에서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사격장치가 완벽한 한 전차물 움직이지

않는다고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병사는 승무원이 쓰러진 전차에 올라타 적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파괴되지 않은 전차에서의 사격도 탄약이 폭발되어 전차가 파괴될 때까지 계속했다. 그러나 아랍측의 전차승무원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으레 전차를 버렸다. 인간과 기계의 싸움이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간의 전투에서 더욱, 더 명확한 사실로 나타났다. 만일 공포라는 것이 재래의 전투에 있어서의 이완된 감정이라면 시나이에서의 전투결과는 고도로 진분화된 기술의 싸움의 결과가 「파괴」라고 하는 과정으로서 집약되었다. 일반적으로 아랍의 병사들은 기관총탄에 얻어맞은 동료병사를 차마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한 곳에서는 그 어떠한 교과서적 원칙과 원리도 소용이 없었다. 만일 과잉장비의 논리가 팔레스티나의 전술 및 전략가들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계기술을 외견적인 과정이 아니라 작전을 성공시킨다는 높은 수준으로서의 내부적인 동기의 부여로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4) 전쟁지도상의 문제

6일전쟁은 아랍제국과 이스라엘간의

정체(政體), 국가적 가치관, 사회구성 및 국민심리 등에 있어서의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1948년의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군사대결은 비교적 장기간의 전쟁이었으므로 이스라엘측에서는 사상자가 많았다. 전투행위에서 4천 5백 5십 명이 죽고 그 외에도 1천 5백명의 시민이 생명을 잃었다. 그렇지만 폭력에 의한 희생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1주일간에 가까운 1956년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상자는 적었지만 이집트는 그것의 30배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다수의 사상자, 수만의 포로, 이스라엘 영토의 3배에 해당하는 영토 등을 잃었다. 그리고 전쟁물자의 손실도 컸다. 1967년의 전쟁은 기간이 더욱 더 단축됐다. 이집트측으로는 4일간, 요르단측으로는 3일간 그리고 시리아측으로는 27시간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아랍측은 이스라엘 영토의 4배반의 영토를 잃었고 전쟁물자의 손실은 25억불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었다. 사상자의 비는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에 대해서 아랍측은 수십명이 넘었다. 그러한 정도로 1967년의 6일전쟁은 치열했고 파괴도 컸다.

아랍측의 패전락은 진(全) 전선에 있어서 이스라엘인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

심을 대내적으로 유발시키는데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집트, 시리아 및 요르단의 군사동맹이 1956년의 시나이작전과 1967년 6일전쟁의 바로 직전에 조인된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제2, 제3의 그 어떠한 전선을 설치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만일의 경우 포위전쟁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후방에서의 공격은 전투 그 자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 반드시 기습공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제2전선은 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측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다 어느 정도의 전선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 측이었기 때문이다. 아랍은 그들의 공격적 정신도 활용하지 못했다. 그들 아랍 3국은 적대행위를 개시했지만 전선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었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 싸우느냐 하는 것은 아랍의 통합군사령부가 아니라 이스라엘군의 사령부였다.

요르단전선에서는 이스라엘공군이 이집트공군을 멸망시키고 이집트의 시나이

파견군을 격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때 이집트 국경지대로부터 예루살렘에 1개 공수연대가 배치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시리아군은 요르단군이 붕괴되어 요르단강저쪽으로 후퇴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요르단군이 붕괴한 다음 시리아군은 고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서해안의 북부지방으로부터 이동시킨 이스라엘군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셋째로 「다정면전략(多正面戰略)」은 각 전선을 담당하는 작군간의 목적과 노력이 완전한 합치와 통일 이루어 질 때 성공된다고 한다. 요르단 왕 훗세인의 일기에 의하면 그는 「사우디아랍인에게 실망을 당했고 시리아인에게는 잘못 인도되었고, 이집트인에게는 속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의도를 잘 모르는 제2전선의 설치를 반대했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이집트군 내부의 진실한 상태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았다면 좀더 분별있는 행동을 취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세번이나 되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개발한 군사교범의 원칙적인 교리는 아랍측의 수적 및 양적인 우세와 병사의 사기면의 열세를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아랍

족이 패배한 주요 이유는 그들의 전략 및 전술이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에 비해서 열등한 것과 당시의 아랍군 병사의 기본적 자질면의 결함에 있었다. 그들의 방위임무는 외형적인 전술적 체제면에서는 잘 조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장비와 기동력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전진하든가 기동하는 일을 피했다.

(5) 전쟁목적수립상의 문제

적을 무장해제하는 일은 고등스러운 전투에 의해서 적을 파괴하는 일보다 훨씬 용이하다. 병력, 탄약, 장비 및 자원에 있어서의 아랍족의 명목상의 힘은 이스라엘의 그것보다 훨씬 우세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전력의 요소는 내부의 조직상태, 관리능률, 사기 및 자원의 보충 여하에 달려 있다. 특히 인간집단에 대한 지휘 및 관리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압력은 내부적인 저항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음으로 각 개인의 심리적 및 육체적 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체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휘 및 관리가 보다 더 유효하다는 기반 위에서 군의 체제를 관리능률의 향상과 사기의 진작을 기할 수 있도록 개혁해서 열세를 보완하는데 진력했다. 아랍과의 전쟁의 목적은 적인 아랍

족을 항복시키는데 있었다. 저항하는 아랍족의 의지를 분쇄해서 마비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足)했다. 그리고 적의 군사적 중추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그것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관점에서 「적의 군사적 중추기능의 마비」에다 전쟁의 목적을 두었고 또 그것이 성공했다.

아랍제국에 대해서 취한 기동전술과 기계화전투는 민족의 자량으로서의 국민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심리상태에 의거한 작전이었기에 그러한 전격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고도로 조직화된 총체적 능력이라는 경험에 의해서 훈련된 인간들, 그리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 황무지에다 스스로의 경제적 빈곤과 운영공공체로서의 사회를 건설해 온 인간들이었기에 그들은 전장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습을 제대로 쉬는 대담한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히 상급지휘관들은 전략적으로 적의 영토에 대해서 깊숙이 침공해 들어가는 위협에 대해서 염여를 하고 있었다. 사실 그것은 전략상의 위험한 것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

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1948년부터 49년까지의 독립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당시의 이שראל군 참모장 야린장군(현 고고학 교수)은 리덴 하트를 인용하면서 『전투의 운명이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있어서까지도 전략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같은 전쟁의 원칙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크라우제비스의 유명한 「이는 승리의 자랑」이라는 말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적 즉 「첫째는 적의 통신망을 절단하여 적의 증강을 마비시킬 것, 둘째는 적의 후퇴로(後退路)를 차단하고 적의 의지를 좌절시켜 사기를 저하시킬 것, 셋째는 적의 지휘 및 관리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통신을 혼란시켜 적의 두뇌와 수족을 분리시킬 것」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집트군이 이שראל에 침공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이שראל군은 병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대로 전선상에서의 전투를 피했다. 그 목적은 병참선을 끊고 퇴로를 막은 다음 지휘 및 관리 중심부를 공격함으로써 적의 배치론 혼란케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שראל군 전략의 기본적인 교리는 시나이작전과 6일전쟁을 통해서 명백해졌다. 이שראל부대의 임무는 될 수 있는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적의 부대를 붕괴시키고

시나이반도의 지배권을 장악한 다음 병력을 최대한으로 살상하는 것보다는 이집트군의 병기와 장비를 포획하는데 있었다. 병력(인원)은 이집트의 전쟁지도자 뿐만 아니라 아랍동맹국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작전목적은 최대한의 속도를 가지고 적 영토에 깊숙이 침입해서 강력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좌절시키는 일이었다. 작전은 첫째 반 이שראל국가에 의한 정치적 압력을 미리 막아버리고, 둘째는 작전적 이유에서 전투를 최대한 시간 내에 종결시켜야만 했다. 이שראל의 경우 침공의 속도는 군의 운용 및 전술적 편성에 있어서의 이집트군에 대한 기본적인 우위를 전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휘할 수 있었다. 이집트의 경우는 그 작전이 지나칠 정도로 도식적(圖式的)이었고 사령부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 위치하고 있어 새로운 방위선의 구축, 공격목표의 변경, 계획되지 않은 부대의 이동과 같은 부대배치의 전환 등은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다음 그것에 대한 결심을 내려 전선부대까지 전달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비됐다. 그러나 이שראל에서는 독립부대에다 그의 작전

에 관한 기반을 두고 있었고 지휘관 자신도 전투원과 함께 전선에 있는 그러한 운용 및 편성상의 우위를 활용해서 최초의 돌파작전이 개시되면 이집트군이 전선을 바꾸기 전에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 후 혹은 전투 중에 있어서 적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러한 방법의 작전을 진행시켰다. 그것은 각기의 독립부대가 그들이 달성시켜야 할 군사목표에 따라서 편성되었기 때문이었다.

6일전쟁에 있어서의 이스라엘군의 대전략은 완전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한다. 즉 면도칼날 같은 예리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전략의 주요 목적은 장애를 무시하고 대량적인 기습 공격에 의해서 적의 영토를 깊숙하게 분단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떠한 희생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음으로써 성공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중동전쟁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군사전략이란 「민족적 경험의 기본적인 특징」에서 생겨난다는 것과 그것을 무시하는 그 어떠한 전략도 참화(慘禍)를 입는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사. 이스라엘의 이상과 노력

영국군 및 불란서군의 아랍으로부터의 철수 이래의 동향을 본다면 아랍제국의 정치는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 뿐만이 아니라 특히 군주국을 포함한 기타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부정되어 온 그러한 길을 밟아왔다. 빈곤에 대한 반성과 경제사회건설을 위한 아랍 대중의 동맹을 제 1차적 과제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지도자들은 다수의 대중을 무시하고 소수의 형제만을 구하는 길을 택했다. 팔레스티나의 일부들 상설 당한 것은 그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이다. 아랍혁명이라는 슬로건을 절규하는 대신에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인간사회의 질서에도 깊이 뿌리를 박는 근대적인 정부제도의 수립을 기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저 구실로서 군사능력의 필요를 내세워 시민생활을 극도로 제한시켜 왔을 뿐이다. 따라서 아랍은 그들 자신의 비전(Vision)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절망을 스스로가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국경을 넘어서 바로 저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속의 협소한 지역에도 현대적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의 비전의 결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협소한 사회는 「인간을 위한 계획」에 진념해 왔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전에 없었던 그들의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시오니스트의 모험에의 참가는 유대인의 국가를 재건하는데에 참가한다는 과업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다면 그것이 군사적 승리의 크나큰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시오니스트운동은 조국재건과 국가생존에 대한 강렬한 요구에다 기반을 둔 기존사회질서의 혁신과 전통적 가치관의 재평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도전으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것을 적대시하는 주변의 민족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불리한 국제정세에 관심이 없는 유대인 동족들도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이 살던 팔레스티나에다 주권국가를 창설하겠다고 요구하는 유대인 이주자들이 주축이 되어 그들의 자위를 위한 강력한 부대가 편성됐던 것이다.

국가재건이란 과업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성공한 일이 없는 위협한 모험이었지만 산업을 일으키고 토지를 개척하는 데에다 집중적인 노력과 비합법적인 이민의 조직으로서 1백만이 넘는 난민을 통합하여 육체적, 경제적 및 사회

적으로 그들을 흡수하는 관용에도 힘을 썼다. 그러한 노력과 관용은 그들에게 토지의 소유의무에 대한 자신을 주었고 그리고 역경에서 국가건설의 교두보(橋頭堡)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그들에게는 그것을 수호하는 일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다 국가를 재건한다는 3대에 걸친 생명을 전 노력의 배경을 보면 군의 창설은 하나의 극적인 과업이었을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응당 있어야 할 필연적이고도 항구적인 중요한 과업이었을 것이다.

이상을 현실과 바꾸는데 성공한 국가는 이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현실적인 「생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많은 나라보다 특이한 면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에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및 군사적, 나아가서는 국가생존에 대한 위기에 당면했었다. 만일 그러한 위기에 대처하는데에서 실패를 했다면 패배와 멸망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에 대처하는데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그것을 수호하는 방위군의 창설과 증강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 헌법개정안 해설 □

= 그 특성과 내용 =

<한국헌법연구회>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과 통일주체국민회의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극시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 개혁과 아울러 우리 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우리의 국민적 염원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로 국가기구의 정상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이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의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3장 35조). 셋째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43조 3항, 46조).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정권력은 물론, 국가적 그리고 국민적 대표권한까지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되어질 때에는 정당화 되어진다.

[2] 통일주체국민회의

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개념

새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국가기구의 정상에 설치하고 있다(헌법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민선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36조 1항),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受任)기관이다(35조).

특히 여기에 주의할 점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평화통일을 지향한 국민적 염원을 집약한 온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며, 이러한 이유로 새 헌법의 체제에 있어서도 국가기구의 가장 앞장인 제3장에 편성하고 있다. 이는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모든 국가기구의 정상에 있음을 규명한다.

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헌법상의 지위

1) 통일정책의 심의 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중대한 통일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그 심의를 요구한다(38조 1항).

이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결정한 통일정책은 국민 주권에 의한 최종 결정으로 보며 존중되어진다(38조 2항).

따라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이라 하겠다.

특히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헌법상의 지위는 국가기구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2) 수임기관으로서의 지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며(39조),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

성되는 민선(民選)기관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선출방법은 민주적 원칙에 일치된다.

3) 헌법개정안의 확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41조, 124조 2항).

2.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주권의 행사

[1] 헌법에 규정된 내용

새 헌법은 광범위하게 국민투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채택시키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2항의 주권조항에 주권의 행사방법을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동조 동항 후단)고 규정함으로써 대표민주제와 직접민주제를 병행시키고 있다.

동 국민주권 행사의 기본원칙을 뒷받침하여, 헌법 49조에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하여 국민투표에의 발의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이에 대한 국민표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의 절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국민표결에 의해서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124조 2항 전단).

[2] 이론적 근거

위와 같은 직접민주제의 도입근거는 첫째로 국민주권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코자 하는데 있으며, 둘째로 시대착오적 국가기능의 마비와 분산, 그리고 국민의사의 분열의 요인이 되는 맹목적 서구 모방의 「고도의 정당국가제」 및 과도한 권력분립에 입각한 국가권력의 분산을 지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이를 위한 국력부흥에의 국가 권력구조의 체질개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세계로 정부와 의회의 과격한 대립에서 오는 헌정질서의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정자로서의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발의하여 국민이 직접으로 심판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의 흠을 보완케 된다. 네째로 대통령은 그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새 헌법의 특성인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향상에 기여된다.

이러한 유예는 선진국가의 여러 헌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 헌법 헌법 제3조 1항, 제11조, 제89조의 규정과 그 헌법운영은 매우 흡사하다.

3.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강화

[1] 새 헌법에서의 특성과 내용

대통령은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원수로서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을 겸한다(43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47조).

특히 개정헌법의 이념자인 박 정희 대통령은 강력하고 효율적 정부체제를 원하였다. 그 기본요인을 구성, 정통성, 그리고 책임성에서 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그 특성이라 하겠다.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적 지도의 최고책임자이다. 새 헌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국가적 지도의 최고책임자의 지위를 특성지우는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하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다(43조 2항)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의 조정적 기능의 중립적 권한을 행사함과 아울러 국가의 운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적 권력」을 행사한다.

새 헌법에 있어서 ①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것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49조), ② 대통령의 국회해산권(59조), ③ 대통령의 긴급조치권(53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특히 뚜렷하게 구현되고 있는 것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국

가져 지도의 최고책임자의 지위는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헌법상의 영도자의 개념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새 헌법은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상의 영도자의 지위를 뒷받침함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43조 3항).

이러한 사실은 구 헌법에 있어서 서구의 정당제도와 의회제도를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온 것을 지양하고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킨다는 견지에서, 새 헌법에서는 의회의 체질을 개혁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의회주의의 토착적 합리화라는 취지에서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입후보 정당공천제의 폐지 등), 국회권한의 합리화, 즉 국회의 회기단축(82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의 제한(96조), 국민감사권 행사의 제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비례대표제 폐지 방향에 따른 대통령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추천(40조 2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바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강화는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권력의 인격화」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현대적 적응은 새 헌법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다.

특히, 국가기능의 효율화와 국민총화주의는 우리들의 과제, 즉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급전하는 국제정세에의 적응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가기구의 제도적 개혁이 화급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를 국가권력적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국가의 정치권력」과 「국가의 행정권력」으로 나눌 수 있다.

[2] 세계적인 추세와 프랑스 현행헌법의 예

오늘날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체제의 경향은 신생민주국가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서구의 선진민주국가에 있어서도 공통적 경향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신생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비교 의미는 생략하고, 서구의 선진민주국가의 예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신생국가에 있어서의 너무나 당연한 사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58년도의 프랑스 조국의 번영과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그해 10월 5일에

제5공화국헌법, 즉 이른바 「드골」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의 특색은 합리화된 의회주의와 절대주의적 대통령제이다. 이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부위에 위치하는 국가의 원수로서, 조정자의 지위와 아울러 영도자의 지위에 있다.

즉, 국가정책과 공권력의 조직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프랑스 헌법 11조),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동헌법 12조), 긴급사태에 임하여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고(동헌법 16조), 대통령의 사명은 헌법준수의 감시, 공권력의 정상적 기능과 국가의 계속성을 확보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의 보장자이다(동헌법 5조).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선 또는 간선되어 진다. 특히 1958년 12월 21일의 대통령선거는 지역별로 선출된 대의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둘째로, 대통령은 행정의 실질적인 수반의 지위에 있다. 즉, 첫째로, 대통령은 수상 및 각료를 임명하며, 수상임명에 있어서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동헌법 8조). 둘째, 대통령은 각의를 주재한다. 셋째로,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은 대통령을 제외한 수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동헌법 50조). 넷째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수상 또는 각료의 부서는 수상임명, 국민투표에의 부의(附議), 국회의 해산, 비상대권의 발동, 의회에 대한 교서 등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동헌법 19조).

다음에 의회의 지위는 프랑스의 헌 사정에 적합시킨다. 즉, 합리화시킨다는 이유에서 극도로 약화시켰다. 즉, 앞서 지적한 대통령에 의한 국회해산 외에, 첫째로, 의회입법의 전관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의회 고유의 입법권한을 결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동헌법 34조), 그리고 의회입법의 전관사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명령에 의한 규제로 위임시키고 있으며(동헌법 37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의회입법의 전관사항에 관한 것도 전권위임을 국민의회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동헌법 38조). 둘째로, 회기의 단축(동헌법 28조)과 의회의 자율적 집회권에 가해진 제한(동헌법 29조, 30조) 등이다. 수상 또는 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없으면 임시회는 소집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가져

야 하며, 회기는 12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세째로, 동헌법은 의사규칙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것을 헌법적규범으로 저지하고 있다. 즉, 의사규칙은 헌법평의회에 의해서 그 합헌성이 심사되어야 한다(동헌법 61조). 양원의 상임위원회의 수는 6개로 제한되어 있다(동헌법 43조 2항). 사전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되지 않는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정부의 제안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동헌법 44조 2항). 각 회의의 의사일정은 정부 제출법안 및 정부의 동의를 얻은 의원제출법안만을 취급하여도 좋다(동헌법 48조 1항). 의회의 대정부질문은 각 주의 회의에 있어서 1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유보된다(동헌법 48조 2항). 따라서 의회의 대정부질문권은 사실상 이 규정에 의해서 알맹이를 잃게 되었다.

네째로, 국회의 재정특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동헌법 40조), 예산안이 국민의회에 제출된 후 75일 이내에 의회(양원)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최종적 의견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명령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동헌법 47조).

위의 열거 설명한 것은 현행 프랑스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시이다. 2세기 이상 의회주의의 전통을 가지며, 국민주권주의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랑스 국민들은 당면한 프랑스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영광의 국가회복」을 위하여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절대주의적 대통령제를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였고, 또 이를 제기하여 지금의 「영광의 프랑스」로 회복되어진 것이다.

여기에 현행 프랑스 대통령의 지위는 이번에 개정된 우리 헌법안에 비할 때, 월등히 더 강력하고 효율적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은 헛사리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새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강화는 세계의 추세이며 공통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4.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1)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대 입헌국가 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로시타(Rossiter)」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의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서 「위기정부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국가 긴급권제는 이제 입헌국가 헌법의 승인단계를 지나서 헌법의 융합단계에 이르렀다. 법치주의원칙에 입각한 평시헌법과 위기정부를 전제한 비상헌법은 대립·적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인·융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새 헌법은 제53조에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모형(母型)은 1958년 10월 5일의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 제16조에서 찾아진다.

이 긴급조치권은 드골장군의 설계에 의해서 헌법에 규범화되었다. 드골장군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설정동기로서, 첫째 1940년 6월의 프랑스 국민이 직접 체험한 국가 위기상태에 대한 대비, 둘째로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2,3개의 폭탄이면 전국의 제도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 셋째로 국가위기에 즈음하여 국가원수가 국민주권을 대표하는 문제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1940년 6월에 헌법의 무기력 속에 갇히어 국가를 잃었다고 말한 알베르 르브렁(Albert Lebrun)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제5공화국헌법의 실질적인 기초자라고 불리우는 「미셸 드브레」(Michel Debré, 현국방상)의 1958년 8월 27일에 상원에서 밝힌 연설문이라 하겠다. 즉 「이 조문(긴급 조치권의 규정)은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여 공권력의 정상적인 운영이 중단될 경우, 국가의 정통성과 권위를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정상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정치적 기술적 이유로 해서 날로 증가하는 공권력 운영의 급작스

러운 중단 위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라는 이유 설명이다.

위와 같은 프랑스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의 국가긴급 조치권의 설정의 근거를 우리나라의 당면한 현실에서 비교해 볼 때,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현실이 프랑스의 현실보다도 더 절박함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 헌법은 이러한 충분한 근거에서 253조에 대통령의 국가긴급조치권을 설정한 것이다.

[2]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성격

오늘날의 위기사태는 전통적 국가긴급권에서 찾을 수 있는 사후대책적 성격을 완전히 변모시키고 있다. 즉,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긴급상태는 예측없이 절박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사후대책적 긴급권 발동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이 결실히 필요한 것이다. 헌법 제53조 1항의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라는 규정이 바로 그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을 의미한다.

다음에 동조에서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동헌법 제43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동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는 「국가적 권한」이다. 따라서 이 「국가적 권한」은 국회 및 정부가 행사하는 「민주적 권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오히려 우위에 서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국가 존속이라는 입장에 설 때, 「국가적 권한」이 「민주적 권한」행사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53조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전통적 긴급권 개념과는 전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긴급권 개념에서는 비상권의 행사자일지라도 전통적인 긴급권론의 테두리 안에서는 자율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였으며, 항상 의회의 사전적 혹은 후사적인 통제를 받음으로써 입법부에 대한 하위통치기관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제53조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원칙적으로는 긴급권 이론의 전통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헌법상의 규정

가. 긴급조치권 발동의 요건

대통령은 ①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③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따라서 발동에 있어서의 제약은 받지 않는다.

나. 긴급조치권의 내용과 효과

앞서 열거한 긴급조치 발동의 요건을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53조 1항).

긴급조치의 일반적 존재형식은 비상명령, 긴급명령, 비상조치와 긴급조치로 이루어 진다.

여기에 비상명령과 비상조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며 긴급명령과 긴급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그 효과에 있어서도 전자의 경우에는 헌법적 효과가 이루어 지며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적 효과가 따르게 된다.

특히 후자의 긴급명령과 긴급조치는 구 헌법에 있어서의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긴급재정처분(구헌법 73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자의 비상명령과 비상조치 개념은 새 헌법에서 비로소 설정된 긴급조치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동조 2항).

다. 긴급조치의 기간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동조 5항). 그런데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되었는지의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에 맡긴 통치행위로서 여하한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4) 긴급조치권 행사의 통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있다. 개정헌법은 정치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있다.

개정헌법은 정치적 통제로서 다음의 것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발동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동조 3항). ②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동조 6항). 여기에 있어서 국회의 해제 건의권은 법적 구속은 받지 않으나 정치적 구속은 받게 된다.

이 점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16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사후요구나 건의권이 전혀 없다.

다음에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규정으로 배제하고 있다(동조 4항).

이는 프랑스를 위시한 서구제국에 있어서의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라 하겠다.

5.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1) 새 헌법의 규정 내용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적 총화의 배려에서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후보요건에 있어서는 정당의 공천을 요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의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적 수입기관으로서의 그 전체적 성격을 보장하고 있다(37조 3항).

그실 구 헌법에 있어서는 서구적 「고도의 정당국가」제도를 명목적으로 실정헌법(實定憲法)의 형식으로 도입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가기능의 의식적 마비와 낭비, 그리고 비효율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식의 분열마저 가져오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당은 그의 본질과 조직에서 언제나 동적이며 사실적 관계

에 있기 때문에 정태적(靜態的) 규범의 테두리에 잡아맨다는 것은 구 헌법이 법한 의욕적 과오이었던 것이다.

[2] 이론적 근거

정당제도는 그 제도의 고향인 서구에 있어서도 오늘에 와서는 많은 비판과 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즉, 첫째로 국민이익의 미분화로 인하여 정당은 국민이익을 대변할 수 없게 되었고 둘째로 정당 자체의 경직성 때문에 시대착오적 유물로 전락되어 가서 마침내 현대국가가 요청하는 국가기능의 효율화에 역행되며 특히 후진 국가 고유의 2중구조의 타파는 불가능하게 이른다.

셋째로 근시적 이익을 둘러싼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인하여 국가이익 및 국민이익에 배타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란 정당 고유의 목적에 역행하는 의식적인 국민의식의 분열을 초래케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 예외가 아니며, 더우기 서구적 정당정치 운영의 미숙과 이에 따른 착오는 앞서 지적한 결함을 가일층케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새 헌법은 정당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경향임을 재확인하여 정당의 특혜적 보장조항을 엄연히 존치시키고 있다(7조).

6.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1]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결의권

개정헌법은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헌법 59조 1항) 동시에 국회는 또한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해임 의결한다(헌법 97조 1항).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

다(동조 3항).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헌법 59조 1항) 동시에 국회는 또한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해임 의결한다(헌법 97조 1항).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동조 3항).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헌법 63조 1항).

이와 같은 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다분히 도입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헌법은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독립시키고 있는 동시에, 단지 부차원인 「국가의 행정권력」의 주체를 입법부와 균등히 함으로써 의회기능과 행정부기능의 합리적인 융합을 찾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의회제 정부 형태에서의 정부와 입법부의 정치권력의 통과과정에서 오는 막강한 정부기능을 바라는데서 찾을 수 있으며, 아울러 책임행정의 장점을 살리는 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2)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발언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96조 1항.)

(3)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답변요구권

국회나 그 위원회는 원의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96조 2항). 이는 이때까지의 의회관례가 국무위원의 출석요구권을 너무나 남용 해온데 대한 견제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헌법 특히 프랑스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감사원

감사원의 직무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며,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기관으로 설치된다.

감사원에 관한 헌법 규정은 사실상 개정된 바 없다.

다만, 구 헌법에 있어서의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외국에서도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국회의 정기감사, 행정기관의 감찰권과 같은 것으로 착각되고 왜곡되어 행사되었다.

그러나 개정헌법에서는 이러한 국회의 정기감사권이 배제되고 본래의 의미의 입법, 예산안의 심의 자료 수집과 청문(聽問)을 통한 국정조사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감사원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직무의 책임이 더욱 뚜렷하게 되었다.

8. 법 원

새 헌법은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게 하고 있으며(헌법 100조 1항), 법관의 직권적 독립규정을 헌법 102조에, 법관의 신분보장규정을 동법 104조에, 그리고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동법 106조에서 보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만, 구 헌법에서의 법관추천회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케 하고 있으며(103조 1항), 그 외 법관도 모두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2항).

구 헌법에서는 대법원판사와 대법원장인 법관만을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새 헌법에서는 하급법원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새 헌법에서의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조정자적 지위에서 온 것이며, 법관의 직책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재판공개 원칙을 헌법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법원의 비공개 결정의 요건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 엄려될 경우를 부가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다짐하고 있다(동조 단서). 그리고 일반 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권은 헌법위원회의 설치와 더불어 헌법위원회에 이관시키고 있으며(109조 1항 1호), 대법원의 정당해산에 관한 관할권도 헌법위원회에 이관시키고 있다(109조 1항 3호). 이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의 관할을 전담한다는 이유에서 당연히 이관된 것이라 하겠다.

9. 헌법위원회

새 헌법은 헌법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정함으로써 위헌법률심사제의 제도적, 그리고 효율적 기능을 제도화하였다(109조).

위헌심사권의 주체는 법률심사를 통한 입법부의 통제기능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당연히 독립되어야 함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구 헌법에 있어서는 미국식의 사법권 우위국가제에 입각한 위헌심사제를 채택하였었다. 그 결과 ① 사법 심사제의 전통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오는 이 제도운영의 미숙, ② 일반법관의 헌법재판에 대한 비전문성, 그리고 ③ 법관이 보수성에서 오는 시대착오적 오판의 경우에서 오는 국가기능의 효율화의 저지 등으로 이 제도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만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새 헌법은 위와 같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륙식인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의 헌법위원회식 위헌심사제를 채택하였다.

헌법위원회의 관할권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외에 탄핵심판과 정당의 해산 결정 등 헌법재판권을 갖는다(109조 1항).

10. 기본권의 보장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본질적 부분에 속한다.

새 헌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태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다만, 구헌법의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는 법률의 개별적 보류(그 예로 10조, 20조) 이외에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 일반적 유보(留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게 했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법률의 개별적 유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률의 일반적 유보에 관한 제 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제한했다. 그러나 새 헌법에 있어서는 법률의 일반적 유보 대신에 개별적으로 각 기본권에 대하여 법률의 개별적 유보를 인정했다.

물론 법률의 일반적 유보나 개별적 유보는 그 성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새 헌법의 기본권의 규정에 있어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법률의 유보에 의하여 제한하게 했으나(18조), 그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한시키고 있다(32조 2항).

또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그 제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의 기준과 그 절차를 법률로서 규정하게 한 것(20조 2항), 군인·군속·경찰관 및 그 밖의 법률로 정한 공무원이 전투훈련 또는 그 직무에 관계되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을 받게 한 것(26조 2항), 그리고 법률이 정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국가적 또는 국민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단체행동권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29조 3항) 등이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1. 경제조항

헌법의 경제질서에 있어서도 새 헌법은 구 헌법의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새 헌법에 있어서도 그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개인의 창의와

책임을 존중하는 자유경제와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국가가 그것을 규제하는 혼합경제의 원칙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다만, 새 헌법에 있어서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117조 2항)과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개발을 위한 계획을 국가가 수립할 수 있게 한 규정(120조)을 추가했다.

12.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새 헌법에 있어서도 그대로 아무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의회만은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빈곤과(현재에 있어서는 자기 재정으로 자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겨우 서울·부산 정도이며, 그 밖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그 재정의 7~8할을 국가의 보조에 의존함) 또한 지방선거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유지운영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는 까닭이다.

13. 헌법개정의 절차

새 헌법은 헌법개정의 발의를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제안케 하고 있다(124조 1항).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124조 2항 전단, 126조 2항),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케 하였다(124조 2항 후단, 41조 1항 2항).

대통령의 발의에 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시키는 이유는 동헌법 제49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국민표결

제와 동일하게 한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다음에 국회에서 제안의결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로 확정케 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새 헌법의 기본이념이 조국의 평화통일 지향에 있으므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헌법상 지위가 실질적으로도 정상에 있음을 보장하고, 둘째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에 의해서 직선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온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므로 개헌절차에 있어서는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합치된다. 셋째로, 우리 헌법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유례가 드문 경성화(硬性化)된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변천에 따른 신축성이 없으므로 오히려 헌법파괴의 위험성마저 있다.

이러한 신축성의 가능과 위험성의 예방이라는 근거에서 새 헌법은 절차적 간이(簡易)에서 오는 연성화(軟性化)를 기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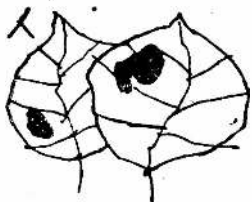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기찬 예지와 불퇴전의 용기 그리고 철통같은 단결이며, 이를 활력소로 삼아 어렵고도 귀중한 남북대화를 더욱 굳게 뒷받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체제의 시급한 정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할지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 민주체제처럼 취약한 체제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력 배양을 가속화하고 이를 조직화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력을 알차게 기르지 못하고 이를 조직화하는데 실패하고 만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계사의 진운에서 낙오되고 말 것이며, 조국의 평화통일도 한낱 부질없는 꿈으로 화하고 말 것입니다.

편집실을 미스즈



○...11월.

햇빛이 건강하게 비껴 내리는 땅 위로 가을이 익는다.

가을은 「맺음」의 계절.

「맺음」의 의미는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모한 환희를 알게 해준다.

하나의 「영광된 맺음」으로 보람과 사랑이 가득한 가을을 보내고 싶다.

<임>

○...이제 공군 창설 23주년을 맞게 되었다.

푸르른 하늘에의 꿈을 안고 갖은 험로를 극복하면서, 대한의 하늘의 수호자로서 이제 그 위용을 세계에 자랑하게 자랐다.

막강한 전투력과 전술전기의 연마로 보다 나은 내일을 다짐하며, 조용히 우리의 생일을 자축해 보자. <전>

○...여러가지 제한된 여건 속에서 도덕적인 책자를 꾸민다는 것은 껍어려운 일이었다.

「보는 신문, 읽는 잡지를 만들자」는 것이 새 편집자의 의도요, 케치프라이즈이다.

무거운 논문들과 흥미없는 글들은 배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만은 되질 못했다.

○...연이은 교재창의 사정 때문에 제때에 책이 나오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침수로 불운을 맞았는가 하면 교재창의 이동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곤 하였다.

○...편집실에 새식구들 맞이하였다. 여 영부편권이 독자 여러분을 위하여 또 동분서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을이면 결실을 맺고 싶었던 미스 임이 인생의 큰 수확을 걸이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의 행운을 빌다.

○...이 잡지를 내놓기 위하여도 많은 사람이 애를 썼다. 특히 이 제철병장의 오밀조밀한 그림솜씨는 이 잡지의 얼굴을 범모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신 찬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대령 홍순옥
 편집실 전화 69-3511, 406-3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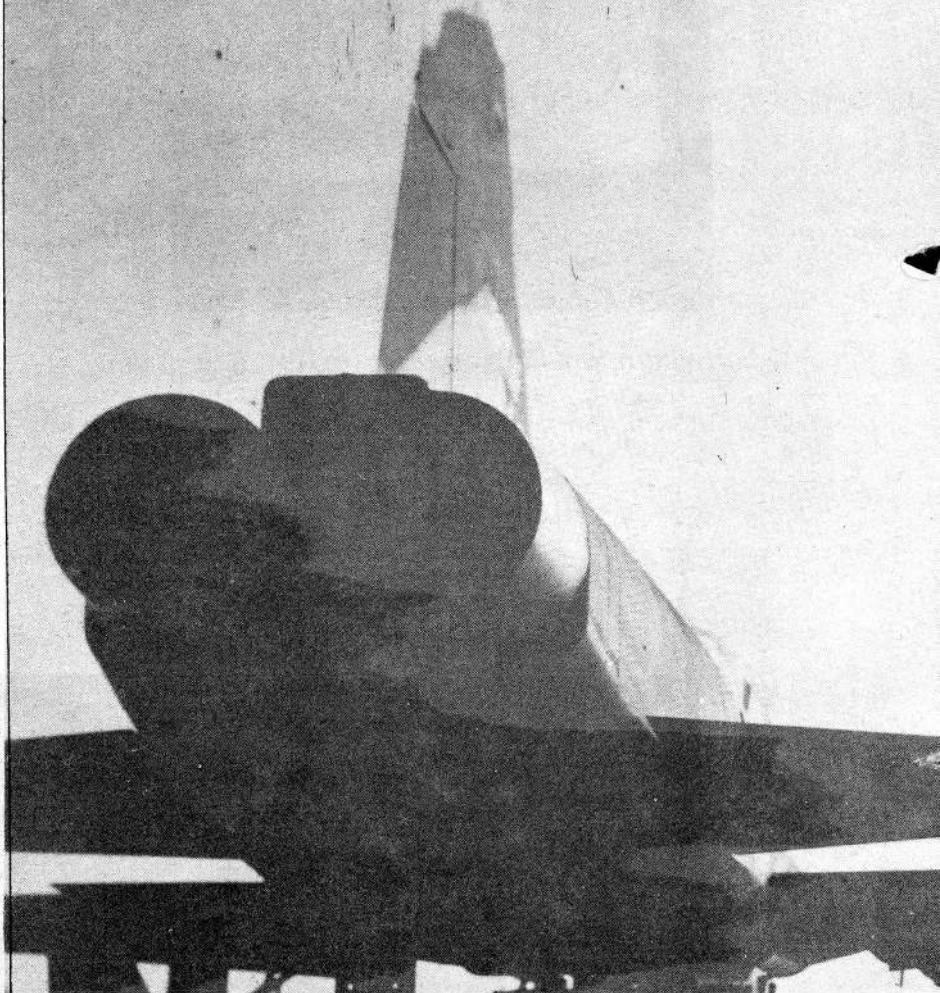
미 제 5 공군 부사령관 취임인사차 옥총장 예방
신임 미 제 5 공군 부사령관 「퍼레리」소장이 9월 7일, 취임인
사차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공군 주요지휘관 회의

공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8월 17일, 옥 만호 참모총장의 주재로
공군본부 제 1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정예공군되자